장 편 소 설

남해의 오솔길

현 명 수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장 편 소 설

남해의 오솔길

현 명 수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주 요 인 물

민숙이　차기완의 둘째며느리

차기완　마진시 시장고문

차상준　차기완의 둘째아들

박철우　이전 마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정덕　마진시녀맹부위원장

채영학　마진시경찰서 사찰계장

재클린　미군첩보장교

다나까 야스꼬　이전 일본헌병대 장교

장편소설 # 남해의 오솔길

영광만이 아니라 시련도 많았던 우리 조국 청사에는 력사적사명을 주저없이 한몸으로 맡아안은 순결한 인간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조국의 분렬과 통일이라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과연 무엇을,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주인공은 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남편과 자식,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는 평범한 녀인이였지만 민족분렬의 위기가 박두했을 때 서슴없이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창건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선다. 그 길에서 눈물도 슬픔도, 가슴아픈 희생도 겪으며 조국청사에 붉은 피를 바친 주인공과 동시대인들은 오늘도 말한다.

그대가 진정 이 나라, 이 겨레의 참된 아들딸이라면 통일애국에 살라고!

차 례

푸른 번개 번쩍이고 천둥이 울다 ……2

제1장 뜨거운 여름 ……17

제2장 길을 떠난 사람들 ……150

제3장 덫 ……227

제4장 삶과 죽음 ……287

푸른 번개 번쩍이고 천둥이 울다

어둑침침하고 우중충한, 무겁고 답답한 구름장들이 서남쪽하늘끝에서 서로 엉키고 또 엉키더니 광풍을 앞세우며 서울상공으로 꾸역꾸역 밀려온다. 재앙의 덩어리같이 기분나쁜 먹구름장은 탐욕스러운 혀를 날름거리며 붉고 둥근달곁을 맴돌면서 기회를 노리더니 별안간 닝큼 삼켜버렸다. 그러자 회초리처럼 휘친거리면서도 면도날처럼 예리한 칼로 꽉 막힌 장막을 마구 베여내듯 새파란 섬광이 캄캄한 밤하늘을 쭈욱 가르며 지나갔다. 삽시에 잔개미가 기여가는 그림자도 보일듯이 사위는 눈부시게 밝아졌다가는 더더욱 깜깜해졌다.

이어 하늘을 통채로 빠개는듯한 요란한 천둥이 울렸다. 우뢰가 한번 터지자 온 도시상공이 금시라도 무너져내릴듯이 꽝 꽈르릉— 하는 비명을 연방 내지르더니 마침내 주먹같은 비방울을 후두둑후두둑 떨구었다.

《나의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였다오.》

석쉼한 목소리가 호텔 특등실의 공허한 방안을 울렸다.

비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창문가로 바투 다가선 그는 푸른 섬광이 련이어 번쩍거리는 밤하늘을 슬픈 눈길로 내다보고있었다.

《<그 어떤 재난도 종당에는 끝날 때가 있으며 음침한 날씨도 언제건 맑을 때가 있다.>》

창문유리에 비낀 그의 얼굴이 우울한 인상으로 마주본다. 우뚝한 코는 시름에 눌리워 꼬부라지고 밤낮으로 파고드는 불안과 가책으로 눈확이 움푹 패여들었다.

그의 등뒤에서 녀인의 가는 목소리가 위로하듯 따라왔다.

《나이도 적지 않은 단장님이 불쑥 아버님을 회상하니 제 감정도 좀 별래지는군요.》

그는 고개를 맥없이 저었다.

《나는 더이상 단장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입안에서 웅얼거렸다.

《제발 조선의 백성들이 이 메논을 한시바삐 잊어주기를 바랄뿐이요.》

녀인이 붉은 주단우를 사푼사푼 걸어왔다. 녀인의 치마자락이 쓸리는 소리가 부드럽게 사각거렸다.

백설같이 흰 녀인의 손이 메논의 어깨우에 살며시 얹어졌다.

《정말 그렇게 될가요?》

녀인의 더운 입김이 메논의 방울이 축 늘어진 귀를 간지럽혔다.

《아마도 이 나라의 백성들은 오래도록 기억할거예요. 이해 1948년에 강행된 5.10단선을 꼽을 때마다 백성들은 당신과 이 모윤숙을 생각하게 될거예요.》

《그건 아주 좋지 않소.》 하고 메논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제주도에서는 수천명을 학살하였다더군.》

《아마 제주도 백성의 반은 죽을거예요.》

《제발 그 늙은 령감님에게 말 좀 하구려. 총칼로 피바람을 몰아가지고는 온전한 정사를 펼수 없다고 말이요.》

모윤숙의 손이 메논의 마른 어깨를 다독였다.

《진정하세요, 메논.》

모윤숙이 말했다.

《리승만은 당신과 나처럼 아무런 힘도 없답니다. 이름만 요란한 <대통령>이지요. 실상은 룡상에 올려놓은 늙은 고양이에 지나지 않는걸요.》

모윤숙은 다시 주단우를 곧게 뻗은 두다리로 사푼사푼 걸어갔다. 그는 스위치를 눌러 방안의 무리등을 껐다. 탁자에로 다가가 그옆에 세워진 장식등마저 꺼버렸다.

방안은 삽시에 칠흑같은 어둠속에 잠기였다.

창밖에서 또다시 번쩍하는 섬광이 빛났다. 그리고 땅이 꺼지고 산이 통채로 무너지는듯한 꽝 꽈르릉— 하는 뢰성이 련이어 울렸다.

《아이, 깜짝이야.》

모윤숙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만 성냥을 떨구었네.》

메논은 방안쪽으로 돌아섰다.

어두웠다. 방위를 전혀 가늠할수 없을만치 캄캄했다.

《어디 있소?》

어둠속에 대고 메논은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메논은 귀를 강구었다. 어둠속에서 쌔근거리는 녀인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다시 푸른 번개불이 창문유리를 번쩍 비치며 지나갔다.

방안 한복판에 불룩한 가슴에 두손을 가볍게 얹고 서있는 모윤숙의 모습이 얼핏 드러났다.

메논은 손을 앞으로 뻗치며 발을 내짚었다.

《제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그는 녀인이 들으라는듯 소리내여 투덜거렸다. 그래도 앞쪽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메논은 탁자나 의자에 걸채여 넘어지는 실수가 없도록 더듬질하며 녀인이 있던 곳으로 짐작되는 방안중심으로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깊은 무덤속을 걷는것같군.)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물큰한 육체가 그의 가슴에 안겨들었다.

《메논.》

아마도 모윤숙은 발소리를 죽인채 메논을 향해 몇걸음 마주 온듯 싶었다.

창밖에서 또다시 섬광이 번쩍거렸다.

푸른 번개빛에 서로 엉켜붙은 남녀의 자태가 드러났다.

《메논.》 하고 모윤숙은 메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사뭇 정내가 푹 배인 목소리로 유혹하며 속살거렸다. 그 녀인의 달큰한 체취가 향긋한 분내에 섞여 풍겨왔다.

메논은 휘청거렸다. 별안간 몇달전의 추운 겨울밤이 돌이켜졌던것이다.

그는 숨을 헉— 하고 내쉬며 가슴을 들먹거렸다. 모윤숙과의 포옹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메논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통채로 무너져버리던 그때의 좌절감과 함께 피줄속으로 사납게 들뛰는 야성의 열기를 다시 느끼고있었다.

《아무리 강의한 장부도 아름다운 미인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법이다.》 하고 메논은 그날이후의 자기 행위를 이렇게 분식해보았다.

아니, 그렇게 노력하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극단의 배우처럼 애쓰며 연기했다는 표현이 맞을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녀인을 보는 순간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잊었더라.》라는 감상적인 시어는 차거운 외교관인 메논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지금도 메논은 모윤숙이 품에 안겨드는 그 짧은 순간 아무래도 자신이 이 녀인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한 사나이의 흉내를 당분간은 계속해야겠다고 타산했다. 이번에도, 이 반도땅을 떠난 다음에도 얼마간은 그리해야 할것같았다.

그는 온 세상이 자기를 《애정》때문에 《본의》를 잊은 사나이, 《미인계에 롱락된 불행한 사나이》로 여기며 차츰 잊어주기를 무척 바랐던것이다. 상대역을 그래도 이 반도땅의 《녀걸》로 꼽힌다는 모윤숙이 맡은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메논.》

모윤숙은 사내의 품에 화끈 달아오른 볼을 묻은채 속삭였다.

《이렇게 헤여진다니 정말 아쉽군요.》

이미 속마음을 다지고있었지만 연극배우의 기질이 전혀 없는 메논의 감정은 련정에 설레이는 녀인의 심정에 대응할만큼 따라서지는 못했다. 하여 내심과 달리 무뚝뚝한 대꾸가 툭 튀여나갔다.

《상봉과 리별은 인생의 다반사요.》

《우리가 다시 만날수 있을가요?》 하고 모윤숙은 지꿎게 물었다.

메논은 여전히 싸늘한 어조로 대꾸했다.

《오늘이 마지막밤으로 될거요.》

《그러길 바라겠죠?》

《그렇소.》

기분이 상한 모윤숙은 메논의 품에서 떨어졌다.

성냥을 북 긋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작은 불길이 확 일었다. 가느다란 손가락끝에 들린 성냥불이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은초대에 꽂혀진 장미빛양초에 인차 불이 당겼다.

모윤숙은 차갑게 내뱉았다.

《밖에는 진드기같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새날을 맞아야 할가봐요.》

메논은 머리를 끄덕여 동의했다.

모윤숙은 분한 심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우정 오래동안 레코드판을 뒤적거렸다.

어차피 모윤숙은 메논과 한배에 탄 신세이다. 이미 되돌릴수 없는 시간은 멀리 흘러왔고 메논과 모윤숙이 탄 배는 어지러운 탁류속에 어쩔새없이 휘말려들었다.

이윽고 전축의 금빛나팔에서 왈쯔곡 《아름답고 푸른 두나이》의 선률이 흘러나왔다.

모윤숙에게로 다가간 메논이 손을 내밀었다.

모윤숙은 다리를 살짝 굽혀 서양식인사를 우아하게 하고는 희고 보드라운 손을 메논의 어깨우에 가볍게 얹었다.

메논의 손이 모윤숙의 가느다란 허리를 안았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녀인이요.》

메논은 방안복판으로 그를 이끌며 춰주었다. 모윤숙은 감사의 표시로 눈웃음을 지었다.

그는 나긋나긋한 허리를 묘하게 저으며 속눈섭이 길다란 눈까풀을 연신 깜박거렸다. 그러나 메논은 교태를 함뿍 머금은 모윤숙의 시선을 랭랭히 마주보며 정서적인 선률에 맞춰 발을 기계적으로 내디딜뿐 여전히 과거의 쓸쓸한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지금도 메논은 이곳에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단장으로 온 자체가 인생의 최대실수였다고 여겼다. 다시 세월을 되돌릴수 있다면 그는 다리를 부러뜨리고 장기 하나를 떼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곳으로 오지 않았을것이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에서는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소.》

메논은 울적하여 내뱉았다.

《숱한 군인들과 백성들이 희생되였소. 아마 그 애매한 죽음이 이곳에서도 되풀이될거요.》

모윤숙은 고운 눈을 찡그렸다. 메논은 이 고요한 밤에 미인과 춤을 추면서도 기분나쁜 소리만 일관하게 뱉고있다.

모윤숙은 빨간 입술을 비죽거리며 심통을 부렸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어조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심정을 난 충분히 리해하니까요.》

메논은 한숨을 내쉬였다.

《결코 다 리해할수 없을거요.》

모윤숙이 뾰로통하여 쏘아붙였다.

《난 다 리해하고있어요. 다만 내가 알고싶은 사실은 한가지뿐이예요. 그때 그 봉투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메논은 등에 칼이라도 박힌듯이 흠칫 놀랐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허둥거리며 좌우를 급히 살폈다.

모윤숙의 자지러진 웃음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여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의 비밀은 영원히 나 하나만이 알거예요.》

메논은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가 모윤숙을 처음 본것은 올해 1월 옛 조선왕궁의 건물이였던 인정전에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 환영연회가 있던 날이였다. 격조높은 노래소리가 궁안의 홀을 가득 채울 때 《여기 조선의 녀류시인을 소개합니다.》 하는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30대녀인이 메논앞에 나섰다.

《모아가씨, 위원단 단장 메논씨요. 인사를 나누시지요.》 하고 소개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모윤숙입니다.》

녀인은 생글거리며 메논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도록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아가씨, 우리 인디아에 오신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지만 꼭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신다지요? 우리 인디아의 시인들을 아십니까?》

《타고르와 그의 시들을 사랑한답니다.》

《아, 저는 타고르선생의 숭배자입니다. 마침 제게 타고르선생의 선집이 있는데 기념으로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모아가씨, 연회가 끝난 후 댁까지 모셔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더없는 영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만났다. 그후 덕수궁에서 열리는 《유엔조선위원단》의 회의에서도 기자들과 함께 나타난 모윤숙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매일 밤 열리는 연회에서 모윤숙은 생글거리며 다가와 메논과 이야

기를 나누고 춤을 추었다. 신기하게도 《유엔조선위원단》의 숙소 맞은편에 모윤숙의 집이 있었다. 이국에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메논은 자연히 모윤숙의 집에서 주말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어느날 모윤숙이 메논에게 심중하게 물었다.

《메논, 리승만박사가 어때요?》

메논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나는 어떤 개인의 주장보다 전체 조선사람의 의사를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박사가 한번 만났으면 하더군요. 그는 남북협상을 통해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객들과는 정견을 달리한답니다. 리박사는 공산정권을 반대하는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지요.》

《신이 하나로 합쳐놓은것을 사람이 둘로 가를수는 없는 법입니다.》

메논은 유신론자였다. 그리고 완고했다.

모윤숙이 메논을 만나러갈 때 리승만은 간곡히 당부했었다.

《윤숙이, 이제 단독선거를 하지 않으면 종당에는 이 땅도 적화되고말거야. 헌데 단독선거를 하자니 세계를 납득시킬 명분이라는게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이 추동하여 유엔의 조사단이 이곳에 온거야. 그런데 단장이라는 메논마저 남북협상을 통한 총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던. 윤숙이, 유엔이 우리가 원하는 단독선거를 결정하도록 메논을 설득시켜줘야겠어. 윤숙이만 믿어.》

모윤숙은 속이 탔다. 하지만 저로서는 망두석같은 메논을 움직일 도리가 없었다.

메논은 모윤숙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였다. 그는 정치적론쟁은 피하고 문학이야기만 하였다. 그러는 속에 어느덧 시간은 가고 메논이 유엔소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떠날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다. …

《정말 그날 밤의 일은 평생 잊을수 없을거예요.》

모윤숙은 메논의 가슴에 화끈 달아오른 볼을 기대며 속삭였다. 메논에게는 돌이키기 싫은 과거였다.

메논은 변명하듯 중얼중얼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였소. 2차세계대전이 끝나갈무렵 얄따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루즈

벨트는 쓰딸린에게 조선은 신탁통치를 받으며 그 기간은 20년 내지 30년이 될것이라고 했소. 1945년 8월초 쏘련이 대일전쟁을 선포하고 관동군을 격퇴하며 남하하자 오끼나와에서 일본군에게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던 미국은 황급히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자는 분담안을 제기했고 결국 조선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쏘련군관할지역과 미군관할지역으로 나뉘였지. 그해 12월 모스크바회의에서 쏘미 량국의 조선에 대한 후견통치기간을 5년이내로 할데 대해 결정되자 돌연 미국은 립장을 바꿔 신탁통치를 반대해나섰고 그로 하여 조선의 38도선이남지역에서는 신탁, 반탁을 둘러싼 정치세력들간의 충돌이 격화되였지. 그것으로 인해 정치정세가 혼란스러워지고 쏘미 량군의 철수문제까지 제기되자 미국은 유엔에 조선문제를 상정시켰고 결국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게 조직되여 불행하게도 이 메논이 그 꼭두각시로 오게 된것이였소.》

모윤숙은 침울한 메논의 기분을 달래듯 말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돌아갈 조국이 있지 않나요. 난 이곳에 북과 같은 인민정권이 서면 더는 살아갈수가 없어요. 왜정시기 <조선녀성들아, 대동아공영권을 지키는 녀전사가 되여라.>라고 선동한 나는 친일파로 숙청되거나 정처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거예요. 외진 산속에서 백이와 숙제처럼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숨어지내기에는 내 젊은 인생이 너무도 아까워요. 그렇다고 뉴욕, 빠리, 런던 하고 떠돌며 망명객으로 구걸하며 구차하게 살고싶지도 않고요. 메논, 나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어요. 수난과 오욕의 피바다를 발가벗고 헤쳐가야 한대도 난 갔을거예요.》

메논은 말했다.

《조선은 단일민족국가요. 다민족국가인 우리도 인디아, 파키스탄으로 갈라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였는지 당신은 모를거요. 인디아와 파키스탄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종족집단이기에 갈라졌다고 하지만 조선에는 그럴 리유조차 없소. 지금도 인디아에서는 한가정이 깨여지고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생리별을 하고있다오. 나라의 꽃같은 미래들이 부모를 잃고 산천을 헤매고있소. 집들이 불타고 시체는 들을 덮는다오. 그게 정녕 서로 다른 신앙의탓일가? 과연 파키스탄과 인디아의 신들이 서로 배척하고 싸움을 추동하였기때문일가? 아니요. 인디아와 파키스탄은 영제국이 뿌려놓은 재앙의 씨앗에서 움터난 불운의 산물

일뿐이요. 그래서 난 리승만의 단선을 반대했던거요.》

《그러나 결국은 유엔소총회에서 리승만박사의 <단독정부>수립을 지지하였고요.》

《결국… 그리하였지…》

메논은 쓸쓸하게 뇌였다.

메논이 유엔소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려던 그전날 밤도 모윤숙은 메논을 만나기 위해 호텔로 가고있었다.

늙은 리승만은 주름진 손으로 모윤숙의 희고 매끈한 손등을 쓸며 어린애처럼 애원했었다.

《윤숙이, 미안하지만 메논에게 다시 가야겠네. 메논은 여전히 고집을 쓰고있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게 끝장날지도 몰라. 나라의 흥망이 달린 중대사야. 미스터 메논에게 어서 전화하라구.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여러날을 메논과 사귀여온 모윤숙은 이번에도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안가겠다고 앙탈을 할수도 없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모윤숙은 이번에도 막연한 기대를 품은채 리승만의 처소인 리화장을 떠났다.

그가 리승만이 내여준 차를 타고 얼마 못왔는데 운전사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였다.

어쩔새없이 앞의자에 이마를 쪼은 모윤숙은 껄쩍했던 심사까지 섞여 화를 냈다.

《무슨 운전을 이렇게 해!》

운전사는 제탓이 아니라는듯 《저 미친놈의 차가…》 하고 변명하며 창문유리를 황급히 내렸다.

어떤 검은색의 승용차가 갑자기 선행하면서 앞을 가로막았던것이다.

운전사가 고개를 내밀고 야! 하고 소리치려던 찰나에 그 차의 뒤문이 벌컥 열리고 불머리의 미국인이 내려섰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30대중반의 사나이였다. 값비싼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은 불머리는 고개를 거만하게 쳐들고 주위를 휘둘러보고는 검은 안경을 낀채로 뚜걱뚜걱 다가왔다.

운전사의 목이 위축되여 자라처럼 쑥 기여들어갔다.

불머리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차문을 훌쩍 열고 제잡담 모윤숙의 옆자리에 들어가앉았다. 그리고는 서툰 조선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모아가씨.》

모윤숙은 속눈섭이 곱게 휘여든 눈살을 찌프렸다.

《누구시죠?》

《일전에 한번 뵈운것같은데요.》

불머리가 안경을 벗었다.

그제서야 모윤숙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 환영연회에서 그를 만난 기억이 났다.

《아, 그 하우스만기관의…》

모윤숙은 혀를 깨물었다. 함부로 입을 나풀거려서는 안된다는 위구를 느꼈던것이다.

불머리는 대수롭지 않게 스쳐버렸다.

《재클린입니다.》

《예, 재클린. 반가워요.》

모윤숙이 손을 내밀었다. 재클린은 고개를 숙여 그의 윤기나는 손등에 입술을 살짝 대였다. 검은색의 승용차가 마치 인솔이라도 하듯 달렸다.

모윤숙은 불안했다. 재클린은 다름아닌 하우스만기관에서 중임을 맡고있다고 했다. 그 하우스만기관이라는것이 이 땅에서는 광활한 우주의 무덤이라는 검은 구멍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남조선에서 민간뿐만 아니라 군부에도 세력을 뻗쳐 각종 사찰을 진행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도 했다. 거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미군정장관 하지도 하우스만기관의 책임자만은 정중한 자세로 맞이하고 바래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하우스만이라는 인물을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며 그 기관의 실체를 아는 사람도 거의나 없다.

모윤숙은 그런 유령같은 비밀기관의 막대한 권능과 무시무시한 마력같은것을 재클린이라는 이 불머리의 방자한 언행과 위압적인 몸동작에서 써늘하게 감수하고있었다.

재클린은 말이 적었다. 그는 양복주머니안에서 누런 봉투를 하나 꺼냈다. 겉뚜껑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이걸 메논에게 전하십시오.》

모윤숙은 얼결에 받아들며 물었다.

《언제요?》

《그게 어느때이겠는지는 아가씨가 잘 아실겁니다. 만일 전하지 않고 내게 되돌려줄수만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닐가요?》

재클린은 전하라는것인지 전하지 말라는것인지 대중을 잡지 못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아가씨의 일이 아주 잘되리라고 확신한답니다.》

올 때처럼 재클린은 문득 차를 세우고 내렸다.

모윤숙은 재클린이 넘겨준 그 봉투가 싫었다. 아무런 표식도 없는 누런 봉투속에서 교형리들의 피묻은 살인흉기에서와 같은 섬찍한 살기가 느껴졌다.

모윤숙이 예견한대로 메논은 고집불통이였다. 그를 설득하기에 지친 모윤숙은 하는수없이 누런 봉투를 내밀었다.

《누군가가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메논은 모윤숙과 봉투를 번갈아 보다가 심상하게 받아들었다.

봉투를 개봉한 메논은 갑자기 낯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급히 봉투에서 나온 단 한장뿐인 문서를 난로안에 던져넣었다. 꼬부랑글씨가 씌워지고 벌건 손도장이 찍힌 엷은 종이장은 삽시에 불길에 휩싸였다.

메논은 봉투마저 신경질적으로 불길속에 던졌다. 그리고는 꼬챙이를 들어 벌겋게 달아오른 숯을 마구 헤집었다. 하얀 재가 너불너불 날아올랐다.

메논은 넋잃고 그것을 마냥 바라보기만 하였다.

모윤숙이 참다못해 그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그는 와뜰 놀랐다.

메논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모윤숙을 보고있었으나 마치 도깨비에게 쫓겨 천길낭떠러지에 매달려 구원을 청하는 양치기소년마냥 겁에 질려 허둥대고있었다.

《당신은… 그걸… 봤소?》

모윤숙이 봉투속의 문서를 꺼내보지 않았는지 우려하여 묻는 말이였다.

모윤숙은 고개를 저었다.

메논은 다행이라는듯 숨을 후 내쉬였다. 그리고는 재차 따져물었다.

《대체 누구요? 저 봉투를 준 사람이?》

모윤숙은 메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꼭 알아야겠어요?》

메논은 모윤숙의 눈길을 피해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생각을 달리한듯 고개를 빠르게 저었다.

메논이 듣지 않겠다는 시늉을 보이자 모윤숙은 별안간 그가 여간 괘씸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이런 세계로 떠밀어넣은 리승만과 식민지의 딸로 태여나 종주국의 창녀로밖에 될수 없었던 수치스러운 지난날의 운명을 저주하며 쏘아붙였다.

《미국인이였어요.》

《그만하오.》

《하우스만기관의…》

《그만…》

《재클린이라는 불머리…》

《그만…》

《길가에서 갑자기 차를 막고…》

《그만, 그만하라니까.》

메논은 두귀를 꽉 막으며 주저앉았다. 모윤숙도 숨을 헐떡거렸다.

한참후에야 간신히 진정한 메논은 불쑥 말했다.

《당신은 오늘 밤 그 어디에도 가면 안되겠소.》

모윤숙은 일순 어리둥절했다.

메논의 목에서 울대가 빠르게 오르내렸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겠소.》

사정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여태껏 메논은 이런 투로 모윤숙과 대화한적이 없었다.

모윤숙은 생각했다.

(한걸음이 위대한것을 우스운것으로 만들고 또 한걸음이 우스운것을 다시 위대한것으로 만든다.)

모윤숙은 이것이 리승만과 자기를 위해 좋은 징조라고 여겼다.

아니나다를가 이튿날 비행기에 오른 메논은 유엔소총회에 참가하여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중립세력과 이를 지지한 남조선의 사회정당대표들과의 약속 그리고 인디아정부의 지기들과 자기의 종래의 립장까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리승만이 고집스레 주장하는 단독선거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가능한 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한

다.》는 미국측 제안이 유엔소총회에서 채택되게 되였다.

끝끝내 38도선을 경계로 한 조선의 분렬이라는 비극의 불구름은 예측이 아닌 현실로 되여 조선반도로 밀려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승만은 환성을 질렀다.

《역시 모윤숙이야. 그가 큰일을 해냈소!》

그러나 모윤숙은 알았다. 결국 메논을 움직인것은 애정도 의무도 아니였다. 그것은 공포였다.

재클린이 넘겨준 봉투속의 글자들이 올가미가 되여 메논을 파멸의 벼랑끝에 몰아세웠고 결국 메논은 당당한 정의와 개인의 부끄러운 비밀을 맞바꾸었다. 그 봉투속의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였는지 모윤숙은 물론 알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 문서의 내용은 앞으로도 영원한 비밀로 남아있을지 모른다.

서울로 돌아온 메논은 이번에는 제가 먼저 모윤숙을 찾았다.

이미 연극은 시작되였다. 그 연극을 중도에서 그만둘수는 없다. 이제 숱한 사람들이 메논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그의 성스러운 사명감은 한순간에 유린되였다. 그러나 그것이 다름아닌 미모의 한 녀인때문이라고 력사에 남겨지기를 메논은 무척 바랬다.

메논은 노래선률에 발을 맞추며 두덜댔다.

《미국인들은 참으로 성의가 없소. 이번 5.10선거때 우리 유엔성원들은 오히려 감시를 받았소. 그래도 우린 한마디 항의도 없이 그대로 감수했소. 선거구마다에 경찰들이 늘어서고 선거표를 낸 백성들이 웬 까닭인지 무리로 련행되고 또 괴물같은 장갑차가 선거함을 가로채싣고 거리 한복판을 질주하며 으르렁대였으나 우리는 눈을 감아버렸고 귀까지 막았소. 그런데도 유엔소총회가 열리는 빠리행 려행비용을 우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는거요. 다된 밥에 재라도 떨굴가봐 겁이 난게지.》

메논이 투덜거리자 모윤숙은 물었다.

《메논, 두려운가요?》

메논은 이젠 될대로 되라는듯 심드렁한 태도였다.

《지옥에 가면 염라는 이렇게 묻는다더군. <너에게 어떤 벌을 달라느냐?>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대답한다더군. <제가 받을 형벌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을 주옵소서.>》

모윤숙은 그 속말을 인차 짐작했다.

《당신의 소원대로 해드리죠.》

말뜻을 간파하는 모윤숙이 귀여웠다. 메논은 감동되여 말했다.

《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잊지 못할거요.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소. 그리고 현숙한 녀인이요.》

《아주 타락한 <현숙한> 녀인이라는거죠?》

메논은 머리를 저었다.

《내 인생은 이제 몇날 안남았소. 그러나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아직 젊소.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떳떳한 길을 찾소.》

모윤숙은 씁쓸하게 대답했다.

《내 인생의 오솔길은 이미 멀리로 흘러왔어요. 그 길에는 잡풀만 무성하답니다.》

《또 다른 길을 선택할수 있지 않을가?》

모윤숙은 입술을 깨물더니 화난 투로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뒤돌아보며 울며 지내고싶지는 않아요. 절개를 버린 녀인이라고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사는건 아니죠. 력사는 그런 녀인들이 보란듯이 현란하고 황홀한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적지 않죠. 고대에짚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그러했고 또 중국 당나라의 양귀비가 그러하죠. 어쩌면 세월은 그들을 비난하고 후세가 그들에게 돌을 던져도 실상은 그들이 바람따라 돛을 달았기에 명성을 남긴거예요. 이 반쪽짜리 조선반도에서 난 평생을 그렇게 살거예요.》

(황홀하게 치장된 궤변에 지나지 않소.) 하고 메논은 쏘아박고싶었다. 그러나 잠자코 률동에 맞추어 발을 움직였다.

모윤숙은 나른하여 말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겠군요.》

메논은 느릿느릿 말을 받았다.

《아마도 이곳의 여름은 꽤 뜨거울거요.》

력사기록

주체37(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가 개최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의 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조성된 정치정세와 장래의 투쟁대책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의 단독선거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의하여 꾸며졌으며 조선인민의 절대다수는 이 선거를 망국적선거로 인정하고 거부하였다는것,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총칼의 위협밑에 폭력과 허위로 조작된 남조선《국회》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국회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미제가 비법적으로 조작한 이른바 남조선《국회》에서 남조선《정부》가 날조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폭로배격할것이다.

2. 전체 조선인민은 전조선적인 선거를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이다.

3. 최고인민회의와 공화국정부는 남북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동시에 철거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일치한 결의에 따라 전조선지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남조선에서는 공개적인 투표가 곤난한 사정을 고려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1 000여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그들이 38도선을 넘어와 8월 25일 해주에서 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남조선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게 하였다.

…

제 1 장

뜨거운 여름

1

1948년 8월 16일 새벽 조선남해연안의 마진시교외에 우뚝 솟은 마룡산의 동북쪽골짜기에서 한구의 시체가 나졌다. 정확히 말하면 골짜기를 벗어나 숲구이막으로 올라가는 좁은 오솔길옆에서 나타났다.

15일 저녁 숲을 팔러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튿날 새벽에 돌아오던 로인이 시체를 처음 발견했다. 장에서 지체하다보니 야간통행금지시간이 되여 로인은 하는수없이 남의 집 헛간에서 쪽잠을 잘수밖에 없었다. 이른새벽 북데기를 헤치고 일어난 로인은 숲구이막으로 돌아오던중 이슬에 젖은 수풀속에서 꼬부리고 누워있는 시체를 우연히 보았던것이다.

녀인이였다. 검은 치마며 흰 저고리앞섶이며 온통 검붉은 피덩지가 엉켜붙어있었다.

로인의 신고를 받고 마진시경찰서의 경찰들이 출동했다.

《누구라구?》

사찰계장 채영학은 출근하여 부하들의 첫 보고를 받고는 신경을 도사렸다.

(김인혜라고? 마진시녀맹위원장이 아닌가?! 수배중인 그가 마룡산 골짜기에서 시체로 나타나다니? 누가 왜 그를 죽였을가? 신고를 하였다면 상금을 무둑히 받을수 있을텐데…)

채영학이 녀인의 죽음에 호기심을 가지자 현장을 다녀온 경찰이 장황하게 보고했다.

《녀인은 칼로 짐작되는 아주 예리한것에 복부를 찔리웠습니다. 기여가거나 뒤척인 흔적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아 그 자리에서 절명한것으로 보입니다. 시체밑에도 피가 가득 고여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죽인 후에 옮겨놓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시체를 발견한 령감의 발

자국외에 다른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녀인을 살해한것으로 짐작되는 흉기도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정면에서 녀인을 공격했습니다. 현장에 살인자가 숨어있다가 녀인을 공격할만한 큰 나무나 바위같은 음폐물이 가까이에 없는것으로 보아 아마도 수풀속에 몸을 감추고있다가 녀인이 바투 다가왔을 때 불의에 공격한것으로 짐작됩니다.》

채영학은 따져물었다.

《살인자는 있는데 발자국은 령감것외에 다른것이 없었다?》

《예. 깐깐히 살펴보았으나 없었습니다. 아마도 살인후에 흔적을 없앤것같습니다.》

채영학은 역증을 냈다.

《밥통들, 범죄자는 현장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단지 네놈들이 무식하고 게을러서 찾지 못했을뿐!》

경찰은 된추궁을 받고 목을 움츠렸다.

채영학은 물었다.

《정말 다른 이상한것이 발견된게 없는가?》

경찰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고리에 녀인의 피를 묻혀 동그라미를 그려놓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들이 시체우에 뿌려져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사꾸라나무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지금은 8월이니 사꾸라꽃이 폈다가 질리는 만무하고…》

《뭐라고?》

채영학은 눈을 쪼프리며 따졌다.

《시체우에 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가 있었다구?》

《예. 분명 마른 사꾸라꽃과 잎이였습니다.》

경찰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였다. 그안에는 현장에서 수집한것으로 보이는 사꾸라꽃과 이파리들이 들어있었다.

《저고리는 현재 증거보관실에 있는데 보시겠다면…》

《됐다.》

채영학은 단마디로 잘랐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령감을 들여보내. 내가 직접 심문해야겠다.》

경찰이 나간 후 채영학은 책상을 다독거렸다.

(시체우에 피로 그린 동그라미와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라… 마진지구에서 활약하던 《흑룡회》의 《사꾸라》망의 《검은비수》라는 대호를 가진자의 살인수법이 아닌가?! 유령같은 그자가 살인을 하고나서 그런 흔적을 남겨놓군 하였다. 헌데 대일본제국이 망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가 마진에 다시 나타났다?! 모를 일이야… 정말 그인가? 아니면 그의 수법을 도용하여 수사방향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일가?)

문이 열리고 로인이 들어섰다. 옷소매는 너무 닳아서 실밥이 너덜거리고 팔굽뿐 아니라 가슴언저리에도 숯검댕이가 까맣게 게발려있었다.

로인이 엉거주춤 다가오려고 하자 채영학은 손을 들어 막는 시늉을 했다.

채영학의 뾰족한 눈초리가 로인의 귀뿌리를 훑었다.

(저 령감은 아직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게군.)

마진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마룡산기슭에 초막을 치고 빌어먹으며 살았다.

채영학은 물었다.

《령감이 시체를 제일먼저 발견했다면서?》

《예, 재수없게도 제가 보았지요.》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는 무얼 보았나?》

《보긴 뭘 봐요. 집으로 가고있었수다.》

《그래도 뭔가 이상한걸 보았을게 아냐? 시체에 발이 걸쳐 넘어진 것도 아니고… 시체는 오솔길에서도 한 댓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서? 지금이 한여름이라 풀도 무성하겠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니 생각나우다. 보긴 보았수다.》

《무얼 보았나.》

《검은 그림자같은것을…》

《그림자?》

채영학은 온몸이 귀가 되여 숯구이로인을 쳐다보았다.

로인은 말을 더듬거렸다.

《예. 아니 그림자라기보다… 검은 유령같았다고 할가… 길을 가는데 앞쪽에서 훌 하늘로 날아오르는것같은…》

《검은 유령같은것이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혹시 옆에 있는 나무같은데 기여오른게 아니고?》

《아니요. 하늘로 그냥 훌 날아오르는데…》

《그래서, 사람이던가? 그 유령이라는게?》

《사람은 무슨, 유령도 아무것도 아니우다.》

《아니다?》

《예. 파리우다.》

《파리? 조그마한 파리 말인가?》

《예. 파리떼가 인기척에 놀라 날아오른거지요.》

귀가 솔깃했던 채영학은 이마살을 찡그렸다.

《그러니까 령감말은 파리떼가 갑자기 까맣게 날아올라서 저게 뭔가 하고 다가가니까 그밑에 시체가 놓여있었다는건가?》

《예.》

《그다음은 뭘 보았나?》

《보긴 뭘 봐요. 척 봐도 죽은 사람인데. 놀라서 뒤돌아 뛰여갔수다. 아래마을에 내려와 촌장에게 말했지요. <촌장님, 저기 골짜기에 시체가 있수다. 녀인이우다. 벌써 파리가 쉬를 쓸었어요.> 하고요.》

《그다음 경찰들이 왔고?》

《예, 경찰들이 와서 함께 가자고 합디다. 싫었지만 할수없이 다시 산에 올랐수다.》

《령감이 처음 볼 때와 달라진건 뭐 없었나? 례하면 시체를 옮겨놓았다던가, 어떤 물건이 없어지거나 생겼다던가?》

《그런건 모르겠수다.》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도 보았겠군.》

《뭐라구요?》

로인은 채영학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여 눈을 껌벅거리며 쳐다본다.

채영학은 다시 곱씹었다.

《시체우에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들이 떨어져있었다던데…》

《그런걸 내 알게 뭐요. 어느 미친놈이 죽은 녀인의 시신우에 어떤 꽃이파리가 떨어졌나 세세히 본답디까. 꿈에 나타날가봐 끔찍한데…》

숯구이로인은 낯빛이 파래졌다.

채영학은 더이상 들을 소리가 없을것같았다.

《아, 됐네됐어. 앞으로도 뭔가 이상한게 보이거들랑 제때에 신고하란 말야. 령감, 잘했어. 좋은 일을 했어.》

로인은 코웃음을 쳤다.

《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좋은 일…》

《령감, 몰라서 그러누만. 그년은 어차피 죽을 년이야. 빨갱이구, 수배자거던.》

《그런 내인이였소?》

《그래그래.》

《아까운 녀인이 죽었군.》

로인은 뒤로 돌아서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채영학은 로인의 거동이 맞갖지 않았으나 로인을 되불러세우지는 않았다.

로인이 나가고 대기하였던 경찰이 들어서자 채영학은 물었다.

《죽은 년의 물품들은 증거보관실에 넘겼다지? 그래, 그년의 물품속에 그 무슨 명단같은게 없었어? 례하면 선거명부같은거 말야?》

《없었습니다.》

《그렇다?! 시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립병원 사체실에 있습니다.》

《부검은?》

《아마 지금쯤 시작했을겁니다.》

《말을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가보겠다.》

말을 타고가며 채영학은 생각했다. 김인혜는 분명 선거자들을 찾아다녔을것이다.

지난 한달전에 마진시내에는 삐라가 하얗게 깔렸었다. 삐라에는 《모두다 민족의 총의에 의한 총선거에 참가하자!》, 《통일조선 만세!》라는 구호가 써있었다. 마진시내에도 남조선전역과 다름없이 《계엄령》이 선포되였고 야간통행이 금지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칙이 내려졌다.

《일반통행인은 길가에 절대로 서있지 못한다. 만일 길가에 서있다가 경찰이 행보를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면 경찰서에 련행하여 조사한다.》

미군정에서는 선거선전원들을 색출하여 검거하라는 지시가 연방 떨어졌다. 거리에서 선전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남녀로소 가림없이 즉시 사살했다. 몸에 선거와 관련된 삐라 한장을 품은탓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분명 마진시녀맹위원장 김인혜가 마룡산골짜기에 나타난것이 이번 해주에서 진행될 총선거와 련관되였을텐데 말야… 빌어먹을 명부… 과연 어디에 있을가?)

시립병원에 들어서면서도 채영학은 선거명부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마진시선거명부를 내앞에 가져다놓던가 아니면 당신의 목을 내놓던가 둘중 하나를 택하시오.》 하고 하우스만기관의 남해지구 담당관인 재클린은 채영학에게 경고했다.

채영학은 그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여러명의 선거선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체포하였고 두명은 직접 총살했다. 그러나 선거명부만은 그런게 있다는 말만 들었지 보지 못했다.

그가 밤잠을 못자며 혈안이 되여 길목마다 경찰들과 깡패들을 내몰고 지켰는데도 어느새 명부는 집집마다 돌고돌며 수표며 지장이며 혈서들을 받아갔다고 하였다.

채영학은 두손으로 시내물을 막는다는게 얼마나 어리석은짓인지 잘 안다. 그러나 그물을 넓게 치면 잔고기라도 잡힐줄 알았다. 헌데 어떤 길로 어떤 교묘한 방법을 리용하였는지 많은 돈을 뿌려 민간에 박아넣은 첩자들조차도 속수무책이였다.

채영학은 장작개비처럼 빼빼 마른 부검의를 만나 물었다.

《사인이 뭐요?》

의사는 말했다.

《날이 20센치정도로 짐작되는 예리한 칼로 복부를 올리찔렀습니다. 칼날은 먼저 위를 관통하고 안으로 회전하여 간을 베여냈습니다. 녀인은 대출혈로 즉사한것으로 보아집니다. 사망시간은 밤 1시부터 2시경입니다.》

《그러니 우연살인이 아니라 목적살인이라는거군. 칼을 아주 잘 쓰는 전문살인업자이고…》

일단 목격자인 숯구이로인은 혐의에서 벗어났다. 죽은 시간이 밤 1시부터 2시경이라는데 그때 숯구이로인이 시내에 있는 남의 집 헛간에서 자고있었다는것을 증명하는 두명이상의 목격자가 있었던것이다.

《한가지만 더 묻기요.》 하고 채영학이 말했다.

《살인자가 남자일것같소, 녀자일것같소?》

《저 정도로 흉기를 쓰려면 녀자보다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니 녀자는 아니다?!》

《글쎄요. 제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꼭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여 즉살시킨걸 보면 젊은 장정일것같은데요.》

《잘 알았소.》

병원을 나서며 채영학은 생각했다.

(만일 정말로 《사꾸라》망의 《검은비수》의 소행이라면 아마 김인혜는 보지 말아야 할것을 보았던가 알지 말아야 할것을 알았을게 분명해. 《검은비수》의 얼굴을 보았거나 그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죽을 리유인거야. 지금까지 《검은비수》는 전설처럼 전해만 왔지 그를 정말 보았다는자는 한명도 없었거던. 시체우에 피로 그린 동그라미와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만이 여태껏 《검은비수》의 존재를 알려왔지. 과연 어떤자일가? 그자는 왜 일본이 패망한 오늘도 이곳에 남아 활동하고있는가? 대체 누구를 위해?)

채영학은 씁쓸한 기분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소나기 오려는지 몹시 흐렸다.

채영학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석 차라리 나한테 신고하고 상금이나 받을게지… 그럼 난 김인혜를 산채로 잡아 선거명부를 찾을수 있고 넌 돈을 받고, 좀 좋아서… 왜 그런 맹랑한짓을 했나 말야.》

채영학은 바닥에 침을 탁 뱉았다.

2

차기완은 이미 자기에게 미행이 붙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가 만정으로 들어설 때 한 사나이가 꽁무니에 따라붙었다.

차기완이 그에게 주목을 돌리게 된것은 바로 그 사나이가 자기를 못본척하느라고 애를 쓰고있었기때문이였다. 차기완이 뒤를 돌아볼적마다 그는 광고를 보거나 신발끈을 매는척하였다.

(흥미있는걸.)

차기완은 여유작작하게 걸음을 내짚었다.

차기완을 감시하는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차기완은 값비싼 연두빛모시적삼을 입고있었다. 예순살이 훨씬 넘은 늙은이였기에 머리는 하얗게 세였어도 등은 조금도 굽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흔치 않은 도이췰란드종세퍼드를 앞세우고 가고있었다.

(누가 무엇때문에 저 사람을 보냈을가?)

차기완은 그 리유가 궁금했다. 이 마을사람같지는 않다. 마진사람이라면 더우기 경찰서나 특무대에서 근무한다면 차기완이 모를리 없다. 외지인같아 보이는데 《서북청년단》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경찰청에서 파견한자일지도 모른다. 미군첩보대의 첩자일수도 있다. 하긴 그런건 상관없다. 차기완이 궁금한것은 그들이 미군정의 청탁을 받고 이전에는 마진시의 시장대리로 일하였고 현재도 시장고문인 자기를 미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가 하는것이다.

차기완은 왼쪽목이 뻣뻣하며 부자연스러운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닥쳐오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륙감을 믿는데 습관되여있었다. 바로 본능과 예민한 륙감, 재빠른 행동이 그를 마진시에서 가장 돈많은 사람중의 하나로 만들어주었다.

차기완은 조선봉건왕조가 몰락하던 복잡다단한 시기에 손바닥만한 뙈기밭을 가꾸는 가난한 농군의 유복자로 태여났다. 어렸을 때는 밥이라는걸 먹어보지도 못했다. 매일 나물에 보리겨를 섞어 끓인 죽을 먹으며 자랐다. 집안이 얼마나 째지게 가난했는지 집안에 동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침에는 동이에 가득찬 오줌을 이고 나가 보리밭에 주고 저녁에는 그 오줌동이를 모래로 닦아서는 먹는물을 길어와야 했다.

5살부터 그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그러다보니 글이라고는 한자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자기 키만한 괭이를 끌고 밭에서 일할 때 책보를 둘러메고 서당으로 콩당콩당 뛰여가는 자기또래의 소년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랐다. 13살 났을 때 그는 신세를 한번 바꾸어볼 용단을 내렸다. 그는 먼 친척인 차응보의 양자로 들어갔다.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었던 가슴이 쓰디쓴 후회와 절망으로 찢기웠던 그때 일이 아직도 눈에 삼삼하다.

…차기완이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차응보는 어둑침침한 방에 누워 눈만 끔벅거리고있었다. 그의 해쓱한 볼우에 내려앉았던 파리가 차기완

이 들어서자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방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내와 함께 시크무레한 약냄새가 혼탁되여 풍겨왔다.

차기완은 차응보에게 큰절을 했다.

《절은 무슨…》

차응보는 살이 빠진 손을 내저었다. 차기완은 그앞에 꿇어앉았다.

차응보는 기운이 진한 목소리로 맥없이 물었다.

《어떻게? 출계하기로 결정을 보았나?》

《예.》

차기완은 무겁게 대답했다.

《고마우이.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네. 내가 죽으면 조상의 제사를 누가 지낼지 걱정을 했는데…》

차응보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차기완은 낮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자기의 먼 친척인 차응보가 젊어서 장사에 크게 성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걸로 알고있었다. 그리고 여러해동안 무슨 개화운동에 휘말려들다보니 장사밑천까지 거덜났다는 소문도 들었다. 하지만 큰집이 무너져도 3년은 간다는데 하고 위안하며 양자로 들어갈 결심을 했던것이다.

그런데 정작 찾아와보니 기대와는 너무나도 상반되였다. 거미줄 친 토굴같은 어둑침침한 초가삼간에 들어서면서 차기완은 눈앞이 아뜩했다. 이래서 사나운 팔자는 불에 타지도 않는다는 말이 생겨난 모양이다.

차응보는 차기완을 양자로 들인지 나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다. 차기완의 작은 어깨에는 두 어머니를 부양하고 두 조상의 제를 지내야 할 의무까지 지워졌다.

그때 차기완은 결심했다. 그 누구를 쳐다보아서는 안된다. 요행수를 바래서도 안된다. 오직 자기의 두주먹으로 가난을 부시고 일어서야 한다.

차기완은 15살때부터 부두가에서 삯짐을 지기 시작했다. 그는 별의별 모욕과 수치를 참아가며 이악하게 돈을 벌었다. 차츰 장사거래에 눈이 트자 두 어머니가 부치던 뙈기밭과 뙈기논, 집까지 모두 팔았다.

차기완은 그 돈을 밑천으로 멸치장사를 시작하였다. 처음 일본상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는 이름을 쓸줄 몰라 열십자를 긋고 손도

장을 눌렀다.

킬킬거리며 저들끼리 쑥덕거리는 일본상인과 통역원의 멸시어린 눈길을 피해 고개를 떨군 차기완은 자기의 두손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장알이 박히고 거북등처럼 터갈라진, 로동속에 돌덩이처럼 꿋꿋해진 두손이였다.

차기완은 주먹을 불끈 쥐였다.

(반드시 내 힘으로, 내 이 두주먹으로 너희들이 보란듯이 일어설 것이다.)

그는 밤마다 일본상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접대를 하고 찌꺼기가 묻은 그릇을 닦으면서 술취한 외국인들의 대화를 열심히 귀동냥해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차기완은 멸치젓장사로 번 돈을 통털어 땅을 샀다. 그 땅은 조도 심어가꿀수 없는 불모지였다.

(참 어리석군. 그 땅에 돌이나 심어먹겠는지. …) 하고 그를 알고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혀를 찼다.

그런데 몇달후 통역을 앞세운 노랑머리 로씨야인이 차기완을 찾아와 그 땅을 열배의 값을 주고 되샀다. 그 땅에 로씨야군함의 연료를 대주는 요란한 석탄창고가 섰다.

차기완은 로씨야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번에는 과일나무 한그루 없는, 잡관목만 무성한 산을 샀다.

(그녀석 복이 터졌는데.) 하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역시 어리석은 녀석은 갈데가 없어.) 하고 다시 머리를 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키가 작달막하고 배가 불룩하니 처진 일본인광주가 나타나 차기완에게 그 산에서 광석을 캐려고 하니 값을 부르라는 것이였다.

차기완은 돈과 함께 광산주권의 일부를 가진 주주로 되였다. 물론 약차한 돈을 번 후에 차기완은 일본상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더는 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에 능한자들을 골라 외국상인들이 자주 오는 그곳으로 보내였다. 그들이 엿듣은 취중객담들을 주어모으고 분석한 차기완이 땅을 사면 그 땅에 양인들의 거리가 생겨나고 해안을 사면 왜인들의 양식장이 꾸려졌다.

돈이 돈을 낳으면서 차기완은 졸지에 갑부가 되였다. 덩실한 기와집을 짓고 비단저고리를 두르고 개화장을 들고다니던 그때 《을사5조약》이 날조되고 그후 《한일합병》이 공포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 그때에야 차기완은 자기가 망국을 기회로 돈을 벌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리완용과 같은 을사5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큰 도적이라면 국가의 땅과 산과 바다를 롱간하여 돈을 번 자신은 리완용 다음가는 도적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것같았다. 통감부를 대신하여 군림한 총독부에서는 차기완을 불러 종주국을 위해 거액의 돈을 헌금할것을 강요했다. 그날 밤 하얀 수의를 입은 차응보가 꿈에 나타나 피묻은 돈뭉치를 그의 얼굴에 내던졌다.

총독부를 다녀온 이후로 차기완은 매일 술을 마시며 현란한 불빛이 번쩍거리는 도박장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차기완은 실성이라도 한 사람처럼 일본인이 세운 도박장에서 돈을 물쓰듯하였다. 도박에서 패하여 많은 돈을 잃고도 차기완은 붉은포도주 한잔으로 입을 다시며 태연하게 새날을 맞았다.

한달정도 되여오자 이제는 은행에 저축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나게 되였다.

그날도 차기완은 도박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알아볼념도 않고 다른 도박탁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도박장에서 패를 나눠주는 사내가 그의 소매를 잡았다.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돈표가 그의 앞에 무지로 쌓였다.

《그렇군.》

차기완은 흥심없이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걸 다 대겠네.》

헌데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모든 도박에서 차기완은 이기기만 하였다. 점차 열에 뜬 차기완은 머리칼을 흐트러뜨리고 미친듯이 도박탁들을 오가며 이판저판에 돈을 망탕 대는데도 신기하게도 그는 이기고 또 이겼다. 한달동안 뗴운 돈의 몇백배에 달하는 묵돈이 모아졌다. 도박판의 형형색색의 뭇사내들은 이 식민지행운아에게서 찬탄의 눈길을 떼지 못했다.

다음날 마진시의 신문들은 일제히 차기완을 《도박귀신이 붙은 영원한 갑부》라고 호칭했다.

차기완은 기가 막혔다. 제가 번 돈도 마음대로 버려지지 않으니 이게 식민지백성이라는 노예살이멍에와 다를게 뭔가. 이제는 망국이 준 돈으로 새끼를 꼬아 목을 매 죽어 한을 풀어야 하는게 그에게 차례진 운명인가싶었다. 그때 누군가가 차기완의 심중에 일깨워주었다.

《조선사람의 얼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세월을 만나게 되리다.》 …

차기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알릴듯말듯한 부드러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고있었다. 좋은 징조다. 들판에 자란 곡식들이 결실을 앞두고있다. 지루한 장마전선이 드디여 멀리 물러나버렸다. 하늘은 높이 들리우고 목화같은 흰구름이 가볍게 날고있다. 이렇게 해빛이 계속 쨍쨍 내리쪼인다면 대지는 풍요한 열매를 맺어줄것이다.

제비 한쌍이 전선줄에 내려앉아 짹짹거리며 울고있다.

차기완은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넓은 길을 건너 만정의 음식점에 이른 그는 문발을 걷어올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닳아서 반들거리는 까만 앞치마를 두른 소년접대원이 다가오자 차기완은 동전을 쥐여주며 그의 귀에 대고 몇마디 속삭였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차기완의 앞에 차잔을 내려놓고는 밖으로 뛰여나갔다.

식탁을 가득 들여놓은 자그마하고 어둑시근한 음식점안에는 몇사람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있었다.

차기완은 자기를 미행해온 사나이가 입구쪽에 자리잡는 모습을 무심한듯이 힐끗 건너다보았다.

분장이라도 했는지 그 사내의 기름한 얼굴은 해빛에 탄 선원처럼 검붉었다. 그러나 식탁에 올려놓은 그의 손등은 계집년처럼 매끈했다.

차기완이 두번째 차를 마시고있을 때 소년접대원이 앞으로 쪼르르 다가왔다.

《모셔왔습니다.》

차기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행자는 동백기름을 발라 곱게 빗은 까만 머리를 둥글게 쪽진

20대후반 또는 30대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녀인이 차기완의 앞으로 다가서는것을 보았다. 녀인은 람색의 긴치마에 자주빛저고리를 입고있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였고 체격도 보통의 수수한 녀인이였다.

미행자는 식탁옆을 지나가는 소년접대원을 손짓하여 찾았다. 소년이 차잔에 뜨거운 차를 붓고났을 때 동전을 살짝 쥐여주며 물었다.

《저 미인은 누군가?》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만정에서 사는 차회장어른의 둘째며느리예요.》

미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기완의 둘째며느리인 민숙이라. 그러니 수배자 차상준의 처라는 소리군.)

차기완은 민숙이의 인사를 받으며 앞자리를 권했다.

《앉아라.》

민숙이는 청고운 소리로 물었다.

《만정으로 왔으면 왜 집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집에는 다른 일이 없느냐?》

《예. 오늘은 조용합니다.》

둘째인 차상준이 수배대상이 된 이후로 《서북청년단》원들이 앞집에 틀고앉아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명단에 올리고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달려들어 수색한다고 한다.

언젠가 차기완이 지나가면서 보니 앞마당의 남새밭이 얼마나 사내들의 발길에 밟혔는지 온전한 남새 하나 보이지 않고 땅은 돌덩이처럼 땅땅하게 다져져있었다. 대문마저도 한쪽돌쩌귀가 떨어져나가 금시 나떨어질것같았다.

《애들도 할아버님을 보고싶어합니다.》 하고 민숙이가 간청하자 차기완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나서 차를 마시였다.

이윽하여 차기완은 민숙이를 건너다보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말이다. 아무래도 네가 당분간 친정이 있는 남이섬에 가있어야 할것같구나. 네 의향은 어떠냐?》

…미행자는 식은 차잔을 손에 들고 차기완과 민숙이의 표정을 살폈다.

차기완은 그 나이의 늙은이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속을 전혀 짐

작하기 어려운 덤덤한 얼굴이였다. 숱많은 장미아래서 밑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멎어있는 검은 눈동자에는 파란많은 세월을 헤쳐온 늙은이의 침착성과 나른함이 뒤섞여 비껴있는것같았다. 그앞의 며느리라는 녀인은 희고 곱살한 얼굴이였는데 어딘가 시름에 겹고 지친 표정이였다. 그는 마치 시아버지의 꾸중이라도 들은듯이 차마실념도 못하고 애꿎은 옷고름만 손가락에 감았다풀었다 한다.

입구옆에 앉은 미행자는 무료하여 하품을 하였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차집에서 만나는게 뭐 이상할게 있다구. 채영학계장은 저 늙은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루종일 따라다니라고 한건가. 날 우습게 본다 이거지.) 하고 미행자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는 어제 부산에서 마진으로 조동되여왔다. 그를 맞이하며 채영학은 괴이한 지시를 주었다.

《고향이 대구이고 부산에서 근무했고 마진은 처음이니 이곳에 아는 사람은 없겠구만.》

《예. 없습니다.》

《아주 좋소. 래일 이 늙은이를 따라다니오.》

사진을 보며 그가 물었다.

《빨갱이입니까?》

《아니. 그 반대요.》

《그럼 어째서?》

《신변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오.》

《신변보호요? 혹시 어떤 위협이라도?》

《꼭 그런건 아니요. 음— 뭐랄가. 혼란된 현 정세의 축소판이랄가, 령감은 시청의 요직에 있고 아들은 수배중인 빨갱이이고… 실은 이 령감이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원에 구제물자를 실어가겠다고 통행증을 요구했소. 시국이 복잡한 때에 바다로 나가겠다는데… 시청의 명의로 구제물자를 보낸다는걸 무턱대고 자를수도 없고… 그러니 래일 하루만이라도 따라다녀보오. 령감이 예전에는 민의소(<한일합병>후 결성된 민족주의유지들의 민간조직) 회장이였던지라 여기 마진에서는 제노라 하는 유지요. 또 지금은 시청의 고문이니 웬만한 시안의 경찰들의 얼굴은 대체로 알고있소. 그러니 방금 온 당신이 적임자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령감이 바다에 나가는걸 승인할수 없거던.》

참 맹랑한 일이였다. 그러나 상급이 주는 지시를 무턱대고 거부할 수도 없는노릇이였다.

만정의 차집을 나선 차기완은 며느리의 뒤를 따라 아들네 집으로 갔다.

그 집 대문밖의 땡볕속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미행자는 또다시 입이 째지게 하품을 하였다.

3

어둠속에는 남녀 두사람이 마주앉아있었다. 까맣게 타다남은 짧은 심지에 기름이 축축히 내밴 작은 등잔이 앉은뱅이책상우에 놓여있었으나 그들은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안에 숨을 죽인채 앉아있었다.

미농지를 발라놓은 뙤창으로 연한 달빛이 간신히 비껴들며 사나이의 륜곽을 어렴풋이 비치였다. 40대중반으로 짐작되는 사나이는 여러날째 수염을 깎지 못해 구레나룻이 더부룩하였다.

사나이는 뙤창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귀를 강구었다.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자박자박 들렸다. 잔걸음으로 뙤창밑으로 다가오더니 어험 하고 헛기침을 길고는 돌아선다. 미행자도, 다른 이상한 기미도 없다는 감시원의 신호였다.

그제서야 중년의 사나이는 부시를 쳐 등을 켰다.

불빛에 해사한 녀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30대초반의 젊은 녀인의 갸름한 얼굴은 불빛속에서 윤기가 났다. 반달처럼 곱게 희여든 눈섭아래 큰 눈동자가 은근한 존경의 정을 품고 사나이를 보고있었다.

사나이는 석쉼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정덕동무, 그간 수고가 많았소.》

녀인은 미소를 곱게 지으며 말했다.

《저야 수고랄게 있습니까. 제집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걸요. 저보다도 박철우동지처럼 지하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전 다만 동지들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가자고 힘껏 애쓸뿐입니다.》

박철우는 부석부석한 얼굴을 손으로 쓸며 말했다.

《미안하오. 이런 꼴을 보이는게 아닌데… 수염 깎는것도 잊었구만.》

한정덕은 몸을 옆으로 돌려 부시럭거리더니 꾸레미 하나를 내밀었다.

박철우는 꾸레미에서 눈길을 떼며 물었다.

《이건 뭐요?》

한정덕은 선이 또렷한 입술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찬거리 몇가지를 해왔습니다.》

《바쁠텐데 별걸 다 해가지고 왔구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했다. 시집살이를 하며 산속에서 숨어지내는 동지들을 뒤바라지하는 그의 정성이 고마웠다. 그래서 한정덕의 갸름한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돋보였다.

박철우는 문득 이전에 안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차회장댁 맏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일솜씨도 야무지고 도덕도 밝아요. 정말 나무랄데 없는 녀성이라니까요. 같은 녀성인 나도 어떤 때는 탄복하게 되는걸요. 차회장님이 마음이 무던하시니까 그런 복이 차례지는가봐요. 그 집 두 며느리가 다 고등보통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씨도 참 비단결같아요. 날 언니언니 하면서 얼마나 잘 도와준다고요.》

그 집 얘기만 나오면 안해는 늘 침이 마르도록 그 집 며느리들 칭찬부터 앞세웠었다.

그런 마음이 곱고 정도 헤픈 안해를 이제 더이상 볼수 없다. 평생 좌익운동에 나선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며 삯빨래며 바느질이며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더운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되였다는 사실이 박철우의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하였다.

박철우는 안해 김인혜의 장례도 제손으로 치를수가 없었다. 어느 야산에 묘비도 없이 묻혔다고 했다. 동지를 그렇게 보낼수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섰으나 그때마다 박철우는 그들을 눌러앉혔다. 그곳에는 분명 경찰서의 끄나불이라던가 덫이 있을것이다.

그는 부시럭거리면서 담배쌈지를 꺼내들었다.

《정덕동무, 요즘 집에 다른 일은 없소?》

한정덕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별로 다른 일이랄게 없습니다. 시아버님은 이젠 나이도 많으시니 시청에 고문이라는 이름이나 걸어놓으시고 나가는둥마는둥하시고 시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집문밖을 나서는 법이 없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닙니다. 적은이는… 적은이 일이야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덕의 시동생인 차상준은 그가 해방 직후 마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때 재정부장을 하였고 지금은 지하에서 미군정을 반대하여 함께 투쟁하고있었다.

한정덕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꼭지를 뗐다.

《그런데 만정으로 분가한 동서에게는 일이 좀 생겼습니다.》

《차동무네 집에 말이요?》

《예.》

박철우의 눈빛이 긴장해졌다.

《무슨 일이요?》

《어제 동서를 만났는데 집이 수라장이지 뭐예요. 또 그 <서북청년단>인지 뭔지 하는 녀석들이 들이닥쳐 남편의 행처를 대라며 행악질을 부렸다나요. 벌써 하루이틀도 아니고 해를 두고 그런 행악질이니 동서가 더는 여기 마진에서 살지 못하겠대요. 하긴 아홉살 난 정인이가 엄마 일손을 돕는다지만 아직 철없는 처녀애이고 거기에 이제 겨우 두살을 넘긴 두인이, 돌도 안되는 예곤이까지 달려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은 숨어지내야 하니 집일을 전혀 돌볼수 없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친정으로?! 왜 시집에 다시 들어와 살림하려고 하지 않소?》

《시어머니가 시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헌데 시아버님이 반대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완고한 시아버님말 한마디면 다라는걸. 시아버님은 한번 나간 며느리는 다시 들이는 법이 없다고 딱 자른답니다. 어쩌면 둘째아들이 수배중인 빨갱이이니 그 여파가 큰집에 들이닥칠가봐 지레 겁을 먹으신것같기도 하고요.》

《허 참, 그러면 차회장님은 제집 맏며느리가 마진시녀맹부위원장이라는걸 알면 대단히 놀라시겠구만?!》

《말해 뭘합니까. 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박철우는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리고는 힘주어 말했다.

《정덕동무, 우리 힘을 내기요. 웃으며 옛말할 날이 꼭 올거요.》

한정덕은 밝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이 마진시에도 북에서처럼 인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펼쳐질 때면 시아버님도 정말 장한 일을 했다고 제 등을 두드려주실겁니다.》

《정덕동문 락관주의자로구만.》

《비관하며 살 멋이 있습니까. 전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크게 소리내여 웃으면 피곤이 싹 사라지군 합니다.》

한정덕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소리내여 웃었다.

박철우는 락천적인 한정덕이 돋보였다. 하긴 고등보통학교시절에 벌써 학생운동을 조직하며 뛰여다닌 열정적인 녀인이였다고 했다. 왜정말기에는 징용, 징병 등의 기피자들이 산속에 모여 조직한 《태백산항일죽창대》라는 국내반일조직의 지하투쟁을 방조한 경력도 있었다. 해방직후부터 자기 안해와 함께 부녀회의 핵심성원으로 사업하고있었다.

《박철우동지, 한가지 보고할게 있습니다.》

한정덕은 심중한 자세였다.

《조직에서 준 지시대로 마진시경찰서 사찰계장 채영학과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한가지 알아낸게 있습니다. 김인혜동지의 희생과 관련됩니다.》

안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박철우는 심장 한복판을 칼로 쿡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심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우정 무뚝뚝하게 물었다.

《뭐요?》

《마진시경찰서에서는 이전 <사꾸라>망의 <검은비수>라는자를 인혜동지를 살해한 유력한 혐의자로 지목하고있습니다.》

벌써 두번째로 듣는 대호였다. 어제 받은 보고에도 김인혜를 살해한 자는 《사꾸라》망의 첩자인 《검은비수》라고 하였었다. 물이 한곬으로 모이듯이 각이한 대상들로부터 입수한 꼭같은 정보는 안해를 살해한자가 틀림없이 《검은비수》라는 대호를 가진자라고 가리키고있다.

박철우는 기대를 품고 물었다.

《<검은비수>라는 대호를 가진자에 대해 알아냈소?》

한정덕은 맥없이 대답했다.

《경찰서에서도 그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것같았습니다. 대호만 있을뿐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답니다. 실체를 알수 없는 유령같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유령같은 존재라…》

박철우는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결코 유령이 사랑하는 안해의 목

숨을 앗아갔을리는 만무하다. 이 땅에서 살아숨쉬는한 언제든지 찾아내여 열백배의 복수를 할것이다.

박철우는 한정덕에게 물었다.

《혹시 채영학이 동무를 의심하는 눈치는 없었소?》

한정덕은 머리를 저었다.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방전 마진결핵료양소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던 한정덕은 병원에 입원한 채영학을 담당하여 한달간 간호한적이 있었다. 그때 한정덕은 채영학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도 면식을 익혔다. 그후 채영학과 중학교를 함께 다닌 차종준에게 시집을 가면서 더욱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였다.

원체 호색한인 채영학은 녀인들앞에 나서면 지붕우에 오른 수탉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들먹거리며 입이 터지도록 제 자랑을 하였는데 한정덕은 그를 추어주는척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거나 확인하기도 하였었다.

《한정덕동무.》

박철우는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이번에 동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하오.》

한정덕은 정숙한 자세로 앉았다.

문틈으로 새여들어온 작은 부나비 한마리가 등불옆을 맴돌다가 날개를 부지직 태우며 떨어졌다.

박철우는 말을 이었다.

《마진시인민들의 비밀선거사업은 이미 성과적으로 종결되였소. 우리 시에서도 여러명의 대표들이 38도선을 넘어 해주로 가게 되오. 해주에서 진행되는 인민대표자대회는 21일부터 시작되며 25일에는 남북조선총선거가 진행되게 되오. 다른 지역 대표들은 벌써 38도선을 넘었다고 하오. 우리가 너무 늦었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24일 밤까지는 마진시의 대표들도 해주에 도착하여 대표자등록을 마치고 이튿날 진행되는 남북조선총선거에 참가해야 하오.》

박철우는 잠시 말을 끊고 한정덕을 눈여겨보았다. 한정덕은 박철우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강구고있었다.

박철우는 강력있는 어조로 말했다.

《한정덕동무, 이번에 동무는 마진시녀맹을 대표하여 가게 되였소.》

한정덕은 예상밖이였는지 한순간 얼떠름해있었다. 그는 눈을 깜박거리며 박철우를 쳐다보다가 물었다.

《제가 말입니까?》

《그렇소.》

한정덕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졌다. 그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동지들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박철우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나서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였다.

그가 책상우에 지도를 펼쳐놓는데 한정덕은 갑자기 흑 하고 흐느꼈다.

박철우는 놀라며 물었다.

《왜 그러오? 혹시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그럽니다.》 하며 한정덕은 코를 흘쩍거리며 말했다.

《제가 인민대표로 되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사실 녀맹위원장인 인혜언니가 가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언니가 무참히 살해된걸 생각하니… 가슴이 막 찢어지는것같아서 그럽니다.》

박철우는 눈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못난 세월 못난 남편을 만나서 젖은 손 한번 마를새없이 고생만 하더니만…)

안해의 마지막모습이 어제런듯 생생히 기억된다. 마룡산에 사는 숯지기아바이가 선거에서 빠진것을 너무 뒤늦게 알았다.

안해는 자기가 그를 찾아가겠다고 나섰다. 그때 다른 일로 바쁘다나니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일이 그렇게 번질줄 알았으면 마룡산으로 보내지 않았을것이다. 그렇게 따뜻한 포옹도, 다정한 말 한마디도 없이 무정하게 보내지는 않았을것이다. 정말로 후회막급했으나 이미 되돌릴수 없는 지나간 일들이다.

박철우는 떡살이 박힌 손가락을 가늘게 떨며 마라초를 말았다.

《그만하오. 그 사람도 정덕동무가 인민대표로 해주로 가게 된걸 알면 무척 기뻐할거요.》

《그럴가요?》

한정덕은 웃고름으로 눈굽을 훔치며 물었다.

박철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척 기뻐하고말고… 그 사람은 정덕동무를 제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오.》

《저도 친언니로 따랐습니다.》

《고맙소.》

자리를 정돈하고 다시 마주앉은 박철우는 심중하게 행동방향을 자세히 알려주고나서 력점을 두며 덧붙였다.

《한정덕동무, 방금 이야기한 지점들과 접선암호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시오. 지금 철도역과 해상뿐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경찰들과 깡패들이 배치되여 수시로 사람들을 세워놓고 몸을 뒤지며 인민대표들을 색출하고 선거명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여있소. 그래서 이번에 마진시선거위원회에서는 대표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거명부와 대표들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하였소. 선거명부를 받지 못하면 대표들은 해주시에 도착하여도 마진시인민들을 대표할수가 없소. 어떤 일이 있어도 명부만은 꼭 해주시에 도착해야 하오. 동무는 38도선을 넘거나 넘기 직전에 동무에게 해당되는 명부를 넘겨받게 될것이요.》

한정덕은 잘 리해가 되지 않는듯 되물었다.

《그러니 전 선거명부가 없이 가게 됩니까?》

《그렇소.》

《38도선을 넘기 전에 받게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소.》

《잘 모르시다면…》

한정덕은 여전히 어리벙벙해서 물었다.

《그럼 38도선을 넘어 해주에서 받게 됩니까?》

박철우는 고개를 저었다.

《명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캐묻지 마오. 우선 동무는 서울로 가야 하오. 거기에서 다른 행동장소를 알려줄거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그 어느 대표에게도 38도선을 넘기 직전의 최종집합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소. 대표들은 접선자들을 만나야 다음 접선장소를 알게 되며 나중에야 최종집합장소에 모이게 되오. 대표들은 그 최종장소에서 해당한 명부를 받게 될수도 있소.》

《대체 뭐가 뭔지 잘 리해되지 않습니다.》

한정덕은 어줍게 웃어보였다.

박철우는 단연코 말하였다.

《그럴수 있소. 사실 나도 선거명부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대표들이 명부를 언제 어디서 넘겨받게 되겠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오. 어쩌면 동무말처럼 해주에 도착하여 넘겨받을수도 있소. 다만 명백히 말해줄수 있는것은 어느 대표이든 약속된 시간에 제정된 로정을 따라가야만 명부를 넘겨받게 된다는것이요. 다시 강조하지만 명부는 아주 중요하오. 그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대표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소.》

한정덕은 박철우의 말뜻을 제대로 리해한것같았다.

《알았습니다.》 하고 한정덕이 대답하자 박철우는 긴숨을 내쉬며 물었다.

《헌데 시부모님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서울로 가겠소?》

한정덕은 고개를 갸웃하고 생각에 잠겼다.

또 한마리의 부나비가 등불가를 어지러이 맴돌고있었다.

한정덕은 《숙이가…》 하고 말꼭지를 떼다가 얼굴을 살짝 붉혔다.

《미안합니다. 너무 급하다보니…》

한정덕의 동서인 차상준의 안해 민숙이는 한정덕과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를 함께 다닌 선후배간이였다. 학교시절부터 무척 가까웠고 지금도 저들끼리는 언니, 동생 하며 지낸다고 한다. 그런 한정덕이니 얼결에 동서의 이름이 튀여나온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였다.

《동서가 친정으로 가려는것같은데 인차 떠날것같습니다. 동서네 친정이 강원도 남이섬에 있습니다.》

《남이섬?》

《예, 북한강이 흐르는 강원도와 경기도사이에 위치한 그런 섬이 있습니다.》

《남이섬이라… 그래서요?》

《그곳으로 가려면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춘천행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동서가 세 아이를 거느리고 가야 하니 제가 친정집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시부모님들이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동의할것같습니다. 더우기 시아버님이 합법적으로 통행증이라든가 보증서같은걸 해결해주면 무사히 서울로 갈수 있을겁니다.》

박철우는 무릎을 쳤다.

《좋은 방도인것같소. 그럼 동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의문스럽거나 특별히 제기할것은 없소?》

《없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하오. 목숨을 건 위험한 길이요.》

《각오하고있습니다.》

한정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철우는 그를 문가에서 바래우며 손을 굳게 잡았다.

《반드시 성공하기 바라오.》

《동지들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한정덕은 희끄무레한 달빛을 밟으며 총총히 걸어갔다.

박철우는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믿음이 어린 눈길로 바래웠다.

(총명한 녀성이다.) 하고 박철우는 마라초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생각했다.

4

한정덕이 떠나간 후 박철우는 밖으로 나와 뒤산으로 올랐다. 우거진 수림속 한가운데로 뻗은 오솔길은 가리마처럼 하얗게 보였다. 연노란 꽃을 한가득 피운 남해특산인 황칠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이 밤이슬에 젖어 번들거렸다.

박철우는 황칠나무들사이로 난 실오리같은 길을 따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곳 마진시의 석정이라는 곳에서 태여났다. 빈농의 넷째자식이였던 그는 보통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 2학년때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려서 부모들의 농사일을 돕던 그는 민족주의자인 매부에게서 글을 배우며 반일의식이 싹텄으며 청소년시절부터 주로 농민들을 깨우치는 계몽운동에 관여하였다. 마진에서는 애국적인 유지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마진구락부, 금주동맹, 녀자청년회, 교육간담회, 면포상조합 등이 운영되고있었다. 박철우는 로동야학교, 녀자야학교, 마진학

원 등의 교원으로 있으면서 강연회에 출연하여 교육, 문화, 위생강의의 명목으로 마진시민들의 반일의식을 계발시키고 애국사상을 고취하였으며 선진사상을 해설선전하면서 애국청년들을 규합하였다.

좌익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하던 그는 1925년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4년간 옥고를 치르었고 출옥한지 1년도 못되여 또다시 비밀결사사건으로 3년간 징역을 살았다. 그후에는 좌익로조사건으로 부산형무소에서 4년간 징역을 살았고 1941년에는 《사상범예방구금령》에 의해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여 옥중에서 8.15해방을 맞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방직후 마진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마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듬해에 일어난 마진시인민항쟁의 지도인물로 지목되여 체포되였으며 도경찰국으로 이송중 탈출하여 지금껏 지하에서 활동하고있었다.

박철우가 오솔길을 톺아 중턱에 있는 높은 바위밑에 이르렀을 때 젊은 청년이 불쑥 나타나 인사를 꾸벅하였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구의 청년이였다. 길죽한 주걱턱에 눈꼬리가 우로 길게 치째졌다. 바지춤을 쑥쑥 문지르는 두손은 작은 솥뚜껑만했다.

박철우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황병두동무, 오래 기다렸소?》

황병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좀전에 왔습니다.》

박철우와 달리 황병두는 이곳 마진태생이 아니였다. 1942년 봄에 일본군에 징집되여가던 도중 부산항에서 탈출하여 마룡산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당시 박철우는 형무소에 갇혀있던 몸이였다. 그가 황병두를 처음 알게 된것은 해방후였다. 그때 황병두를 그에게 소개한 사람은 민숙이의 남편인 차상준이였다.

황병두는 3년간을 마룡산의 수림속에서 징병, 징용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온 청장년들의 반일무장대에 소속되여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 누구보다도 마룡산의 숲길을 잘 알고있었다.

나라가 해방된 후에 그는 고향이 있는 평안도로 돌아갈수 있었지만 이곳은 자기의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고 또 그동안 정이 들었다면서 눌러앉았다. 그후 38도선이 막히면서 그의 귀향길은 더더욱 어렵고

위험해졌다.

《한대 피우기요.》

박철우는 웃주머니에서 가치담배를 꺼내여 권하였다.

습한 밤바람이 불었다. 해묵은 락엽속에서는 텁텁한 냄새가 풍기였다. 어디선가 소쩍새가 슬피 울었다.

안해 김인혜가 죽은 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밤에도 소쩍새가 처량하게 울었다. 마치도 그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한을 품고 죽은 안해의 슬픈 호곡처럼 들려왔었다.

경찰서에서 시신도 찾지 못한채 마음속으로 안해의 삼일제를 올리고 이곳 련락지점으로 찾아왔던 박철우는 마진시인민대표들과 선거명부를 분리해야 하겠다는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가슴이 아팠으나 십분 공감이 되였다.

안해의 죽음은 참으로 괴이했다. 《검은비수》라는 대호를 가진 살인업자가 그를 살해하였다고 추측한다는데 왜정시기 《흑룡회》에 가담하여 일제특무기관에 복무하던자가 무엇때문에 안해를 살해하였는지 영문을 알수 없다. 안해를 죽인 진짜범인을 감추기 위한 경찰들의 모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죽음의 비밀을 끝까지 밝혀낼 여유가 박철우에게 없었다. 혹시 선거조직내부에 깊숙이 잠복한 밀정이 있을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진시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 단속, 검열이 3중4중으로 강화되였다.

박철우는 대표들이 마진시를 안전하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선거명부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선거준비위원회에 정식 통보하였고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았던것이다.

그는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았다.

마진시의 비밀선거가 비록 늦어졌지만 그만하면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기꺼이 바쳤다. 그중에는 사랑하는 안해도 있었다.

박철우가 담배를 다 피우고나서 발로 꽁초를 꽁꽁 눌러끄자 황병두는 말했다.

《준비가 완료되였다고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도 모든 준비가 끝났소.》

박철우는 어둠속을 보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진시선거명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았소.》

황병두가 긴장하여 물었다.

《서울에 있다는 <지도부>에서 말입니까?》

《그렇소.》

《그들이 왜 마진시선거명부를 요구할가요?》

《그건 나도 모르겠소.》

《어쩔 생각입니까?》

잠시 말을 끊고 어둠속을 뚫어지게 주시하던 박철우는 결심을 내렸다.

《내가 상면을 요구한다고 알려주시오. 빠를수록 좋소.》

《알았습니다.》

황병두는 손에 구겨진 검은 모자를 주물럭거리며 무슨 할 말이 있는듯 잠시 머뭇거렸다.

박철우는 문득 그의 솥뚜껑같은 손에 시선이 박혔다.

《손이 참 크구만.》

《예?!》

황병두는 말뜻을 몰라 눈을 끔벅거렸다.

박철우가 말했다.

《손아귀힘이 보통 아니겠소. 아마 그 손에 잡히면 뼈도 못추릴것 같구만.》

그제서야 말뜻을 깨달은듯 황병두는 소처럼 씩 웃었다.

《해방전에 왜놈 두어놈은 닭처럼 모가지를 비틀어 잡았습니다.》

《원 과장하기는…》

《과장이라니요. 알아보십시오. 며칠전에도 뒤따르는 밀정놈을 감쪽같이 처리해버렸습니다. 이건 죄다 사실입니다.》

《알겠소. 내 그렇게 믿지.》

박철우는 황병두의 두손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말했다.

《동무가 먼저 내려가오.》

황병두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모자를 눌러쓰고 어둠속으로 총총히 사라져갔다.

황병두가 떠난 후 박철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다.

문득 황병두가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였을가 하는 호기심이 뒤따랐지만 벙어리속은 알수가 없다고 그가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어째서인지 기분이 개운치 못했다. 아마 이제 대표들을 안전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막중한 부담때문일것이다.

박철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솔길을 되돌아내려왔다.

5

강원도의 높은 산과 협곡의 만년바위와 천년고목을 씻으며 맑은 샘으로 돌돌 흘러내리던 물줄기들이 모이고모여 소양강이 되고 그 푸른 물이 가평천과 합쳐져 북한강에 이르는 곳에 작은 섬이 있었다.

《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섬은 사실상 섬이 아니였다.

남이섬은 이른봄이나 늦은가을, 추운 겨울과 같이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는 강원도의 방하마을과 잇닿아있는 자갈밭이였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물량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출렁이는 강물로 사방 둘러싸여 작은 섬이 되였다.

이 섬은 강원도와 경기도사이에 있고 물살이 빠른 강과 가파로운 벼랑으로 막힌 척박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였기에 한때 조선봉건국가의 류배지이기도 하였다.

15세기중엽 17살에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그후 북부국경일대를 평정하고 정2품벼슬인 병조판서의 자리에 오른 남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이런 호기넘친 시를 남기며 장부의 기개를 떨치던 그가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릉지처참이라는 악형을 받기 전에 이 섬에서 얼마간 류배를 살았다고 한다. 20대의 꽃나이에 역적의 루명을 쓰고 몸이 산채로 갈래갈래로 찢기우지 않으면 안되였던 남이장군의 참혹한 시신의 일부분이 이 섬에 묻혔다고 하여 그때부터 항간에서는 이름없던 이 작은 섬을 《남이섬》이라 불러왔다.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생겨난것인지는 모르나 이곳에는 실지로 무덤을 상징하는 커다란 돌무지가 있었다. 방하마을과 강건너 가평마을 사람들은 이 무덤의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하였다.

어느해 누구인가가 판돌로 쓸 청석 하나를 지게로 져갔는데 해질녘에 황소만한 호랑이가 달려들어 대문앞에서 놀던 여섯살 난 그 집 아들애를 덥석 물어갔다고 한다. 또 어느해인가는 지나가다가 심심풀이삼아 애기주먹만한 돌멩이를 주어들었던 한 녀인이 강기슭에서 독뱀에게 물려 한절반 죽다 살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방하마을과 가평마을의 사람들은 부득이 이 무덤곁을 지날 때에는 작은 돌 하나라도 얹어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군귀신》의 원한을 사 마을에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믿었다.

이렇듯 400여년을 《장군귀신》의 원혼이 떠돈다고 믿어온 버림받은 땅에 나라를 잃고 집을 빼앗긴 불쌍한 백성들이 삶의 터를 잡기 시작한것은 20세기초엽이였다.

1910년 8월 그 국치의 여름밤 장대처럼 쏟아지는 장마비속에 젊은 부부가 소용돌이치는 강물우를 가랑잎같은 매생이를 타고 남이섬으로 건너왔다.

울창한 가시덤불을 걷고 잡관목을 찍고 건너편 산기슭의 흙을 퍼다가 초가삼간을 짓고 살림을 편 그들은 19세기말 강릉에서 의병들을 이끌고 왜적을 치던 의병대장 민룡호의 동생 민인호와 그의 처 곽씨였다.

민인호의 고향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이였는데 그가 살던 마을은 지리산줄기와 잇닿아있는 왕산아래 자리잡은 산좋고 물맑고 경치수려한 아담한 곳이였다.

조선봉건왕조가 몰락하던 19세기말 명성황후가 궁성에서 일본사무라이들의 칼에 맞아 비명에 숨을 거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 선비가문의 맏이인 민룡호는 울분을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조직하여 왜놈들과

싸웠다. 1896년 가을 의병들을 이끌고 함흥부를 공격점령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싸움에서 큰 손실을 당하고 주변에서 싸우던 의병대들의 해산으로 사기가 저락되자 마침내 자기 부대도 해산하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갔다.

그후 민씨가문에 대한 왜놈사무라이들의 감시와 탄압은 극심하였다. 놈들의 로골적인 폭압에 더이상 정든 고향에서 살수 없게 된 왕산의 민씨가문은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민인호가 젊은 안해를 데리고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짧아진 왼발을 살룩거리며 일제의 눈초리가 미치지 않는 궁벽한 곳을 찾아온것이 다름아닌 남이섬이였다. 이리하여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바다물처럼 범람하며 밀려오는 흙탕물속에 금시라도 꼴깍 잠겨버릴듯이 위태로운 손바닥만한 땅, 이른봄이나 늦가을같은 갈수기 특히 왕가물철에는 마르다 못해 달달 구워진것같은 돌자갈밭우에서 민인호와 곽씨의 딸 민숙이가 태여나게 되였던것이다.

…민숙이는 짐을 꾸리다말고 귀를 강구었다. 바깥사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분명 들은것같은데 아무도 들어오는이는 없다. 또 어떤 녀석이 생쥐처럼 몰래 새여들어온 모양이다.

민숙이는 그렇게 밤낮이 따로없이 감시를 받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남편 차상준에게 많은 액수의 상금이 걸려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거리의 어느 골목에나 박철우와 차상준의 인상특징을 적은 글과 모사그림이 붙어있었다. 《서북청년단》원들은 아예 민숙이네 집앞에 틀고앉아 집안팎을 감시했다.

혹시 남편인지도 모른다. 몇달전에도 차상준은 그렇게 불쑥 방안으로 들어왔었다.

《당신과 애들을 보러 왔소.》

집주인이 제집에 들어서는데 잡놈들이 웬 상관이냐는듯 그는 배심좋게 말하며 싱글벙글 웃었다. 그는 이불을 차던지며 뿔뿔이 흩어져 자고있는 애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다 나란히 눕혀놓았다.

차상준은 갓난애의 조그마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마진에서 2.7구국투쟁의 불길이 드세차게 치솟던 1948년 2월중순 어느날 밤 민숙이는 몸을 풀게 되였었다. 난산이였다.

급히 산파를 데려오기 위해 도로에 나섰던 이웃집녀인은 다리목을

지키는 《서북청년단》원들에게 걸려들었다. 무지스러운 망나니들은 녀인에게서 사연을 자상히 듣고도 낮에는 뭘하다가 야간통행금지시간에 나다니는가고 트집을 잡았다.

사정사정하다가 화가 난 녀인은 《당신네 어머니와 안해들은 대낮에만 애를 낳는 재주가 있소?》 하고 대들었다. 녀인은 골목에 끌려들어가 피가 터지게 매를 맞았다.

그가 산파를 데리고 왔을 때 민숙이는 이미 의식을 잃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해산을 끝냈을 때 산파는 피묻은 손 그대로 송골송골 내배인 이마의 땀을 씻으며 말했다.

《다행이예요. 한시간만 늦었어도 아기도 어머니도 모두 목숨을 잃을번했어요.》

민숙이는 젖먹이의 야들야들한 볼을 사랑스레 쓸어보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굽이 뜨거워났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둘러 눈물을 훔쳐냈다. 그러지 않아도 집을 떠나 경찰들의 추격을 피해다녀야 하는 남편이였다. 자기를 겨누고있는 총구앞에서 위기의 순간을 넘겨야 하고 하루한시도 신발을 벗고 편히 쉬여본적이 없을 남편의 고생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자기 개인만의 안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큰뜻을 품고나선 남편을 떠받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쓸데없는 눈물로 발목을 잡거나 아낙네의 부질없는 푸념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고싶지는 않았다.

그 마음을 헤아린듯 차상준은 다정한 음성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신통히 당신을 닮았군. 코와 입술이 꼭 당신을 먹고 게웠소. … 정말이지 당신이 혼자 애들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소.》

또다시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꽉 메웠다.

차상준이 물었다.

《이름을 지었소?》

민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은 당신이 애이름을 지으라더군요.》

《그래? 그럼 예곤이가 어떻소?》

《차예곤?!》

계집애이름같았다.

차상준은 말을 이었다.

《좋은 이름이요. 밝은 미래에 살라는 뜻도 있고…》

《당신이 좋다면 좋은거지요. 전 다른 의견이 없어요.》

민숙이가 얼른 밥상을 차리려고 일어서는데 차상준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지 마오. 난 인차 떠나야 하오.》

민숙이는 속이 덜컥 내려앉는것같았다.

1942년인가 어느날 새벽에도 차상준은 《난 인차 떠나야 하오.》라고 말하고는 압록강건너 만주까지 갔다. 그렇게 떠난 차상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무소식이다가 3년이 지나 해방이 되여서야 돌아왔던것이다.

차상준은 달래듯 말했다.

《멀리 가지는 않소. 항상 당신 가까이에 있겠으니 마음을 놓소.》

그러나 민숙이의 가까이에 있는것은 언제나 위험했다.

그날 새벽도 그러했다. 어떤 기미를 챘는지 이웃집에 진을 치고있던 《서북청년단》원들이 형사의 인솔하에 불시에 대문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민숙이는 황급히 남편을 벽장뒤에 숨도록 했다. 그는 이미전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길죽한 큰방 웃쪽을 장으로 둘러막고 벽장 뒤쪽의 통판자를 뜯어놓아 드나들게 하였으며 옷장과 벽체사이에 조금 간격을 두어 빈 공간을 만들어놓았었다.

여러 차례 수색을 당했으나 경찰들은 그 장소에는 눈길을 덜 돌렸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형사와 함께 방으로 뛰여든 《서북청년단》원들은 창고와 부엌, 안방 할것없이 샅샅이 수색하고도 좀처럼 떠날념을 하지 않았다.

처음 보는 형사는 벽장뒤 합판 한장사이에서 사람의 숨결을 느꼈는지 벽장문을 몇번씩 열고닫고 하였다. 돌아서다가는 또다시 무슨 기미를 챘는지 문을 손등으로 똑똑 두드려본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치를 챈것만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대로 몇초 더 있다가는 벽장의 뒤벽을 두드려볼지도 모르며 그러면 벽장뒤의 비밀도 탄로날수 있었다. 위급한 순간이였다.

민숙이는 감쪽같이 손을 뻗쳐 곤히 잠든 갓난애의 다리를 꼬집었

다. 애기가 금시 숨이 넘어갈듯이 자지러지게 울어대자 형사는 그제사 시끄럽다는듯 길쭉한 얼굴을 찡그리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나니 가슴이 바싹 쫄아들며 딸꾹질이 연방 터져나왔다.

그날 민숙이는 제손으로 직접 남편을 60대의 늙은 로파로 변장시켜 뒤문으로 등을 떠밀어보내였었다.

…민숙이는 귀를 바싹 강구었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아마도 지나가는 바람에 한쪽돌쩌귀가 떨어진 사립문이 흔들리며 찌그럭거린것인지도 모른다. 처음 《서북청년단》원들의 발길질에 채워 떨어진것을 간신히 맞추어놓았었는데 이튿날 형사들이 쓸어들어오며 또다시 떨어졌다. 세번째만에는 아예 단념을 하고 한쪽돌쩌귀가 떨어진대로 내버려두고말았다.

(남편이였으면…) 하고 민숙이는 바깥쪽으로 눈길을 주며 생각했다.

차상준이 그리웠다. 남편을 못본지도 퍼그나 되여온다. 곧 마진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가 더욱더 보고싶었다.

민숙이는 예곤이의 잠든 얼굴을 살그머니 쓸어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은 내가 당신을 볼수는 없어도 항상 내곁에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것같아요. 난 인차 이곳을 떠나야 해요.》

한번만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떠날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을것같았다.

6

채영학이 들어서며 꼿꼿한 자세로 경례를 하였으나 그 미국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앵글로색슨족과 게르만족의 피가 섞여흐르는 그 불머리의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어주던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기생은 흘낏 채영학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다시 돌렸다.

(괘씸한 년.)

채영학은 기분이 상했다.

마진시경찰서의 사찰계장인 그를 마진에 사는 기생치고 모르는 년이 없다. 그런데도 저 기생은 채영학을 지나가는 뜬 구름을 보듯 아예 무

시하는듯한 표정이다. 지금 제가 모시는 손님의 권세가 시경찰서의 사찰계장쯤은 한발로 뭉개버릴수도 있다는것을 채영학이가 들어서는 그 한순간에 포착한 까닭일것이다. 사내다루기에 이골이 난 기생들이니 눈치가 여간만 빠르지 않았다.

방안에는 거울이 없었다. 그것을 채영학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지금 내 모습은 꼭 뒤발로 일어선 개같을거야.)

분기가 치밀어오르며 속이 울컥하였으나 채영학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부동자세로 꼿꼿이 서있었다.

불머리의 미국인은 고개를 들고 그를 힐끔 쳐다본다. 기생은 긴 저가락을 재치있게 다루며 엷게 저민 고기점을 냉큼 들어 그의 입가에 가져갔다.

불머리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려 고기점을 받아물고는 질근질근 씹었다. 그의 노랑눈이 채영학을 잡아먹을듯이 노려보았다.

채영학은 그가 자기의 살점을 저며내여 와작와작 씹어먹는듯한 환각을 느끼며 오금이 저릿저릿하였다.

재클린, 하우스만기관의 남해지구 담당관이였다.

원래 채영학을 하우스만기관의 첩자로 흡수한자는 그가 아니였다. 헌데 채영학의 상급이 어디론가 조동되면서 지난 7월 재클린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사람은 바뀌였으나 채영학과 같은 첩자들은 마치도 고정재산이 넘겨지듯이 고스란히 재클린에게로 넘어갔다.

한밤중에 채영학을 대구로 불러들여 처음 만났을 때 재클린은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물었었다.

《톰슨을 기억하오?》

채영학은 어리둥절했다.

톰슨? 누구인가? 감시대상이였던가? 아니였다. 그럼 누굴가? 이름으로 보면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인일것이다. 혹시 모른다. 개명한 동양인이거나 혼혈인일수도 있다.

채영학은 마진에 현재 거주하고있거나 체류중인 사람들중에 톰슨이 누구였던지 기억을 더듬었다. 머리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렸으나 톰슨이라는 이름을 기억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대답하면 무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게다.

채영학은 시치미를 뚝 따고 대답했다.

《마진항에 들어온 미군군함의 해병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며칠전에 항구의 술집에서 싸움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걸 싹 정리하고 그 해병은 고스란히 함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클린은 물었다.

《그게 언제요?》

《그게 언젠가 하면…》

채영학이 언제라고 말하면 좋을가 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재클린이 역습하듯 따져물었다.

《당신, 왜 거짓말을 하오?》

채영학은 흠칫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재클린의 메고양이처럼 노란 눈동자에서 파란 불꽃이 팔팔 일었다. 채영학은 가슴이 섬찍했다.

(보통놈이 아니구나. 첩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능구렝이가 분명해. 심문솜씨 또한 여간 아니겠어. 헌데 중요한것은 이자가 나를 여간만 증오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우린 처음 만났는데 왜 그럴가? 상전에게서 나에 대해 나쁜 평을 들은게 분명해. 난 그의 지시대로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여다닌것밖에 없는데… 역시 미국인들은 믿을게 못돼. 헌데 지금세상에서 그들을 믿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개처럼 엎드려 발바닥을 핥으라고 해도 서슴없이 핥아야지만 생존할수 있다.)

《제가 그만…》

채영학은 말을 더듬었다.

《제가… 삭갈렸나 봅니다.》

《삭갈렸나 봅니다?!》

재클린은 채영학의 말을 흉내내더니 씹어뱉듯이 말했다.

《좋지 않소, 미스터 채.》

재클린은 사진 한장을 그의 앞에 던졌다. 두사람이 열대림의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이였다. 한사람은 얼룩덜룩한 훈련복을, 다른 한사람은 번들거리는 비행사복을 입고있었다. 훈련복을 입은 사내는 재클린 본인이고 그곁의 얼굴도 채영학에게는 낯이 익었다.

채영학의 머리속으로 지난 일들이 번개처럼 스쳤다.

(아, 그때 그자는 톰슨이라고 했었지. 그 이름이 가명인줄 알았는

데 본명이였는가?)

재클린이 말했다.

《알아본 모양이군. 톰슨은 내 형이요.》

채영학은 쇠몽치로 뒤통수를 둔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였다. 속담에 원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꼭 이를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한때 채영학은 일본사람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태여난것을 여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식민지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사람이 되여 무제한한 폭력을 휘두르고싶었다. 그는 가까스로 순사시험을 치르었고 파출소 순사로 되였다. 그는 일본인서장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누구보다도 영악스럽게 일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마진시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어느날 경찰서로 미군비행사가 붙들려왔다. 전쟁초시기 일본군의 진주만기습으로 수많은 군함들을 맥없이 잃고 제해권을 상실하였던 미군은 국민들의 사기를 충천시킬 목적으로 일본본토에 대한 대대적이면서도 모험적인 첫 공습작전을 실행하였다. 그때 일본해군과의 격전을 피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태평양 한가운데 세워놓고 비행기들을 날려보내다보니 폭격을 마친 함재기들은 되돌아갈 연유가 전혀 없었다. 폭격을 마친 미군비행사들은 가부간 중국해안쪽으로 착륙하며 항일세력의 도움을 받아 본국으로 귀향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어리석은자는 그만에야 마진지역에 락하산을 타고 내려와 붙잡혔던것이다.

당시 채영학은 일본본토를 폭격하고 숱한 일본인들을 죽인데 대한 자기의 분노한 심정을 상전들에게 여실히 증명한다는게 그만에야 비행사를 매달아놓은채로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인것이다. 그자의 이름이 톰슨이였다. …

기생이 방안에서 나가자 재클린은 내프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채영학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채영학이 상앞에 조심스럽게 나앉았다. 역한 노린내가 후각을 매우 불쾌하게 자극했다.

채영학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의 크고 비대한 몸뚱이를 잠자코 지켜보던 재클린은 제손으로 큰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내밀었다.

《그간 일을 잘했더군. 한잔 받소.》

채영학은 황송하여 잔을 받아 고개를 돌리며 쭉 들이켰다.

술이 어찌나 독한지 불줄기가 그대로 목줄기를 태우며 위안으로 들어가는것같았다.

채영학은 그쯤한것은 아무것도 아닌듯한 표정을 지으며 술잔을 조심히 상우에 올려놓았다.

재클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주 일을 잘해. 보이는족족 죽여버렸더군. 남자, 녀자,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때려죽이고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당신은 경찰보다는 군인이 더 어울려. 우리 미군은 당신네들보다 몇백배로 사람을 잘 죽이지. 그러나 그건 군인의 일이고… 잔인성은 곧 군인의 기질이니까. 그런데 첩보원의 우수한 기질은 무언가? 교활성이요. 당신네가 마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선거명부는 대체 어디에 있지? 또 서장이 올려보낸 보고서처럼 마진시내 선거사업을 사전에 일망타진했기때문에 선거명부라는건 애당초 없었다는건가? 그런건 관청에 앉아있는 바지저고리들이나 얼리는 말장난이고… 내겐 전혀 안통하지.》

채영학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찍소리도 못했다. 함부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어떤 결과가 차례지는지 이미 겪어보았던것이다.

재클린은 상을 탕탕 두드리며 노성을 터뜨렸다.

《우리가 총도 대포도 아닌, 그깐 백성들의 혈서니, 도장이니 하는게 찍힌 선거명부를 왜 그리도 중시하는가? 미국은 이번 5.10단독선거를 유엔감시단까지 끌어들이면서 품들여 준비해 단행했소. 그게 뭐 당신네 어리석은 령감들이 <국회>라는 말잔치상에 모여앉아 개싸움이나 벌리라고 한게 아니요. 그 <국회>를 통해 리승만<정부>를 조선의 합법적인 정부로 둔갑시켜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실현하자는데 진목적이 있소. 그런데 오는 8월 25일 남북조선대표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전조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조선대표들로 전조선적인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한다고 하오. 그다음에는 온 세계에 대고 북과 남에 주둔한 미쏘 량군의 동시철군을 요구한다는거요. 쏘련군은 벌써 철군할 준비를 하고있소. 결국 뭘 말해주는가?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파탄을 의미한단 말이요.》

재클린은 갑자기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잘 듣소. 정보에 의하면 마진시에서는 이미 선거사업이 종결되였

고 곧 대표들이 38도선을 넘기 위해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오. 특징적인것은 대표들의 안전을 위해 명부와 대표들을 분리했다는거요. 그러니 대표 한두놈을 잡아들인다고 해도 큰 가치가 없소. 꼭 명부를 찾아내야 해. 명부를 움직이는 련락원만 색출해내면 대표들은 이미 몽땅 붙잡은것이나 다름없소. 이것을 두고 하나의 올가미로 두마리의 토끼를 옭아맨다고 하지. 당신네는 뭐 하나의 돌로 두마리의 새를 잡는다고 하던가. 역시 속담 한가지만 보아도 조선사람들의 머리가 좋은것같아.》

취기가 올라서인지 재클린은 여느때없이 말이 길었다.

채영학은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만 조아리며 임금앞의 신하처럼 《황송하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외울뿐이다.

재클린은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린 채영학을 밟을수록 가슴속에서 취기와 함께 꾸역꾸역 밀려올라오는 울분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저런 비굴한 녀석에게 자기의 형이 맞아죽었다. 푸른 하늘을 기세높이 날며 미국의 억센 독수리로 자처하던 형이 저녀석에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나중에는 이곳의 삼복철 잡개처럼 매달려 피흘리며 맞아죽었다!

재클린은 당장이라도 권총을 빼들고 채영학의 비둥비둥한 몸통에 한탄창을 다 갈겨버리고 시궁창에 툭 차던지면 속이 후련할것같았다.

어제날에는 일본의 주구가 되였고 오늘은 미군의 수족이 된 너절한 놈, 헌데 유감스러운것은 저런것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도무지 실행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진주할무렵 남조선에서는 이미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들이 조직되여 각 지역의 일제경찰서, 행정사무소들을 접수하고 치안유지와 건국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있었다. 미국은 북위 38도선이남의 지역에서만이라도 자기들의 점령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자생적이며 민중적인 권력기구들부터 모조리 파괴해야만 했다.

조선총독부청사에 나붓기던 일장기를 내리우고 대신 성조기를 올리띄운 미군정은 일제때 존재하였던 식민지경찰체계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일제시기 경찰로 복무하였거나 일제에 의해 훈련된 친일분자들을 대대적으로 고용하였다. 일본이 패망하자 은신하였던 대다수의 친일분자들이 미국의 비호속에서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총을 들고 해방된 이 땅에서 또다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애국자들과

그 후손들을 체포, 구금, 고문, 학살하였다.

해방직후 북에서는 일제식민지지배의 도구노릇을 하였던 친일경찰들을 비롯한 매국역적들이 깡그리 청산되였으나 남에서는 미군정의 비호속에 친일세력들이 이전직위에 복귀되거나 오히려 승급하게 되였으며 더 악랄하게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해방된 땅에서 친일경찰이였던 자가 반일투사를 고문하고 때려죽이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표창받는 거꾸로 된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졌다. 채영학도 바로 그 혜택을 받았다.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고등계경찰로 복무하던 채영학은 마진시경찰서 사찰계장으로 승급된것이다. 일본에 충실하였던것만큼 미국에도 충실한 주구임이 틀림없지만 채영학의 수돼지같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재클린은 맞아죽은 불쌍한 톰슨에 대한 련민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더러운 자식!)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끓고있었으나 재클린은 노랑눈에 삵의 미소를 지으며 잘 익은 고기점을 골라 채영학의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그래도 이 멍텅구리는 아직 쓸모가 있다. 아무리 미워도 사냥을 하는 동안에는 개를 잡아먹지 않는 법이지.)

재클린은 품속에 손을 넣어 사진을 한장 꺼내여 내밀었다.

《만일 당신이 마진지역에서 명부를 놓치면 지구 한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명부를 뺏아와야 하오. 당신이 이곳 마진과 경상도에서는 발을 좀 놀릴지는 몰라도 다른 곳에서는 눈먼 시라소니에 지나지 않을거요. 그때는 이 녀자와 협력하오.》

사진속에서 검은 기모노를 입은 30대후반, 40대초반으로 짐작되는 녀인의 새까만 눈동자가 채영학을 노려보고있었다.

채영학이 너무도 잘 아는 얼굴이였다. 초기에 채영학을 일본첩자로 길들였고 해방된 후에는 제 살길을 찾기 위해 첩자들을 고스란히 하우스만기관에 넘겨버린 다나까 야스꼬라는 일본헌병대 특고과 중위였다. 첩자들을 새 상전에게 모두 섬겨바치고 일본으로 건너간줄 알았는데 결국 하우스만기관에 붙어서 밀정짓을 계속하는 모양이다.

재클린은 채영학의 표정을 살피며 빈정거렸다.

《아는 녀인이라 무척 반가운게군. 다나까 야스꼬는 한때 이곳 마진에서 활약했다더군. 야스꼬는 이곳에 뿌리깊은 붉은 지하조직이 움직

이고있다고 주장하였소. 당신도 알거라던데.》

《예, 알고있습니다.》

채영학은 수긍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다.

(다나까 야스꼬는 과대망상증과 야망에 불타는 어리석은 계집이요. 그는 이곳에 붉은 공산조직이 숨어있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게 했소. 그는 경찰조직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첩자로 매수했었소. 그러나 그가 찾아낸건 쥐뿔도 없었단 말이요.)

차기완도 야스꼬의 의심대상의 하나였었다.

얼마전 채영학은 부산에서 전근하여온 형사에게 당분간 차기완을 밀착감시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혹시 차기완이 수배중인 차상준과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설에 의하면 차상준은 곧 마진을 떠나려고 한다는것이다. 차상준이 다른 곳에 옮겨가 안착하려면 얼마간의 돈이 필요할것이고 하다면 부친인 차기완의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형사가 하루종일 차기완을 미행하여 걷어들인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야스꼬가 현재 재클린의 신임을 받는다는것을 감촉한 채영학은 야스꼬에 대한 불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재클린이 말을 계속했다.

《현재 야스꼬는 서울에서 리계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있소. 이건 그와의 련계에 필요한 전화번호이고…》

채영학은 두손을 내밀어 재클린이 넘겨주는 쪽지를 공손히 넘겨받았다.

그가 쪽지를 안주머니에 깊숙이 간수하는것을 지켜보던 재클린은 긴 손가락을 올리세워 주의를 집중시켰다.

《야스꼬의 대호는 <검은비수>요.》

채영학은 흠칫 놀라며 재클린을 한번 마주보고는 눈길을 떨구었다.

(《검은비수》? 결국 야스꼬가 《검은비수》?!)

재클린은 채영학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왜 놀라오? 들어본적이 있소?》

《예, 각하.》

채영학은 주밋거리다가 용단을 내려 설명했다.

《각하, 닷새전 마룡산에서 한 녀인이 죽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검은비수>를 그 녀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있습니다. 각하, 외람되오나 경찰서에서 찾고있는 이전 <사꾸라>망의 살인업자와 각하가 말씀하시는 <검은비수>가 동일한 인물인지 알고싶습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면?》

《미숙한 저로서는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당시 야스꼬가 서울에 있은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마룡산에서…》

재클린은 흥 하고 코방귀를 내불며 채영학의 말을 잘랐다.

《몸뚱이가 서울에 있으니 천리밖에 있는 사람을 죽일수 없다 이거요? 당신 정말 어리석구만.》

《죄송합니다, 각하.》

채영학은 머리를 조아리며 속으로 투덜거렸다.

(젠장할, 《검은비수》가 하수인을 시켜 처리한것이라고 직방 말해주면 될걸 가지구… 그리고 살인교사와 살인자가 같은가, 이 건방진 양키놈아.)

채영학은 송구한 표정을 짓고있었으나 내심 잔머리를 굴리고있었다.

(야스꼬는 거의 10년동안을 마진에서 활동했지. 아마 그때 내가 모르는 비밀망도 꾸려놓은 모양이군. 헌데 대체 마룡산에서 김인혜를 직접 살해한자는 누굴가?)

채영학은 무척 궁금했으나 더이상 캐묻지 않았다.

재클린이 흥미있는듯 물었다.

《그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였소?》

《단서를 찾고있습니다.》

《그럴테지.》 하고 재클린은 비웃었다.

《그 건은 그쯤하고 덮소.》

《예?!…》

채영학이 얼른 대답하지 않고 망설이자 재클린의 파란 눈에 독기가 서렸다.

《<검은비수>에 대해 알려주는것은 당신네가 괜한 말썽거리를 만들지 말라는거요. 경찰서의 총력을 명부를 찾는데 집중하시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하고 재클린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했다.

《어쩌면 <검은비수>가 당신의 방조를 청할수도 있소.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요구에 응해야 하오.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말이요. 그를 내가 보낸 특사로 생각하시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채영학은 여전히 속으로 게두덜댔다.

(흥, 《검은비수》에 대한 재클린의 신임이 꽤나 대단하군. 결국 살인현장에 빼빼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를 보란듯이 떨궈놓은것도 다 쪼간이 있었구나.)

재클린은 할 말이 끝난듯 손을 흔들어 물러가라는 시늉을 하고나서 손벽을 쳤다.

채영학은 들어설 때는 꼿꼿하게 경례를 하며 사뭇 위신있게 들어섰으나 지금은 엉치를 돌려댈념도 못하고 무릎을 끓은채로 엉기엉기 뒤걸음쳤다. 그가 문에 채 못미쳤는데 미닫이가 주르륵 열렸다.

채영학은 머리를 조아리고 엉치를 하늘로 쳐든채 뒤걸음질하는 제꼴을 굽어보며 입을 싸쥐고 깨고소하게 키득거리는 기생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라 속이 울컥했다. 그러나 문지방을 지나 복도에 나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재클린의 방에 들어가는 기생들의 치마자락이 채영학의 코끝을 스치고 미닫이문이 탕 닫길 때까지 무릎을 끓은채로 일어설념을 못했다.

(난 한마리의 사냥개일뿐이다!) 하고 생각하니 꼭 벌거벗고 나앉아 오강물을 퍼마신 기분이였다.

집이 불타도 빈대 타죽는것을 보면 시원하다는데 그는 불을 콱 질러 이 료정도 재클린도 한꺼번에 활활 태워버리고싶었다.

밖으로 나온 채영학은 우울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푸른 물감을 물들인듯 새파랗고 두둥실 떠오른 흰구름은 마치도 목화송이가 가볍게 날아오른것같았다.

채영학은 화창한 그 하늘이 한폭의 그림이라면 단숨에 쪼박쪼박 찢어발기고싶은 심정이였다.

7

민숙이는 아이 셋을 모두 거느리고 집을 나섰다.

한쪽돌쩌귀가 떨어져나간 나무대문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건들거렸다.

민숙이는 비물에 거무스레하니 젖은 무거운 대문을 안깐힘을 써 우로 쳐들면서 당겼다. 처진 밑끝이 바닥의 흙을 벅벅 긁으며 마지못해 끌려온다.

(이 대문도 주인을 잘못 만나 매일 구두발에 채우면서 꽤 고생을 하는구나. 그것도 래일이면 끝날거야.)

해방된 해 가을 민숙이는 남편 차상준과 함께 이 집으로 분가해왔다. 뜨락이 있는 아담한 살림집이였다.

그날 아궁에 첫불을 지핀 초저녁부터 집들이축하인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 그 이튿날도 그리고 다음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왔다.

방안에 가득 둘러앉은 청장년들앞에서 남편은 열기띤 목소리로 모두다 건국사업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군 하였었다.

그리고 깊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흥분하여 민숙이에게 속삭였다.

《여보, **김일성**장군님은 일제를 타승하시고 조국을 해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나라를 부강번영할 자주독립국가로 이끌어주실 걸출한 령도자이시오.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로소 누구나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따라 새 조국건설에 나서야 하오. …》

차상준은 만주에서 지낼 때 들은 빨찌산이야기를 계속하여 들려주었다.

그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민숙이를 크게 감동시켰다. 두눈을 잃고도 조국해방을 그려보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며 사형장으로 나갔다는 녀투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흐르는 눈물로 베개잇을 흠뻑 적시였다.

민숙이는 남편에게 물었었다.

《그 녀투사에게도 자식이 있었겠지요?》

《피덩지같은 어린 자식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손에 무장을 잡았다오.》

《어쩌면 그렇게 모질수가 있어요. …》

《여보, 그건 모진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자기의 자식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였기때문이요. 그런 항일렬사들이 가정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싸웠기에 해방된 오

늘이 있는거요. 그러니 당신도 집안에서만 맴돌지 말고 한가지라도 건국사업에 이바지해야 하오.》

《알겠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건국열로 들끓었다. 하지만 미군이 들어와 군정을 선포하고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세상은 뒤바뀌였다.

민숙이네 집을 찾아오던 청장년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인민이 주인이 된 새 나라를 건설하자고 뛰여다니던 남편은 죄인으로, 수배자가 되여 숨어지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민숙이는 깨끗이 빨아다린 학생복을 단정히 입은 정인이와 알락달락한 색동저고리를 입은 두인이를 앞세우고 길에 나섰다. 정인이는 아장거리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갓난아기 예곤이는 자주색무늬포단속에서 새빨간 주먹을 꺼내들고 응아응아 코소리를 내며 포근한 엄마등에서 기분좋게 놀고있다. 아침부터 서두른 걸음인데 벌써 해는 중천에 떴다.

갈림길에 이른 민숙이는 곧추 뻗은 큰길대신 바다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좁은 오솔길을 톺아 숲이 울창한 언덕을 넘어서니 파란 남해바다가 반기듯 다가왔다.

어느새 정인이와 두인이는 흰 모래불을 차며 깔깔거리며 뛰고있었다. 두인이가 갑자기 두팔을 쭉 내밀며 어푸러졌다.

민숙이는 황급히 달려가 안아일으켰다. 볼에 금가루같은 가는 모래알을 잔뜩 묻힌 철부지 두인이는 천진란만한 눈동자를 생글거리며 자잘한 젖이를 드러내고 해해 웃었다.

싱그러운 바다바람이 가슴을 흠뻑 적시며 불어왔다.

민숙이는 바다바람에 앞머리칼을 날리며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배처럼 떠있는 푸른 알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항상 따스했던 남쪽바다가 마진, 민숙이에게는 두번째 고향이나 다름없는 정든 곳이였지만 이제는 부득불 떠나야만 했다. 마진을 떠나간 후에도 오래동안 이곳이 그리울것이다. 물 나면 모래판에서 게랑 가재랑 달음질하고 물 들면 백사장에 누워 별 헤다 잠들었다던 어느 시인처럼 이 따뜻한 남쪽바다를 평생 잊지 못할것이다.

《엄마, 우린 꼭 가야 하나요?》

정인이가 하얀 모래불을 빠드득빠드득 밟으며 다가와 아쉬운듯 물었다. 어린 마음에도 이 푸른 바다를 떠나는게 싫은 모양이다.

민숙이는 딸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다.

《그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우리 정인이가 오기를 무척 기다리고계신단다.》

민숙이는 한숨을 내쉬였다.

이곳에 비하면 남이섬은 그야말로 궁벽한 곳이다. 보이는것은 물과 돌이 전부인 곳이다. 그곳에서 정인이는 한동안 몹시도 심심할것이다.

정인이는 민숙이의 어린시절의 모색을 너무도 신통하게 닮았다. 하지만 지금의 어린 정인이는 쾌활하였다. 저 나이때 숙이는 그렇지 못했다. 궁벽한 섬에서 자갈이나 쥐고 놀던 어린 숙맥이였다.

민숙이가 10살때까지만도 남이섬에는 살림집이라고는 서너집밖에 없었다. 모두 척박한 땅에 조나 보리를 심으며 농사를 지었다. 애기손바닥만한 땅에서 한해 거둬들이는 곡식이래야 너무 보잘것없었으나 누구도 기슭으로 밭을 늘일 엄두를 못내였다. 한뙈기의 땅에라도 곡식을 심고싶은 심정이야 오죽하랴만 해마다 장마철이면 탁류가 무섭게 범람하여 봄내 땀흘려 심어가꾼 곡식을 그대로 휩쓸어버리니 가난을 팔자로 여기는 그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민숙이는 매일 부모들의 손에 끌려 밭으로 나가군 했다. 사방 물로 둘러싸일 때에는 아장거리며 놀아도 부모들의 시야안에서 놀아야 했다. 예닐곱살에 잡히면서야 집에 떨어져 닭모이도 주고 남새밭의 김도 매면서 집을 보았다. 도적이 들가봐서가 아니였다. 도적이 들어 가져갈것이 없기도 했지만 몇집밖에 안되는 가난한 섬에 도적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남이섬의 어른들은 자식들을 집에 떨구어두면 어느때든지 강녘으로 나갈것같아 기어코 밭으로 데리고 나가군 했던것인데 숙이가 혼자서는 절대로 물가에 나가지 않는 착한 소녀라는것이 인정된 후로는 집에서 혼자 놀게 내버려두었다.

어린 숙이에게는 손바닥만한 남이섬에 두려운것이 너무 많았다. 파란 물결이 잔잔하다가도 통나무며 바위들이 통채로 떠밀려 엎어지고 뒤쳐지며 몰려오는 꾸룩거리는 탁류도 무서웠지만 안침한 양지쪽언덕에 자리잡은 《장군무덤》은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였다.

민숙이는 그 돌무지부근에만 가도 시커먼 두억시니가 왁 달려들것 같았고 밝은 대낮에도 사람의 발뒤축에 붙어 따라다닌다는 딸깍귀신이 몽당투성이의 작은 발뒤축으로 파고드는것같아 그쪽으로는 눈길을 돌리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런데도 그 무덤이 얼마나 뇌리에 박혔는지 낮이건 밤이건 느닷없이 불쑥불쑥 떠오르군 했다.

어떤 날 밤에는 무덤을 파헤치고 솟구쳐오르는 하얀 유령의 모습이 꿈에 생시처럼 나타나 잠자리에서 와뜰 깨여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민숙이는 학질을 만난듯이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울음을 왕왕 터뜨렸다.

온종일 밭일에 시달리다 굳잠에 들었던 아버지가 깨여나 《이년 정말 <장군무덤>에 가져다놓고말가부다.》 하고 짜증을 내면 어머니의 가슴으로 파고들며 바들바들 떨면서 뜬눈으로 새벽을 맞기도 했다.

늦가을이 오면 버림받은 이 옛 류배지로 한성에서 사는 사촌오빠 민영준이 처자를 거느리고 건너왔다. 민숙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맏형인 옛 의병대장 민룡호의 제사를 부디 남이섬에서 지내군 하였던것이다. 그날이면 민룡호의 위패와 함께 그가 의병대를 이끌고 왜병들을 칠 때 쓰던 투구와 갑옷을 반드시 상앞에 놓았다.

아버지의 제를 아들이 주관하여 자기 집에서 지내는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으나 총독부가 도사리고있고 헌병들과 순사들이 긴칼을 절컥거리며 쏘다니는 한성의 한복판에서 의병대장의 제를 지내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수가 없는탓에 민영준은 남이섬에서 제를 올려야 한다는 삼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것이다.

그날도 제를 올리려고 남이섬으로 넘어왔던 민영준은 상을 물린 후 민인호에게 간곡히 말하였다.

《삼촌, 이게 뭡니까. 삼촌네 자식들은 모두 숙맥들로 자라고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천자문이나 익히고 <춘추>, <사기>나 보면서 공자 왈, 맹자 왈 할 때가 아니예요.》

민인호는 낯을 찡그리고 대통안에 쌓인 재를 탁탁 털었다.

민영준은 바투 다가앉으며 말을 계속했다.

《물론 삼촌네 형편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킨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살림이 어렵더라도 자식들을 학교에 꼭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백성의 처지에서 해방되려면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힘은 지식에서 나오고 그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집안의 마지막 꼬부라진 숟가락까지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반드시 공부시켜야 합니다.》

민인호는 성을 버럭 냈다.

《지금은 온통 왜놈세상인데 왜놈의 글과 지식을 배울바엔 벽촌에서 무지렁이로 사는게 낫다.》

《삼촌,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똑하면 살아나오는 법이예요. 도회지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고 대개 조선사람들이 선생이예요. 혹간 왜놈교원에게서 왜말을 배운다고 해도 조선사람의 얼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마침내 그가 삼촌을 설득하여 민인호의 자식들은 차례차례 한성에 올라가 그의 집에서 하숙하며 중학공부를 할수 있었다. …

민숙이는 바다가를 벗어나 시집이 있는 신마진구역으로 들어섰다. 신마진은 왜정초시기 일본인들의 거류지역으로 개발된 곳이였다.

민숙이의 시아버지 차기완은 일본인들보다 두배나 더 많은 돈을 주고 중심지역에 2층짜리 양옥집을 덩실하니 지어놓았다. 해방후 일본인들이 쫓겨가면서 시집을 내놓은 다른 가옥들은 대개 적산으로 등록되였다. 그래 지금은 시청의 관료들과 미군장교들이 살고있었다.

록음이 둘러싸인 아담한 2층주택의 키낮은 대문가에 이른 민숙이는 반쯤 열려있는 대문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었다.

2층의 창문들은 활짝 열리고 바람에 흰 창가림이 가볍게 날렸다. 깨끗하게 비질한 마당 한가운데 정자나무가 있었고 그 그늘아래에는 대나무로 엮은 흔들의자가 쌍으로 놓여있었다. 반들반들 윤기나는 널마루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 란초화분들이 주런이 놓여있었다. 청기와를 씌운 담을 따라 키돋움한 포도넝쿨에는 주먹같은 포도송이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달큰한 향기를 풍겼다.

(이 큰집을 알뜰히 거두느라고 형님이 고생하겠구나.) 하고 민숙이는 생각했다.

시아버지 차기완은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온탓이여서인지 집안에 머슴이나 집사, 마름따위를 두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어 요즘은 자리에 노상 누워있다고 하니 집일은 고스란히 맏동서인 한정덕의 몫인셈이다.

한정덕이 차기완의 맏아들인 차종준의 후처로 시집올 때 민숙이는

이곳에서 살지 않았다. 그때 민숙이는 남편 차상준이 만주로 떠나간 후 일본경찰들의 박해를 피해 남이섬에 건너가있었다. 남이섬으로 간 이듬해에 민숙이는 마진에서 보내온 시어머니 옥씨의 서신을 받았었다.

《…정인이 에미야. 네게 불행한 소식을 알린다. 이번 청명날 친정집에 나들이갔던 네 형님이 불행하게도 만날고개를 지나다가 호환을 당하였구나. 사흘이 지나서야 산속에서 몇가지 유품을 찾아냈다. 밤낮이 따로없이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하직하니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구나. 밤이면 엄마를 찾으며 흐느끼는 손주, 손녀들의 모습이 내 가슴을 찢는다. 이런 때에 너라도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마진으로 돌아올 생각은 아예 말어라. 네 시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따로 기별할 때까지는 남이섬을 떠나지 말라누나. 마진은 예전같지를 않다. 맏이의 소꿉친구였던 채영학이 경찰서의 고등계형사인지 뭔지가 되였는데 수시로 집에 찾아와 준이(집안사람들끼리는 둘째아들 차상준을 꼭 준이라는 애명으로 불렀다.)의 행처를 묻는구나. 그러니 넌 남이섬에 꾹 박혀 지내거라. 귀염둥이 정인이, 대곤이가 보고싶어도 이 할미는 꾹 참고 기다린다. 이제 좋은 날이 오겠지. 그때 우리 모여살자꾸나. 시어머니로부터.》

그로부터 몇달후 또 서신이 왔다.

《…정인이 에미야, 집안에 한가지 대사가 생겼다. 너의 <사랑언니>인 한정덕이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였다. 맏며느리 오씨를 그렇게 불행하게 떠나보낸지 한해도 채 안되여 또 며느리를 들이는게 사람들 보기 멋해서 식은 간소하게 치르었다. 네 시아버지가 초기에 반대를 하였지만 맏이가 집안일을 이 할미 혼자 맡아하게 내쳐둘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여 이번 혼사가 이루어졌구나. …어쨌든 젊은 한정덕이 집안대사를 다 맡아안게 되였으니 이 늙은 몸은 좀 쉬게 되였구나. 여가가 생기니 또 정인이랑 대곤이랑 보고싶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강아지>들… 다들 잘 있으리라 믿는다. 너도 몸성히 지내거라. 시어머니로부터.》

후처로 들어온 한정덕은 남편복이 없었다. 그가 차씨집안으로 들어온 후 다섯달후에 태백산으로 등산을 떠났다던 차종준은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싸늘한 시신이 되여 돌아왔던것이다. 그 소식도 민숙이는 남이섬에서 전해들었다.

8

민숙이와 한정덕은 참 흔치 않은 인연이였다. 근 스무해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천진한 단발머리소녀였었다.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너희들은 동서간이 되여 한지붕아래에서 살게 되리라고 예고했더라면 어이없어 까르르 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1930년 가을 민숙이는 사촌오빠 민영준을 따라 한성으로 올라왔다. 그해 12살에 잡힌 그는 정동에 있는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당시)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였던것이다.

한성역에서 내려 처음으로 전차를 타보는 어린 소녀는 겁에 질려 민영준의 곁에 딱 달라붙어 비맞은 강아지마냥 몸을 덜덜 떨었다. 사방물로 싸인 척박한 자갈밭에서 노란 조나 붉은 수수를 심어가꾸면서 간신히 구복을 채워오던 민숙이에게는 두바퀴짜리 인력거며 알락달락 장식한 우편마차조차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이였다.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는것이 신기하다. 검은 연기를 방귀처럼 내뿜으며 통나무가 빠개지는것같은 경적을 빵빵 울려대는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것은 그가 상상속에서도 그려보지 못하던것이였다.

어린 촌뜨기였지만 감수성이 빠른 소녀여서인지 분주스러운 도시환경에 인차 적응되였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아침일찍 일어나 가방을 둘러메고 혼자 학교로 갔다. 안국동정류소에서 전차에 올랐다가 다시 서대문거리로 가는 전차를 갈아타고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무척 기뻤다. 이 갈래가 복잡한 도시에서 사촌오빠와 한번 왔던 길을 정확히 기억하였다는것이 자기스스로도 믿어지지 않게 놀라왔다.

사촌오빠 민영준의 집에는 중학생과 대학생 열명정도가 하숙하고있었다. 민숙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콩나물을 큰 버치로 가득 다듬어야 하였고 겨울에는 하숙생들의 방에 불을 피워야 했다. 저녁식사이후에 다음날 쓸 콩나물을 다듬느라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에 그는 영어단어나 화학공식을 외우면서 콩껍질을 벗겨내고 뿌리를 다듬었다.

22시경이 되면 고요한 밤공기를 깨며 만두장사군의 처량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레미는 그것이 《뜨끈뜨끈한 만두요!》라는 소리라고 하였다. 어느 골목에서인가 《만두장수!》 하고 찾는 목소리가 들리면 민숙이는 (저 아저씨가 만두 하나는 팔겠구나. 돈있는 사람들이 만두를 많이 사주면 저 아저씨도 추위에 떨지 않고 인차 집으로 돌아갈수 있겠는데…) 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를 동정하였다.

삼경이 되면 야경군이 딱딱이를 《딱! 딱!》 치면서 순회를 했다. 그때에야 그의 오레미는 젖은 손을 행주치마에 문지르며 들어왔다.

그가 《이제는 그만하자. 래일 아침등교에 늦겠다.》라고 만류해서야 민숙이의 콩나물 다듬는 일이 끝났다.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날 부엌과 하숙방의 4개 아궁에 불을 지피는 일도 민숙이의 소임이였다. 남이섬에서 탄이라는것을 구경도 못하였던 그로서는 무연탄을 피우는 일에 쉽게 익숙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불은 잘 피지 않았다. 뽀얀 연기만 몰몰 피여올리다가 간신히 붙여놓은 모닥불마저 시커먼 탄덩이에 옮겨붙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그라졌다. 속상하고 손끝이 꽁꽁 얼어들고 눈이 아려서 하얀 입김을 호호 내불어 손을 녹이고 벌겋게 부어오른 눈두덩을 비비느라면 설음이 고여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어머니의 모습이 절로 떠오르며 따스한 그 품이 그리워 학교고 공부고 모두 집어치우고 숫눈덮인 고요한 남이섬으로 돌아가고싶었다.

민숙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오레미의 부엌일손을 돕다가 학교갈 시간이 되면 부엌에서 선채로 밥을 한술 먹고 뛰여가군 했다. 뻐스를 갈아타야 했고 등교시간이 한시간가량 걸리였다.

학교에 입학하여 한달가량 지나서 민숙이에게는 친구가 생겼다. 그가 아침일찍 정류소에 나가면 그 친구가 기다렸다. 그 친구가 정류소에 없으면 숙이가 기다렸다.

그는 민숙이보다 나이는 두살우였고 한학년 웃반의 학급장이였다.

민숙이는 얼굴이 동실한 보름달형이라면 그 소녀는 얼굴이 갸름한 닭알형이였다. 눈언저리와 관자노리에 주근깨가 박히고 두볼에 벌써 사춘기의 붉은 여드름이 돋았다. 살결이 하얗고 맑은편이였기에 주근깨와 여드름이 별로 도드라져보였다. 처음 교문앞에서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은 한정덕이야.》

《민숙이예요.》

《알아.》

한정덕은 옆주머니에서 기름종이에 싼 사탕을 한줌 꺼내주며 말했다.

《공부가 끝나면 날 기다려. 함께 돌아가자.》

《난 집이 멀어요.》

《그것도 알고있어. 난 더 멀어. 너희 집에서 좀더 내려가야 해.》

한정덕의 부모들은 시내에서 작은 문방구상점을 경영했다. 그들에게는 유독 딸자식이 하나뿐이였다. 하기에 그리 풍족하지는 못해도 딸만은 잘 입혀 내세웠다. 마침 한정덕의 집도 사촌오빠네 집과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었다.

그날 그들은 방송국이 있는 경치아름다운 고개길을 함께 걸었다. 눈가루를 날리며 하늬바람은 세차게 불었다.

가난한 숙이에게는 벌겋게 드러난 목을 감쌀 목수건이 없었다.

한정덕은 값비싼 분홍빛명주목도리의 한쪽끝을 자기가 반쯤 감고 그 반대켠을 민숙이가 감게 하고는 서로 꼭 껴안고 나란히 걸었다.

한정덕은 민숙이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날 언니라고 불러. 내가 너의 <사랑언니>가 돼줄게.》

당시 녀학교에서는 상급생이 마음에 드는 하급생을 골라 《사랑언니》라고 하면서 자매처럼 남달리 다정하게 지내군 하였던것이다.

민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때부터 민숙이와 한정덕은 등교와 하교를 함께 하였다.

부모형제와 떨어져 정이 그립던 민숙이에게는 한정덕이 정말 친언니처럼 자별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장갑이 한컬레 생겨도 서로 나누어 끼였고 사탕이나 과자가 생겨도 주머니에 건사했다가 함께 먹었다.

등교길이 멀었으나 민숙이는 한번도 지각한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거의 한달가량 등교를 못하는 일이 있었다.

다나까 야스꼬라는 일본인녀교원때문이였다. 그는 일본어와 일본력사를 가르쳤는데 조선력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외곡하면서 일본의 경제발전전망과 일본군대의 《강대성》에 대하여 허풍을 쳐가며 요란하게 선전하였다. 20대중반기의 독신녀성으로서 몸매가 날씬하고 얼굴이 해말쑥한데 목소리에는 애교가 섞인듯했으나 때로 눈초리가 싸늘해지고 낯색이 새파래지면 해반지르르한 작은 얼굴에 독기가 오르는것이 꼭 야

채밭에 똬리를 튼 독사처럼 녀학생들의 가슴을 섬찍하게 했다.

일명 《천장절》로 불리우던 왜왕의 생일날에는 기모노를 입고 나와 거만한 태도로 의식을 진행하였다. 그날 뒤자리에 섰던 한정덕이 민숙이에게 뭐라고 속삭였는데 그것이 야스꼬의 눈에 걸려들었다. 의식이 끝나고 흩어지려는데 야스꼬는 민숙이를 불러세워 자기네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다.

뜻밖의 일인지라 민숙이는 당황하여 대답을 찾지도 못한채 어쩔줄 몰랐다.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 왕청같은 욕을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듣고있었다.

그때 한정덕이 민숙이의 앞을 막아서며 따져물었다.

《대체 이애가 뭘 잘못했다는겁니까?》

키가 작달막한 야스꼬가 번개같이 손을 휘둘러 저보다 한뼘가량 큰 한정덕의 뺨을 짝 하고 후려갈기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천황>폐하를 모독하였다!》

한정덕의 뺨에는 대번에 빨간 손자리가 났다.

한정덕은 입술을 깨물더니 또박또박 대꾸했다.

《당치않습니다.》

《너희들이 행사곡대신 다른 노래를 흥얼거리는것을 내가 들었다.》

《맨 뒤줄에 있은 우리가 허튼 노래를 흥얼거렸다 해도 맨 앞쪽에 있던 선생이 백여명의 합창속에서 그 소릴 과연 가려들을수 있었겠습니까?》

녀학생들이 사리를 따지는 한정덕의 말이 리치에 맞는다고 수군거리며 빙 둘러싸자 야스꼬는 광기를 부렸다.

《너희들은 또다시 <천황>폐하를 모독하려고 한다. 나랑 경찰서로… 아니, 헌병대로 가자!》

서준모라는 교무주임과 두명의 교원이 녀학생들을 헤치며 들어왔다. 서준모는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민숙이와 한정덕에게 소리쳤다.

《17시에 교무과로 오라!》

민숙이는 겁에 질려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빌붙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정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가지고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불여우

같은 야스꼬가 서준모를 유혹하여 신성한 교정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쉬쉬하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있는 한정덕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일본인이라면 저보다 십년아래인 독신녀성에게도 꼬리를 살살 저으며 삽살개마냥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려드는 서준모의 모습이 더욱 눈꼴사나왔다고 후날 민숙이에게 말했다.

민숙이는 두손을 모아 싹싹 빌어서라도 이번 일을 무마시키고싶은 심정인데 한정덕은 무작정 그를 잡아끌었다. 교실로 헤여지기에 앞서 한정덕이 속살거렸다.

《오후에 교무과로 가지 말고 기숙사앞으로 와라.》

민숙이는 머리를 저었다.

《그러다 퇴학당하면 어쩔려고요.》

한정덕이 꾸짖었다.

《이런 숙맥이라구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빌붙고있어! 그 꼴로 교무과로 가서 또 뭐라고 빌려구? 그냥 그렇게 꿇어앉아 빌붙어봐야 퇴학이 아니면 정학처벌을 받게 돼. 그러니 계속 공부하고싶다면 내 말대로 기숙사앞 잔디밭으로 와라. 꼭!》

민숙이는 정말로 잘못한것이 없었다. 야스꼬가 사람을 잘못 짚은것이다. 그렇다고 한정덕이처럼 사리를 따지고들어도 야스꼬가 실수했다고 반성할리는 만무하다.

《<천황>폐하를 모독하였다!》라고 웨친 야스꼬의 말은 그대로 사형선고와도 같은것이다.

이제 잘못을 따질것도 없이 교무주임 서준모는 뒤따라 웨칠것이다.

《<천황>폐하를 모독한자는 학교에 다닐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 《배일분자》로 몰리우면 교무주임도 영낙없이 경찰서나 헌병대로 끌려갈것이니까. 이제는 잘못한것이 없어도 죽도록 잘못했다고 빌붙어야 퇴학만은 면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천황폐하모독죄》는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큰 죄목이다. 그렇게 빌붙는 방법으로는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한정덕의 말이 속에 걸렸다. 그리고 민숙이만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를 옹호해나선 한정덕과 다른 친구들은 또 어쩌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바재이던 민숙이는 어쩌면 선배이고 학급반장인 한정덕에게 묘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덕은 아무런 타산도 없이 무턱대고 녀학생기숙사로 불러낼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것이다. 한정덕에 대한 믿음이 민숙이의 걸음을 교무과가 아닌 기숙사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명의 녀학생들이 모여있었다.

민숙이가 나타나자 한정덕은 고개를 끄덕여보이더니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사과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나무상자우에 성큼 올라섰다.

《학우들!》 하고 그는 마분지로 자작 만든 나팔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일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야스꼬와 같은 일본인교원들은 우리 조선녀학생들을 천시하고 일본사람에게는 리유불문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정신으로 길들이려 하고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불복하면 오늘과 같이 터무니없는 근거를 내들어 모욕하고 퇴학시키고 지어 경찰을 학원에 불러들여 잡아가게 하고있습니다. 학우들, 열흘전 지리교원인 스기무라는 최모라는 녀학생을 불러들여 너는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느니, 조선사람은 태여날 때부터 일본인의 노예로 태여났다느니 하며 세뇌교육을 하다못해 릉욕까지 하였습니다. 그 녀학생이 치욕을 참을수 없어 기숙사 뒤산에서 목을 매 자살하려다가 산지기에게 때마침 발견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정덕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아들였는지 야스꼬와 스기무라를 비롯한 일본인교원들의 불량행위들과 비행자료들을 일일이 폭로하여 녀학생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그는 이런 교원들밑에서는 더이상 교육을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학교당국이 대책을 세울 때까지 일체 학교에 등교하지 말것을 호소하며 동맹휴학을 선포했다.

체격이 우람진 녀학생이 제꺽 나서며 호응했다.

《옳다, 야스꼬를 당장 추방하자!》

《스기무라를 내쫓자!》

이어 네댓명의 녀학생들이 두주먹을 내흔들며 웨쳤다.

《스기무라는 악마다!》

《야스꼬는 선생이 아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본때를 보이자!》

《단결!》

《단결!》

…

흥분한 녀학생들의 목소리가 공지에 들썩했다.

《약속을 어기면 배신자다!》

《배신자는 없다!》

녀학생들이 흩어지자 한정덕이 민숙이의 손을 꼭 모아쥐며 물었다.

《무섭니?》

민숙이는 얼마후에야 이발을 떡떡 쪼으며 가까스로 한마디 했다.

《어…언니, 난 모…못해요.》

한정덕의 얼굴에 실망이 어렸다.

한참이나 뚫어져라고 민숙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는 한숨을 내쉬였다.

《할수 없지. 하지만 비밀은 지켜주겠지? 이건 <사랑언니>로서 부탁하는거다.》

민숙이는 그날 혼자 돌아왔다. 그는 두려워 속이 달달 떨렸다.

어떻게 입학한 학교인데 퇴학이라도 당하면 무슨 체면으로 부모님들과 사촌오빠와 오레미의 얼굴을 보겠는가.

이튿날 그는 여느때처럼 학교로 간다며 책가방을 들고나왔으나 교문으로 들어갈수가 없었다. 학교주변에는 졸업학년 학생들과 각 학급 학급장들을 비롯하여 핵심적인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길목들에 몇명씩 조를 무어 지켜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던것이다.

민숙이는 학교주변을 빙빙 돌다가 되돌아가군 하였다.

며칠후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소식이 알려지면서 리화녀자전문학교에서도 그리고 한성안의 여러 학교들에서도 일본인교원들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동맹휴학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20여일이 지나 일본의 《강대성》을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던 다나까 야스꼬와 횡포무도한 스기무라는 끝내 학교를 떠나가고 녀학생들은 다시 등교를 하게 되였다. 저들처럼 무맥한 처녀애들도 정의를 위해 뭉쳐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는 낯선 얼굴처럼 민숙이에게 한걸음 다가왔다.

동맹휴학은 끝났으나 한정덕은 졸업을 앞두고 중퇴했다.

《난 더이상 학교를 다닐수가 없어.》 하고 한정덕은 말했다.

교장은 이번 동맹휴학의 주동인물로 지목된 그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것을 권유했다. 일본경찰들과 특무들이 그의 일거일동을 주시했다.

한정덕은 떳떳하게 곱씹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어쨌든 야스꼬는 쫓겨가고 우린 승리했어.》

민숙이는 물었다.

《언니는 앞으로 어쩔셈이야?》

《방직공장 녀공으로 일할테야.》

《녀공?!》

민숙이가 놀라자 한정덕은 까르르 웃었다.

《상상밖이지? 그럴줄 알았어.》

그는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였다.

《넌 다 리해 못해. 그렇다고 차근차근 깨우쳐줄수도 없구나. 그러나 앞으로 너도 알게 되리라고 믿어.》

17살 난 한정덕은 다 자란 처녀였다. 그는 웃저고리의 단추가 금시 떨어져나갈듯이 팽팽하게 부푼 가슴을 당당히 내밀고 후회없이 교정을 떠나갔다.

민숙이는 그런 용기가 부러웠다.

한정덕이 떠난 다음 녀학생들속에서는 그가 로동조합의 어느 간부와 열애중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부모들이 결혼을 승인하지 않아 집을 뛰쳐나갔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민숙이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민숙이는 한정덕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중퇴하였다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던것이다.

한정덕이 떠난 다음에도 민숙이는 오래동안 거리를 오가는 녀공들의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군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피기없는 모습에서는 노예적굴종의식과 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민숙이는 한정덕의 말이 대체 무슨 뜻이였을가 하고 골똘히 생각해보았으나 전혀 알수 없었다.

민숙이가 학교를 졸업할무렵에 한성의 방직공장에서는 큰 파업이 있었다. 민숙이는 한정덕이 그 파업의 주모자로 지목되여 일본경찰들에게

잡혀가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쉬쉬하며 수군대는 녀학생들에게서 들어 알게 되였다. …

민숙이는 정인이와 두인이를 대문앞에 바로세우고 그들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며 강조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인사를 곱게 올려야 해요.》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넌 마치 남의 집에 온것같구나.》

민숙이는 앉은채로 고개만 우로 돌렸다.

한정덕이 갸름한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띠고 애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일찌기 장을 다녀오는지 그의 손에는 생선바구니가 들려있었다.

《형님.》 하고 민숙이가 일어서며 말꼭지를 떼는데 한정덕이 빠른 말씨로 밀막았다.

《우리끼리 있을 땐 예전처럼 언니라고 부르라니까.》

정인이와 두인이가 다소곳이 인사를 했다.

《큰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냐, 우리 귀염둥이들.》

한정덕은 두인이를 닝큼 안아들고 정인이의 볼을 다독이였다. 그리고는 민숙이에게 물었다.

《결심이 섰니?》

《예.》 하고 민숙이는 말했다.

《래일 떠나려고요.》

한정덕은 걱정스러운 낯색을 지으며 물었다.

《너 혼자 세 아이를 데리고 괜찮겠어?》

《서울역에 오빠와 오레미가 마중나오겠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여기서 서울까진 천리가 넘는데…》

《기차에만 오르면 되는걸요.》

민숙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나 한정덕은 여전히 마음을 못놓는것같았다.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 요즘 세월이 얼마나 어수선하니. 게다가 네 남편은 수배중이고… 여기 마진에서야 유지인 시아버님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별탈없다만 로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겠니. 그래서 내가 이미 시부모님들에게 말씀올렸어. 서울까지만이라도 너를 바래주고

돌아오겠다고…》

민숙이는 황급히 만류했다.

《큰집을 비우면 어쩌나요. 나 혼자 갈수 있어요.》

《고집부리지 말아.》

《시어머님건강도 예전같지 않던데… 난 정말 괜찮아요. 혼자 가겠어요.》

《넌 꼭 남처럼 말하는구나. 고작 사흘이야. 사흘동안에 무슨 큰 일이 나겠다고…》

《그래도 시부모님들이…》

《어머님은 이미 승낙을 하셨어. 그러지 않아도 아이 셋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네 걱정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주무셨더구나.》

민숙이는 속이 찌르르했다. 자식 둔 부모 근심놓을 날이 없다고 년로한 시어머니는 자식걱정으로 자기는 늙는다고 늘 말해왔었다. 그 시어머니에게 근심걱정을 하나 더 얹어놓은것같았다.

민숙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어머님이 절 많이 욕하시지요?》

한정덕은 머리를 저었다.

《그게 네탓이니? 잘못 만난 이 세월탓이지.》

한정덕은 두인이를 안고 정인이의 손목을 잡은채로 대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다.

《아버님, 어머님, 정인이네가 왔습니다.》

9

창가림이 흐느적거리는 2층의 침실에서 차기완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두 며느리를 내려다보고있었다.

한정덕은 오른손에 두인이를 안고 큰걸음으로 대문을 넘어서고있었다. 그는 보통사람보다 좀 여위고 긴 몸을 가지고있었으나 내딛는 걸음걸음에 자신만만한 기백이 있었다.

민숙이는 한정덕에게서 넘겨받은 생선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고 고개를 약간 수그린채 한정덕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알락달락한 색동저고리를 입은 두인이가 한정덕의 품에서 몸을 솟구쳐 어깨너머로 제 엄마를 넘겨다보고있었다.

차기완은 아마도 그애가 생글거리며 웃고있을것이라고 짐작했다.

민숙이가 이 집의 대문을 처음 넘어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남편 차상준의 일로 여러해동안 마음고생을 하여서인지 둥글고 복스럽던 얼굴이 퍽 수척해보였다.

부모는 행복에 웃는 자식편이 아니라 불행에 우는 자식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배중인 둘째아들 차상준의 걱정으로 발편잠을 자지 못한다고 차기완은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해방전 맏아들을 비명에 잃고 남은것은 둘째뿐인데 그마저 해방되던 해 가을 만정으로 분가해나갔다. 그후 1년이 지나 마진에서 기아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미군정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는데 이전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였던 박철우와 함께 재정부장 차상준은 폭동을 선동하였다는 죄명을 쓰고 검거되였다.

당시 시청의 시장대리였던 차기완은 경찰서장을 회유하고 묵돈도 찔러주어 차상준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차상준은 집구석에 박혀 숨어지낼 대신 오히려 밝은 대낮에 죄인들을 호송하는 경찰차를 보란듯이 습격하여 박철우며 숱한 폭동관련자들을 구출하고는 종적을 감추었다. 거리에는 박철우와 차상준을 붙잡으면 거액의 상금을 준다는 포고가 나붙었다.

차상준을 잡으려고 경찰들이 총출동하여 들이닥쳤을 때 차기완은 주먹으로 동가슴을 치며 말했다.

《그녀석이 끝내 이 집안을 몽땅 말아먹고야말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측은해보였던지 경찰서장이 오히려 《부모야 자식을 걸만 낳지 속을 낳는게 아니지 않는가.》 하며 차기완을 위로하였고 경찰들은 형식상의 수색을 하고는 돌아가버렸다. 앞대문과 뒤문에 감시를 붙였으나 그것도 며칠후에는 철수시켜버렸다.

아마도 만일 아들이 나타나면 차기완이 제손으로 꽁꽁 묶어 경찰서로 찾아가겠다는 말을 진담으로 믿은탓인지 모른다.

그러나 만정으로 분가한 둘째네 집은 그렇지 못했다. 거리에 내붙인 거액의 현상금은 《서북청년단》의 폭력배들에게 만문한 고기감을 던져준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의 로골적인 비호를 받는 그들은 밤낮이 따

로없이 만정에 있는 둘째네 집에 뛰여들어 남편의 행처를 대라고 행패를 부리였다.

하도 차기완이 마진에서 소문난 유지이고 미군정으로부터 당분간 시청일을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받은 유력자라는 후광이 있어 며느리와 손주들이 붙잡혀가거나 험한 꼴은 당하지 않은 모양이지만 시도 때도 없는 단련을 받으니 가뜩이나 약한 몸이 더 허약해지고 요즘은 우울증증세까지 보인다고 마누라가 말했었다.

민숙이가 당분간 친정으로 돌아가있겠다고 정식으로 알려오자 마누라는 눈물이 글썽하여 평생 하지 않던 말대꾸를 하였다.

《그러기에 내 뭐랍디까. 둘째네를 불러들여 함께 살자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자식간의 정은 천륜인데 둘째가 빨갱이라고 그렇게 싹 잘라버리고 등을 돌려댔으니 불쌍한 그애들이 어디 의지하겠소. 결국 며느리도 손주들도 다 잃게 되였수다.》

그때 차기완은 방바닥을 두드리며 한탄하는 마누라를 덤덤히 내려다볼뿐 아무런 위안도 못하였다. 그로서는 바라지 않던 일이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

체소하고 말없이 얌전한 둘째며느리를 볼 때면 그의 마음 한구석이 련민으로 아팠다. 먼 남이섬에서 살던 그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결심한것은 1935년 여름 차상준이 일본에서 류학할 때였다.

어느날 차상준이 도꾜에서 일본미인과 련애를 한다는 소문이 마진 세거리가 좁다하게 나돌았다. 차기완은 다짜고짜로 차상준을 불러들였다.

현해탄을 건너온 차상준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다짐했으나 차기완은 그가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것만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내선일체》니, 《동조동근》이니 하며 일제는 조선을 저희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해괴한짓을 다 벌려놓고있던 때였다.

차기완은 더이상 일본미인이니, 자유련애니 하는 요설이 들려오지 않도록 아들의 두다리에 혼인이라는 《족쇄》를 채울 결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중매군을 내세워 찾은것이 남이섬에서 사는 민숙이라는 처녀였다. 중매군은 어디서 구했는지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의 졸업사진까지 들고와서 얼굴이 동실한 졸업생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얌전한 애예요. 공부도 착실하게 하였고 성품도 참한 요조숙녀라나요. 한번은 이애때문에 그 무슨 집회인지, 휴학인지가 벌어졌는데 당

사자인 이애는 한번도 사람들앞에 나선적이 없답니다. 녀자란 그래야 하는거죠. 이 집안 며느리로서는 요런 애가 안성맞춤이예요.》

차기완은 구미가 동해 물었었다.

《가문은 어떤가?》

《몰락한 량반가문인데 이애의 큰아버지가 한때 의병대장이였답니다. 일본사람들이 하도 탄압을 하니까 궁지에 몰려 찾아간게 강 한복판에 떠있는 외진 섬이였다지 않나요. 그런 곳에서 태여나 째지게 가난한 집에서 고보까지 졸업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매 단정하고 귀여운 얼굴이였다. 입술선이 또렷하고 코날이 오똑한게 속은 보통 이악스럽지 않을것같았다. 이런 녀인이면 허풍에 바람이 든것같이 둥 떠있는 아들녀석을 꽉 잡아줄것같았다. 그래서 청실홍실로 맨 청혼서를 중매군을 통해 남이섬으로 보냈고 갑작결혼을 하고서야 차상준을 다시 일본으로 류학보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17살나이에 이 남해가의 도시로 시집을 온 민숙이에게 참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

차기완은 삐걱거리는 나무층계를 천천히 걸어내려왔다. 이 집을 세울 때부터 지금껏 몇번 수리를 했을뿐 낡은 층계는 교체하지 않았다. 그와 가족들이 수십년세월 오르내린 층계인지라 나무바닥의 한가운데가 닳아 움푹 패여있었다. 짜개바지를 입은 어린 차상준이 이 층계의 아래계단에서 보동보동한 발을 가까스로 들어올리며 아장아장 올라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차기완이 응접실로 들어서자 정인이와 두인이가 《할아버지!》 하고 반기였다.

차기완은 그애들의 키높이에 맞춰 무릎을 구부려 앉으며 두팔을 벌렸다.

《어이구, 우리 <공주님>들이 오셨구나!》

정인이는 그래도 한걸음 앞서 멈춰서서 인사를 깍듯이 하였으나 두인이는 아장거리며 다가와 차기완의 목을 그러안았다.

《할아버지, 나 보고싶었나요?》

두인이는 차기완의 귀에 보드라운 입술을 가져다대고 물었다.

차기완은 두인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대답했다.

《그럼. 뭐니뭐니해도 우리 두인이가 제일 보고싶었지.》

그리고는 정인이를 한아름에 그러안으며 말했다.

《어이구, 우리 정인이가 요 며칠새 더 예뻐졌구나.》

손녀들의 재롱을 받아주며 한동안 웃느라니 눈굽이 축축히 젖어든다.

차기완은 두손을 앞으로 맞잡고 서있는 민숙이에게 눈길을 돌렸다.

민숙이는 고운 나들이옷을 입고있었으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하기는 10여년동안 살던 곳을 또 떠나야 하는 심정이 여간 착잡하지 않을것이다.

차기완은 두팔을 내밀며 민숙이에게 말했다.

《예곤이를 인다오.》

할아버지의 팔에 안긴 예곤이는 그래도 낯이 설지 않은지 포동포동한 두손을 뻗쳐 차기완의 볼을 어루만지며 캐득거렸다.

차기완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함뿍 어렸다.

뭐니뭐니해도 손자손녀들의 재잘거리는 말소리, 웃음소리가 방안에 가득차니 오래간만에 사람이 모여사는 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하루뿐이다. 곧 이애들은 제 어머니와 함께 떠나갈것이다.

차기완은 예곤이를 민숙이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그래, 결심이 섰니?》

민숙이는 차분히 대답했다.

《예, 래일 첫차로 떠나렵니다.》

《가산은 어찌했느냐?》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큰 물건들은 여기 들여올걸 그랬구나.》

민숙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차기완은 한숨을 내쉬였다.

《하긴 그래. 재산이 무슨 대수냐. 사람이 중요한거지. 가산이야 후날 다시 마련하면 된다만 사람일이야 어디 그러냐.》

차기완은 한걸음 뒤켠에 선 한정덕에게 물었다.

《너도 함께 가련다며?》

한정덕이 다가서며 대답했다.

《예. 아무래도 세 아이에 보짐도 퍼그나 되겠기에 서울역까지라도 바래주고 돌아올가 합니다.》

차기완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승낙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동서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한정덕이 말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차기완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기야 뭘, 그래서 통행증이 필요하다지?》

《예. 요즘 바깥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니 아낙네끼리 가려면 아무래도 통행증이라든가 그 무슨 보증서가 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또 뭘 필요한게 없느냐?》

《다른 일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차기완은 중절모를 손에 들며 말했다.

《내 잠간 나갔다올테니 기다려라. 오늘 점심을 여기서 다같이 하자꾸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두 며느리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두 손녀들도 작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차기완이 문밖으로 나간 후 한정덕은 민숙이에게 돌아서며 살틀하게 말했다.

《오늘 내가 특식을 해줄게. 넌 그냥 앉아만 있어.》

민숙이는 제잡담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시부모님상을 차릴게요.》

두 며느리는 잠시잠간 시름을 잊고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10

시부모들의 점심을 준비하면서 민숙이는 여기 마진으로 시집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훨씬 넘게 흘렀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참 많은것이 변하였다는 생각을 하였다.

1935년 봄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할 당시 민숙이는 녀의사가 되고싶었다. 그러나 한성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의학전문학교들이 있었으나 녀학생을 받지 않았다. 한성에 녀자의학전문학

교가 나온것은 아쉽게도 민숙이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의 일이였다. 당시 일본에 녀자의학전문학교가 있다고는 하였지만 낯설고 물선 이국땅에 건너가 고학을 할 엄두는 감히 내지 못했다. 그만큼 민숙이는 겁이 많고 의지박약한 여린 처녀였다.

비록 고등보통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였으나 그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벽촌 남이섬으로 돌아올수밖에 없었다.

집에는 이미 4년전에 남자고등보통학교를 고학으로 졸업한 23살 되는 오빠 민영협이 부모들의 농사일을 돕고있었다. 그는 낮에는 농사를 하고 초저녁이면 매생이를 타고 방하마을로 건너가 야학을 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깊은 밤이면 다락방에 올라가 동이 틀 때까지 등잔불밑에서 책을 읽었다.

민숙이도 집에 온 다음날부터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밭으로 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의 일손에 그까지 합치니 섬사람들이 부러워하는게 헨둥했다.

오래간만에 하는 농사일이 쉬울리 없었다. 첫날 호미질에 손이 부르트고 강바람과 봄볕에 얼굴이 새빨갛게 익었다. 사나흘동안 밤이면 얼굴이 쓰리고 물집터진 손바닥이 불로 지지는것처럼 띠끔거렸다.

고등보통학교까지 나왔지만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였으니 아무 쓸모도 없다는 허무감, 앞날의 운명에 대한 좌절감으로 망연한 심정이였다.

저녁이면 식구들의 옷을 손질하는 어머니 곽씨의 일손을 도와 반짇고리를 안아내리거나 물레질을 했고 강변에서 베여다 말리워 잘 손질해 두었던 갈로 삿을 겯는 아버지에게 갈짚을 섬기기도 하였다.

어느날 곽씨는 딸에게 말했다.

《북한강얼음도 풀리고 제비가 날아올게다. 해묵은 겨울의 때를 벗겨내야지.》

민숙이는 어머니와 함께 물날은 수건을 쓰고 나섰다. 팔을 걷어올리고 대청소를 시작하니 구석구석에서 해묵은 오물이 그냥 쏟아지는 것같았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허리를 뚝뚝 두드리며 말했다.

《어이구, 이젠 그만하자.》

수건을 벗어들던 민숙이는 문득 머리우에서 찌룩거리는 쥐울음소리를 들었다. 천정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그래, 저기에 다락방이 있지.)

민숙이는 다시 비자루를 들고 삐걱거리는 나무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어둑침침한 다락방에는 등유냄새가 꽉 배여있었다. 웃천정의 거미줄을 걷어내니 퉁퉁한 배를 간신히 추켜든 왕거미가 긴 다리를 재게 놀리며 달아났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청소하려던 그는 한쪽구석에서 낡은 나무트렁크를 발견했다. 그안에는 밤색의 가죽뚜껑을 씌운 몇권의 책이 있었다. 《공산당선언》과 《자본론》과 같은 좌익서적들이였다.

호기심에 책장을 번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오빠 민영협이였다.

그는 민숙이를 보고 흠칠 놀라더니 급히 둘째손가락을 입술우에 세로 세우며 말했다.

《나에게 이런 책이 있다고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는 가는 소리로 속삭였다.

《틈이 있으면 너도 읽어라. 조금이라도 세상리치를 알게 될게다.》

민숙이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오빠처럼 한가하지 않아요.》

민영협은 한순간 동생을 멍히 쳐다보다가 어처구니가 없는듯 허허하고 빈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방하마을 좌상로인을 찾아갔던 아버지가 약주에 흠뻑 취해가지고 돌아왔다. 문밖에서 비칠거리는 아버지를 부축하였을 때 그는 여느때없이 자별한 시선으로 딸을 쳐다보며 살뜰한 어조로 말했다.

《농사일이 힘들었겠는데 오늘은 일찍 쉬거라.》

이튿날 민인호는 아침밥상을 물리고나서 말했다.

《며칠 있으면 남해의 마진에서 중매군이 올게다.》

그 말에 누구라 없이 모두 놀랐다.

곽씨도 모르고있은 모양인지 《그래서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신신당부하였어요?》 하고 물었다.

민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쳐다보았다. 민숙이는 놀랐다기보다 어리둥절하였다.

민인호가 말했다.

《대상자의 집안이 마진에서 손꼽히는 갑부라더라. 차기완이라던지… 그의 둘째아들은 일본의 와세다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던데 그 청년과 우리 숙이가 혼인을 맺자는거다.》

《유산자의 자식이군요.》

민영협이 툭 내뱉았다. 그는 해볕에 까맣게 탄 얼굴을 찡그렸다.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야 한댔어요. 난 반대예요.》

민인호는 버럭 화를 냈다.

《이녀석, 누가 네 의향을 묻더냐? 왜? 누이동생을 먼저 시집보낸다고 우둘렁거리느냐?》

민영협은 어이없어 흥 하고 코방귀를 뀌고는 문을 벌컥 열며 나갔다.

《저런 덜돼먹은 녀석 보았나. 요즘 웬 털보와 번대머리양놈이 그려있는 책을 들고다니더니 영 버릇이 없어졌어. 웃어른도 몰라보고… 앉을자리, 설자리도 가리지 못하고…》

오빠와 아버지사이의 감정이 팽팽해지니 당사자인 민숙이로서는 뭐라 의사표명을 할수 없었다. 곽씨는 딸의 등을 어루쓸며 눈물이 글썽해있었다.

강가의 빨래터로 나와 맑은 물에 삯빨래를 헹구는 민숙이의 심정은 착잡했다.

이제 겨우 17살, 한번도 시집갈 생각을 해본적이 없다.

방하마을 좌상로인이나 아버지는 이 외진 섬에 사는 처녀를 천리나마 떨어진 남해기슭에서 어떻게 알고 중매군을 보내는지 의아해하는 모양이였지만 민숙이는 그게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근대교육을 받고 자유련애를 주장하며 가부장적봉건관습에 맞서 단발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대로에 나선 개화녀성들을 일명 신녀성이라고 불렀다.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는 그런 신녀성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학교》의 하나로 전국에 소문이 났다. 그래서 졸업기가 되면 학교의 정문앞에는 중매군들이 늘어서서 정문을 오가는 졸업반 녀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의 경력뿐 아니라 집안래력까지 시시콜콜히 알아보군 하였다. 그들에 의해 녀학생들이 졸업후 팔도의 한다하는 가문들에 소개되고 며느리로 들어앉기도 하였는데 당시 녀학교동창회에서는 이런 대화가 자주 오갔다.

…《아이고, 저기 저 언니가 우리 3학년때 4학년 반장으로 있던 언

니지?》

《퍽 예뻐졌는데. 옷도 곱게 지어입구…》

《저 언니가 신문기자한테 시집갔대.》

《시집 잘 갔네!》

《잘 가긴 뭐가 잘 가. 하인 하나 없이 조석도 자기가 짓는다는데.》

《아이고 어쩌면! 기자살림이 그렇게 한심한가.》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있다는걸.》

《아이고 징역살이구려.》…

전문교육을 받고 교원이나 의사가 된 녀성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하면 머리를 틀어올리고 집안에 들어앉아 주부가 되는게 보통인 가부장적사회였다. 하기에 여간만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웠다. 결혼후의 삶은 전적으로 남편의 의지와 능력에 좌우될수밖에 없었기에 당시의 처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일생을 건 도박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돈많은 남성의 인기는 매우 높았다. 아무리 사랑하여 결혼하였다고 해도 무능하고 가난한 남성과 결혼한다면 평생 감수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이였다. 기혼녀성의 사회활동이 금기되였던 이 시기에 부자집에 시집을 가서 부러움없이 잘살았으면 하는것은 《애정만 있으면 배고파도 산다.》던 신녀성들에게 있어서도 유혹이 아닐수 없었다.

착잡한 생각에 옴해있던 민숙이는 빨래감이 물살에 떠밀려가는것을 뒤늦게야 발견하고 허둥거리며 강물속에 들어섰다.

그가 허리까지 물에 잠그며 빨래감을 휘여잡는데 뒤에서 다급한 웨침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숙이야! 너 어쩌자는게냐!》

놀라 뒤돌아보니 오빠 민영협이였다. 빨래터에 장승처럼 우뚝 선 그는 굵은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황소숨을 씩씩거렸다.

민숙이는 빨래감을 들어보였다. 물을 흠뻑 먹어 무겁게 축 늘어진 빨래감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민영협은 옷가지와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볼살을 실그러뜨렸다.

민숙이는 기슭으로 나와 치마자락을 쥐여짜며 물었다.

《무슨 일이예요?》

《아냐, 아무것도.》

민영협은 거친 숨을 내쉬며 빨래터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숙이는 대충 비틀어 짠 옷가지를 빨래돌우에 올려놓고 방치를 두들겼다.

봄철인지라 강물은 차고 젖은 몸은 으쓸했다. 하지만 속마음이 하도 번거로워 넙적한 돌우에 올려놓은 빨래감을 열심히 두들기느라니 등골에서 땀이 날것같았다.

동생의 옆에 앉아 출렁출렁 흘러가는 푸른 강물만 한참동안 쳐다보다가 민영협은 불쑥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여전히 격한 어조였다.

《그러나 너에게 피와 살을 준 부모님들에게 목숨을 끊는것으로 항거하려 한다면 그것도 반대다. 우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련다. 그때까지 날 믿고 기다려라.》

민숙이는 생각이 착잡했을뿐 가부장적결혼에 항거하여 목숨을 끊으려는 황당한 생각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었다. 하기에 과장되고 과격하기도 한 오빠의 말에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까르르 웃어버렸다.

그러나 웃음을 거두는 그의 붉은 눈시울에 맑은 이슬이 가랑가랑 맺히더니 이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영협은 서글픈 눈길로 슬피 우는 녀동생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튿날 민영협은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남이섬을 떠났다.

그가 남이섬을 떠나간 다음날 파마머리의 중년녀인이 찾아왔다. 시골에서 아낙네의 쪽진 머리만 보아온 민인호와 방하마을 좌상로인은 머리모양이 괴이한 녀인을 눈이 휘둥그래져 힐끔힐끔 훔쳐보며 혀를 쯧쯧 찼는데 이 중매군은 철가면을 두른듯 그 거북살스러운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산류수로 말을 이어갔다.

《결혼은 예로부터 인륜지대사라 일컬어 남녀가 혼례를 올려 일심동체의 부부가 되여 백년해로함은 하늘이 정하여준 인륜이거늘 결혼은 참으로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고 성패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

지요.》

이렇게 서두를 뗀 중매군은 서발막대를 휘둘러야 거칠것 없는 집안을 비난하는듯 남자집의 가세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오래간만에 정자관을 쓰고 방석우에 올방자를 틀고앉았던 민인호는 량반가문의 몰락한 처지와 대비되여 듣기가 민망한듯 어험어험 하고 헛기침을 깊었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중매군은 말을 바꾸어 남자집의 가장어른은 며느리감이 옛 의병대장의 친조카라니 보지 않고도 찬성이라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때 역시 올방자를 틀고앉아 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던 좌상로인은 흰 수염을 내리쓸며 민인호에게 말했다.

《옳거니, 근본은 있는 집안일세구려.》

《글쎄올시다.》 하고 민인호는 반신반의하며 좌상로인의 말을 받았다.

중매군은 때를 놓칠세라 청실홍실로 맨 청혼서와 총각의 사주단자를 꺼내놓았다.

《이게 뭐요?》

민인호는 눈이 휘둥그래지며 놀랐다. 좌상로인도 힐끗 건너다보고는 《임자 우물에서 숭늉을 찾겠구려.》 하며 혀를 찼다.

중매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둔될 집안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신랑될 총각마저 현재 일본에서 류학중이니 방학으로 귀향할 때 혼인하였으면 하는 의향이라는것, 남자측에서는 녀자측에서만 허혼하여 택일을 정해주면 그에 따르겠단다고 얼음우에 박밀듯이 내처 말하였다.

너무 이르다고 반박하자니 괜찮은 혼사를 놓칠가봐 아쉽고 그냥 받아넘기자니 신랑될 총각이 어떤 사내인지 석연치 않아 궁싯거리던 민인호는 좌상로인의 권고에 마지못해 우선 청혼서와 사주단자를 받아놓고 후일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말로 중매군을 떠나보냈다.

좌상로인이 마을로 돌아간 후 민인호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녘에 역시 잠을 못이루는 안해에게 그가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곽씨는 말했다.

《에구, 딸녀석 천리밖에 보내여 시집살이시킬게 가슴아프우다. 허나 타고난 제 팔자이니 어쩌겠수. 그래도 부자집이라니 밥술이야 건느

지 않겠으니 그걸로 위안해야지요.》

다음날 장거리에 나갔다 돌아온 민인호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중매군들 믿을게 하나도 없네구려. 장거리의 어느 가게집 딸이 완전 속히워 시집을 갔다누만. 중매군이 총각이 눈이 좀 먼게 흠이라고 하기에 그럼 안경이라는걸 끼면 될게 아닌가고 별치않게 생각하고 혼례를 치르었는데 알고보니 아예 소경이라지 않소. 앉은뱅이는 걸음이 좀 뜬게 흠이고 곱새는 복등을 타고났다며 속인다니 중매군들이란 전부 사기군이요.》

이렇게 투덜대던 민인호는 느닷없이 민숙이에게 물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너무도 뜻밖의 질문이여서 민숙이는 대번에 볼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더듬거렸다.

《제가… 뭐… 압니까.》

《그래도 글개나 읽었다는 네 의견이 다를게 아니냐?》

아버지가 다그어대자 민숙이는 거의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오빠가 돌아오면…》

《오빠?!》

《오빠는 아마… 마진으로 갔을거예요.》

그제서야 아들이 그냥 나들이를 떠난게 아니라 총각집에 대해 알아보러 갔다는것을 알게 된 민인호는 무릎을 탁 쳤다.

《오래간만에 그녀석이 오빠구실을 하려는가보구나. 그럼 네 오빠가 돌아온 다음에 혼사말을 락착짓기로 하자.》

민영협은 닷새만에 돌아왔다.

그날도 민숙이가 빨래터에서 삯빨래를 하고 돌아오는데 민인호가 희색이 만면하여 그와 마주앉아있었다.

《마침 왔다.》 하고 민인호가 딸을 반기며 말했다.

《네 오빠가 다행히 사위될 청년을 만나보고 왔다더구나. 신수는 멀쩡하다니 그만하면 다행이다.》

오빠에게 핑게대고 행여나 하였던 민숙이는 쑥스럽고 한편 실망스러워 인차 밖으로 나왔다.

뒤울로 따라나온 민영협이 위안하듯 말했다.

《자산계급이라기에 은근히 뒤틀린 마음으로 마진으로 갔었다. 헌

데 알고보니 근본은 빈농출신인데다 친일분자도 아니고 이웃들의 평도 그만하면 좋더라. 마침 방학기간 귀향한 차상준을 만났는데 사람이 학식도 있고 시원시원한게 성품이 괜찮아보이더군. 상준이 어머니도 부두로동자의 딸로 태여났다던데 제 어머니가 눈병을 앓아 앞을 못보게 되여 소녀시절부터 바다가에서 조개잡이를 하며 고생스레 자랐다누나. 식민지조선의 백성치고 누구나 다 자기나름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게다. 그 집안가풍이 돈보다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것이라니 그만하면 괜찮은 배우자라고 생각한다.》

민숙이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다. 당시 17살 소녀에 불과했던 그는 아무것도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또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야 한다던 오빠마저 동의한 이상 혼인을 피할수는 없게 되였다. 예로부터 가난을 피하려면 먹는 입부터 줄이라는 말이 있다. 민숙이가 남이섬을 떠나는것이 가난한 그의 집안의 입을 하나라도 줄이는것이였으니 당시로서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였다. …

《너 소금 두는걸 잊은게 아니니?》

한정덕이 가마뚜껑을 조금 열고 국자로 국물을 맛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디?》

민숙이는 국자를 넘겨받고 국물을 맛보았다. 맹물같이 싱거웠다.

《정말. 내 정신두 참.》

한정덕은 눈을 끔벅이더니 말했다.

《하긴 네가 온전한 정신이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거다.》

한정덕은 크게 나무라지 않고 제손으로 장그릇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무심결에 물었다.

《친정집에는 래일 떠난다고 알렸어?》

《예, 오빠네가 마중나온다고 했어요.》

《나도 영협오빠가 보고싶네. 이젠 무척 준수한분이 되였겠지. 원체 잘 생겼잖아. 헌데 전보를 받은건 서울에 사는 오빠네고 친정아버님과 어머님에게도 알렸는가 말야. 거긴 섬마을이니 전보가 도착할려면 여느곳보다 늦겠는데…》

민숙이는 흠칫하였다.

《정말 그렇구나. 난 오빠에게 마중나오라고 하고 서울에 가면 알리려댔는데…》

《너도 참…》

한정덕은 한심하다는듯 혀를 끌끌 찼다.

민숙이는 난색을 지으며 변명했다.

《요즘 내가 짐을 쌀래, 혼자 집을 처분할래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다나니 중요한 일들도 이렇게 깜박깜박 잊는것같애요.》

한정덕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너야 원체 여간 꼼꼼한편이 아닌데… 하긴 그럴수도 있겠다.》

민숙이는 입술을 감빨았다.

한정덕이 다시 물었다.

《내가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 대신 남이섬으로 전보 쳐줄가?》

민숙이는 그를 만류했다.

《괜찮아요. 내가 돌아가는 길에 우체국에 들리겠어요.》

한정덕은 그를 한동안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민숙이는 물고기를 손질하며 한정덕을 곁눈질했다. 더이상 이상하게 여기는 기미는 아니였다. 그런데도 왜서인지 마음이 불안스러웠다.

(친정집으로 간다면서 친정부모님들에게는 알리는걸 잊다니… 난 정말 맹추야.)

민숙이는 스스로 자책했다. 이제 래일이면 마진을 떠난다. 그런데 그자신도 왜 이 정든 곳을 떠나 남이섬으로 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시아버지가 시키는대로 하였을뿐이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짐작을 할수 없고 또 누구에게 속을 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수도 없으니 묵직한 돌덩이에 짓눌리운듯 가슴이 마냥 답답했다.

떠날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어서인지 남편 차상준의 얼굴이 더더욱 그리워났다. 언제나 그의 마음속의 의지가 되고 기둥이 되여준 사람…

민숙이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였다.

(처음 그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이가 이토록 내 가슴속에 큰 심장으로 들어앉을줄은 정말 몰랐어.)

11

…1935년 초가을 민숙이는 일본으로 공부하러 다시 떠나야 하는 차상준과 서둘러 혼례를 올리기로 약조되였다. 혼례날이 하루하루 박두해오자 민숙이의 심정은 더더욱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궂은비가 내리던 어느 그믐밤 민숙이는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있었다. 그날 오전부터 민숙이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있었다.

(사람은 왜 사는걸가?)

알듯하면서도 쉽게 납득할 답을 찾지 못했다. 태여났기때문에 산다는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답이다. 사람으로 태여났다면 사람답게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하다면 어떻게 사는것이 사람답게 사는것일가?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저녁밥을 건넸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몹시도 시장했다. 배가 곯으니 기분이 더욱 나쁘고 잠이 안오는것인지도 모른다. 대신 정신만은 더더욱 또릿또릿해졌다.

어쩌면 인간의 삶에 대한 해답은 보다 단순한데서 찾을수 있을지도 모른다. 살기 위해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가? 누구나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삶을 돌아보라. 먹기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1년 내내 뙈기밭을 떠나지 못하고 모지랑호미를 들고 바싹 마른 땅을 애타게 긁고긁어 북을 돋구고 한여름 뙤약볕속에서 김을 잡는것도 애오라지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가. 과연 사람은 왜 사는걸가?

민숙이는 생물학적본능으로 사는 삶보다 더 보람찬 인간의 삶을 살고싶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는 어린 처녀의 생각으로 료량할수는 없지만 이렇듯 팔려가듯이 시집가는것만은 아닌듯싶었다.

민숙이는 끝끝내 결단을 내렸다.

(신랑과 신부가 단 한번도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할수는 없어.)

민숙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코를 골고있는 오빠를 흔들어 깨웠다.

초저녁부터 구질구질 내리던 여름비는 그칠줄을 모르고 줄곧 쏟아졌다.

문을 나서자 센 바람이 휙 불어왔다. 치마폭이 기폭처럼 날렸다. 뒤울에서 비물에 흠뻑 젖은 밤나무가지가 금시라도 부러질듯이 우직우직 소리를 냈다. 희끄무레한 어둠속에서 《장군무덤》은 륜곽만 어렴풋이 보였다.

민숙이는 비에 젖은 밤나무아래에 버티여서서 오빠에게 쏘아붙였다.

《아버지나 오빠가 정한 이런 결혼을 무턱대고 따라할수는 없어요.》

민영협은 잠이 채 깨지 않은채 아닌밤중에 웬 홍두깨냐는 식으로 눈만 끔벅거렸다.

민숙이는 말을 계속했다.

《내가 직접 차상준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결심하겠어요. 불행한 강제혼인을 할바에는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장군귀신>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때 강변에서 그의 말에 호응이나 하듯이 우— 하는 비바람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민영협은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으나 토착미신은 굉장히 두려워했다. 동생과 함께 길을 갈 때도 작은 돌이라도 잊지 않고 주었다가 《장군무덤》에 슬쩍 얹어놓고 지나갔다. 그런 그였기에 음산한 밤나무가지밑에서 몸을 부르르 떨며 동생을 꾸짖었다.

《그런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리는게 아니야.》

민숙이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이튿날 그는 혼례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한성으로 나왔다.

남이섬에서 혼자 속을 썩인것이 탈이 되였는지 그는 사촌오빠네 집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원인모르게 앓기 시작했다.

민영협이 마진에 전보를 쳐 만날 장소와 날자를 알렸다고 하였는데 신랑이 될 차상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북한강에 몸을 던져야 하나?)

눈을 뜨면 속수무책의 암담한 생각뿐이였다. 오레미는 민숙이의 병수발을 들며 말했다.

《너무 속쓰지 말아. 누구나 그렇게 시집을 간단다. 나도 그랬어. 그래도 좋은 랑군을 만나 이렇게 아들딸 낳고 살지 않니… 다 타고난

팔자이지.》

제잡담 민숙이를 위로하려고 하였으나 그 말속에도 남존녀비의 봉건풍습에 시달려온 서글픈 곡조가 배여있었다.

긴 여름이 다 지나가던 이레째 되는 날 밤 민숙이는 잠결에 문밖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들었다.

《실례이지만 말 좀 물읍시다. 여기가…》 하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가늘게 들려왔는데 그때 그의 심장은 이상스레 고동쳤다.

드디여 올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머리속을 지나갔다.

민숙이는 머리맡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환약봉투들을 서둘러 꿍졌다.

흐트러진 긴 머리칼을 대충 다듬는데 오레미가 들어왔다. 그는 민숙이를 야릇한 눈길로 내려다보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사람이 왔다. 그런데…》

그는 환약냄새가 꽉 배인 2평 되나마나한 창고같은 작은 방에 두툼한 솜이불로 하반신을 가리운 민숙이의 모습이 가여웠던 모양이다.

민숙이가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날래요.》

《그래도 여기서야 어떻게… 아래방에 내려와서 만나는게 어때?》

그러자면 초저녁부터 세상모르게 널부러져 자고있는 네명의 조카애들을 모두 깨워야 했다. 하숙생들도 적지 않은데다 야밤중에 법석 소란을 피우는것은 질색이다.

(차라리 어느 려인숙에서든 머물다가 래일 아침에 올게지… 뭐가 그리 바빠서…)

속으로 못마땅해하며 민숙이는 말했다.

《아니요, 차라리 여기가 낫겠어요.》

오레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살 사람이니 네 결심대로 하렴. 그러나 말을 헤프게 하지 말아라. 남정들은 말많은 녀인을 좋아하지 않아.》

그가 나간 다음 민숙이는 방을 둘러보았다. 정말 꼴불견이였다.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또 머리를 대충 꿍져맸지만 삼단같은 머리칼을 제대로 빗지도 못했으니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제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 알만하다. 그러나… 하고 일순 생각했다.

(지금 내가 만날 사람은 여느 이성의 남자가 아니라 내가 일생을

의탁하고 살아야 할 랑군이야. 그러니 나의 가장 깨끗한 일면만 보아서는 안돼.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리혼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녀인에게 있어서 일생의 허물로, 최대의 수치로 될거야. 차라리 나의 앓는 모습이 어떤지 보는게 나아. 이런 심약하고 병약하여 초췌해진 녀인이 싫다고 달아나버린다면… 그런 남자라면 바로 혼인전에 헤여지는게 다행이지. 그러면 나의 번민도 이것으로 끝날거야.)

이렇게 강심을 벼리고있었지만 정작 차상준이 오레미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설 때는 마치도 모닥불을 들쓴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도무지 눈을 올리뜨고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차상준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말을 건네며 차상준은 문앞에 앉았다. 오레미가 방석을 내밀었으나 그는 한옆에 밀어놓고 미래의 신부를 찬찬히 지켜보았다.

민숙이도 그러했지만 차상준 역시 민숙이의 얼굴을 처음 보는것이다. 그들은 서로 사진 한장 나눠보지 못했다. 중매군이 하는 말을 듣고 어렴풋한 표상만 갖고있었던것이다.

중키에 곱슬머리, 새물새물 웃는 눈, 갸름하고 해사하게 생긴 곱살한 얼굴… 중매군이 민숙이의 어머니에게 그려보인 차상준의 표상은 그러루했다.

민숙이는 심장이 금시라도 가슴팍을 꿰뚫고 튀여나올것만 같았다. 낯선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코를 맞대고 앉아보기는 처음이다. 한편 그의 부모들과 같은 경상도토배기억양이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마냥 고개를 숙인 민숙이에게는 검은 모직양복바지와 하얀 양말이 보일뿐이였다.

얼마나 새하얀가. 검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목화솜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 왜서인지 얼굴이 더더욱 확확 달아올랐다. 속으로 꾹꾹 눌러참았지만 무척 부끄럽고 창피한 심정이였다. 게다가 심장은 잠시도 진정하지 못하고 그냥 쿵당거린다. 마치도 마사진 시계추라도 들어가앉은듯 고르롭지 못하게 뚝딱거린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고 말하며 오레미는 민숙이의 등을 차상준 몰래 툭 치고는 나가버렸다.

딸깍 문닫기는 소리와 함께 민숙이는 겁결에 말꼬지를 뗐다. 그는 두서없이, 무엇에 쫓기듯이, 마치도 터진 보물이 사방 흘러가듯이 헤프

게 말을 했다.

그의 남이섬에서의 생활, 고등보통학교시절, 그의 리상… 흡사 이 순간을 놓치면 속을 터놓을 기회가 없을듯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가늠하지도 못한채 급하게 계속 주절거렸다.

차상준이 《그래서 말입니다. 나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의 말까지 밀막으며 력설했다.

인간의 당황한 심리는 아마도 언변으로 자신을 변명하려는 끈질긴 욕망으로 표현되는것인지.

민숙이는 아마도 자기의 혼란스러운 속내를 감추려고 그렇듯 많은 말을 주절거린것같았다. 반시간가량 말을 하니 입안이 다 말랐다.

《잘 알았습니다.》 하고 차상준이 일어날 때 민숙이는 정신이 혼미했다.

(대체 내가 무엇을 말했나? 이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알았다는건가?)

차상준이 문을 닫고 나갔을 때 민숙이는 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단지 새까만 모직양복바지아래 목화솜같은 흰 양말밖에는 아무런 표상도 없었다.

이럴려고 오라고 했던가? 이럴려고 만나자고 했던가? 마치도 머리속은 텅 비여버린것같이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그 사람이 갔다.》 하고 오레미가 들어와 말했을 때 민숙이는 맥이 진하여 고개를 저어보이고 그냥 누워버렸다.

이불을 머리까지 푹 뒤집어쓰고 흥분된 심정이 다소 가라앉자 차상준이 한 말들이 토막토막 되새겨졌다.

《난 한해 더 있어야 대학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집은 대식구라고 할수 있지요.》…

《모두 제몫의 일을 하지요. 오또기처럼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자력정신이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고 할가,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여러 사회단체 일들에 관여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민숙이는 두눈을 슬며시 감았다. 왜서인지 눈귀로 이슬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우리사이에는 사랑이 없어. 한번 만나보고 사랑을 론하겠다는건 정말 어불성설이야. 과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맺고 일생을 살수 있을가?)

민숙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나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오레미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탕약을 끓여왔다. 그는 옆에 쭈그리고 앉아 탕약을 마시는 민숙이를 쳐다보았다.

《약이 어떻니?》

《글쎄요.》

민숙이는 시들하게 대답하고 자리에 누웠다.

(어쨌든 그 사람은 왔다갔어. 나를 처음 본 심정이 어떠했을가? 알게 뭐야. 될대로 되라지… 이젠 끝이 났어.)

하루, 이틀이 지나 밥맛이 돌며 기운이 났다. 눈에 띄게 몸이 추섰다.

혈기가 도는 민숙이의 뺨을 쓸어보며 오레미가 혼자 웃었다.

《정말 명약인게구나.》

그 말투가 어쩐지 이상했다.

민숙이는 눈이 올롱해 물었다.

《형님, 나 몰래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오레미는 여전히 빙긋거리다가 하는수 없다는듯이 실토했다.

《실은 말이야. 그날 밤에 차상준 그 사람이 되돌아왔었어. 혼자가 아니고 의원을 한명 데려왔는데 이전에는 황실에서도 일한바 있는 명의원이라는지. 넌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던지 좁은 방안에 세사람이 들어서는데도 모르더구나. 난 네가 의식을 아예 잃은줄로 착각했을 정도라니까. 내가 흔들어 깨우려니까 차상준 그 사람이 말리더라. … 그날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약처방을 주고 차상준 그 사람이 직접 약을 사오고 달이는 법까지 알려주고 새벽에야 떠나갔어.》

민숙이는 잠자코 있었다. 차상준이 잠든 자기 방에 들어왔었다는것, 외인들이 잠자는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맥을 짚어보았다는것, 그것을 오레미가 방임해두었다는것에 대해 응당한 화를 내야 하였다.

그러나 왜 그런지 화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생색을 내며 화난 표정을 짓는것도 귀찮았다.

아니, 그는 차상준이 다시 왔었다는 말을 기다리고있은듯 일종의 안도감 같은것을 느끼고있었다. 따스한 그 무엇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줄기처럼 퐁퐁 솟아오르는것같았다.

사주팔자로 미래를 점치고 혼인을 맺는것은 미신이다. 그러나 혼인

은 인연으로 맺어질수도 있는것이다. 연분이 있어야 하고 그 연분도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한생의 행불행을 가늠케 하는 그 《연분》이라는 불가사의한 끈이 그와 차상준사이에 작은 탕약으로 맺어진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잠들기 전에 얼핏 본 차상준의 모상을 떠올리려고 애써보았으나 여전히 검은 모직양복바지아래의 목화솜처럼 새하얀 양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해 초가을 약속된 날에 민숙이는 차상준과 혼례를 올렸다.

혼례는 리화녀자전문학교의 가사실 실습연회장에서 올리기로 되였었지만 량가부모들이 서양식결혼을 반대하여 사촌오빠네 집에서 간단히 식을 올렸다.

성례를 치르고 며칠후 차상준은 일본으로 떠나갔다.

그를 바래우러 역에 나갔던 민숙이는 마치도 자기 몸의 일부가 떠나가는듯한 서러움을 느꼈다. 부부의 정은 하루밤에도 만리성을 쌓는다더니 그와 함께 지낸 날은 불과 며칠 안되였지만 그는 어느새 민숙이의 심장속에 남편이라는 상징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렸던것이다.

차상준이 떠나간 후 민숙이는 남이섬에 더 머물렀다. 당시 혼례풍습에는 녀자집에서 결혼식을 한 후 3일만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집에서 다시 날을 정하여 색시를 시집으로 오게 하는 례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행》이라고 하였다. 시집으로 와서 시부모와 시가어른들을 뵙고 다시 친정을 다녀와야 혼례의식의 절차가 끝나는것이다.

그해 12월중순 민숙이는 아버지와 함께 마진으로 가기 위해 남이섬을 떠났다. 친정집을 나서기에 앞서 곽씨는 민숙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솥뚜껑을 세번 들었다놓으라고 하였다.

민숙이가 영문을 몰라하자 그는 자기가 시집올 때도 그리하였다고 하면서 그래야 시집에 가서 굶지 않는다는 옛 풍습이라고 하였다. 미신적인 절차였지만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이 깃든 당부여서 민숙이는 솥뚜껑을 쥐였다놓았다. 그때 텅 빈 솥안을 울리는 떨그렁 하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고패를 쳤다.

민숙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채 황황히 밖으로 나갔다.

민인호는 《장군무덤》앞에서 제를 올리며 《어디에 가든 남이섬을 잊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는데 그때 딸의 미래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축축히 젖어있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동안 민숙이는 마음을 다잡느라고 하였지만 시집살이걱정이 산같았다. 철없던 학창시절동무들과 재미삼아 부르던 가요가 여느때없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형님형님 우리 형님
시집살이 어떱데까
석자세치 제사수건
홰대끝에 걸어놓고
들며날며 날며들며
눈물씻기 다 젖었네

형님형님 우리 형님
메꽃같은 우리 형님
시집삼년 살고나니
메나리꽃 다되였고나

부산역전에 이르니 중매군이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민숙이네 일행을 맞이했다. 가마는 앞문을 제외한 다른 곳을 무명으로 ×자로 엮은것이였는데 후에 이것을 풀어 속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고 했다. 가마안에는 짚으로 만든 방석이 있었고 한구석에는 요강을 놓았다. 또 앞쪽에는 흰종이묶음과 헝겊이 있었는데 마진으로 오면서 강을 건늘 때는 종이쪼박을 뿌리고 성황당을 지날 때면 무색헝겊을 성황당주변의 나무가지에 하나씩 매여달고 지나가야만 잡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부산에서 일찍 떠난 길이였지만 저녁무렵에야 마진땅에 들어설수 있었다.

마진은 마룡산을 중심으로 하여 대룡산과 팔룡산, 청룡산의 봉우리들이 마진만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있는 시가지였다. 만의 동쪽기슭의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여있었는데 동북부를 구마진, 북부를 북마진, 남부를 신마진이라고 불렀다. 북마진은 남새농사를 짓

는 농업지역이였다. 구마진에는 조선사람들이, 신개발지역인 신마진에서는 일본인들이 거주해 살고있었다.

그런데 민숙이의 시집은 일본인들이 대부분인 신마진 한복판에 자리잡은 2층양옥집이였다.

민숙이가 시집에 도착하던 그날은 초청받은 구마진지구의 조선사람들이 신마진으로 건너와있었다.

신부의 가마가 대문앞에 도착하면 신랑이 가마문을 열어 맞이하게 되였으나 신랑인 차상준이 일본에서 류학중이였으므로 시형 차종준이 마중나와 대신 열어주었다.

차종준은 키가 크고 턱이 뾰족한 40대장년의 사내였다. 맏이인 차종준과 둘째 차상준의 년령차이는 몹시 심했다. 소녀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탓에서인지 차기완의 처는 첫 아들을 낳은 뒤 10년이 훨씬 지나서야 태기가 다시 생겨 둘째 차상준을 낳았다고 한다.

시집에 들어선 민숙이의 첫 신고는 편안하게 깔고앉아온 가마안의 짚방석때문에 생겼다. 부산에서 가마를 타고 출발할 때 집안에 들어서기 전에 가마안의 방석을 시댁지붕에 얹어놓아야 신부가 시집에 도착하였다는 표시로 된다는 중매군의 말을 기억하였던 민숙이는 제손으로 방석을 쥐고 내려섰던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신부의 모습은 일행을 당황하게 하였고 구경군들의 흥미를 부쩍 돋구었다.

민숙이가 올려다본 시집의 지붕은 황철나무우에 자리잡은 까치둥지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다. 추녀가 머리끝에 닿는 남이섬의 본가와는 달리 2층짜리 양옥집인데 그 기와지붕우에 가벼운 짚방석을 올려던진다는것이 쉽지 않았다.

민숙이가 안깐힘을 써서 던진 방석이 2층 창문에도 못닿고 떨어질 때마다 주위를 둘러선 구경군들이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민숙이는 숯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새색시가 바닥에 떨어진 방석을 얌전스레 쥐여도 구경군들은 소리내여 웃었고 입술을 사려물고 던진 방석이 되떨어질 때면 와— 하고 환호까지 올렸다.

시형 차종준이 벙글거리며 어디선가 긴 장대를 찾아들고 제수를 도우려고 다가오다가 장난궂은 구경군들에게 옷소매가 잡혀 제지되고말았다.

얼결에 민숙이는 아침에 얼었다녹은 작은 물웅뎅이가 곁에 있는것을 발견했다. 그는 꽃무늬가 새겨져있는 짚방석을 물우에 살짝 올려놓았다. 바싹 말랐던 짚방석은 순식간에 물기를 빨아들이며 거무틱틱하게 변했다.

민숙이는 짚방석을 들어 일정하게 물을 찌운 다음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올려던졌다. 푹 젖은 짚방석은 끝내 2층 지붕우에 털썩 하고 올라가앉았다.

구경군들의 와— 하는 탄성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민숙이는 높은 시집문턱을 넘어설수 있었다. 큰상을 물린 후 그는 시댁어른들에게 첫인사를 올리고 친정에서 정히 준비해온 음식들을 드렸다.

민숙이는 비록 빈농가의 딸이였으나 번화한 도시에서 공부한 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좋은 천으로 홍치마에 록색저고리와 람치마에 노랑저고리의 색시옷갖춤새를 갖추어갔다.

그는 람색꼬리치마에 노란회장저고리를 입고 눈처럼 하얀 행주치마를 두르고 끝이 뾰족한 흰버선을 신고 설을 맞았다.

설이 지나 며칠후 저녁상을 물리고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불렀다. 그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자개박이장농에서 흰 명주저고리와 회색의 목세루치마를 꺼내였다.

《이걸 몸에 맞게 고쳐입거라.》

엉겁결에 받아들었으나 영문을 알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주름잡힌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건 내 옷이다. 실은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고운 옷차림새를 좋아하지 않으신단다. 나를 보고 내 옷을 고쳐서 입히라고 하시더구나.》

그제서야 장농에서 낡은 옷을 꺼내주는 의도를 깨달은 민숙이는 말했다.

《이 옷은 어머님께서 그냥 입으십시오. 저에게 다른 옷이 있습니다.》

《그래?! 잘되였구나.》

이튿날 민숙이는 예전교복이였던 검은색치마우에 자주색의 면저고리와 검은 양말을 신고 허리띠를 꽁져매고 동자일을 하였다. 또 짧은 자주색의 치마에 검정저고리를 바꾸어입기도 하였다.

가지가위를 들고 마당에서 정원수를 직접 손질하던 시아버지 차기완이 언듯 그의 모습을 쳐다보고는 이후 아무 말도 없었다.

시집에는 11명의 식솔이 살고있었으나 머슴은 고사하고 심부름군 하

나 없었다. 8촌이 된다는 시어머니나이와 비슷한 녀인이 딸과 함께 사랑채에서 살고있었는데 그가 시어머니와 같이 바느질을 하며 말동무를 하였다.

마마자국이 조금 남아 약간 얽은 얼굴인 맏동서 오씨는 맏딸, 맏아들이 보통학교에 다니고 그아래 세살 나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서른이 갓 지난 젊은 나이였다. 그러나 항상 검정치마에 수수한 회색목세루저고리를 입고 허리끈을 꽉 졸라매고 다녔다.

민숙이는 보통학교에서 돌아온 맏조카의 숙제를 도와주고 예습을 시켰는데 시어머니는 공부한 며느리를 얻어 아이들의 실력이 오른다고 무척 기뻐했다.

초열흘날 새벽부터 마당이 분주했다. 소여물가마처럼 커다란 무쇠가마를 내다걸고 많은 쌀을 안치고 팔뚝같은 장작으로 불을 지폈다. 그런가 하면 배부른 큰 독을 내다놓고 김치를 썰어넣고 국물을 부어넣었다.

밥이 다 익자 베옷을 꺼내다가 모두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모두 베옷을 입자 시아버지 차기완이 대문을 열었는데 귀떨어지고 금이 간 종바리를 든 40～50명의 거지들이 문밖에 오글오글했다.

차기완은 대문밖에 나가 줄을 세우며 질서를 잡았고 맏동서와 8촌이 된다는 녀인이 구걸하는 그들의 그릇에 밥이나 김치국을 담아주었다.

맏동서 오씨는 민숙이에게 무쇠가마의 밥을 큰 나무함지에 퍼담아놓기만 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민숙이는 그들의 바쁜 일손을 돕고싶었다.

어느 걸인의 이빠진 질그릇에 밥을 떠담아주려고 주걱을 내밀던 민숙이는 하마트면 밥죽을 땅에 떨굴번하였다. 밥을 구걸하는 걸인의 손가락이 모두 문드러 떨어진 조막손이였던것이다. 걸인들의 행색을 눈여겨보니 눈섭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어떤 사람은 귀박죽이 뭉청 없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코나 웃입술이 문드러져 얼굴 한복판에 평뚫린 두개의 못자리같은 구멍이 휑하니 보였다.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이였다. 마진에서는 산기슭에 짚으로 울을 치고 무리를 지어 밥을 빌어먹으며 살아가는 거지들속에 이런 문둥병환자들이 많았던것이다.

시집에서는 매달 초열흘이면 마당에 큰 가마를 걸고 걸인들에게 밥

을 지어먹인다고 하였다.

걸인들이 돌아간 후 차기완은 손을 씻으며 민숙이에게 말했다.

《문둥병환자들을 소록도에 있는 병원에 보내기로 결정되였는데 아무리 제기를 해도 일본관리들이 집행하지 않는구나. 저 환자들도 해마다 자식을 낳으니 문둥병환자는 늘어만 간다. 그러나 저들도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웃들이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새애기는 처음 당한 일이여서 어지간히 놀랐겠는데 참아내는걸 보니 용쿠나.》

이것이 민숙이가 시아버지에게서 들은 첫 칭찬이였다.

차기완은 날마다 오전에 외출을 하였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손자손녀를 무릎우에 앉히고 그들의 재롱을 받아줄 나이였으나 그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다녀왔다.

민숙이는 맏동서에게 물었다.

《시아버님은 매일 아침 어디를 다녀옵니까?》

맏동서가 말했다.

《시아버님은 이곳 민의소 회장이였다오. 또 아버님은 수십년전에 자기 등짐으로 돈을 벌면서 학교문전에도 못가보고 일만 죽도록 한걸 생각하면서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 야학교도 세웠고 밤에 무료로 공부를 시키기도 한다오. 그래서 이래저래 제기되는게 없나 하고 날마다 나가보신다오.》

시집에 온지 반년이 지난 다음해 초여름 민숙이는 《근친》이라는 혼례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정으로 왔다.

민숙이는 친정이 있는 남이섬에서 류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상준을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가기로 이미 시집을 떠날 때 시부모들과 토의하였었던것이다. …

12

경찰서는 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차기완이 경찰서에 거의 이르렀을 때 맞은켠에서 불쑥 두명의 경찰이 결박당한 청년 하나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결박당한 청년은 얼굴이 째지여 피가 흘렀다. 옷자락도 험상하게 찢어졌으나 고개를 꿋꿋이 쳐

들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차기완은 그들이 경찰서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괜히 서성거리다가 수걱수걱 보초소앞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은 이 경찰서앞으로 지나다니기를 무척 싫어한다. 높은 담장우의 가시철조망도 싫고 담장안에 우뚝 솟은 포대도 싫어한다. 포대는 왜정시기 건설된것인데 해방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시커먼 기관총이 행길을 겨누고있었다.

차기완이 보초소앞에 이르자 보초병은 아는체를 하며 경례를 하였다. 차기완은 흰머리를 가볍게 끄덕이고나서 물었다.

《서장님이 계시오?》

보초병이 대꾸했다.

《좀전에 나가셨습니다.》

《랑패로군…》

차기완은 잠시 키를 넘는 철문에 박아넣은 굵은 창살이 벌겋게 녹이 쓴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월의 눈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얼룩져있는것만 같은 느낌이였다.

언제부터 그런 말이 생겼는지는 알수 없지만 마진사람들은 컴컴한 경찰서의 크고 높은 철문을 사람들을 저승으로 물어가는 첫 대문이라고 하였다. 하기에 그 투박스러운 무쇠돌쩌귀가 내는 삐거덕 하는 소름끼치는 소리에 젖먹이아이들까지도 울음을 딱 그친다고 하였다.

차기완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물었다.

《사찰계장은?》

보초가 대답했다.

《계장님은 계십니다.》

《그라도 만나야겠소.》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인차 차기완을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차기완이 길다란 복도를 따라걷는데 청년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조금 열려진 문틈으로 세명의 경관과 한 청년이 보였다. 두명의 경관이 그 청년을 벽에다 밀어붙여 붙들고 다른 한 경관은 곤봉으로 란타하고있었다.

차기완은 낯을 찡그리고 복도를 따라걸었다. 사찰계옆에 계장방이 따로 있었다.

처음 들어서는 사람의 혼신을 위압하는 번쩍거리는 가구비품들과 철궤들, 새까만 옻칠을 해서 얼굴이 비쳐보이는 장탁과 전화기가 놓여있는 큰 량수책상, 안락의자들, 한쪽구석의 뿔난 옷걸이에 걸려있는 금줄을 두른 모자와 그밑에 가로 드리운 한자루의 은빛군도… 벽에는 둥그런 벽시계가 걸려있었는데 그아래에는 《반공국시》라는 표찰이 붙어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제복을 입은 채영학은 반색을 하며 차기완을 맞았다. 그리고는 곧 차를 권하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이번 종준군의 제사날에 제가 바쁜 출장을 나가있다보니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잊지 않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마진은 좁은 곳이다. 가족친척들이 한곳에 모여 부락을 이루고 오붓하게 살던 곳인지라 알고보면 인척관계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채영학도 그러했다.

차기완의 고모사촌조카가 채영학의 외숙모의 6촌되는 녀인과 결혼하였다니 그들사이도 꼽고 또 꼽아보면 먼 친척간이 되는것이다. 게다가 차기완의 맏아들 차종준은 채영학과 동기동창이였었다.

차기완은 차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괜찮네. 자네가 바쁘다는걸 마진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라구. 그리구 종준이가 죽은지도 이젠 네해가 되네. 그래서 이번 제는 며늘애가 간단히 치르었네. 난 그저 죽마고우를 잊지 않는 자네의 마음이면 되네.》

《그래도 저와 종준군이 보통사이였습니까. 제가 그 집에서 밥먹고 자고 학교간게 어디 하루이틀이였습니까. 아버님은 제게 친아버지보다 더 살뜰하셨구요.》

차기완은 허거프게 웃었다.

《허허… 그랬던가.》

차기완의 손에 들린 차잔에서 김이 몰몰 피여올랐다. 그는 차잔을 탁우에 그냥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전에 내 서장에게 부탁한게 있네.》

채영학이 말을 받았다.

《예. 저도 서장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구제식량을 가지고 소록도의 문둥병원을 다녀오시려고 하신다지요?》

《래일이나 모레쯤 떠날가 하네.》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마진시의 문둥병환자들을 돌봐오신거야 마진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요. 사실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바다로 나가는건 통제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이 직접 가시겠다니 저도 서장님에게 보증하였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환자들도 사람인데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둘수야 없지요. 자, 여기 아버님이 요구하신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길이 험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을 붙여드릴가요?》

차기완이 만류했다.

《성의는 고맙네. 내 다 알아하지 않으리. 그리구 한가지 부탁이 또 있네.》

《제힘으로 될수 있다면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은 통행증이나 보증서 같은게 두개 더 필요하네.》

《통행증이요?》

채영학은 미간을 찌프렸다.

차기완은 한숨을 내쉬였다.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내 둘째녀석이 처신을 잘못해서 둘째네 집이 풍지박산이 된걸. 둘째며느리가 더이상 참고 지내기 힘든지 래일 남이섬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더군. 그게 철없는 세 아이를 거느리고 강원도까지 가야 하니 맏며느리가 서울역까지만이라도 배웅하고 오겠다네. 어찌겠나. 둘째녀석도 밉고 친정으로 가겠다는 며느리도 곱지 않다만 손주들이야 내 피줄기가 아닌가. 할애비가 그들이 무사히 갈수 있게 한가지라도 돕고싶구만.》

채영학은 손바닥을 들어 수염터가 껄껄한 볼을 쓸며 딱한 표정을 지었다.

《꼭 래일 떠나겠답니까? 한 닷새후에는 내가 남이섬이 아니라 바다건너 일본이나 하와이로 가겠다고 해도 통행증, 보증서를 다 해결해드리겠는데요.》

《글쎄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미 떠날 결심을 했고 살던 집도 내놓기로 약조되였다니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스러운게야. 얼굴에 막 씌워져있어. 마누라의 말이 그애가 요즘 우울증증세까지 보인다누만.》

《그래요?…》

채영학은 말끝을 흐리며 여전히 갑자르고있었다.

벽시계는 벌써 11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차기완은 등이 달아 재촉했다.

《자네에게 딱한 부탁인줄 아네. 돈두 필요하겠지.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부르게. 얼마면 되겠나?》

돈이라는 말에 채영학은 귀가 번쩍 트이는것같았다.

(그래, 이번에 생색을 내고 돈을 좀 옭아내야지. 그것으로 귀중품이든 골동이든 하나 해결해서 재클린에게 던져주자. 돈을 보면 돌부처도 웃는 세상이 아닌가. 아니, 금덩이 하나가 더 낫지 않을가?)

채영학은 속을 드러내지 않고 딴전을 부렸다.

《원, 아버님두. 돈이라니요. … 걱정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시는건데 하늘의 별을 따오래도 내 두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념려마십시오. 이제 밑의 녀석들에게 지시를 주겠습니다.》

차기완이 재촉했다.

《여보게, 래일 그애들이 떠나겠다네.》

《예, 책임지고 인차 해결해드리지요.》

차기완은 곱씹어 물었다.

《내 오후에 다시 오라나?》

채영학은 그를 문밖으로 바래우며 살갑게 말했다.

《년로하신분을 두번 걸음시키면 제가 욕을 먹습니다. 오후에 사람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채영학은 창가에 서서 경찰서 보초소를 통과하는 차기완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참으로 괴이한 로인이였다. 벼락부자가 된 후로 도박판에서는 손을 떼고 그 무슨 계몽사업과 자선사업에 그 아까운 돈을 물쓰듯하였다. 해방전에는 일본사람들을 위한 개발지구인 신마진의 중심부에 있는 차기완네 집으로 매달 초열흘이 되면 거지들이 줄을 지어 찾아오군 하였다. 그래서 국민학교 훈육주임으로 위장하여 이곳에 침투했던 이전 헌병대 장교인 다나까 야스꼬는 차기완을 의심하고 끈질기게 뒤를 캤었다.

채영학은 차기완의 맏며느리 오씨뿐 아니라 맏아들 차종준의 괴이한 죽음에도 야스꼬의 검은손이 뻗쳐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돈이 많은 대신 자식복이 없는 로인이다. 처는 아들 하나를 낳고

신병으로 오래도록 고생하다가 10여년만에야 겨우 둘째를 낳았다. 맏아들 차종준이 해방직전에 등산을 떠났다가 시체로 발견된 후 이제 하나뿐인 둘째아들 차상준도 《빨갱이》가 되여 숨어지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아마 로인의 막대한 재산도 둘째아들 차상준을 구제할수가 없을것이다. 하기사 그래도 한번은 살려냈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차상준이 대낮에 경찰호송차를 습격하였으니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격이 아닌가.

채영학은 철문으로 사라지는 차기완의 뒤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참, 세상은 불공평하거던. 저 로인네의 막대한 재산이 나에게 차례진다면 난 이 세상에 대고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텐데…)

한편 경찰서를 나선 차기완은 손을 품속에 넣어 채영학이 넘겨준 작은 종이장을 만졌다.

이젠 무사히 소록도로 가게 되였다. 소록도의 병원에서 한사람을 꼭 찾아내야 하였다. 그의 이름은 서준모라고 하였다.

사흘전 차기완은 소록도에서 보내온 한장의 서신을 받았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서준모라는자가 당신의 아들 차종준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있습니다. 난 그 비밀을 알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

서신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길에 소록도의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서준모라는자를 찾아볼 결심이였다.

차기완은 차종준이 등산을 다녀오겠다며 떠나던 4년전의 그 늦은 봄날을 잊지 못했다. 퍼그나 세월이 지났지만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이 되여 속을 얼쿠었다.

차기완은 맏아들 차종준이 이미 오래전부터 돈의 일부를 독립의연금으로 어디론가 보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1940년대초에는 태백산골짜기에 생겨난 항일죽창대와 긴밀한 련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당시 일제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 필리핀, 먄마, 싱가포르 등지로 전선을 확대하고 조선에서 마구잡이로 징병, 징용을 강행하였는데 이에 항거하여 총알받이가 되지 않으려고 산속으로 숨어들어온 청장년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자위와 생존을 위해 대나무를 꺾어 거기다

가 칼날을 박은 죽창으로 무장하였으며 점차 국내의 애국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태백산의 산악지대에 거점을 정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화약을 구하여 폭탄도 제조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악질친일분자들과 왜놈들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차기완은 자기의 맏아들이 태백산항일죽창대와 련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해 모르는체하면서 은밀히 그의 일을 방조하였다.

차종준이 동해쪽으로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하였을 때 차기완은 항일죽창대와 접선하리라는것을 미리 짐작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차종준은 봉래산 어느 골짜기에서 시체가 되여 돌아왔던것이다.

경찰들은 등산중에 발을 헛디디여 벼랑에서 떨어졌다고 설명하였으나 차기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차종준은 그렇게 맥없이 죽을 사내가 아니였다.

차기완은 맏아들의 죽음에는 필연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여겨왔으며 그 수수께끼를 꼭 풀리라 속다짐하고있었다. 헌데 한장의 서신이 차기완에게 실마리를 암시한것이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법이다.

차기완은 자기의 맏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수만 있다면 소록도가 아니라 만리 떨어진 태평양상에 있는 섬이라고 해도 찾아가고싶은 심정이였다.

13

민숙이는 시아버님과 마지막 하직인사를 나누기 위해 정인이와 두인이를 앞세우고 서재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는 한낮의 태양이 눈부시게 이글거리고있었으나 창문이 없는 서재안은 어둑시그레하였다.

넓은 량수책상우에서 붉은 탁상등이 외로이 빛난다. 책상의 오른쪽에는 사전류의 두툼한 책들이 쌓여있었다. 여러 서류들을 펼치고 좀전까지 문서를 보고있었는지 차기완은 붉은 탁상등빛이 흘러내리는 량수책상을 마주하고 앉은채 쪽잠에 들었다.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그의 얼굴은 지치고 피로한 기색이 력력했다. 고랑같은 주름이 볼살이 꺼지게 푹

패여있었다. 이마며 목, 입술도 온통 거미줄같은 주름으로 얽혀있었다.

민숙이는 정인이와 두인이에게 속삭이기 위해 키를 낮추었다.

《너희들은 나가있다가 엄마가 찾으면 그때 들어오너라.》

문앞에서 한정덕이 두 애를 받으며 방안을 잠시 기웃거렸다. 그리고는 좀 기다렸다가 시아버님이 깨면 작별인사를 나누라는 의미로 머리를 살짝 끄덕여보이더니 문을 소리없이 닫았다.

민숙이는 왼쪽에 놓인 안락의자귀퉁이에 살그머니 앉았다.

고개가 한옆으로 기울어진 차기완은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퍽 불편해보였다. 머리를 부축여 바로잡고싶었으나 도리여 선잠을 깨울것같아 그냥 지켜보고 앉아있었다.

민숙이는 이 집안의 그 누구보다도 시아버지에 대해 잘 안다.

요즘 그는 무척 바쁘고 얇은 살얼음장우를 걷는 사람처럼 매우 긴장되여있을것이다. 며칠새에 눈확이 푹 꺼져들고 볼편의 살이 패인것도, 항상 단정하던 흰머리칼이 흐트러지고 윤기를 잃은것도 그만큼 그가 밤잠을 건네며 바쁘게 일하기때문이다.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늙은 몸으로 견디여내려니 무척 피로할것이다.

차기완과 민숙이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라는것은 마진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두사람이 단순히 시아버지, 며느리의 관계만이 아닌 다른 관계로 얽어져있는것은 오직 그들 둘만의 비밀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민숙이의 사랑하는 남편인 차상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있었다.

며칠전 만정의 차집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차기완은 남이섬에 있는 친정으로 가는것이 어떤가고 의향을 물었다. 은근히 권고하는듯한 시늉을 하였으나 그것은 차집의 사람들을 의식하여 걸치레삼아 건네는 말이라는것을 민숙이는 인차 눈치챘다. 또한 차기완이 이제 마진을 떠나 남이섬으로 갈 때 별도의 지시를 주려고 한다는것도 인차 알아차렸다.

《저의 집은 지금 아주 조용하답니다.》 하고 민숙이는 집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된다는것을 넌지시 알려주었다.

민숙이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선 차기완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짧으면서도 명백하게 말했다.

《마진시선거사업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시녀맹위원장 김인

혜의 이상한 죽음은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은 마수가 뻗쳐있다는것을 암시해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네가 중요한 일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만일 내 뜻에 동의한다면 곧 네가 남이섬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문을 내거라.》

민숙이는 이웃과 시집에 남편 차상준의 수배령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친정부모들에게로 가있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짐을 싸고 큰 가구들을 내다팔고 집도 처분해버렸다. 그렇게 남이섬으로 떠날 차비를 마치고 마지막 하직인사를 핑게로 차기완을 찾아온것이다.

1945년 민숙이는 남이섬의 친정집에서 조국해방을 맞이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7살, 그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한 이후에 태여나 식민지교육을 받으며 자라 성인이 되였기에 총독통치가 없는 세상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해방의 광휘는 그야말로 그의 작은 가슴속에 자유의 광명을 안겨주었고 기쁨이 쇠물처럼 끓어오르게 하였다. 철없던 소녀시절에도 일본순사들의 검은 옷만 보아도 공포에 떨며 뒤골목을 찾아야 했고 시집을 가서도 장거리에서 순경들이 휘뿌리는 먹물을 피해 구석을 찾아야만 했던 그였다.(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옷을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먹물이나 구정물을 뿌리는가 하면 네거리에서 녀인들의 치마저고리를 가위로 찢었다.)

태여나 지금까지 골수에 맺혔던 식민지의 녀인이라는 수치와 멸시가 해방의 그날 산산이 부서졌다. 온넋, 온몸을 칭칭 휘감고있던 식민지라는 그 수치스러운 멍에와 사슬이 끝끝내 끊어져나갔다.

8월하순 차상준은 기별도 없이 남이섬에 불쑥 들렸다.

경찰들의 추격을 피해 만주로 떠났던 그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것이였다. 3년세월 헤여졌던 남편을 만나게 된 상봉의 환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

어깨를 쭉 펴고 사립문으로 들어서는 차상준의 얼굴에도 해방의 기쁨이 넘실거렸다.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할 일이 많소.》

차상준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진정한 내 나라를 일떠세워야 하오.》

민숙이는 웅심깊은 남편의 모습이 더없이 의젓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면 이 한몸 초석이 되고 지팽이가 되리라 굳게 마

음다지며 차상준과 함께 다시 마진으로 돌아왔다.

세상은 확실히 변해가고있었다. 시가지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으나 사람들은 달라져가고있었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옵니다.》라는 어처구니없고 멍텅구리같은 《황국신민의 맹세》를 념불처럼 외우며 목을 움츠리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이제는 생기가 넘치고 누구나 해방열, 건국열에 들떠있었다.

그러나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이 인민위원회와 건국준비위원회 등을 모두 해산해버리고 군정을 선포하면서 민숙이의 가슴속에서 부풀던 해방에 대한 환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지금도 민숙은 해방된 이듬해 가을을 잊을수가 없었다.

해방되여 첫 봄씨를 뿌리고 맞이하는 가을이였으나 북과 남의 현실은 너무도 판이하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북에서는 무상으로 분여받은 제땅에서 례년에 없는 대풍을 거둔 농민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지만 남에서는 인민들이 왜정때보다도 더 극심한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고있었다.

미군은 북에서와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남녘농민들의 의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적산으로 몰수했던 수많은 토지들을 지주나 투기업자, 장사치들에게 넘겨주고 수확된 곡물들마저 군정당국에 발라맞추는 모리배들이 매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남조선전역에서 살인적인 식량공출제도를 실시했다.

강압적인 식량공출에 동원된 경찰들은 가난한 농가들에 달려들어 창고의 간벽을 허물고 쇠꼬챙이로 마당의 여기저기를 찌르면서 종자까지 수탈해갔으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해방후 이듬해에 남조선전역이 다 엇비슷한 처지였지만 대구지역의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웠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군정에 있었다.

일본과 태평양지역에서 징병, 징용살이를 하다가 돌아오는 동포들은 대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귀국했는데 이들은 대구를 거쳐 대전, 서울, 호남 등지로 빠져나가군 했다. 그런데 미군정이 이들에 대한 방역사업을 방치해둠으로써 남방에서 류행하던 콜레라가 전파되게 된것이였다. 게다가 전염병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부랴부랴 대구의 모든 교통을

차단하고 봉쇄해버렸다.

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니 무수한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굶주린 시민들이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을 둘쳐업고 매일 《쌀을 달라!》라고 웨치며 기아행진을 벌렸다. 그 기아행진이 날마다 도청앞까지 이어지자 하는수없이 그들앞에 나타난 도지사라는자는 뚱뚱한 배를 내밀고 부녀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힐난하였다.

《살림하는 사람들이 쌀 한말 준비도 안해두고 뭘했소.》

이에 극도로 격분한 군중은 그대로 도청으로 밀고들어갔고 경찰들이 총을 발사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였다. 분노한 군중시위는 그대로 폭동으로 이어졌다.

폭동군중이 도청의 어느 양조장에 들어가 창고를 열어보니 쌀가마니뿐 아니라 사탕가루마대도 가득가득 쌓여있었다고 한다. 성난 군중은 분통이 터져 그대로 양조장에 불을 질렀다.

격노한 군중의 기세에 기겁한 경찰들은 달아나버리고 시가지는 시민들의 손에 장악되였다. 시민들은 도평의회, 인민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고 완장을 차고 나가 교통과 치안을 정리하며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갔다.

대구에서 일어난 인민항쟁의 불길은 전 남조선지역으로 퍼져갔다.

미군정은 이것을 남조선전역의 좌익세력을 탄압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들과 함께 《서북청년단》을 경상도에 투입하였다.

미군정은 해방후 공공연히 친일경찰출신들을 우대하고 내세우면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상태를 그대로 유지, 보장하게 하는 한편 북에서 도주해온 악질반동분자들로 《서북청년단》이라는 반동단체를 조직하여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돌격대로 내몰았다.

반공에 혈안이 된 이자들은 민주건국에 떨쳐나선 진보세력과 인민들을 로골적으로 적대시하며 테로와 랍치, 고문과 폭행 등 무지막지한 폭력행사로 사회전역을 공포와 전률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서북청년단》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존재로 날뛰였는가 하는것은 대전에 파견대를 창설하고 타지방우익계렬의 유지들이 지원을 요청해오면 병력을 파견하는가 하면 좌익세력들이 침투되여있다고 하면서 당시 《국방경비대》의 병영까지 대낮에 습격한 실례들만 봐도 잘 알수 있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이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김으로써 《서북청년단》의 포악무도한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였으니 그 살인깡패들은 마진에서 좌익동맹의 행사장을 습격하여 무대우에 다이나마이트를 던져 폭파시키는가 하면 민전의장을 자택에서 때려죽일 정도였다.

이런 살인마들까지 봉기진압에 사정없이 내몰았으니 사태의 결말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쌀을 달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봉기에 나섰던 시민들은 미군과 경찰, 《서북청년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였다. 놈들은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머리를 자르고 얼굴의 가죽을 벗겨죽여서는 매장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봉기를 진압한 후 미군정은 특별군법회의를 설치하고 무고한 백성들에게 중형을 들씌우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일제때부터 대구 조선은행앞에서 점을 보는 한 늙은이가 있었는데 해방후 어느한 경찰에게서 구박을 많이 받았다. 항쟁때 그 경찰이 시민들에게 잡혀 끌려나오자 로인은 격분하여 그자의 엉뎅이를 걷어찼다.

헌데 그 장면이 미군특무대 요원의 사진기에 찍혀 공판에 기소되였다. 재판에서 통역관은 《점쟁이》라는 말을 영어로 통역하였는데 미국인판사는 《미래를 예언하는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주도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15년형을 선고했다.

1946년 가을 대구에서의 인민항쟁과 함께 마진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다.

마진의 시민들은 파출소로 몰려가 식량보장과 미군정의 온갖 폭압의 즉시중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파출소로 출동한 미군은 무작정 해산하라고 하였다. 이에 참을수 없었던 시민군중이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북조선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라고 웨치며 대응해나서자 미군은 평화적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땅크까지 앞세워 류혈적으로 탄압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동냥하는 한 거지소년이 민숙이를 찾아왔다. 소년은 민숙이에게 마룡산골짜기의 어느 산전막에서 남편 차상준이 기다린다고 전했다.

민숙이는 피덩이같은 갓난 두인이를 업고 수건을 머리에 쓰고 치마에 허리끈을 묶어 물고기장사군차림새를 하고 길을 나섰다. 바로 사흘전 차상준은 도경찰국으로 가는 경찰호송차를 습격하여 박철우를 비롯

한 여러 동지들을 구출한 후 종적을 감추었던것이다.

거지소년이 알려준 마룡산골짜기의 산전막을 찾아가니 얼굴이 수척해진 차상준이 무척 반기며 맞아주었다.

집안과 거리형편에 대해 자상히 묻고난 차상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나서 말했다.

《지금은 당신밖에 믿을데가 없구려.》

민숙이는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리해했다. 경찰호송차를 습격한 후 수배자로 지목된 그로서는 마음대로 거리를 나설수 없는 형편이였다.

민숙이는 남편이 주는 쪽지를 치마말기에 감추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려주는 략도를 자세히 기억했다.

성호국민학교 옆골목으로 들어가 언덕길로 내려가니 남편이 가르쳐준 집대문이 나졌다.

민숙이가 문을 두드리자 로인이 나와 점잖게 물었다.

《누굴 찾아왔소?》

민숙이는 남편이 가르쳐준대로 대답했다.

로인은 대문을 반쯤 열어 민숙이를 들여보내고는 주위를 살피고나서야 뒤따라 들어왔다.

방으로 들어간 민숙이는 로인이 내준 초물방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잠시 기다렸다. 인차 옆방의 미닫이문이 드르륵 열렸다.

엉거주춤 일어서던 민숙이는 눈을 크게 흡떴다. 뜻밖에도 시아버지 차기완이 성큼 들어섰던것이다.

민숙이는 급히 인사를 했으나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차기완은 한동안 말없이 민숙이를 쳐다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준이가 보낸 물건이 있겠는데 내게 다오.》

《예?!》

《내게 달라니까.》

한동안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바재이던 민숙이는 차기완이 다시 재촉해서야 하는수없이 치마말기에서 쪽지를 꺼내였다.

그런데 차기완은 쪽지를 읽고나서 성냥불로 태워버리며 말했다.

《준이에게 전하거라. 21시경에 그곳으로 한사람이 찾아갈것이니 그와 련계를 맺으라고 말이다.》

《그러니 아버님은?!…》

차기완이 이 집으로 들어서는 자기를 발견하고 뒤쫓아온줄로 지레짐작하였던 민숙이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핑그르르 감돌았다.

차기완은 할 말을 다했다는듯 등을 돌려댔다.

민숙이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다.

《아버님, 외람되옵니다만 꼭 묻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차기완은 다시 돌아섰다.

《뭐냐?》

《아버님은 대체 어떤분이십니까?》

차기완은 잠시 민숙이를 찬찬히 여겨보더니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한집안식구끼리 그동안 속을 주지 않고 살았으니 네게 참 미안하구나.》

《지나간 일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민숙이는 굳은 표정이였다.

차기완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용단을 내린듯 입을 열었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다.》

민숙이는 너무 놀라 되물었다.

《**김일성**장군님을요?》

《그래. 난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이다. 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의 주인은 바로 조선인민이며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조선의 로동자, 농민과 같은 근로대중이 해방된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단다. 우린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대로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살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세우려고 한다.》…

차기완이 금시 쪽잠에서 깨여나려는듯 어깨를 움씰거렸다.

민숙이는 허리를 꼿꼿이 펴며 그의 모습을 주시했다.

하지만 차기완은 다시 고개를 수그리고 코를 골았다.

민숙이는 차기완의 몹시 피로한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지금껏 집안의 가장으로 존경하면서도 속을 알수 없는 과묵한 성미를 두려워했다. 모든 일에 사리가 정연하고 약자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병자들을 구제하여 뭇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시아버지가 때로는 일본관리들의 비위를 맞추고 해방후에는 미군정을 돕는데 대해 불만스러웠다.

그래 마음이 선량하여 자선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처세에도 능하다고 여겨온 시아버지가 불쑥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였을 때 민숙이는 너무나 놀라 얼떠름해지기까지 했었다.

그날 차기완은 민숙이에게 심중하게 말했었다.

《일이 이렇게 되였으니 너에게 한가지 부탁할게 있다.》

차기완은 간곡한 어조였다.

《남편이 널 여기로 보내면서 만나게 될 사람이 나라고 귀띔해주더냐?》

민숙이는 머리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 여기서 아버님을 만나게 될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을게다.》

차기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네 남편도 련락쪽지를 받을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차기완은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강조했다.

《이제 돌아가서 혹시 누구를 만났는가고 물으면 전혀 낯을 알수 없는, 처음 만난 사람이였다고 대답할수 있겠느냐?》

《정인이 아버지가 알면 안됩니까?》

《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

《알겠습니다.》

차기완은 믿음을 담아 민숙이의 팔을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돌아섰다.

시아버지와 헤여진 후 민숙이는 어린 두인이를 다시 업고 물고기장사군차림새그대로 마룡산골짜기의 산전막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차상준은 민숙이가 전해주는 대답을 듣고는 얼굴에 가득하던 시름이 씻은듯이 가셔졌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불쑥 민숙이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도 이제부터는 우리 일을 좀 도와야겠소.》

차상준은 믿음과 사랑과 기대가 함뿍 어린 눈길이였다.

고개를 틀고 망설이던 민숙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네 남편이 빨갱이여서 마음씨 고운 네가 받지 말아야 할 수모도 받는구나. 그러나 온 집안이 떨쳐나서서 빨갱이가 되면 집안이 망할수 있으니 넌 그런 일에 절대로 나서지 말아라.>

나는 가정주부예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겠으니 당신은 당신 일을 하세요. 물론 내 손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렇게 남편과 헤여져 집으로 돌아오는 민숙이의 마음은 착잡했다.

시아버지가 준 쪽지를 읽고 만시름이 풀린듯 환해지던 남편의 모습,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든다고 말하던 시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여태껏 뭇사람들에게서 전설처럼 들으며 동경해온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북조선에서는 말이예요.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되여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일터에 나가고 사회정치활동에도 참여한다지 않아요.》

《토지개혁이 실시되였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대요.》

《공장들에서는 마치소리 울리고 학교마다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글을 배운대요.》

마치 별세상이야기를 듣는것같았다.

(나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았으면…) 하고 속으로 바라마지 않았었다.

밤을 뜬눈으로 새우다싶이 한 민숙이는 이튿날 큰 용단을 내리고 시집으로 찾아갔다.

기별도 없이 들어서는 그를 시어머니는 무척 반겨맞았으나 차기완은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날도 서재에서 차기완과 마주한 민숙이는 더이상 속을 터놓을 기회가 없을것같아 조급한 심정으로 말했었다.

《아버님, 간청드리고싶은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민숙이는 절절하게 청원했다.

《저만이라도 아버님의 일을 돕게 해주십시오.》

차기완은 머리를 저었다.

《넌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잘 돌보거라.》

이미 단단히 각오를 한 민숙이는 강잉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두인이를 갓 해산한 몸에…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녀인이라는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봉기를 통해 저도 많은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새세상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걸 말입니다. 아버님, 제 작은 힘이라도 장군님을 받들어 새 조국건설에 바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뜻밖의 제의를 받은 차기완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있다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위험한 길이다.》

《알고있습니다.》

《목숨을 잃을수도 있다.》

《각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널 오해하고 멸시하고 증오할수도 있다.》

《아버님!…》

민숙이는 눈굽이 뜨거워났다. 그 말에서 시아버지 차기완이 여태껏 친일파, 친미주구라는 욕을 보면서도 혼자 묵묵히 감수해야 하였던 고통과 피로움이 그대로 느껴졌던것이다.

《절 믿어주십시오.》

차기완은 심중한 어조로 계속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당분간 그 누구도 몰라야 한다. 네 남편도 례외로 될수는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네가 녀맹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던것같은데…》

《이미 알고계셨습니까?》 하며 민숙이는 말을 이었다.

《며칠전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차기완은 단마디로 잘랐다.

《그만두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14

《언제 왔냐?》

갑자기 차기완의 석쉼한 소리가 민숙이의 귀전에 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차기완이 바른 자세로 앉아 마주보고있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오래 기다렸느냐?》

민숙이는 대답했다.

《좀전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서 잠간 졸았구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고맙다. 서재의 문을 꼭 좀 닫아주렴.》

서재는 이미 닫겨진 상태였다.

민숙이는 차기완의 말이 문뒤에서 누군가가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라는 뜻임을 인차 깨달았다.

(집안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민숙이는 발걸음을 죽이며 문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소리없이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민숙이가 서재의 문을 다시 꼭 닫고 돌아섰을 때 차기완은 가까이로 다가오라고 손짓을 했다.

《앉아라.》

민숙이가 책상앞에 놓인 의자에 마주앉자 차기완은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맏며느리가 너와 함께 남이섬으로 가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님은 제가 세 아이를 데리고 남이섬까지 갈 일이 걱정되여서 함께 동행하면서 서울역까지 바래주겠다고 합니다.》

《꼭 그런 리유만은 아니다.》

민숙이는 물었다.

《그럼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의도라도 있다는겁니까?》

《그애는 마진시의 녀성대표이다.》

《38도선을 넘어 해주로 가는 대표라는겁니까?》

《그렇다.》

《형님이 그런 중요한 위임을 맡고계셨군요.》

《나도 며칠전에 알았다.》

차기완과의 상면을 요구한 박철우는 그에게 남이섬으로 가는 민숙이편으로 한정덕을 함께 보내는게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그 제의대로 하면 두 며느리가 다 위험에 빠질수 있어 썩 마음에 차지는 않았

으나 동서간이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것이 한정덕이 별다른 이목을 끌지 않고 이 마진시를 탈출하는 방도일것같다는 박철우의 주장에 설복되여 차기완도 마침내 승낙을 했던것이다.

차기완은 한정덕이 마진의 결핵료양소로 온 이후 맏아들 차종준의 방조자로 은밀히 활동하였다는것을 이미전부터 알고있었다. 맏며느리 오씨가 죽은지 1년이 채 못되여 차종준이 한정덕과의 결혼의사를 내비치였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그의 끈질긴 요구를 마지못해 승인하게 된것도 한정덕이 다름아닌 차종준의 반일투쟁의 협조자였기때문이였다. 어쩌면 이러저러한 리유로 료양소를 나오게 된 한정덕을 자연스럽게 마진에 남기고 활동거점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종의 《위장결혼》일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기에 차종준이 죽은 후 해방된 그해 가을에 차기완은 한정덕을 따로 세간내여 괜찮은 대상을 골라 재가를 시키려고 하였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한정덕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이 세상에 홀로 남은 몸입니다. 이 집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영원한 제 아버님, 어머님으로 모시고싶습니다. 제발 내쫓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큰절을 하며 부탁했다.

마누라마저 한정덕을 붙안고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녀자를 강다짐으로 내쫓으면 후날 저승에 가서 어떻게 아들의 얼굴을 보겠소. 난 그렇게 못하겠소.》 하고 한탄하며 강경히 반대하는통에 차기완도 두손을 들고말았다.

한정덕을 세간내는 문제를 뒤로 미루고 그의 일거일동을 은밀히 지켜보았으나 한정덕은 녀맹조직에서 활약하면서도 손끝이 여무져 가정의 대소사를 알뜰살뜰 주관하여 내보내지 않기 잘하였다는 생각도 가끔 들군 했었다.

차기완은 민숙이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만일 함께 가는것이 불편하다면 이제라도 다른 방도를 찾으면 된다.》

민숙이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형님을 위한 일인데 제가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차기완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다. 이제 네가 하게 될 일은 맏며느리의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가 대표라는것을 알고있다는것자체도 숨겨야 하지만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가 눈치채게 하여서는 안된다.》

민숙이는 가슴을 조이며 차기완을 주시했다.

차기완은 마디마디 힘을 주며 말했다.

《이번에 마진시선거위원회에서는 대표들과 선거명부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선거명부를 정인이 에미가 남이섬으로 가면서 서울까지 가져갔으면 한다.》

《제가 말입니까?》

민숙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마진에서는 여느곳보다 더 살벌한 백색테로속에서 선거사업이 비밀리에 진행되다보니 몹시 힘겹게 끌내였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선거명부는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였다. 분렬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통일조국에서 살려는 겨레의 신념과 의지가 선거명부에 담겨있는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동지들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피의 대가이며 통일을 열망하는 마진시인민들의 순결한 념원이며 넋이고 미래였다. 하기에 선거명부를 무사히 북으로 보내는 일은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남녘의 절절한 민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고 진정한 인민의 내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온 겨레의 지향에 마진시민들의 뜻도 보태는 중대한 일인것이다. 그처럼 중요한 선거명부를 안전하게 운반할 임무가 다름아닌 자기에게 맡겨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민숙이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정말 자신이 그 중요한 일을 꽤 감당할수 있겠는지 의혹이 들기도 했다.

차기완은 신심을 주려는듯 말했다.

《넌 해낼수 있다.》

차기완은 차근차근 계속 설명했다.

《이미 마진에는 며늘애가 경찰들과 깡패들의 시달림에 못이겨 남이섬에 있는 친정으로 간다는 소문이 났다. 경찰서의 승인도 받았고 보증서와 통행증도 준비해놓았다. 서울로 가는데 대해서 다른 의심을 품는 자도 아직은 없다. 서울에서는 명부를 넘겨받을 사람이 기다릴게다. 그

러니 서울까지만 명부를 숨겨가지고 가면 된다. 명부를 넘겨주고는 예정대로 남이섬으로 가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숙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차기완은 민숙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곰곰히 따져보았다.

그는 이미전부터 민숙이가 좌익운동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배중인 남편과도 련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다보니 차상준을 잡기 위해 2중3중의 감시망을 펴고 민숙이의 일거일동을 주목하던 경찰들마저 민숙이는 가정잡사밖에 모르는 평범한 아낙네로 등한시하게 되였다.

이제는 민숙이가 아이들을 다 거느리고 친정길에 올라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그 아낙네가 그만하면 오래 버티였어.》 하는 동정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차기완이 바라던 결과였다.

그는 10여년세월 민숙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온 자기의 판단을 굳게 믿었다.

(민숙이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연약해보여도 일단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결곡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리고 일처리가 나무랄데 없이 여무지며 보기 드물게 심중하고 영민한 녀인이다. 보다 중요한것은 나의 일을 도와나선 길에서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신념이 강한 녀성으로 성장하였다는것이다.)

차기완은 중요한 임무를 받고 더더욱 침착해지는 민숙이의 표정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하기에 그는 굳은 믿음을 담아 다시 곱씹었다.

《넌 해낼수 있다!》

이어 차기완은 앞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들에 주의를 상기시키고나서 반복하여 강조했다.

《이번 일은 절대로,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 약간의 실수에도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목숨을 잃는건 물론이고 귀중한 선거명부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약속한 접선암호를 대기 전에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 설사 네 남편인 차상준이 나타난다고 해도 말이다. 또 내가 네앞에 나선다고 해도 접선암호

를 대지 않거나 틀리게 말한다면 나도 의심해야 한다. 그만큼 이 임무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 전체 마진시민들의 통일념원과 투지를 네가 안고간다는것을 부디 명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민숙이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한정덕이 다가와 물었다.

《래일 아침 내가 너희 집으로 갈가?》

민숙이도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역전에서 만나자요.》

《그래, 너 편리한대로 하자꾸나.》

민숙이는 한정덕을 의미깊게 마주보며 생각했다.

(결국 시아버님과 남편과 형님까지 온 가정이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길에 나섰구나.)

15

귀뚜라미가 울고있다. 인기척을 느끼면 귀뚜라미는 일단 소리를 멈추었다가 조금후에 다시 청을 돋구었다.

민숙이는 자기 집앞의 아름드리 느티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집쪽을 바라보고있었다.

푸릇푸릇하던 어둠은 어느새 짙어져 이제는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만큼 캄캄하다. 이웃들의 창가에는 벌건 등빛이 어려있다.

헌데 텅 비여있어야 할 민숙이네 집에서도 불빛이 흘러나온다.

차기완은 민숙이를 떠나보내며 당부했었다.

《21시경에는 집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명부는 벽장뒤 비밀장소에 있을게다.》

민숙이는 반시간전에 집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아침에 떠날적에 꼭 닫아놓았던 대문이 아예 나떨어져버렸다.

귀를 강구니 집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두런두런 말소리도 들렸다. 여러 사내가 방안에 있는것이 분명했다.

민숙이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급히 느티나무뒤로 몸을 감추었다.

시간이 갈수록 민숙이는 심장이 쫄아드는것같았다. 문이 뜯기워 나

동그라져있는걸 보니 반가운 손님들이 아니다. 분명 경찰들이나 《서북청년단》원들일것이다. 그놈들도 무슨 단서를 쥐고 명부를 가져오는 련락원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민숙이는 너무 긴장하여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집주변에 행인의 모습이 나타나도 가슴을 조였다.

만일 누군가가 대문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를 제지해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집앞으로 다가가는 행인은 없었다.

민숙이는 다시 곰곰히 생각했다. 집안에 매복하여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대문을 저렇게 뜯어 팽개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보란듯이 등불을 켜달고 저들끼리 큰소리로 떠들지도 않을것이다.

혹시 언제인가처럼 술에 취한 놈팽이 몇녀석이 괜한 화풀이를 하려고 들어와있을수도 있다.

민숙이는 이제나저제나 방안의 사내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어둠이 깃들자 등불까지 켜드는것을 보아 그자들은 아마 자기가 올 때까지 안에서 버틸셈인 모양이였다.

밤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하였다.

어느덧 시아버지가 강조한 시간이 다되여간다. 그 시간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녀석들을 돌려보내야만 했다.

민숙이는 정인이와 두인이의 손목을 잡고 예곤이를 추켜업으며 집을 향해 큰걸음을 뗐다.

민숙이가 방문을 활짝 열자 서너명의 감때사나운 얼굴들이 일제히 쳐다보았다. 그자들은 겨끔내기로 희떱게 지껄였다.

《오, 집주인이 이제야 오시는구만.》

《기다리느라 지쳤는데 찬밥이라도 한그릇 주겠는지.》

방안은 너저분했다. 이미 꼼꼼히 싸놓았던 올망졸망한 짐들까지 모두 풀어헤쳐있었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찾고있었는지 알수는 없었으나 혹시 선거명부가 아닐가싶어 가슴이 서늘해졌다.

벽장을 향해 서있던 키가 큰 사내가 문쪽으로 돌아섰을 때 민숙이는 하마트면 비명을 지를번했다.

길죽한 주걱턱에 눈꼬리가 우로 길게 치째진 사나이… 그는 분명 황병두였다.

(이태전 38도선을 넘어 고향이 있는 평안도로 간다던 그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

…2년전 찬비내리던 어느 가을밤 누군가가 문을 다급히 두드렸었다.

문틈새로 내다보니 검은 비옷의 고깔을 뒤집어쓴 키큰 사나이가 어둠속에서 좌우를 살피며 서있었다.

《누구예요?》

민숙이가 묻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었다.

《형수님, 접니다. 병두입니다.》

문을 열자 그는 바람처럼 방안으로 새들어왔다.

《형수님, 늦은 밤에 미안합니다. 난 인차 떠납니다.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렵니다. 거기서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형님이 숨은 곳은 모르지요?… 할수 없지요. 형님을 만나뵙지 못하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말고 꼭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는 다시 비내리는 어둠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었다. …

그랬던 황병두가 《서북청년단》원이 되여 나타나다니?…

민숙이는 정인이를 끄당겨 치마폭으로 감쌌다.

다행히도 정인이는 겁에 질려 고개도 쳐들지 못하다보니 황병두를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다. 삼촌이라고 부르며 안기고 따르던 사나이가 험상한 표정으로 강도처럼 방안을 뒤지는 모습을 어린 정인이의 순진한 눈에 보여주고싶지 않았다.

황병두는 마치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듯 책 같은것을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다.

《아주머니, 그 손에 든 짐을 보여주겠소?》

옆의 사내가 민숙이의 손짐을 냉큼 뺏어 방바닥에 헤쳐놓았다.

《이런!》

그 사내는 한정덕이 싸보낸 떡이며 통닭구이따위를 손에 들고 헤벌쭉거렸다.

《술안주에 간식까지야 뭘.》

그녀석은 먹을것을 따로 챙겨들며 황병두에게 말했다.

《대구에서 온 황선생, 더 찾아볼것도 없으니 갑시다그려.》

황병두는 손바닥을 툭툭 털고는 마뜩지 않은 눈길로 민숙이를 힐끔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의 구두발이 문턱을 벅 긁었다.

민숙이의 가슴속에서 증오의 불길이 확 일었다.

(어쩌면 네녀석이 이 집안에 더러운 구두발로 들어올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알뜰한 정을 들인 이 집안에 친동생처럼 따뜻이 품어온 녀석이 더러운 흙발로 서슴없이 뛰여들어 짓이겨놓으니 세상은 참으로 더럽게도 변했다.

민숙이는 분노를 참느라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사내들이 황병두의 뒤를 따라 우르르 밀려나간 후에도 민숙이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그때 방안의 정적을 깨며 벽시계가 떵떵 종을 때렸다.

(21시구나!)

민숙이는 소스라쳐 놀랐다. 시아버지가 강조한 그 시간인것이다.

귀를 기울이였다.

바람소리, 나무잎 설레이는 소리 그리고 찌륵거리는 풀벌레소리… 출입문을 조금 열고 한참을 기다렸으나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다.

(침착하자. 침착해야 한다.)

시아버지는 21시경에 벽장뒤에서 명부를 찾으라고 하였다. 결코 그 시간에 누군가가 찾아올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던것이다.

민숙이는 방문을 꼭 닫고 문걸이를 단단히 하였다.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안에 너저분한 물건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정인이, 두인이, 엄마를 도와 방을 거두자요.》

딸들도 무릎걸음을 하며 물건들을 거두었다.

뜰안은 풀벌레우는 소리가 들릴뿐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다.

민숙이는 벽장앞을 치우고 등에 업었던 예곤이를 내려놓았다. 어린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지손가락을 빨며 캐득거렸다.

민숙이는 아기의 손에 딸랭이를 쥐여주고나서 벽장으로 다가앉았다.

그는 벽장을 열고 뒤벽을 가리운 통판자를 살짝 들어올렸다. 첫 입구에 부드러운 명주천에 싼 얄팍한 짐이 놓여있었다.

순간 민숙이의 심장이 쿵쿵 널뛰였다. 얼른 보짐을 꺼내여 풀어헤쳤다.

(선거명부로구나. 아,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민숙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같았다. 그는 다시 명부를 보에 싸서 벽장뒤에 감추고는 걸레를 손에 쥐였다.

방바닥을 박박 밀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곰곰히 따져보는데 불쑥 벽장앞에 뚜렷하게 찍힌 구두발자국이 눈에 띄였다.

벽장앞에 서있던 황병두의 감때사나운 모습이 다시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대구에서 온 황선생이라고 불리우는것으로 보아 아마 그동안 대구에 있는 《서북청년단》본부에 들어박혀있던 모양이였다.

그런 녀석을 정말 평양으로 가는줄 알고 도중식사까지 정성껏 싸주었었다.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걸레를 쥔 손이 분노로 떨었다.

(황병두, 은혜를 원쑤로 갚는다더니… 어쩌면 네녀석이 우리에게 이럴수 있단 말이냐!)

16

일본류학을 마친 차상준이 돌아온것은 1937년 봄이였다. 그는 회색목세루양복에 검은 샤쯔를 받쳐입고 느닷없이 동그란 금테안경까지 끼고 남이섬으로 건너왔다. 곱슬곱슬한 앞머리로 넓은 이마를 살짝 가리웠다.

여러날째 해빛을 못본 사람처럼 얼굴빛이 해쓱한데다 안경까지 끼고 있으니 별로 나이가 들어보였다.

이미 본가집으로 건너와 그가 류학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민숙이는 남편이 남이섬으로 온다는 기별을 받고는 여느때없이 품들여 화장을 하였다.

그런데 남편은 민숙이에게 눈웃음을 한번 던지며 《그간 잘 있었소?》 하고 덜퉁스레 한마디 하고는 매정하게도 밤나무아래에 차려놓은 돗자리에 퍼더앉아 장인과만 여담을 나누었다.

민숙이가 술상을 차리며 뒤뜰로 잠간 나오라고 눈짓을 하였으나 그는 못본척하였다.

해묵은 기다림에 쩌들었던 속이 다시 앵돌아진 민숙이를 그래도 일본에서부터 남편을 따라온 황병두라는 소년이 위로해주었었다.

그때 황병두의 나이는 15살, 이미 코밑에 감실감실한 수염터가 잡히기 시작한 사춘기소년이였다. 그런 그가 헛간에서 땔나무를 날라오며 온갖 잔심부름을 눈치있게 하였다.

황병두는 민숙이보다 서너살아래였지만 키는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런 소년이 민숙이의 치마꼬리를 따라다니며 누이누이하며 심부름을 들어주는게 어딘가 우습강스럽기도 했다.

잔잔한 미소를 짓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민숙이의 온갖 신경은 오직 남편에게 향해있었다. 그가 우정 자기를 피하고 무시하는것같아 속이 단 가마처럼 김을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었다.

(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그와 함께 지낸 시간은 겨우 한주일 되나마나하다. 그리고 또 헤여져 근 2년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있는걸가? 너무도 매정하고 무정하다. 이런 인간을, 바로 오늘을 나는 일구월심 기다렸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가!)

붉은 저녁노을이 피고 어둠이 안개처럼 남이섬으로 밀려올무렵 민숙이의 심장은 겨울이면 북한강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두터운 얼음장처럼 싸늘해졌다.

알곡창고로 쓰던 웃방에 자리를 편 민숙이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쓴채로 누워버렸다. 금시라도 눈물이 쏟아질것같아 입술을 앙다물고있었다.

이윽고 아래방쪽에서 《그럼 편히들 쉬십시오.》 하는 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미닫이문이 드르륵 열렸다. 문이 닫긴 후 한찰나 숨소리도 안들릴 정도로 고요하였다. 이내 궁싯거리며 양복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차상준이 등잔불을 후 불어끈 후 이불 한쪽을 들추며 들어왔다.

민숙이는 그에게 등을 돌려댄채로 꿈쩍도 안했다. 차상준이 민숙이를 그러안았지만 그는 매정하게 뿌리쳤다. 그러나 얼마나 꽉 그러안았던지 팔만 움쩍거렸을뿐이였다.

민숙이는 그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며 차상준의 손등을 비틀어 꼬집었다. 그때 차상준이 민숙이의 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정말 보고싶었소!》

그 한마디의 속삭임에 마치도 전신에 전류같은것이 찌르르 흐르는것같더니 침맞은 개구리마냥 혼신이 나른해졌다.

민숙이는 간신히 《아래방에서 듣겠어요. 이거 좀 풀어요.》 하고

말했을뿐이다.

차상준은 꽉 부둥켜안았던 팔의 힘을 약간 뺐다. 이제는 쉽게 그의 손을 뿌리칠수 있었지만 민숙이는 잠자코 누워있었다.

차상준이 살며시 민숙이의 어깨를 당겨 바로눕혔을 때 그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마치도 보물이 터진듯이 눈물은 솟구치고 또 솟구쳐올랐다. 그 눈물이 종일토록 고까왔던 마음을 거품처럼 가볍게 떠밀어버리는것같았다.

녀인이란 얼마나 단순한가! 남자의 정어린 속삭임 한마디에 돌덩이처럼 싸늘해졌던 심장의 맥동이 다시 뛰고 불덩이처럼 달아오른다.

《그건 뭐예요?》 하고 민숙이가 물었다.

《뭘?》

《안경말이예요.》

《졸업시험을 치면서 시력이 좀 떨어졌소.》

《힘들었던 모양이군요.》

《힘들었지. 보고싶은 사람을 못보는게 정말 힘들더군.》

《거짓말!》 하면서도 귀맛좋은 다정한 속삭임을 듣는 녀인의 가슴속에서는 행복의 물결이 천파만파로 일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기다려온 부부의 정을 나누고 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속삭이고 또 속살거렸다.

차상준이 민숙이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하오.》

민숙이는 물었다.

《몇명을 바래요?》

《난 네명이 좋을것같구만.》

《아들이예요? 딸이예요?》

《아들딸 다 있었으면 하오. 맏이가 아들이면 좋고 둘째가 아들이라도 괜찮소. 어쨌든 아들은 있어야겠소.》

《욕심쟁이!》

민숙이는 달아오른 두볼을 남편의 가슴에 묻었다.

그밤은 고요하고 너무도 짧았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 《이젠 그만하고 눈 붙이자요.》 하는데 첫닭이 홰를 치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당신은 좀 쉬세요.》

민숙이는 부엌으로 내려가기 위해 일어섰다. …

사흘째 되는 날 그들부부는 부모님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마진을 향해 떠났다.

황병두는 손짐을 들고 마진까지 따라나섰다. 그는 세살때 친어머니를 잃었다. 친어머니는 고생도 많이 했고 예쁘기도 하였다는데 얼굴이 예쁜것처럼 마음씨도 곱고 부드럽고 인자하였다고 동네사람들이 말해주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아 간도로 들어간 후 나는 평양에 사는 외가집에 얹혀살면서 광성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쇠바퀴가 덜컹거리는 기차안에서 황병두는 자기의 과거사를 이야기했다.

광성고등학교에서는 겨울철체육을 중시했는데 체육시간에 스케트를 못가지고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벌을 주었다. 그런데 황병두네 외가집은 살림이 어려워서 스케트를 살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남의 스케트를 매번 빌려가지고 나갈수도 없었다. 생각다 못해 《따르레기》를 만들기로 했다. 《따르레기》란 나무쪼각에 쇠줄을 붙여서 만든것인데 나무쪼각의 좌우켠에 잔못을 박아서 끈으로 발에 동여매면 그런대로 지칠수는 있었다.

황병두는 《따르레기》를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체육시간에 뻐젓이 메고 나갔다.

당시 체육교원은 이시다라는 왜놈교원이였다. 그는 스케트를 못가져온 학생은 모두 대렬밖으로 나오라고 호통을 쳤다. 다른 애들은 다 나가는데 황병두는 뻐젓이 서있었다. 그의 앞으로 다가온 이시다는 큰소리로 따져물었다.

《너는 스케트를 가져왔는가?》

《예, 가져왔습니다.》

황병두가 《따르레기》를 내밀자 이시다는 격하여 소리쳤다.

《이게 스케트야?》

《예, 이것은 제가 만든 스케트입니다.》

《뭐야?》

《스케트란 지치는것인데 가죽구두에 쇠붙이를 붙인것이나 나무쪼각에 쇠붙이를 붙인것이나 얼음판을 지치기야 매한가지가 아닙니까?》

황병두는 《따르레기》를 신고 휘거선수마냥 두팔을 량옆으로 쭉 펴

고 동그라미와 팔자를 그려보였다. 이시다는 말문이 막혔는지 쓰겁게 웃으며 마른침을 얼음판에 뱉아버리고는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스케트가 없는 소년들이 모조리 《따르레기》를 가지고 수업에 참가했다. 《따르레기》가 많아지자 《따르레기》경기까지 벌리게 되였다.

《체육이란 누가 시켜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하는것입니다.》 하며 황병두는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다.

…평양의 초겨울 제일먼저 얼음이 어는 곳은 자라올이다. 자라올은 릉라도와 문수벌사이에 있었는데 물이 얕고 흐름이 잔잔하여 12월 첫 추위가 오면 거기부터 얼어붙는다.

여름내 준비운동을 하며 기다려온 황병두는 학교에서부터 달려서 대동교(당시)를 건너 뚝을 지나 자라올까지 갔다. 《따르레기》를 신고 얼음판에 올라서면 얼음판이 얇아서 판용수철처럼 내려앉지만 밤늦게까지 타고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뒤에 어는 곳은 주암산앞이였다. 이곳도 물결이 잔잔해서 먼저 어는데 강폭이 넓고 얼음판이 좋았다. 첫 추위뒤에는 3한4온이라는 겨울 날씨의 특성으로 하여 얕은 자라올이 일단 녹기때문에 주암산앞까지 달려가 그곳에서 훈련을 하였다. 12월말이나 1월초에 큰강이 꽁꽁 얼면 학교마다 빙상주로를 닦고 경기를 조직했다.

황병두가 학급동무의 스케트를 빌려타고 남자 500메터, 1 500메터, 3 000메터주로의 예선경기에서 모두 우승하자 그의 외할아버지는 고물상을 찾아가 3원짜리 중고품스케트를 하나 사다 안겨주었다.

당시의 돈 3원이면 살림이 궁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였다. 쌀 한말에 50전, 좁쌀 30전, 황정미는 25전 할 때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황정미를 먹었는데 3원으로 황정미를 사면 12말을 살수 있고 12말이면 대식구인 황병두네 식솔이 한달을 실컷 먹고도 남을 돈이였다.

황병두는 그 스케트가 더없이 귀중했다. 날은 다 닳고 가죽신발에 끈매는 코등이가 두세개 떨어져나간 고품이였으나 그것은 생전처음으로 가진 스케트였다.

그때부터 황병두는 그 스케트를 붙안고 잤다. 자다가 2시건 3시건 잠에서 깨여나면 그달음으로 강판으로 달려나갔고 날이 밝을 때까지 맹훈련을 했다. 밀물이 올라와 강기슭에 물이 고인것을 어두운지라 보지 못하고 빠질 때가 수두룩했지만 발이 얼었다고 집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다.

낡은 스케트를 타고 운동복이 없어 얼룩얼룩한 속내의에 《광성》이라는 종이마크만 붙이고 빙상경기에 나선 그였지만 500메터, 1 500메터, 3 000메터주로뿐만 아니라 10 000메터주로의 결승경기에서도 모두 1등을 하였고 일본의 도꾜에서 열리는 빙상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일본에 가려면 려비가 많이 들어 아름찼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 꼭 참가시켜야 한다면서 방조를 주었고 동무들도 돈을 모아 겨우 최소한의 려비를 마련해주어 간신히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도꾜에 도착하니 경기조직위원회에서는 날씨관계로 1주일간 경기를 연기하였다는것이였다.

이게 웬 일인가. 천신만고로 겨우 도꾜로 왔는데 1주일씩이나 연기를 하면 아는 사람도 없는 타향에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황병두는 눈앞이 아뜩하였다. 경제적타산은 경기를 기권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황병두는 이번 경기에 꼭 참가하고싶은 욕망을 누를수가 없었다. 여하튼 하루밤 묵으려고 경기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해준 려관에 가니 마침 조선인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황병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 학생이 차상준이라는 대학생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보라고 귀띔해주었다.

처음에는 좀 망설이였지만 체면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갈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이 대준 차상준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황병두가 처음으로 만난 차상준은 얼굴표정이 차겁고 랭랭하여 일이 성사되기 어렵겠다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대학생이 황병두가 평양에서 빌려가지고 온 스케트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보다가 《몇살인가? 15살이면 지내 어리구만. 스케트를 좀 타기는 하나?》 하고 물었을 때는 그냥 돌아서고싶은 심정이였다.

차상준은 불쑥 잡지를 펼쳐보이며 물었다.

《이 사람을 아나?》

잡지에 실린 사람은 1936년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진행된 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마라손종목에서 1등을 한 손기정이였다.

황병두는 이 소식을 평양에 있을 때 새벽달리기를 하다가 광고를 보고 알았다. 광고판에는 맨 웃쪽에 결승테프를 끊는 그의 사진이 크게 붙어있고 그아래에 《손기정선수 단연 1등》이라는 표제가 큰 글씨

로 씌여져있었던것이다.

왜놈들한테 눌리워서 기를 못펴고있던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선사람이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는 소식은 희소식중에 희소식이였다. 모두들 감개무량해서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당시로서는 일제의 식민지노예로서 혹독한 민족적차별과 모진 가난에 시달리는 조선사람이 국제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하였다는것부터가 기적이였다.

손기정은 어머니가 두부장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자신도 가난하다보니 체육을 위해 들일 시간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신문배달을 하면서 겸해서 달리기운동을 하였는데 하도 기록이 좋으니 왜놈들도 막지 못하고 올림픽경기대회에 내보내지 않을수 없었고 끝내 단연 1등을 한것이다.

《조선사람은 렬등민족이 아니다.》

《조선사람도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할수 있다.》

이런 신심이 식민지노예로 짓눌려 살아온 조선사람들을 무한히 기쁘게 했다. 조선중앙일보사에서는 손기정의 가슴에 붙여놓은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을 올린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러자 총독부에서는 노발대발하여 신문들을 회수하고 기자들을 구속하였으며 신문을 폐간시켰다. 그러나 조선사람이 1등을 했는데 무엇때문에 가슴에 일장기를 달아야 하는가 하는 조선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항거의식을 꺾을수는 없었다.

차상준은 장에서 돈봉투를 꺼낸 후 황병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였다. 그는 황병두를 백화점으로 데려가 고급스케트를 사서 돈봉투와 함께 안겨주며 말했다.

《일본인들을 이기면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되네. 그러나 지면 후에 돈을 보내게.》

1주일후에 경기대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였다. 일본의 유명한 선수들이 다 모이는 제일 큰 대회였다. 황병두는 그들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선수였다. 그래서 햇병아리같은 그가 우승하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황병두는 예선, 준결승을 거쳐 마지막결승전에 돌입했다. 500메터주로의 첫 경기에서 마지막 직선주로에 들어서면서 제일 앞장에서 달리던 일본인선수를 따라앞선 황병두는 1 500메터, 3 000메터주로

의 경기들에서도 관중의 예상을 뒤집고 우승하였다.

우승컵과 상금을 받아들고 황병두는 차상준의 하숙집을 제일먼저 찾아갔다.

그러나 차상준은 이미 하숙집을 옮긴 뒤였다. 주소를 남기지 않아 그와 만나기를 단념하고 려관으로 돌아오던 황병두는 진눈까비가 내리는 뒤골목에서 우연히 련탄달구지를 끌고있는 차상준과 마주쳤다.

검은 석탄물이 땀방울과 엉켜흐르는 해쓱한 얼굴과 뿌연 안경너머로 웃음짓는 그의 모습에서 황병두는 그가 마지막졸업학비까지 다 털어 자기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

이것은 차상준의 류학시절의 일화 한편에 지나지 않았다. 부자집 도련님인 차상준은 이미전부터 집에서 보내오는 돈을 떼여내여 동포고학생들의 학비를 보태주군 하였다. 황병두가 찾아갔을 때는 졸업을 앞둔 때인지라 얼마간의 돈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 돈을 깡그리 털어주고난 차상준은 (차라리 잘되였어. 이번 기회에 고학생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봐야지.) 하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때 민숙이는 남편과 황병두를 사랑과 정이 함뿍 어린 눈길로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고 인간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과 정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인간의 성실성과 진실성에 감동되고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정도 사랑도 두터워지며 마침내 인생을 같이하는 길동무가 되고 친형제도 되는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해방된 오늘 친동생처럼 여겼던 황병두가 그렇게 변질될줄이야. …

17

인간의 추억을 붙들어맬수 있는 그 어떤 끈도 없다. 추억은 자유로운 새처럼 시공간에 제한됨이 없이 아무때건 인간의 넋을 과거에로 이끌어간다.

밖은 이미 칠흑같은 어둠에 잠겼다. 불을 끈 방안에서는 어린 자

식들이 단꿈을 꾸며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들릴뿐이다.

민숙이는 래일 먼길을 가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한다는것을 잘 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 머리속은 마치도 흐르는 시내물에 잠긴것처럼 새록새록 맑아만진다. 곧 마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진에서 보낸 옛 추억들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그리고 연줄연줄 떠오른다.

1937년 여름 어느날 마진의 시집으로 돌아온 민숙이가 저녁준비를 하고있는데 대문이 요란스레 열리더니 차상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민숙이는 황급히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였다. 그의 몸에서는 술내가 확 풍겼다.

차상준은 일본에서 철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시아버지 차기완은 공부를 마치고 고향도시로 귀가한 그에게 마진상업은행에서 일하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런데 은행에 나갔던 그는 첫날부터 술에 만취되여 들어왔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은행장과 대판 다투고 들어왔다.

옷도 벗지 않은채 네활개를 쭉 펴고 방바닥에 누운 차상준은 천정을 쏘아보며 투덜댔다.

《조선사람들이 주주이고 조선사람들에게 장사돈을 대부해주는 상업은행이라더니 빛좋은 개살구요, 이름좋은 하늘타리이구려. 은행장도, 부장, 과장, 계장 할것없이 책임자는 모두 일본인들인데 무슨 조선사람을 위한 은행이라는거요? 일본인들의 눈치를 보며 노예로동을 할바치곤 차라리 어부가 되던가 바다기슭에서 조개주이나 하겠소.》

당시 어느 공공기관이든 책임적인 자리는 대개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체들의 중요자리에도 일본인들이 앉아있었다.

어느해인가 마진은행의 주주회의에서 부책임자로 조선사람이 추천되였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몇 안되는 일본인들이 모두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그후 일본은행에서는 마진은행과 더이상 거래하기 어려울것 같다는 통지를 보내며 로골적으로 위협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주주들은 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일본인을 그 자리에 올려앉혔다.

이를 모르지 않는 차상준이였지만 왜놈의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일하기를 죽도록 싫어하였다. 젊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박혀 책을 읽는것도 하루이틀이여서 무료하고 갑갑해난 차상준은 마진에 있는 숭무단(무술을 배워주는 단체)에 나가 젊은 청년들과 휩쓸리면서 유술과 궁술을

배웠는데 자주 술에 만취되여 들어오군 했다.

민숙이는 비칠거리는 차상준을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때 시아버지 방의 미닫이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차기완이 토방에 나섰다. 그의 숫진 눈섭이 대번에 곤두섰다.

《이게 무슨 추태냐?》 하는 된꾸중이 머리우에서 쏟아질것같았다.

민숙이는 황망히 남편의 심정을 대변한다는게 이렇게 말해버렸다.

《나라없는 설음에 술도 마신것이니 용서해주십시오.》

한동안 차기완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못마땅한 눈길로 민숙이와 차상준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안방으로 데려가거라.》

민숙이가 차상준을 부축하며 안방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차기완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술에서 깨여나면 준이를 내 방으로 보내거라.》

차기완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으로 도로 들어가며 미닫이문을 드르륵 닫았다.

그 이튿날은 음력 7월보름이였다. 이날 차기완의 집에서는 하루 세 끼 나물죽을 먹는 특이한 관습이 있었다.

민숙이는 아침일찍부터 나물죽을 끓이는 맏동서 오씨의 부엌일을 거들었다.

그날 아침 조반상을 물린 후 차기완은 온 집안식구들을 방으로 불렀다.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올방자를 틀고앉은 그는 흰 수염을 내리쓸며 말꼭지를 뗐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하고 사람이 바로 살자면 근본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는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일 든든한 믿음은 제 근본이다.》

차기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마진의 뜻있는 유지들의 마음을 합쳐 로동야학교를 설립하고 오늘까지 무상으로 공부시키면서 많은 청년들을 계몽해왔다. 사람이 혼자 호의호식하고 풍청거리면 개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느니라. 나는 가난하였던 지난날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내가 멸치젓장사를 시작하였던 오늘을 하루종일 죽먹는 날로 정하였다. 지금 너희들은 배고픈 걱정, 돈걱정하지 않고 학교공부를 하였거나 하고있으니 일본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근검하게 살아야 할게 아니냐. 야학교에서 공부하는 로동청년들을 보아라. 낮에는 힘든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사람이란 태만으로 병들고 로동으로 건강해지는 법이니라. 그러니 누구든지 이 집에서 살겠거든 야학교에서 공부하는 로동청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언제나 검박하게 살아야 한다.》

민숙이는 가슴을 조였다.

시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줄곧 둘째아들인 차상준을 주시하였다.

차상준은 고개를 수그리고 왕골돗자리의 련꽃무늬를 손톱으로 긁고있었다.

민숙이는 온 집안이 모인 앞에서 시아버지가 어제일을 거들며 남편을 꾸중할것같아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였다.

다행히도 차기완은 무뚝뚝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둘째는 오늘부터 야학교에 나가 로동청년들을 배워줘라. 학교의 평수를 늘이고 학생수도 많아졌으니 그들을 가르칠 교원도 더 있어야겠더라.》

차상준은 《알았습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차기완은 새 며느리앞에서 자식을 훈시한게 민망한듯 입을 다시였다.

민숙이는 남편이 조카애들이 있는 앞에서 망신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긴장했던 속을 풀었다. 아마도 부자간에 이미 약속이 있었고 그걸 온 가족앞에서 공포하려는 의도인게라고 대충 짐작하기도 하였다.

맨 나중에 들어왔던 민숙이가 먼저 일어나 미닫이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가고 시형, 남편, 맏동서가 차례차례로 따라섰다. 조카애들까지 내보내고 맨 나중에 다소곳이 인사를 올리고 나가려는데 《둘째며느리는 좀 남거라.》 하고 시아버지가 불러세웠다.

민숙이가 무릎을 꿇고 마주앉자 차기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쩐지 준이가 사상가가 되여 나타난것같구나.》

민숙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사상가라고 하면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을 동경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아닌가.

물론 민숙이 보기에도 좌익사상이 선진사상이고 진보적이고 정의로운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하지만 일단 사상가로 인정되면 가장 철저하고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며 본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친

척, 친지들마저 이루 형언할수 없는 모진 수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차기완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 집안에서 사상가가 나오면 큰일이다. 그러니 네가 그의 일거일동을 잘 살펴보다가 의심되는게 있거들랑 제때에 알려다오. 사상가와는 가깝게 지내지도 말아야 한단다.》

방을 나서며 민숙이는 시아버지의 사고가 참 모순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시집온 이듬해 봄의 일이 떠올라서였다. 그때 시아버지 차기완은 쌀자루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마룡산 남매바위아래에 가면 박철우라는 사람네 집이 있다. 집주인은 멀리 외지에 나가고 아낙네가 정란이라는 네살짜리 어린 딸과 함께 살고있을게다. 집주인은 돌아오지 못하고 보리고개가 시작인데 벌써 량식이 다 떨어졌다더구나.》

마진의 지형에 아직 밝지 못한 민숙이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남매바위라는 곳을 찾을수 있었다. 산기슭에서부터 잡초가 뒤엉킨 오솔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야 했다. 기울어져가는 초가집에 생나무로 둘러친 울바자는 반나마 넘어져있었다.

처음 민숙이는 집주인들이 만주나 간도 그 어디론가 떠나가고 이미 사람이 살지 않은지 퍼그나 된 빈집인줄 알았다.

(이곳 어디라고 했는데…) 하고 생각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그 《빈집》에서 인기척이 났다.

《계시나요?》 하고 혹시나하여 물었는데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소리가 들렸다. 아래쪽이 삭아 헹하니 구멍뚫린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새까만 얼굴에 눈알만 반들거리는 조막만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어 아래도리도 가리지 못한 알몸뚱이가 총알처럼 튀여나와 앙증한 손으로 민숙이의 치마자락을 꽉 부여쥐였다.

《우리 엄마 죽어요!》

그 소리에 민숙이는 가슴이 철렁하여 이고온 쌀자루를 얼른 토방에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애의 어머니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헛소리를 치고있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의원을 찾으려면 마을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런데 계집애는 그가 그대로 달아뺄가봐 두려운지 꽉 거머쥔 치마자락을 놓을념을 안했다.

방안을 둘러보았으나 천생 계집애는 벌거숭이로 지낸것인지 그애에게 맞춤한 옷이라고는 전혀 눈에 뜨이지 않았다. 별수없이 알몸뚱이계집애를 그대로 둘쳐업고 마을로 내려와 의원을 찾아야만 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민숙이는 동자질을 하며 맏동서 오씨에게 말했다.

《학질이였어요. 마침 내가 갔었기에망정이지 하마트면 생명이 위험할번했대요. 그 집주인은 대체 어디 돈벌러 갔기에 집이 그 꼴이예요?》

《돈벌러 가다니?》 하며 오씨는 놀라 말했다.

《여직 몰랐어? 그 집주인은 감옥에 잡혀간지 이미 여러해째야.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는 죄수라니까.》

《그랬어요?!》

그때 민숙이는 아마도 시아버지의 개인적인 자선사업인게로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코 떨어지고 귀 뭉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마주보기조차 처참한 문둥병환자들도 구완하는 시아버지이니 아마도 옥살이를 하는 죄수의 가족들도 돌봐주는 모양이려니 하였다.

그로부터 이태가 지난 초여름에 형을 마치고 풀려나온 박철우라는 사람이 인사를 하러 시집에 들렸었다.

몽당치마를 입은 딸을 앞세운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기완은 깜짝 놀라 손에 들었던 대통을 떨구었다.

《이게 누군가!》

그는 크게 부르짖으며 버선발로 토방을 내려섰다.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몸이 말이 아니구만!》

해골같이 바싹 마른 박철우는 미소를 지어보였는데 얼굴에 늙은이처럼 주름만 조글조글하여 무척 처량했다.

차기완은 안방에 대고 소리쳤다.

《게 누가 없느냐? 빨리 주안상을 차려내오거라.》

그때 오씨가 술상을 차리며 소곤거렸다.

《저 사람은 사상가야. 시아버님이 야학교 교원으로 받아주었는데 부두로동자들속에 적색로조를 조직하고 야학교에서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였대. 그래서 부두창고에서 붙잡혀갔어. 그의 딸은 아버지가 잡혀간 해에 태여났어.》

민숙이는 술상을 들고 들어가면서 박철우를 살짝 여겨보았다.

바싹 올려깎은 머리에는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이르게 흰머리칼이 많았다. 관골이 툭 두드러져나오고 눈확이 푹 꺼져들어갔으나 눈빛만은 시퍼런 칼날에 반사되는 섬광처럼 예리했다.

《그새 우리 준이가 장가를 갔다네.》

차기완은 민숙이를 소개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내인이 나의 둘째며느리야. 한양에서 공부한 신녀성일세.》

민숙이가 다소곳이 인사를 하자 박철우도 맞절을 하며 말했다.

《박철우입니다. 예전에 시아버님과 이웃에서 살았지요. 처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처를 살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숙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은혜라니요.》 하면서도 나직하지만 또박또박 씹어말했다.

《사람이 제 할바야 하며 살아야지요.》

얼핏 듣기에는 그런 정황에서는 누구나 자기처럼 행동하였으리라는 말처럼 들릴것이다. 아마 함께 앉아있던 시아버지 차기완도 그런 의미로 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례의삼아 하는 말속에는 힐난의 뜻이 있었다.

박철우는 눈살을 찡그리며 민숙이를 날카롭게 보았다. 한순간 분노의 불꽃이 펑긋 튀는것같았다. 그러나 그 불꽃은 인차 사그라지고 서글픈 눈매로 변하더니 자책하는 어조로 말했다.

《저 같은 사내를 만나 집사람이 정말 고생합니다.》

분위기가 어성버성해지자 차기완은 무릎을 철썩 내리치며 말했다.

《됐네, 이 사람아. 내가 그새 잡사에 시달리다보니 자네 집일에 무관심했네. 날 탓하라구. 이 좋은 날 지난 일로 너무 속쓰지 마세.》

민숙이는 빈 쟁반을 들고 일어서며 생각했다.

(보기 드물게 총명한 사람이구나. 헌데 왜 하필 사상가가 되여 제 처자건사도 제대로 못하는걸가? 그 좋은 머리로 장사를 했으면 크게 성공했을지도 모르는데…)

민숙이는 남이섬에서 자기의 오빠 민영협이 공산당서적을 읽는것을 알았고 서울에서 사상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선동을 들은적도, 용수갓을 쓰고 끌려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본적도 있었다. 그러나 돈이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 사상이 다르다는 죄목으로

옥살이까지 한 사람의 얼굴을 주안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것은 그때가 처음이였다.

그때 민숙이는 박철우에게 술을 권하는 차기완의 모습을 보며 그가 맏자식벌인 이 사람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 집안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것이다. 그런데 사상가를 가까이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감옥살이까지 하여 붉은 락인이 찍힌 박철우라는 사상가와 꽤 절친했다.

하긴 식민지땅에서 조선사람으로 살자면 모순되는 삶을 살게 되는것인지도 모른다. 신마진지구가 개발된것은 일본인들의 거류지를 만들자는 의도였는데 차기완은 일본인들보다 배나 되는 자금을 내여 땅을 사들여 거리중심에 보란듯이 조선사람의 집을 지었다고 한다. 시집뜰안에 이웃에 사는 일본사람들을 청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업상용무로 일본인경찰파출소장이나 공무원들과 자주 술집에 마주앉아 등을 두드려주며 술을 마신다고 한다.

일본인거류지역에 집을 지었으니 이곳에서 출생한 차상준은 죽마지우들을 거의 모두 잃었다. 짜개바지를 입고 다닐 때는 몰랐으나 차츰 성장하면서 옆집의 일본아이들은 차상준과 놀지 않았다. 그래서 차상준은 어린시절부터 일본아이들과 섞일수 없는 리유는 단 한가지, 자신이 조선사람이기때문이라는것을 너무 일찌기 깨달았다.

그는 일본에서 공부하였으나 일본사람의 밑에서 일하기를 싫어했고 자기의 지식을 일본을 위해 쓰는것을 거부했다.

조선사람들이 주주가 되고 조선사람들에게 장사돈을 대준다는 상업은행의 요직을 일본인들이 전부 차지한것과 같은 모순되는 슬픈 일들은 식민지조선의 어디에나 있었다.

이듬해 봄 감옥에서 출옥한 후 마진에서 동아일보사 지국장으로 일하던 박철우의 발기와 차기완을 비롯한 유지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20여가족이 배를 타고 진해로 건너가 봄맞이모임을 진행하게 되였다.

민숙이는 갓 해산한 몸이여서 환절기때마다 관절염이 도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기로 하였다.

그날 밤 차상준은 밤늦게까지 글을 썼다.

《무슨 글을 쓰나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별치않게 답하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글을 쓰느라고 밤을 팬

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민숙이는 새벽녘 남편이 쪽잠에 들었을 때 종이장을 슬쩍 훔쳐보았다.

《오늘 조선청년들은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제목의 연설문이였다.

호기심이 동했다. 살며시 종이장들을 빼들고 읽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의 생산자,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로동자, 근로농민들이다!

그러나 사회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몸을 바친 우리 형제자매에게 사회는 어떤 공정한 지위와 대우로 보답하였던가?

비참한 노예적처지에서 주림을 당한 로동자, 농민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설음과 원한은 이 사회의 불공평과 부정의를 지탄한다.

언제 한번 주인의 권리를 지녀본적이 없는 불쌍한 우리 로동자, 농민들은 검은 연기 끄슬린 굴뚝아래서 고된 우마로동으로 꽃다운 청춘의 행복과 꿈을 잃었다. 존귀한 정신과 목숨과 피는 나날이 빨리고 빼앗기고 쥐여짜임을 받는다. 그러나 저 랭혹한 유산계급은 주림과 헐벗음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늙은 부모와 사랑하는 처자의 최후의 목숨을 이어갈 한술의 밥, 한자의 천, 한줌의 솜까지 빼앗아 금전옥루의 향기론 술에 취하고 기름진 안주로 포식하면서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로동자, 농민을 더더욱 착취한다. 사회의 모든 문화는 우리 무산자의 향유를 거절하여 우리를 무지의 컴컴한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운명은 파멸되고 앞길은 검은구름에 잠기고 깊은 나락에 굴러떨어졌어라.

그러나 형제여! 우리는 오늘날 배고픔과 무지와 암흑과 한숨과 쓰라림의 온갖 불행의 근원이 이 사회의 생산수단이 얼마 못되는 유산계급이 홀로 차지하게 된 이 제도의 잘못됨에 있음을 알았도다. 그리고 우리는 단결의 힘과 협력일치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 스스로 깨달았도다. 우리는 우리 무산자의 단결의 힘으로 우리의 피를 빨고 우리의 인격을 짓밟고 우리의 인생을 못되게 만드는 모순으로 가득찬 이 사회제도를 바로잡아 진리와 정의, 덕의의 법칙에 뿌리를 박은 새 사회를 만들고저 함이라.

우리는 리상의 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싸움의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이미 깨달은바라 무산자의 철저한 경제적 및 인격적해방을 위하여 정의와 자유의 기발아래서 우리 로동자 및 소작농민은 협치단결하여 최후까지 분투하기를 맹세하노라.》

너무나도 격동적인 선동문이였다.

민숙이는 가슴이 활랑거려 연설문을 제자리에 놓고는 냉큼 밖으로 뛰쳐나갔다.

새벽이였다.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 새벽기운은 맨살을 에일듯이 싸늘했다.

민숙이는 불룩한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했다.

야학교에서 로동청년들을 계몽시키려는 연설문일가? 아니면 오늘 진해만의 봄맞이모임에서 할 연설문일가?

그렇다고 해도 연설문의 내용은 소나기를 품고 몰아치는 강풍처럼 너무도 격하다. 분명 례사로이 스쳐지날 범상한 글이 아니다.

민숙이는 불쑥 남편에게서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알려달라던 시아버지의 충고가 떠올랐다. 박철우라는 사상가는 일본순사들에게 잡혀가 그의 딸이 아버지의 축복도 못받고 태여났다고 한다.

민숙이는 자기의 딸이 아빠라는 말도 불러보기 전에 남편이 일본형사들에게 끌려가는것을 원치 않았다.

고즈넉이 흘러내리는 교교한 새벽달빛을 밟으며 어느새 시아버지의 방문앞에 이르렀다. 귀를 강구니 방안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그는 망설이였다. 그러다가 이번 봄맞이모임에 시아버지도 함께 참석한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 시아버님까지 깨워 법석 떠들 정도로 큰일은 아니야.)

민숙이는 미타미타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종일토록 칭얼거리는 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가슴을 다독여 잠을 재우며 그의 신경은 온통 대문에 가있었다.

밤이 퍽 늦어서야 가족이 돌아왔다. 여느때없이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기분이 좋았다.

(혹시 박철우라는 사상가가 시아버님과 같은 완고한 유지들 몰래 청년들로만 모임을 조직한게 아닐가?)

민숙이는 용단을 내려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그의 말을 심중히 듣고난 차기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젊은이들이 한쪽에 모여서 떠들썩거리면서 무슨 론쟁을 하더라만… 우리 유지들이야 나무그늘에 앉아서 한담이나 했지.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늙은이들이 끼우면 주책이 없다는 소릴 들을테니까… 헌데 그런 준비가 있었구나.》

잠시 말을 멈추었던 차기완은 말을 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할것인가? 시국에 대해 토론도 하고 론쟁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론과정에 열이 오르면 좀 과격스러운 언사도 있는거고… 뭐 비밀모임을 한것도 아니니 일본헌병들이나 경찰에 잡혀갈 사상모임은 아니였겠지… 아무튼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제깍 알려다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슬쩍 이렇게 물었다.

《혹시 백두산 김대장이야기 들은게 없냐?》

민숙이는 예상치 않았던 물음이여서 어리둥절하였다.

《없는게구나.》

차기완은 서운한듯한 기색이였다.

1937년 6월 백두산대장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혜산군 보천면 보천읍(당시)을 습격하여 승리한 희소식은 식민지노예살이를 숙명으로 여겨오던 조선사람들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었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났으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여 남해 한끝까지 전해지고있었던것이다.

민숙이는 주저하다가 말꼭지를 뗐다.

《저기 북두칠성이 보이는 곳에 백두산이 있고 그아래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안에 또 큰 동굴이 있고 굴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벌판이 있는데 거기는 언제나 대낮처럼 밝답니다.》

《그래서?》

차기완은 소리를 낮추라고 손짓을 하며 귀를 강구었다.

민숙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굴속에서 수만명의 조선군대가 칼을 벼리고 매일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 조선군대를 거느린분이 백두산호랑이로 불리우는 **김일성**장군님이시라나요. 이제 조선군사들이 김대장님의 분신술이랑

축지법이랑 모두 배우면 대장님의 령에 따라 바위가 갈라지고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나와 왜놈들을 몽땅 족치고 조선이 독립된다고 합니다.》

《허허허…》 하고 차기완은 소리내여 웃었다.

《오래간만에 참 통쾌한 얘기를 듣는구나. 헌데 너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저… 남이섬에서… 들었습니다.》

《그 인가가 몇채 되지도 않는 남이섬에 그런 얘기가 돌아?》

그는 민숙이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처 말했다.

《오늘은 기분이 참 좋구나. 봄이 와서인가. …앞으로도 종종 김대장이야기를 들려다오. 딴데 옮기지는 말고… 일본사람들이 들으면 큰 변 난다.》

방을 나선 민숙이는 한숨을 내쉬였다.

사실 민숙이는 그 전설을 남이섬에서 들은것이 아니였다. 맏동서가 해준 이야기였다. 맏동서는 그 전설을 차상준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그때 민숙이는 자기가 아닌 맏동서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준 남편에게 고까운 심정이였고 그날 밤을 단단히 벼르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애기가 무척 보채다보니 잊어버렸었다.

밤공기를 가르며 애기가 응아응아 하고 우는 소리, 남편이 오냐오냐 하며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민숙이는 급히 방으로 뛰여갔다. 애기의 오물거리는 입술에 젖을 물리며 그는 생각했다.

(애를 잘 키우고 빨래를 하고 밥상을 차리고 집거둠이나 잘하면 된다. 더이상 남정네들의 복잡한 일에 끼여들지 않을테다.)…

18

(황병두…)

민숙이는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며 분을 참지 못했다.

(인두겁을 쓴 짐승이라더니… 황병두, 네녀석이 어쩌면 그런 너절한 놈이 되였단 말인가?)

…1942년 봄 민숙이는 앞마당의 우물가에서 냉이뿌리를 다듬고있었

다. 우물곁에는 봄물이 파릇파릇 오르기 시작한 향오동나무가 있었다. 네살잡이딸 정인이는 제 어미의 치마폭에 매달려 재롱을 부리다가 그 나무밑으로 아장거리며 다가가 해묵은 삭정이를 집어든다.

그때 《여보!》 하는 부름소리가 들렸다. 돌아다보니 차상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민숙이는 걱정스러워 물었다.

차상준이 말했다.

《물을 좀 주오.》

차상준은 이가 시릴 정도로 차거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황병두가 생각나오?》

차상준이 느닷없이 묻기에 민숙이는 말했다.

《그를 잊을수가 있나요.》

일본에서 남편이 사준 스케트를 넣은 가방을 보물인양 소중히 끌어안고 몇번이고 절을 하고 떠나가던 애젊은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젠 끌끌한 사내가 됐겠지요.》

《그렇겠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인차 부산에 올것같소.》

《잘됐군요. 집에 들리라고 하세요.》

《못올거요.》

《왜요?》

《징집되였다니까. 부산항에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혹은 태평양 어느 전구로 가겠지.》

《당신도 징집되지 않을가요?》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민숙이는 그 말이 싫었다. 마치도 어떤 불행을 예고하는것같았다.

《난 부산에 며칠 다녀와야겠소. 사지판으로 떠나는 동생을 바래워주어야지.》

민숙이는 물었다.

《언제쯤 도착한대요?》

《모르겠소. 정말 부산으로 오겠는지도 모르겠고… 평양에서 곧장 기차를 타고 만주를 지나 중국대륙으로 투입되면 아마 만나지 못할수

도 있소.》

《그런데 왜 부산으로 가는거예요?》

《예감이요. 요즘은 징집된 청년들을 부산항에서 배로 실어나른다는데 황병두도 꼭 부산에 나타날것같구려. 또 부산에 오기를 내가 바라고…》

부산으로 떠난 차상준은 인차 되돌아왔다.

《황병두를 만났어요?》

민숙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발 늦었소.》

《그렇게 빨리 떠났어요?》

《아니, 십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부산에서 탈영했다오.》

《부산땅이 생소할텐데 붙잡히지 않을가요?》

《그래도 조선땅인데 돕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날 저녁 차기완이 차상준을 급히 찾았다.

방으로 되돌아온 차상준은 민숙이에게 급히 가볼데가 있다며 짐을 꾸려달라고 하였다. 식량과 속옷 등을 넣은 트렁크를 들고 일어선 그는 쌕쌕 숨소리를 내며 굳잠이 든 정인이를 오래도록 내려다보다가 여느때없이 임신하여 배가 불룩한 민숙이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이번 출장이 오래 걸릴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대체 어디로, 무슨 일때문에 가는거예요?》

《만주로 가려오.》

갑자기 몇천리밖으로 떠나겠다는 말에 민숙이는 얼떠름해졌다.

《당신에게도 징병장이 떨어졌나요? 시아버님과 유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가요?》

《이번만은 어려울거요.》

대문을 나서며 그는 나직하나 저력있는 어조로 말했다.

《내 이제 백두산골짜기와 만주광야를 다 뒤져서라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그이의 부하가 되겠소. 조국을 해방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겠소. 꼭 기다리오.》

어두운 밤 그는 그렇게 집을 떠났다.

이튿날 새벽 시집으로 서너명의 일본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차상준을 찾지 못한 그들은 차기완에게 아들을 내놓

으라고 강박하였다.

차기완은 태연하게 말했다.

《간밤에 일이 있어 나갔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소. 대체 무슨 일이요?》

한 경찰이 나서며 말했다.

《령감아들이나 부산에 갔었다. 거기서 징병자들의 탈출을 돕고 탈출자들을 데리고 어제 새벽에 마진경내로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다. 그런데 마진 그 어디에서도 탈출자들의 행적을 찾을수가 없다. 대체 어디에 감추었는가? 당신 아들이나 두려워할게 없다. 탈출자들이 숨은 곳만 대주면 무사할수 있다. 그러니 빨리빨리 아들에게 련락하여 자수하게 하라.》

민숙이는 가슴이 덜컥했다. 황병두를 만나지도 못했다는것은 차상준의 거짓말이였던 모양이다. 아마도 황병두뿐만 아니라 여러 징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마룡산의 수림속에 숨겨놓은것같았다.

차기완은 당황해하는 민숙이에게 눈짓하며 정자아래에 술상을 차려놓으라고 이르고는 큰소리로 말했다.

《그거 참, 모를 일이외다. 정인이 애비가 근간에 마진을 떠난적이 없는데… 여하튼 인차 들어올테니 직접 물어보구려. 내가 은행일로 심부름을 시켰수다. 그러니 그때까지 청주나 덥혀 목이나 추기며 기다리던가요. 아침식사도 못하거나 설쳤을테니 별로 차린것은 없어도 좀 들구려.》

일본경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차기완의 모습은 너무도 태연스러웠던것이다.

《령감이나 거짓말하면 없다.》

그들은 한번 더 위협을 하고는 못이기는척하며 정자아래에 둘러앉았다.

날이 저물 때까지 차상준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들은 차기완을 대신 끌어갔다.

그는 사흘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매맞지는 않았슈?》

시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하여 묻자 그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탄식했다.

《늙었다고 때리지는 않았소. 그러나 숱한 조선사람들이 붙잡혀와 매를 맞고 손톱이 뽑히고 물고문을 받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모습, 그들의 고통받는 신음소리… 차라리 내가 매를 맞는게 더 나을것같았소. 허어… 이놈의 세상! 과연 언제나 광명을 보려나!》

그해 가을 민숙이는 아들을 낳았다.

차상준이 그토록 기다려온 대를 이을 아들이였으나 그는 곁에 없었다. 그의 행처도 알수 없었다. 시집에서는 애기의 이름을 《차대곤》이라고 지었다.

차상준이 행처를 감춘 뒤 경찰들은 항시적으로 민숙이네 시집을 감시하였다.

이듬해 봄 차기완은 민숙이에게 말했다.

《집안이 부산하고 왜놈들의 탄압도 이전보다 심하니 넌 남이섬 친정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려라.》

정인이의 손목을 잡고 대곤이를 업고 배와 기차를 갈아타며 민숙이는 본가집이 있는 남이섬으로 왔다.

본가집으로 돌아온 민숙이는 남이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새 남이섬에는 네댓가구가 더 들어앉았다.

그렇게 3년이 흐른 1945년 여름, 맏딸 정인이는 7살이고 대곤이는 3살에 잡혔다.

《정인아!》

민숙이는 토방에 내려서며 딸에게 말했다.

《엄마는 밭에 나간다. 너 장난에 헛눈 팔지 말고 대곤이를 잘 돌보거라.》

그날따라 날씨는 무척 태평스러웠다. 하늘에는 밝은 태양이 이글거리고 구름 한점 없이 푸르렀다. 그런 쾌청한 날이면 심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법이다.

민숙이는 미소를 지으며 밝은 하늘을 우러렀고 푸른 대지를 자유로이 걸었다.

헌데 그토록 따뜻하고 쾌청하고 기분좋은 날 그렇듯 생벼락이 그의 머리우에 떨어질줄 어이 알았으랴.

점심시간이 되여 집으로 돌아온 민숙이를 허겁지겁 달려나와 맞은 그의 어머니 곽씨는 《숙이야!》 하고 부르짖고는 땅바닥에 펄썩 주저

앉았다. 그리고는 맨주먹으로 땅을 두드리며 통곡하였다.

《어이구,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도 무심해.》

민숙이는 가슴이 쫄아들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대체 무슨 일이… 심하게 다친걸가?)

민숙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안타까이 물었다.

《무슨 일이예요? 예? 어머니!》

《어이구, 하늘도 무심하지…》

이웃들이 달려와 곽씨를 부축하며 민숙이에게 말했다.

《정인이 엄마, 이 일을 어쩜 좋아. 글쎄, 대곤이가…》

민숙이는 등골을 선뜩한 칼로 쑥 베이는것같은 써늘한 공포를 느꼈다.

대곤이?! 우리 아들이 어쨌다는건가?

《글쎄, 대곤이가 강에 빠져죽었네.》

세상에 그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 서너시간전에 호미를 들고 집을 나서는 자기에게 보숭보숭한 손을 흔들던 귀여운 아들, 그애는 방안에 있을거야!

민숙이는 앞을 가로막은 이웃들을 와락 헤치고 황급히 방안으로 들어섰다.

《대곤아! 엄마 왔다!》

크게 고함질렀다. 문을 여기저기 벌컥벌컥 열었으나 방안도 부엌도 창고도 텅 비여있었다.

(그렇지, 분명 뒤뜰에서 놀고있어!)

황급히 돌아나오던 민숙이는 토방에서 발을 헛디뎌 나딩굴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렸을 때 이웃들이 그를 빙 둘러앉아 그의 손과 발을 주무르고있었다.

민숙이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대곤아!》 하고 소리쳤다. 고역에 터갈라지고 떡살이 배긴 여러 손들이 억세게 민숙이를 눌러앉혔다.

《정인이 에미,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응…》

《동네남정들이 모두 강으로 갔으니… 좀 있으면 대곤이를 찾아올게야.》

민숙이는 이웃들을 둘러보며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우리 대곤이 살았죠?》

《그래그래.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이휴…》

이웃들이 눈물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였으나 민숙이는 살았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꼈고 온몸의 기운이 그대로 땅속으로 쭉 빠져들어간 듯 그대로 쓰러지고말았다.

그날 밤 민숙이의 아버지 민인호가 돌아왔다.

《간신히 대곤이를 찾아 땅에 묻었다.》 하고 말하였을 때 민숙이는 아버지의 가슴을 쥐여뜯으며 엉엉 울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 대곤이를 찬 땅에 그냥 묻어요.》

민숙이가 밭일을 나간 다음 옆집에 사는 12살 나는 처녀애가 동네아이들을 휘동하여 강변으로 놀러 나갔는데 정인이도 대곤이를 데리고 따라갔다.

그런데 강기슭의 나무등걸우에서 놀던 대곤이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물속에 빠져들었다는것이다. 정인이와 아이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물살에 휘말려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잠겨버렸다고 한다.

그날 밤 민숙이는 강변에서 울려오는 아이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강가로 달려갔다.

그대로 물속에 들어서는데 누군가가 헐떡거리며 쫓아와 그의 머리끄뎅이를 움켜쥐였다.

《이년아! 죽자고 환장했니!》

민인호였다.

민숙이는 소리쳤다.

《이걸 놔요. 대곤이가 저속에서 울고있어요.》

《이년아, 너 정말 미쳤구나. 저속에 들어가면 너도 죽어!》

《대곤이가 울고있는데 내가 들어가야지…》

그 순간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했다. 민인호가 따귀를 후려친것이였다.

그러나 민숙이는 아픈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단지 뭔가 이상한, 좀전까지 귀따갑게 들리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어둠속에서 맹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물소리만 소름끼치게 들려왔다.

《정신 좀 차려라. 너마저 죽으면 정인이는 어쩌라는거냐. 죽은 아

이는 죽은 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게 아니냐. 너마저 죽어버리면 정인이 애비를 내가 어떻게 맞으라는거냐. 이 미련한 년아!》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오겠지?…)

민숙이는 가슴을 무딘 호미날로 북 허벼내는것같았다.

차상준은 정인이를 《금딸! 금딸!》 하면서도 안해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기를 은근히 바랬다. 그런 그가 아들의 얼굴을 단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이제는 영영 보지 못하게 되였다! 만일 마진을 떠나오지만 않았다면… 이 남이섬으로 오지만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것이다.

민숙이는 왜 이 남이섬으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왔던가! 어이하여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외진 섬에 삶의 터를 잡아야 했는가!

불행은 무엇보다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였으며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돌이켜보게 한다.

민숙이는 마진을 떠나 남이섬으로 온 자신이 한스러웠다. 차라리 남편을 찾아 아이들을 업고 만주로 갔더라면 오늘같은 일은 없었을것이다. 차라리 아이들을 시집에 맡기고 남편과 같이 왜놈들과 싸웠더라면 이런 후회는 없었을것이다.

민숙이는 이 세상이 더없이 원망스러웠다.

자기 남편을 풍파사나운 만주로 떠나보내고 자기 가족을 외진 섬으로 몰아넣은 일제식민지의 이 땅, 이 하늘이 그야말로 저주로왔다! 그리고 식민지녀인의 고통과 수치를 숙명으로 간주하며 죽은듯이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을 증오했다!

…창밖에서 첫닭이 홰를 쳤다. 곧 날이 푸름푸름 밝을것이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민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뙤창을 여니 후더운 여름공기가 불어왔다. 그래도 선기가 약간 느껴진다.

이미 삼복철은 지나갔으니 곧 황금가을이 시작될것이다. 그리고 몇시간후이면 민숙이는 마진을 뒤로 남기고 떠날것이다.

제 2 장

길을 떠난 사람들

19

이미 날은 훤히 밝았다.

채영학은 차에서 내려서서 담배 한가치를 꼬나물었다.

몰몰 피여오르는 담배연기가 그러지 않아도 밤새 자지 못해 피발이 선 눈을 자극하여 짜증나게 아렸다.

채영학은 본능적으로 눈두덩을 비비고나서 가래침을 신경질적으로 탁 뱉았다. 그의 주변에는 온밤 피우고 버린 꽁초들이 수두룩했다.

그는 이곳 만정의 지린내나는 뒤골목에서 밤을 꼬박 지샜다. 그러나 엊저녁 《서북청년단》녀석들이 떼거리로 밀려나온 후 민숙이네 집으로는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채영학이 행여나 하고 기다린 사람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글쪽지를 꺼내보았다. 몇번을 보았던지 이제는 글자 몇개가 희미해질 정도로 보풀이 졌다.

《민숙이를 주목할것. <검은비수>》

재클린은 야스꼬의 대호가 《검은비수》이며 그가 현재 서울에 있다고 하였다. 《흑룡회》의 성원들이 일본군부의 요직에 틀고앉아 활동하기도 하였으니 이전 일본헌병대 특고과 장교가 《흑룡회》의 일원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서울에 있으면서 천리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시하며 첩자들을 통해 지령을 내린다니 보통수완이 아니다.

하기사 마진에 침투했을 때도 야스꼬는 전생에 차씨집안과 무슨 원쑤라도 되는지 《차기완을 감시하라.》, 《차종준이 의심스럽다.》, 《차상준을 찾으라.》 등의 지시를 연방 내리군 했었다. 단지 이번에는 그 집안의 둘째며느리로 대상이 바뀌였을뿐이다.

채영학은 마른입을 쩝쩝 다시였다.

재클린은 《검은비수》를 자기의 특사로 여기고 그가 내리는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패망한 지금에 와서 그까짓 야스꼬는 두렵지 않으나 재클린은 무서웠다. 하기에 채영학은 감시조를 파견하였을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민숙이네 집근처에서 밤을 패웠던것이다.

채영학이 있는 골목에서는 저켠 건너편에 있는 민숙이네 집대문이 아주 잘 보였다. 왼쪽문짝이 볼썽사납게 떨어져나가고 간신히 남은 나머지 문짝도 한옆으로 기울어졌다.

채영학은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시세를 잘 따라야 하는거야.)

차상준은 한때 수재형의 소년으로 이름을 날렸다. 사각모를 쓰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나 사람이 제아무리 똑똑해도 대세를 잘 알고 바람따라 돛을 달아야지 제 잘났다고 우쭐렁거리다가는 그 좋던 운도 마침내 다하여 저렇듯 패가하기마련인것이다.

민숙이네 집주변에 잠복시켰던 네명의 사복형사들중 하나가 채영학을 찾아왔다.

《밤새 쥐새끼 한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채영학은 침을 다시 탁 뱉으며 말했다.

《안주인이 짐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 모두 철수시켜.》

채영학은 다 피운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차상준, 이 지독한 놈. 녀편네와 애새끼들이 친정으로 아예 떠나버린다는데도 나타나지 않는군. 혹시 김인혜처럼 어느 골짜기에 죽어너부러져있는건 아냐?)

그때 누군가가 대문앞으로 다가온다. 밀짚모자를 쓰고 허름한 적삼을 걸친 빼빼 마른 사나이였다.

채영학은 긴장하였다. 담너머로 사복형사 하나가 머리를 내밀고 이쪽을 본다.

채영학은 그냥 잠자코 주시하라는 손짓을 했다.

민숙이가 나와 밀짚모자와 잠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복형사가 다시 채영학쪽을 바라본다. 채영학은 여전히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민숙이와 밀짚모자는 너무도 태연했다.

(어쨌든 빠질 틈은 없어.)

채영학은 나무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대문을 지켜보았다.

한식경정도 지나 나들이옷을 입은 민숙이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의 뒤를 따라 밀짚모자도 나타났다. 그 사내는 커다란 가방과 보따리를 지게에 지고있었다.

채영학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쳇, 짐군인게군.)

승용차로 돌아온 채영학은 운전사에게 말했다.

《다들 철수시켜. 그리고 넌 차를 끌고 역전주차장으로 오라.》

채영학은 민숙이네 뒤를 따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민숙이는 한번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누군가의 미행따위에는 관심이 없는듯했다. 하긴 보통의 평범한 인간들은 자기뒤를 누가 따르지 않는가 하는 념려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아낙네의 심정이 여간 착잡하지 않을테이니 언제 미행따위를 생각하랴.

짐군이 나타난걸로 보아 곧장 역전으로 가려는것같았다. 그러나 안심할수 없다. 어쩌면 길가에서 차상준이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 짐군이 민숙이네를 이끌고 역전이 아니라 어느 다른 골목길로 빠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채영학은 민숙이의 꽁무니를 따르면서 이상한자들이 없는가를 긴장하여 살폈다.

민숙이네는 마진 세거리로 가고있었다. 리발소와 미용원을 지나고 문방구상점도 지났다.

갓난애기인 예곤이를 등에 업고 정인이와 두인이의 손을 량손에 잡은 민숙이는 평보로 걷고있었다.

마진은 봉건적관념이 심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른아침부터 큰길을 나다니는 녀인들이 많지 않았다. 사내들은 길가에서 아는 녀인을 만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 배군들은 새벽에 항구로 가던 길에 녀인과 마주치면 재수가 없다면서 그날은 바다로 나가지 않는다.

민숙이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곁눈질없이 길을 곧추 갔다. 우체국을 지났다.

이제는 철도역사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채영학이 기다리는 차상준

은 끝내 머리도 내밀지 않았다.

민숙이네를 쫓아 역사에 도착한 채영학은 곧장 역장을 찾아갔다. 역장을 만나고 나온 채영학은 주차장에 대기한 승용차에 올랐다. 운전사가 물었다.

《경찰서로 가잡니까?》

채영학은 앞을 가리켰다. 발동이 부르릉 걸렸다.

그는 역사 앞마당에 앉아있는 민숙이앞에 차를 세우게 하고 내려섰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민숙이는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경관복을 입은 채영학이 가까이로 다가오자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인이와 두인이가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채영학은 애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다.

《아이들이 도덕이 밝군요. …통행증과 보증서는 받았지요?》

채영학은 뻔한것을 묻고있었다.

(단순히 옆구리를 찔러 인사받고싶은걸가?) 하고 생각하며 민숙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덕분에 편하게 가게 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바를 했을뿐입니다.》

그때 역사쪽에서 화사한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한정덕이 다가오다가 채영학을 발견하고는 멈춰섰다.

채영학은 동백기름을 바른 한정덕의 쪽진 머리를 노려보며 얄궂게 미소를 지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정덕은 머리를 약간 숙여보이고는 곧장 민숙이에게로 다가왔다. 그 모습은 채영학과는 별 볼일이 없다는듯한 도고한 태도였다.

채영학은 누구도 묻지 않았으나 반죽좋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주머니들이 마진을 떠난다기에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채영학이 운전사에게 손짓하자 운전사는 민숙이네 짐을 제꺽 차의 짐칸에 옮겨실었다.

민숙이는 놀라 운전사를 만류했다.

《우린 기차를 타야 해요.》

채영학은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오늘 마진역에는 기차가 못들어옵니다. 이곳 철도선의 로동자들이 새벽부터 파업을 시작했거든요.》

민숙이와 한정덕은 크게 놀랐다.

《이미 짐을 다 쌌는데 이를 어쩌나. 집도 다 내놓고 나왔는데…》

민숙이는 한탄조로 중얼거렸다.

한정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리속으로 박철우의 지시가 번개처럼 스쳤다.

《어떤 경우에도 8월 23일 저녁까지는 서울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고 박철우는 세번이나 강조하였었다.

(이젠 어떻게 하지?!…)

민숙이도 한정덕도 안타까운 심정이였다.

그들을 번갈아 보며 채영학은 히죽이 웃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왔지요. 나도 출장을 갑니다. 마침 방향이 같으니 함께 내 차를 타고 삼랑진으로 갑시다. 거기서 렬차에 오르면 아마 래일 아침에는 서울역에 도착할겁니다.》

민숙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채영학의 표정을 살펴보니 자기의 진속을 떠보는것같았다.

채영학이 불쑥 너스레를 떨었다.

《아주머닌 삼랑진이 아니라 경찰서로 끌고갈가봐 두려운게지요?》

민숙이는 속이 찔려 그의 말을 부정했다.

《아니예요. 괜히 폐를 끼치는것같아서…》

채영학이 말을 받았다.

《이러지 마십시오. 내 그래도 종준군과는 죽마고우이고 지금은 사이가 좀 그렇지만 이전에는 상준군과도 형님동생하며 지냈수다. 사상과 정견이 달라서 다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정이야 어디 가겠소. 마침 가는 길이니 어서 차에 오르시지요.》

채영학은 제가 직접 차문을 열었다.

민숙이와 아이들이 오르고 나중에 한정덕이 올랐다.

채영학이 우연인듯 한정덕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다. 그러자 한정덕이 흠칫 놀라더니 큰 눈을 찡그려 눈총을 쏘았다.

채영학은 이몸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한정덕은 인차 눈을 내리깔며 의자에 얌전히 앉았다.

채영학은 차에 오르기 전에 주위를 다시 슬쩍 살펴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가 이쪽을 주시하는것같은데…)

이상한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채영학은 꼭 누군가가 자기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있는것만 같았다.

차가 역사를 빠져나갔다.

채영학은 후사경으로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가를 열심히 살펴보았으나 역시 의심스러운것을 찾아낼수 없었다.

(무정한 놈, 온 가족이 인질로 끌려갈수도 있는 형편인데도 끝끝내 머리를 내밀지 않을셈이군.) 하고 채영학은 속으로 두덜거렸다.

차안의 거울로 채영학의 뒤통수를 눈 한번 깜박거리지 않고 노려보는 한정덕의 모습이 비꼈다.

채영학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최근에 그는 한정덕을 따로 만나고싶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차기완이 두 며느리의 통행증을 요구하여 경찰서로 왔을 때 피뜩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한정덕을 만날수 있을거라고 타산했다.

한정덕은 여전히 불안스러운 인상이다.

그러나 채영학은 코노래라도 흥얼거리고싶은 심정이였다.

삼랑진역에 도착하여보니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몹시 붐비였다. 게다가 출발역인 부산에서부터 타고 오는 손님들까지 겹치면 야단이여서 중간역에서 오르는 민숙이와 한정덕은 차표를 받게 되겠는지 우려되였다.

역전앞에서 차를 세운 채영학은 말했다.

《정인이 어머니는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잠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한정덕을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한부인은 저와 함께 역장을 만나러 갑시다. 표도 얻고 좋은 자리도 고르도록 해야지요.》

한정덕은 민숙이에게 고개를 돌려 고운 얼굴을 찡그려보이더니 하는수없이 채영학의 뒤를 따랐다.

역사안으로 들어서자 어둑시그레한 복도가 길게 늘어졌다. 마침 복도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채영학은 앞서 걸으며 한정덕에게 물었다.

《혹시 동서가 집까지 처리한걸 보면 마진을 영 떠날 심산인데… 정말 남편과 한마디 상담도 없었단 말이요?》

한정덕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런것같애요.》

채영학이 투덜거렸다.

《그럴수가 있나.》

채영학은 한정덕에게 돌아섰다. 그는 한정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물었다.

《뭔가 숨기는게 있지 않소?》

《숨기다니요?…》

반문하면서도 한정덕은 채영학의 눈길을 피했다.

채영학은 재촉했다.

《지금까지 부인과 나는 이러저러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은 처지가 아니요. 부인을 위해서라도 나한테 속이는것이 없으면 하오.》

채영학의 엄포에 한정덕은 고개를 외로 돌리고는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다.

《글쎄, 동서가 하는 말이… 정인이 아버지도 곧… 마진을 떠날거래요.》

채영학의 살모사처럼 세모진 눈이 별안간 반짝 빛났다.

한정덕은 채영학의 얼굴을 피뜩 보고나서 호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며칠전 한정덕을 바래우며 박철우는 말했었다.

《만일 적당한 기회가 생기면 채영학에게 차상준이 곧 마진을 떠날 기미라고 귀띔해주시오.》

한정덕은 자연스럽게 임무를 수행했다.

역장실에 들어선 채영학은 전화기의 송수화기부터 잡아쥐였다.

《마진시경찰서, 마진시경찰서요? 당직경관인가? 이제 마진항을 떠나 소록도로 가는 배에 차상준이 숨어있을수 있소. 배를 임대한 사람은 차기완시장고문이요.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말고 그 배, 짐, 선원 그리고 차기완령감의 몸까지 샅샅이 수색하라. 명령이다. 알았는가?》…

민숙이는 역전거리를 둘러보았다.

보짐을 진 녀인들이 오가고 자전거를 탄 젊은이가 건너편을 지나갔다. 저 멀리에서 한정덕과 채영학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곁으로 다가온 한정덕은 손짐을 들며 민숙이에게 속삭였다.

《일이 다 잘되였어. 역장이 처음에는 표가 다 나가고 없다더니 채영학계장이 공무집행이라며 으름장을 놓으니까 표를 냉큼 내주더라. 저까마귀복도 쓸데가 있구나.》

한정덕은 법집행을 등대고 하는짓과 권세에 아부하는 꼴들이 기가 찬듯 허거프게 웃었다.

렬차가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두줄기의 레루를 따라 덜컹거리며 역홈으로 들어섰다. 차안은 짐작했던바대로 승객들로 초만원이였다.

민숙이는 창문옆자리에 앉아 보채기 시작한 어린 아기에게 젖부터 물렸다.

잠시후 렬차가 서서히 출발하더니 차츰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차창밖으로 이영이 한쪽으로 찌그러진 오두막들이 흘러갔다. 죽어가는 사람의 입김마냥 가느다란 연기가 쓰러져가는 굴뚝으로 실오리처럼 뻗어오르고있었다.

한정덕은 민숙이와 마주앉았다. 어른 둘이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가기에는 좌석이 좁았던것이다.

민숙이는 젖을 배불리 먹은 예곤이를 세워앉히고 트림을 하고난 후에야 포단으로 감싸 앞으로 안았다.

한정덕이 민숙이에게 말했다.

《덥겠는데 내가 안을가?》

《아니, 괜찮아요.》

《그럼 두인이만이라도 내게 보내.》

두인이는 기다리고있은듯 냉큼 일어나 한정덕의 곁에 가앉았다. 그리고는 창문옆에 앉아 자리를 양보하지 않던 제 언니 정인이에게 빨간 혀를 쑥 내밀어보였다.

어느새 기차는 어느 간이역을 통과하고있었다. 뿡 하는 기적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다.

고르롭게 덜컥거리는 기차에 올라 려행길에 오른 려객들이 흔히 그러하듯 민숙이와 한정덕은 추억에 잠겼다.

한정덕이 먼저 말했다.

《생각나니? 너와 리화녀고보에서 그렇게 헤여지고 처음 다시 만난것이 마진역에서였어.》

《응. 생각나요. 난 그때 류학을 마친 남편과 돌아오던 길이였어요. 정거장에서 언니를 알아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도 그래. 더우기 네가 시집을 가 머리를 틀어올린 모습은 정말 상상밖이였으니까.》

두 녀인은 시름을 잊고 즐겁게 웃었다.

그것은 10년도 넘은 이전의 일이였지만 환등사진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은 민숙이가 차상준, 황병두와 함께 마진으로 돌아오던 1937년 어느 봄날이였다. 마진역에 도착하여 객차에서 내려선 민숙이는 앞을 스쳐지나는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다.

양장을 한 키가 큰 처녀였다. 그 처녀는 채양이 넓은 분홍색갈의 모자를 쓰고 손에는 커다란 트렁크를 힘겹게 들고있었다.

허줄한 두루마기를 입은 짐군이 그에게 다가서며 굽석 인사를 했다.

처녀는 멈춰서서 그와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고있었다. 아마도 짐값을 흥정하는것같았다.

《왜 그러오?》

차상준이 민숙이에게 물었었다. 짐을 들고 따라서던 황병두도 그를 쳐다보았다. 민숙이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잠간만요.》

그리고는 종종걸음을 쳤다. 그 처녀를 따라잡은 민숙이는 옆모습을 힐끔 여겨보며 손벽을 쳤다.

《언니! 정덕언니!》

분홍색모자를 쓴 머리를 갸웃하고 옆을 돌아보던 처녀도 민숙이의 손을 맞잡으며 소리쳤다.

《어마나, 이게 누구야. 숙이구나!》

《언니, 정말 오래간만이예요.》

《여기서 만나다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던 한정덕의 눈길이 민숙이의 틀어얹은 머리에 머물렀다.

《아니, 너… 시집을 갔구나?!》

《응, 그렇게 되였어요.》

민숙이는 자기의 곁으로 다가온 차상준을 그에게 소개했다.

《언니, 인사해. 제 남편이예요. 방금 일본에서 류학을 마치고 나랑 함께 시집으로 가던 길이예요.》

한정덕은 차상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정덕이예요.》

차상준은 그의 손을 살짝 쥐였다 놓으며 대답했다.

《차상준입니다. 처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정덕은 빨간 연지를 칠한 오동통한 입술을 살짝 벌리고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고 차상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까맣고 길다란 속눈섭이 곱게 휘여든 눈시울밑에서 맑은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빛을 뿜었다.

《숙이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게요?》 하고 한정덕은 매력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차상준은 빤히 올려다보는 호기심이 짙은 처녀의 시선에 일순 당황하고 어색스러운 심정이였다고 한다. 그는 어험 하고 헛기침을 깊고는 머리를 뒤로 돌려 먼발치에 서있는 황병두를 손짓해 불렀다.

황병두가 다가왔을무렵에는 이미 한정덕이 민숙이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대고 뭔가 속삭이고있었다.

민숙이는 얼굴이 능금알처럼 빨갛게 익어가지고는 한정덕의 어깨를 종주먹으로 가볍게 쳤다.

차상준은 싱긋이 웃었다. 련애로 결혼한 부부는 혼인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 무척 많은것을 파악하게 되지만 중매로 결혼한 부부는 사실상 신혼기간이 련애기간이나 다름없다.

차상준과 민숙이의 신혼기간은 겨우 일주일간에 불과했기에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방을 파악했다.

그를 알려면 그의 동무를 보라는 말이 있다. 차상준과 민숙이는 여가시간에 자기들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민숙이가 자주 입에 올린 이름이 녀고보시절 《사랑언니》였던 한정덕이였다.

《그 언닌 조선의 쟌느 다르크와 같은 녀성이예요. 실지 그 언니가 숭상하는 녀인도 쟌느 다르크이고요.》

중세 프랑스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난 양몰이군처녀, 10대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프랑스를 구원하라는 《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프랑스군을 이끌어 영국군을 물리쳐 백년전쟁의 종말을 당겨온 프랑스

의 애국처녀였다. 비록 18살에 영국군에게 포로되여 《이단자》로 잔혹하게 화형당하였으나 그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영웅으로 후세에 전해지며 전 세계의 용감한 녀인들의 숭앙의 대상이 되였던것이다.

그때 차상준은 물었었다.

《당신이 숭배하는 녀인은 누구요?》

민숙이는 수집어하며 대답했다.

《신사임당이예요. 전 당신의 어진 안해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현숙한 어머니가 될거예요.》

《현모량처라. 그게 당신의 리상이요?》

《그래요.》

민숙이는 작은 몸을 차상준의 품에 맡기며 행복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었다. …

옆에 서서 기다리던 짐군이 지루한지 물었다.

《아가씨, 이 짐을 어디로 날라갈가요?》

황병두가 그 짐을 앗아들었다.

《제가 들겠습니다.》

순식간에 삯짐을 떼우게 된 짐군의 눈이 커지며 볼살이 씰룩거렸다.

한정덕은 지갑을 열어 잔돈을 재빠르게 쥐여주며 달래였다.

《미안해요. 생각지 않게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군요. 이 돈으로 호떡이라도 사잡수세요.》

짐군은 어쩔수없이 그 돈을 받아들고 자리를 떴다.

민숙이가 물었다.

《언니, 어떻게 된거야?》

한정덕이 대답했다.

《여기 마진에 있는 결핵료양소에 일하러 왔어.》

《결핵료양소에?》

《응, 그곳 간호원으로 취직했거던.》

《잘됐군요.》 하고 차상준이 황병두에게서 한정덕의 짐을 나눠들며 끼여들었다.

《제 처가 이곳이 아무래도 생소하겠는데 친구가 있어 다행입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함께 갑시다. 그다음 제가 료양소로 안내해드리리다.》

《그래도 될가요?》

한정덕은 부채살처럼 까부러진 속눈섭을 내렸다가 치떴다. 그 시선은 뭇사내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매혹적인 눈길이였다.

차상준은 대범스레 대꾸했다.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아예 우리 집에 거처를 정하십시오.》

그는 짐을 들고 씨엉씨엉 걸었다.

민숙이는 한정덕의 한쪽팔을 끼고 뒤따랐다.

역사앞 주차장에는 시집에서 보낸 마차가 대기하고있었다.

그것을 본 한정덕이 민숙이에게 속삭였다.

《너희네 시집이 꽤나 부자인 모양이지?》

《응. 마진에서는 그만하면 좀 사는 축에 속해요.》

민숙이는 녀공이 되겠다고 부푼 가슴을 보란듯이 내밀고 교정을 떠나가던 한정덕을 추억하며 왜서인지 주눅이 들었다. 마치도 자기가 돈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갑작결혼을 한것이라고 한정덕이 억측할것같았다.

한정덕은 어깨로 민숙이를 가볍게 밀며 속살거렸다.

《잘살면 좋은거지… 넌 괜히 부끄럼을 타누나.》

하지만 한정덕의 표정에는 부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민숙이는 다행스러웠다. 그리고 한정덕이 한동안 마진에 머물러있게 된다는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민숙이네 시집 대문앞에 이르렀을 때 한정덕은 크게 놀라는 눈빛이였다.

그는 민숙이에게 나직이 말했다.

《너희 시집이 보통 잘살지 않는것같구나.》

그때 민숙이는 한정덕과 후날 한지붕아래서 한가족으로 살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 …

렬차가 레루이음짬을 뛰여넘으며 덜컹거린다.

민숙이는 한정덕에게 정겹게 말했다.

《언니와 동서간이라는게 정말 좋아요.》

《나도 그래.》

민숙이와 한정덕은 서로 마주보며 밝게 웃었다.

20

그곳은 이전에 일본군이 군용창고로 쓰던 건물이였으나 지금은 배군들이 리용하는 상점으로 변해버렸다. 넓은 공간에는 닻이며 바줄, 돛천, 구명조끼 등 없는것이 없었다.

10시가 지나자 입이 걸직한 배군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들은 저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손에 들거나 발로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듯 값이 비싸다는둥 흥정판을 벌려놓는다.

일명 갈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이곳 상점주인은 계산대앞에 앉아서 간교한 웃음을 짓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자기네 상점물건이 많이 팔려 돈이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돈을 벌기가 요즘은 조련치 않았다.

경찰들이 바다에 나가는 배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여 배군들이 바다에 못나가고 그러다보니 해안지구인 이곳에서는 상품들이 잘 류통되지 않았다.

배군들은 집에 앉아있기가 하도 심심하여 가게를 찾아와 한창 시비를 걸다가는 빈손을 툭툭 털며 가군 하였다. 이번에도 배군들은 상품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는 이것저것 손가락질해가며 좋다는둥 한심하다는둥 시비거리를 만들다가는 어슬렁어슬렁 맞은편 점방으로 건너가 안을 기웃거리는것이였다.

목을 길게 빼들고 행여나 하여 그들의 뒤모습을 건너다보는 갈구리의 눈에서는 불이 날 지경이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흰 수염을 드리운 늙은이 하나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들어왔다. 장에서 숯을 팔고 돌아오는 길인지 지게에 검댕이칠을 한 낡은 가마니를 둘둘 말아 지고있었다.

그는 이곳저곳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계산대앞으로 다가왔다.

《주인님, 고무주머니 하나 없소?》

갈구리는 제꺽 전표용지를 끄당기며 되물었다.

《어떤 용도에 쓰일거요?》

《책같은걸 싸서 허리에 둘러감을수 있는 주머니면 되는데… 물은

절대로 스며들지 말아야 하오.》

《그런데 쓸거라면 생고무주머니가 제격이지요.》

헌데 늙은이는 전표를 받아쥐고 돈을 물념을 하지 않는다.

《외상으로 해주오.》

《뭐요?!》

갈구리의 벙글거리던 얼굴이 대뜸 꽛꽛해졌다.

(이건 대체 웬 령감이야?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스리.)

갈구리는 당장이라도 한대 후려갈길듯이 두주먹을 불끈 쥐며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늙은이의 주름살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비록 흰 수염을 달고 있으나 젊은 얼굴이 내려다보며 웃는다.

《이게 누군가?》

갈구리는 놀라 일어섰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대여섯명의 손님들이 물건을 놓고 점원들과 여전히 값을 흥정하느라고 목청을 뽑고있었다.

갈구리는 그의 소매를 잡아끌며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상준이, 오래간만일세. 그새 어떻게 지냈나?》

차상준은 싱글거리며 말했다.

《말도 말게. 검정개(경찰)들이 진드기처럼 따라붙지, 이곳저곳 쿵쿵거리며 쑤셔대지… 하루에도 대여섯번은 거처지를 옮겨가며 지렁이처럼 숨어지내네. 이젠 지긋지긋해. 그래서 자네 도움을 받자고 왔지.》

《어려울 때 돕는게 이웃이지. 뭐든 말하게나. 이전에 내가 일본에서 고학할 때 자네 도움을 오죽 받았나. 자네를 위해선 하나도 아까울게 없지. 이 상점을 통채로 내래도 내겠네.》

《고맙네. 아까 말한 생고무주머니 한개면 되네.》

《그건 어디 쓸려고?》

《묻지 말게. 비밀이네.》

《아, 그래.》

갈구리는 인차 생고무주머니 한개를 가지고 왔다.

《이거면 되겠나?》

《맞춤하네.》

차상준이 고무주머니를 꼼꼼히 살피더니 대꾸했다.

갈구리는 다시 물었다.

《앞으로는 어쩔셈인가?》

《래일쯤엔 난 이곳에 없을거네.》

《어디 가려고?》

《일본으로!》

《일본에? 그럼 배가 필요하겠군.》

《아무렴, 일본까지 헤염쳐갈가.》

《자네 헤염솜씨야 대단하지. 그러나 역시 일본까지는 안되겠지?》

《롱담말게.》

《내가 배편을 구해줄가?》

《이미 구했네.》

《아, 그래. 아쉽군. 자네를 도울 일이 적어져서 말이네.》

《말이라도 고맙네.》

《점심을 먹고 가게.》

《아니, 난 또 일이 있네.》

《돈은 필요없나?》

《돈이야 언제나 필요하지.》

갈구리는 허리춤에서 불룩한 돈주머니를 풀어 지폐 몇장을 꺼내들었다.

차상준은 그중 하나를 골라쥐였다.

《요즘같은 세월에 자네 살림도 여의치 않을텐데… 이거 한장이면 되네.》

거울을 마주보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코수염을 바로잡은 차상준은 문가로 다가가다가 불쑥 돌아서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신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늙은이처럼 석쉼한 소리로 인사를 한 차상준은 발을 저는 시늉을 하며 태연스레 밖으로 나갔다.

상점건물의 굽인돌이를 돌아선 차상준은 등에 진 지게에서 가마니를 내려놓고 그안에서 샤쯔며 구두 등을 꺼내였다.

그런 다음 손을 재게 놀려 옷을 재빨리 갈아입으면서 벽체에 바싹 붙어 좀전에 나온 점방문을 살폈다.

아니나다를가 갈구리가 급히 따라나와서는 주위를 여기저기 둘러본다. 그리고는 꽁지에 불이라도 달린듯이 급히 거리로 나갔다.

옷을 갈아입은 차상준은 지게와 가마니를 버려둔채로 그의 뒤를 쫓았다.

갈구리는 곧장 경찰서로 다가가더니 보초소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차상준은 쓴웃음을 짓고는 자기 집이 있는 만정으로 걸음을 돌렸다. 집에 도착한것은 13시경이였다.

차상준은 뒤담을 훽 뛰여넘었다. 방문앞으로 다가갔으나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방안에는 몇개의 헝겊쪼박만이 나딩굴고있었다.

박철우는 그에게 말했었다.

《차동무, 안해와 아이들이 곧 친정이 있는 남이섬으로 떠난다더군. 아마 차동무가 집에 들릴 때에는 그들이 모두 없을거요.》

《마침입니다. 안해와 아이들이 모두 떠났다면 내가 나타나도 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겁니다. 또 텅 빈집에 감시력량을 그냥 남겨둘리는 만무하고 기껏해서 한두놈이 지키고있겠지요. 내가 집에 들릴 때쯤이면 감시자들이 점심을 먹고 태평스레 늘크레져있을겁니다. 기습방문을 하고 인차 적들을 따돌리겠습니다.》

《지내 모험하지는 마오.》

《꼭 필요한 모험만 하겠습니다.》

안해와 아이들이 이미 떠났다는것을 알고온 그였지만 텅 빈 썰렁한 방안을 둘러보자니 가슴속에서 하늬바람이 인다. 큰집에서 분가해 나와 함께 구들을 손질하고 벽에 도배를 하고 바닥에 장판을 하며 행복하게 웃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찰나의 과거로 되였다.

세월을 되돌릴수만 있다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싶다. 어째서 인생의 행복한 날들은 이토록 짧은 추억이 되여버리는가. 홀로 짐을 꾸리며 눈물을 흘렸을 안해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며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여보, 미안하오.) 하고 차상준은 속으로 속삭였다.

(조국이 통일되는 날 남이섬으로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그때 당신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소. 약속하오.)

차상준은 두주먹을 부르쥐고 방문을 나섰다. 그는 뜰을 저벅저벅 걸어나와 울바자틈새로 밖을 살폈다. 예견했던바대로 아직까지는 쥐죽은듯 고요했다.

차상준은 빠른 걸음으로 문이 나떨어진 대문앞을 벗어났다. 그제서야 뒤쪽에서 째지는듯한 호각소리가 들렸다.

그는 골목길로 꺾어들어 종주먹을 부르쥐고 달렸다. 다시 왼쪽으로, 또다시 왼쪽으로 돌아선 차상준은 열려진 어느 집 문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아마도 뙤약볕을 피해 나무그늘아래 늘어지게 누워있었을 감시자는 이곳 만정의 골목길을 잘 모르는 녀석이였던 모양이다. 호각소리가 점차 왕청같은 곳으로 사라졌다.

차상준은 품안에서 재빛모자와 무도수안경을 꺼내였다. 코밑수염을 떼버린 그는 양복을 벗어 담장밑에 구겨박고는 맨 샤쯔바람으로 골목길을 유유히 걸어나갔다.

그 시각 차기완은 항구에서 발동선에 오르고있었다.

배는 크지 않았지만 뒤켠에는 묵직한 발동기가 달려있었다. 선체가 나무이므로 속도는 여간 빠르지 않을것이다.

차기완은 닻줄을 감는 선원에게 물었다.

《쌀은 다 실었나?》

《예. 분부하신 량을 정확히 실었습니다.》

《검열은 받았고?》

《예. 얼마나 깐깐히 검열을 해대는지… 속옷까지 벗겨보겠달가봐 걱정했습니다.》

나이지숙한 선원은 두툼한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었다.

발동선은 요란스레 퉁탕거리며 부두를 벗어났다.

그들이 항을 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기다리고있은듯 순찰선이 쏜살같이 다가왔다. 장총을 둘러멘 해상경찰이 소리쳤다.

《여, 이 배는 어디로 가는거야?》

《소록도로 갑니다.》

《소록도? 통행증이 있어?》

차기완은 직접 갑판에 나섰다. 그를 알아본 경찰이 경례를 하였다.

차기완은 품속에서 통행증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보통사람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값비싼 종이장이였다. 그 통행증과 며느리들이 가져간 보증서따위의 값으로 묵돈을 경찰서장과 채영학에게 각각 나눠주었다.

통행증을 본 경찰은 다시 짐들을 살펴보고 몸뒤짐까지 깐깐히 하고서야 떠나갔다.

차기완은 선원에게 물었다.

《감시초가 또 있는가?》

선원이 대답했다.

《글쎄요. 요즘은 감시초가 따로 없고 검정옷을 입은 경찰이라면 누구나 저짓입니다.》

다른 한 선원이 보탰다.

《통행증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간 배군들도 잡은 고기의 반을 바치고서야 드나들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상에 나온 경찰들은 배라면 모두 세워놓고 조사를 하지요. 그래야 뭔가 털어먹을게 있다나요. 그게 하도 눈꼴이 시여서 사지판같은 바다에 나가고싶지도 않지만 집에서 마누라와 아이들이 촐촐 굶고있으니 다른 도리가 있나요. 정말 세상은 왜 이렇게 살면 살수록 더 힘겨운가요?》

차기완은 아무 대답도 없이 갈매기가 날으는 날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21

하늘은 검은 장막처럼 드리워있고 먼산, 가까운산이 모두 더위에 헐떡이는듯싶었다.

마진만의 바다물은 마치도 호수처럼 잔잔하여 잔파도는 모래불을 희롱하며 철썩거린다. 마주보이는 항구에서는 정박한 배들에서 스며나오는 불빛들이 흡사 반디벌레가 기슭을 기여가는듯 반짝거리고있었다.

채영학은 조타실에 대고 소리쳤다.

《배를 알섬가까이롯!》

검푸른 파도가 배전으로 밀려와서는 허연 포말을 날리며 부서졌다.

삼랑진에서 돌아온 채영학은 세가지 신고를 한꺼번에 받았다. 우선

차상준이 돌연 마진항구에 나타났다는것이다.

그는 갈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상인에게서 생고무주머니와 돈을 옭아내고(갈구리는 경찰들에게 차상준이 돈을 내놓으라고 강박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어느 배군에게는 야간에 출항할수 있게 배를 준비해놓으라고 위협하였다고 한다.

신고자들은 상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자기의 신고가 옳다고 떠들어댔다.

채영학은 한순간 (이것이 허위정보라면?) 하고 생각해보았다. 혹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경찰력량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세번째 신고는 가장 신빙성이 떨어졌으나 왜서인지 채영학의 관심을 무척 끌었다. 그것은 한장의 무기명투서였다.

《차상준이 울릉도로 가는 짐배를 타고 새벽 4시 마진을 떠나려 한다.》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는 알수가 없었다. 찢어진 옷을 입은 거지소년이 누구에게서인지 돈을 받고 경찰서로 심부름을 왔던것이다. 거지소년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서는 무기명투서를 넘겨준 사람의 표상이 잘 안겨오지 않는다. 남자인지 녀자인지조차 구분할수가 없었다.

채영학은 급히 항구쪽에 사람을 보내여 사실여부를 알아보게 했다. 정말로 새벽 4시경에 울릉도로 가는 배편이 예정되여있었다.

채영학은 한정덕의 말이 생각났다. 그도 차상준이 인차 마진을 떠날 예정이라고 하였었다.

결국 차상준은 차기완의 배편에 경찰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틈을 리용해 다른 짐배에 숨어 마진을 떠나려던 모양이다.

민숙이네 집에 남겨놓았던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웬 양복쟁이가 텅빈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골목길로 뛰는 꼴로 보아서는 젊은이가 분명하다고 했다.

경찰은 그가 벗어버린것으로 짐작되는 구겨진 양복을 어느 집 담장밑에서 찾아냈다. 옷의 품과 크기로 가늠해보면 그 양복쟁이는 차상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채영학은 생각하였다.

(그러니 차상준이 집사람과 아이들을 만나려고 나타나리라던 내 예감이 맞았다. 단지 어떤 알지 못할 원인으로 하여 차상준은 민숙이의

출발시간을 맞추지 못했을뿐이다. 혹시 내가 민숙이를 직접 미행하고 바래운것으로 하여 기회를 놓친것일수도 있다.)

채영학은 차상준이 부디 생고무주머니를 요구한 사실에 주목했다. 어쩌면 차상준이 선거명부를 거기에 간수하려고 한것인지도 모른다.

(차상준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 집까지 찾아들어간것을 보면 분명 이곳을 떠날 결심이 확고한게 분명하다.)

채영학은 주저하던 끝에 마침내 결심했다. 차라리 일이 뒤틀리는 경우 어리석다는 욕을 먹는게 낫다. 세건의 신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거나 또 몇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차상준과 선거명부를 놓치는 경우 재클린은 서슴없이 이 목을 벨것이다.

그는 서장과 토의하여 세명의 경찰을 차상준이 선금까지 주며 출항약속을 하였다는 배군네 집에 잠복시켰다. 그리고 반의 경찰력량을 경찰서에 대기시키고 나머지 반을 데리고 바다로 나왔다. 출항전에 짐배를 샅샅이 수색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음력 7월보름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때인지라 아직도 배가 불룩한 둥근달이 방금 짙은 먹구름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자 날바다는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채영학은 야광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바야흐로 새벽 4시가 가까와오고있다.

《한대 피웠으면…》

누군가가 쑹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채영학은 소리가 나는쪽을 쏘아보았다. 담배쌈지를 주물럭거리는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단념한듯 잠잠해졌다.

항구에서는 짐배를 수색한 경찰들에게서 이상한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불빛신호가 이미 왔었다.

그러나 채영학은 차상준이 꼭 그 짐배를 타고 해상경계초소를 빠져나갈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긴장되여 혈압이 오르는지 뒤목이 뻣뻣하다.

(좋지 않은 징조인데…)

채영학은 뒤목을 손바닥으로 쓸며 침침한 기분으로 어둠속을 노려보았다.

시침이 정각 4시를 가리키자 채영학의 신경은 켕긴 낚시줄처럼 팽

팽해졌다.

드디여 멀리서 한척의 배가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채영학은 속으로 셈을 세다가 소리쳤다.

《발동을 걸라. 전속 앞으롯!》

세척의 경비정이 동시에 전조등을 켜고 바다를 가르며 달렸다.

채영학은 바다 한가운데서 짐배를 에워싸고 다시 샅샅이 수색할 결심이였다.

환한 투광등이 바다를 밝혔다. 수로안내선에 끌려가는 거무스레한 짐배의 형체가 훤하게 드러났다.

물갈기를 날리는 선두에 선 채영학은 쌍안경을 눈에 가져갔다.

짐배의 갑판우에서 둥근 선실문을 열어제치며 놀란 노루처럼 튀여나오는 사나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차상준이다!)

채영학이 쾌재를 올렸다.

차상준은 갈구리가 준 생고무주머니를 등에 얽어맨채로 선불맞은 호랑이마냥 껑충껑충 뛰고있었다.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 차상준은 달리던 속도그대로 마치도 제 집 울바자를 뛰여넘듯이 갑판우에서 몸을 훵 날리더니 날바다에 풍덩 뛰여들었다.

채영학은 소리쳤다.

《제기랄! 속도를 최대로 높엿!》

차상준이 뛰여내린 곳으로 짐작되는 곳에 경비정을 세운 채영학은 재차 웨쳤다.

《그물을 던져라!》

경찰들이 그가 가리킨 곳에 그물을 던졌으나 건져낸것은 숨을 할딱거리는 잔물고기 몇마리뿐이였다.

채영학은 다시 지시했다.

《서장님께 련락해. <차상준이 마진항의 앞바다에 뛰여들었음. 경찰서에 대기한 경찰들로 항구를 봉쇄하기 바람. 우리는 무인도들을 수색하겠음.>》

그는 바다물에 젖은 얼굴을 벅 씻으며 곁의 경찰에게 물었다.

《오늘이 며칠이지?》

경찰이 대답했다.

《22일입니다.》

채영학은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22일이라… 25일까지는 사흘이 남았구나. 제발 그때까지 네녀석만이라도 바다속에서 기여나오지 말아라.》

차상준이 등에 진것이 선거명부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증하지 못하였다. 여하튼 마진항을 탈출하려는 차상준의 초기시도는 분쇄된셈이다. 그것만도 다행이다. 바다에 뛰여든 차상준을 붙잡게 되겠는지는 귀신이나 알노릇이다.

채영학은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차상준이 고등학교시절 해양방위판정경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걸 명심하고 무인도들을 샅샅이 훑어야 한다.》

바다 동쪽에서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더니 어느새 둥근 쟁반같은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다.

항구에서 로동자들의 출근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길게 울렸다.

박철우는 회색양복바지에 손을 찌른채 눈부신 황금해발을 눈을 쪼프리고 마주보았다. 해빛을 정면으로 받는 얼굴은 따스했다.

그는 엷은 여름양복저고리를 팔에 건채로 얼룩무늬샤쯔의 깃을 바로잡았다. 그의 왼손에 채워진 값비싼 스위스제손목시계가 해빛을 반사하며 반짝 빛났다.

그는 바투 깎은 머리를 한번 쓸어보고나서 중절모를 쥔채로 길가에 나섰다. 검은 승용차 한대가 그의 앞에 와 멎어섰다.

박철우는 팔에 걸고있던 여름양복을 중절모와 함께 차안의 의자에 던져놓고 차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운전사가 인사를 한다.

박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별일 없었겠지?》

《예, 검정개들이 무슨 영문인지 도로에는 하나도 얼씬 안합니다. 오늘일이 잘될것같습니다.》

박철우는 출발하자는 손시늉을 했다. 운전사는 차거울로 그의 표정

을 살피며 말했다.

《옷이 날개라더니… 10년은 더 젊어보입니다. 헌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박철우는 시원스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무런 변장도 하지 않는편이 낫소.》

《그래도…》

《걱정말고 가기요. 참, 주머니속의 권총은 의자밑에 깊숙이 감춰놓소. 괜히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알았습니다.》

운전사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은채로 오른손을 뒤춤에 찔러넣더니 호신용권총을 꺼내였다.

박철우는 그가 권총을 의자밑에 밀어넣는것을 보고서야 안심을 하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였다.

승용차는 기세좋게 도로를 달렸다. 원체 고장이 나서 한달나마 세워놓은것을 수리했다고 하였는데 운전사가 정성을 들여 정비를 한 덕인지 기관소리가 고르로운게 듣기 좋았다.

얼마후 운전사가 긴장하며 말했다.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외통길이였다. 다리목에서는 손에 곤봉을 쥔 《서북청년단》원들이 길가는 행인들과 차들을 세워놓고 사람들과 짐들을 검열하고있었다.

《긴장하지 마오.》

박철우는 운전사에게 당부했다.

한 녀석이 흔들거리며 다가와 운전사에게 명령조로 지시했다.

《증명서.》

운전사는 증명서와 통행증따위를 차창유리너머로 건네주었다.

《통행증은 어디서 발급했소?》

《서울시경찰국에서 발급받았소.》

《어딜 가오?》

《서울에!》

《서울?》

《마진에 출장왔다 돌아가는 길이요.》

그녀석은 증명서의 사진과 뒤좌석에 앉은 박철우의 얼굴을 대비해

보고있었다.

박철우는 심드렁한 기색으로 시계를 보는척하였다. 값비싼 스위스제 손목시계를 일별한 녀석은 한동안 부러운 눈길을 떼지 못했다.

또 다른 녀석이 다가오자 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무슨 차인가?》

《흥국상회 전무라는데.》

《그런데 왜? 뭐 수상한가?》

《아니.》

《그럼 빨리 차를 좀 뽑게나. 보라구. 얼마나 시끄러운가.》

헌데도 녀석은 뭐가 안심이 안되는지 차안을 기웃거린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증명서들을 돌려주며 게두덜게두덜한다.

《젠장, 현지경찰들은 대체 어느 술집에 가 처박힌거야. 타지에서 온 우리들끼리야 누가 수배자인지 가려볼수가 있나.》

한 녀석이 대꾸했다.

《빨갱이 하나가 바다에 뛰여들었다지 않나. 그래서 경찰서의 반은 항구를 봉쇄하고 반은 무인도를 수색중이라더군.》

《바다에 뛰여들어? 그놈 인차 잡히겠군. 아니면 고기밥이 되던가.》

《그게 문제야. 그놈의 수영솜씨가 여간 아니라지 않나. 뭐 10마일쯤은 빨대를 물고 히쭉 웃으며 간다나.》

《그놈의 조상이 물고기였던게군.》

《이만저만 야단이 아니지. 이곳 앞바다야 온통 바위나 섬투성인데… 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귀신이 아닌 이상에야 알수가 있겠나.》

《그래 경찰들을 총동원하였겠지.》

《쳇, 이곳 해안선이 얼마나 구불구불하고 길기에 몇 안되는 경찰로 대체 어딜 봉쇄한단 말야.》

《그러게나 말일세. 대신 우리만 시끄럽게 되였네.》

사람들이 몰켜서서 웅성거리는쪽에서 대장인듯한 녀석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여, 증명서나 보증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보내.》

마진을 벗어나는 마지막검문소도 그렇게 통과했다.

박철우는 목덜미에 흥건히 내밴 땀을 닦았다. 말은 태연하게 하면서도 은근히 속을 조였던 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답답한 가발도 수염도 붙이지 않고 대낮에 마진거리를 활보하기는 정말 오래간만이였다.

마진을 벗어났으니 이젠 그의 얼굴을 아는자와 마주칠 확률은 거의나 희박했다.

(고맙소, 차동무.) 하고 박철우는 바다가 있는 남쪽을 돌아보며 속으로 인사했다.

마진시대표들은 각기 제정된 로정을 따라 이동하고있었다.

박철우는 그들이 마진시를 무사히 벗어나는것을 확인하고 떠나가는 마지막대표였다.

(모든게 동무의 공로요. 부디 무사하기 바라오.)

22

경찰서로 돌아온 채영학은 고무장화와 비옷을 벗어던지며 《제기랄!》 하고 투덜거렸다. 밤새 몰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화가 치밀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기분이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던 채영학은 별안간 고뿌를 힘껏 내던졌다. 밑굽에 남았던 물방울들을 휘뿌리며 날아간 고뿌는 벽에 부딪치며 쨍하고 박살났다. 사기쪼각들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다.

일순 가슴이 후련하다. 그러나 바닥에 너저분한 사기쪼각들의 무늬를 보니 속이 알찌근했다.

일전에 서울에 갔을 때 화신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물고뿌였다. 미국돈으로 10딸라인가를 주고 사왔다. 비싼 고뿌여서 애용하던것이였다.

(하필이면 내 고뿌를 박살낼건 뭐야.)

채영학은 검은 가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모든게 차상준 그놈때문이다. 이제 붙잡기만 해봐라. 뼈를 마디마디 모두 분질러놓을테다.)

채영학이 속으로 이를 가는데 당직경찰이 들어왔다.

《계장님.》

《뭐야?》

《부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누구야?》

《사찰계장님이랍니다.》

엄가라는 부산경찰서 사찰계장의 앙칼진 얼굴이 떠올랐다. 이태전인가 폭동군중이 던진 돌에 왼쪽눈을 얻어맞아 눈까풀이 한절반 내려앉았다. 그래서 채영학은 짝눈이라고 놀려주었다.

《그 짝눈이 왜?》

《계장님에게 꼭 알릴 말이 있답니다.》

《전화로?》

《예.》

당직경찰이 나간 후 채영학은 전화기앞으로 다가가 부산경찰서를 찾았다. 교환대를 거쳐 엄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채계장. 밤새 안녕한가?》

《그럭저럭.》

《목소리를 들으니 잠을 설쳤군그래.》

《우리 일이야 늘 그렇지.》

《그래? 실적은 좋은가?》

《내가 빈탕하는걸 보았나?》

《하긴 그래. 자네네 마진시경찰서의 보고서는 항상 요란하더구만.》

전화기로 엄가의 이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채영학은 기분이 거슬렸다.

(자식, 빨리 본론을 말하지 않고 무슨 노죽이야.)

그는 헛기침을 깊고나서 물었다.

《자네 나에게 전화했댔다면서?》

《내가?》

엄가는 부러 아닌보살을 한다.

《당직순경이 좀전에 알려주더군. 부산경찰서 사찰계장님이 정다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었다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인정미가 넘치는줄 여태 몰랐군.》

《안부를 전하려 했었나?》

《원, 그럴리가.》

수화기로 종이장을 번지는 소리가 벌컥벌컥 들려왔다. 이어 엄가의 째지는 목청이 흘러나왔다.

채영학은 이마살을 찡그리며 수화기를 귀에서 반뼘정도 떼여놓았다.

엄가는 게사니고기만 먹는지 목소리가 쨍쨍 울리는게 금시 귀청이 떨어질것같았던것이다.

《일전에 자네가 넘겨준 정보를 받고 성과를 좀 거두었네. 음— 그래서 말인데… 인정도 품앗이라고 자네 일에 도움이 될가 해서 말이지. 요 사흘전에 빨갱이들의 서울<지도부>에서 남해지구에 파견되였다는 녀석 하나를 덮쳤네. 어제 밤부터 그자가 토설을 시작했는데 말이지… 음— 46년말엔가 이녀석이 마진시녀맹사업을 지도하였다는데… 시녀맹위원장이 김인혜라고…》

《죽었네.》

채영학은 단칼로 두부모자르듯 말했다. 눈앞에 김인혜의 시신우에 뿌려져있었다는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가 얼른거렸다.

《그랬군. 그리고 조혜순이라고…》

《그 집마당에서 내 손으로 총살했네.》

《저런, 그럼 우체국에서 우체부노릇을 하는 령감의 며느리라는 강뭐라던가…》

《현재 구속중.》

《역시 도경찰국의 칭찬이 헛말은 아닐세그려.》

《단가?》

채영학은 짤막하게 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어 전화가 끊기였는가 착각하는 찰나에 엄가가 물었다.

《자네네 차기완이라는 시장대리를 하던 령감님이 있지?》

《지금은 시장고문일세.》

《그래?! 그 령감이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그 돈이 탐나는가?》

《아니아니, 그런건 아니고… 그 집 며느리말일세.》

《며느리?!》

채영학은 왜서인지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 차상준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또 엄가가 뜸을 들이는지 침묵이였다.

채영학은 짜증이 섞인 어조로 다그쳤다.

《그 집 며느리가 어쨌다는건가?》

《아직 모르는게군. 그 집의 두 며느리도 핵심녀맹원이네. 아, 아니지. 한 며느리는 무늬만 녀맹원이라던지…》

《그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민숙이인지 뭔지 하는 그 집 며느리가 46년도에 녀맹가입신청을 제기하였다가 폭동이 진압된 이후에 겁을 먹고 가맹을 포기하였다던지…》

《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뿐이 아니지. 그 집의 맏며느리 한…》

《한정덕.》

《그래, 잘 아누만. 한정덕, 그 녀자는 요란하네. 현재 마진시녀맹 부위원장이라던데… 여보게, 여보게… 듣나?》

채영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한정덕이 현재 녀맹부위원장이라구? 대체 무슨 놈의 갈래판이야.)

가죽의자에 주저앉은 채영학은 골을 싸쥐였다.

《민숙이를 주목할것. <검은비수>》라고 쓴 글쪽지가 아직도 서류장안의 문서철에 고스란히 보관되여있다.

결국 차상준을 호리기 위해 민숙이를 감시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민숙이자체를 의심하고 주시하라는것이 아니였을가? 역전에서 경찰들이 그의 나들이짐을 수색하려고 하는것도 자기가 자칭 선의를 베풀며 만류하지 않았는가!

채영학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가 아는 민숙이는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신녀성이기는 하지만 두세해 건너 아이를 줄줄이 낳은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했다. 그런 녀인이 빨갱이인 남편의 영향을 받아 어쩌면 녀맹에 발을 들여놓으려다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수는 있겠다.

그런데 한정덕은 다르다. 1944년에 차종준과 결혼한 후 6개월도 못되여 남편이 죽고 홀몸으로 전처의 자식들을 돌보고있다.

과거에 좌익운동에 관여한 기록도 있지만 채영학은 이전에 알던 인연으로 하여 그의 일거일동을 그닥 의심하지 않고 방심했었다.

채영학은 주먹으로 이마를 툭툭 두드렸다. 아무래도 자기가 큰 실책을 범한것같았다.

(세월은 가고 사람은 변한다. 결국 내가 한정덕에게 역리용당한건

아닐가?)

불쑥 엊그제 찾아왔던 차기완의 주름진 얼굴이 우렷이 떠올랐다.

…《우리 집 두 며느리가 서울로 가려는데 말이요. 둘째네가 친정이 있는 남이섬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갓난애기에다 달린게 많고 거동도 불편해서 맏이네가 서울역까지 배웅하고 오겠다는데 어찌겠나. 두 며늘아기의 보증서 같은걸 내줄수 없을가?》

결국 민숙이와 달리 한정덕은 마진을 떠날 생각이 없었는데 민숙이를 동정하여 갑자기 따라나섰다는것이 아닌가.

(만일 한정덕이 친정으로 가는 민숙이의 짐속에 뭔가 숨겼다면?…)

채영학은 가슴이 철렁했다. 한정덕이 무엇인가를 숨겨 마진을 빠져나가려고 꾀했다면 그렇게 찾던 선거명부일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묵돈을 받고 그 대가로 통행증을 직접 내준것도 모자라 삼랑진까지 차로 태워다주고 차표까지 끊어주었다. 누런 금덩이가 두눈을 멀게 하였다.

차씨네 집안이 원체 여간만 의뭉스럽지 않았다. 벼락부자가 되여 돈을 많이 그러안고 버둥거리는자들일수록 속이 구리지 않을수 없으려니 하였다. 오죽하면 이전 헌병대 장교인 야스꼬가 줄창 의문표를 세우고 주시했겠는가. 헌데 정말로 차기완이 며느리들과 공모하여 무슨 음모를 꾸몄다면 사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일을 재클린이 알게 된다면 채영학을 정녕코 가만둘리 만무하다.

(아직 기회는 있다. 민숙이와 한정덕은 지금 렬차안에 있지 않는가. 차상준은 바다속에 뛰여들었고 차기완은…)

채영학은 차기완 역시 마진시를 떠난 상태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자리를 차며 벌떡 일어나 황급히 당직경찰을 불렀다.

《차를 대기시켜. 서장님을 만난 후 곧 서울로 출발하겠다.》

경례를 하고 나가려는 경찰을 되불러세웠다.

《박형사와 민형사를 내 방으로!》

형사들이 들어오자 채영학은 지시했다.

《차기완령감이 어제 오후에 소록도로 가기로 되여있소. 알아보고 만일 출발했으면 현지파출소에 련락을 해. 어떻게 해서든지 령감을 마진형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놓으라고 하시오.》

형사들이 물었다.

《아직까지 소록도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간이면 소록도에 열두번 도착하고도 남았어야 해. 만일 소록도에 차령감이 없다면 곧 수배령을 내려. 해상에 있는 경찰들에게 알려라. 반항하거나 구속에 불응하면 사살해도 좋다.》

두 형사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채영학은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꽥 소리쳤다.

《비상!》

형사들이 와다닥 뛰쳐나간 후 채영학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시외전화를 걸었다.

《서울입니까? 여긴 마진입니다.》

(재클린은 다나까 야스꼬의 사진을 넘겨주면서 그의 이름을 리계심이라고 하였었지.) 하고 되새기면서 채영학은 침착하게 말했다.

《리계심부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잠시후 송수화기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리계심 전화받습니다.》

23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하나의 수용소를 방불케 하였다. 높은 담장으로 빙 둘러치고 그우에는 유리쪼각이나 못따위를 빼곡이 박아넣고 석줄의 가시철조망까지 늘여놓았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에는 차단봉까지 내려놓고 출입을 통제했다. 해당한 사람들외에 이 병원으로 들어가는것은 엄금되여있었다.

소록도에는 문둥병병원외에도 개벌에서 조개잡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병원근처에 어슬렁거리기를 두려워했다. 동네늙은이들은 종일 조막만한 뙈기논과 바다가에서 시달림을 받다가도 저녁이면 마실방에 모여앉아 문둥병자들에 대한 욕과 흉으로 시간을 보냈다. 손가락, 발가락, 귀박죽과 코가 문드러지고 입술마저 떨어져나간 문둥이들은 보기만 해도 섬찍하고 그 추한 모습이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

병원의 의사며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온갖 잡일을 다 시키면서도 그

들이 다가오면 지팽이삼아 짚고다니던 막대기 같은것을 내뻗쳐 경계하거나 뒤로 물러서면서 근거리접근을 가능한껏 피했다.

이른새벽 잔교근처의 어느 농가에서 소를 임대하여 발구를 메운 차기완일행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병원정문을 통과했다.

그들이 병원구내에 들어서자 별안간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때국물이 흐르는 찢긴 옷을 대충 걸친 열둬살의 소년이 금이 간 나팔을 입에 물더니 별안간 뚜 뚜 하고 불어댔다.

그 소리를 듣고 밭일을 하던 문둥이들의 눈길이 발구쪽으로 향했다. 이어 괭이나 호미 등을 든 문둥이들이 발구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몰려왔다.

차기완과 함께 소를 몰고오던 짐군들은 기겁을 하여 달아났다.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남자, 녀자, 늙은이, 어린아이 할것없이 발구로 향한 얼굴들은 모두가 문둥병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상이였다. 눈알이 하나 곯아빠졌는가 하면 코가 떨어지고 입이 화상을 입은것처럼 엉겨붙은 꼴이다.

발구를 둘러싼 문둥이들이 발구에 올려쌓은 짐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맡고 흥분하여 웅성웅성댔다.

차기완은 이미 베옷을 입고 오기는 하였으나 자기를 둘러싼 문둥이들의 흥분을 눅잦히지 못해 어쩔바를 몰랐다. 그의 곁에는 그를 도울 사람이 단 한명도 남지 않았던것이였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자, 자, 길을 좀 내시오. 너무 떠들지들 말고 좀 조용들 하구려.》

그는 보통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몸집이 장대한 중년의 사내였는데 얼굴에 검은 붕대를 감고있었다. 아마도 문둥병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일것이다.

문둥이들속을 헤치며 발구쪽으로 다가오는 그 사나이곁에서 역시 검은 두건을 두른 세명의 사람들이 팔을 뻗쳐 그가 나갈 길을 터놓았다.

차기완의 앞에 이른 그 사나이는 굽석 절을 하였다.

《선생님, 먼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제가 박훈입니다.》

차기완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다. 얼굴을 가리워 알아볼수 없으나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이전에 마진에서 매달 초열흘날마다 차기완이 대문을 열고 문둥이

들을 구제할 때 한 사나이가 자칭 질서유지를 돕군 했다. 그의 이름은 박훈이라고 했었다.

1944년 가을 그는 《어린이유괴살인》죄목을 쓰고 마진시경찰서에 구류되였다. 그후 실종되였던 어린이를 산채로 찾아냈으나 경찰들은 억울한 루명을 쓴 그를 석방할 대신 문둥병환자라는 리유로 이전에 실종된 아이들의 행처까지 대라며 계속 고문했다. 차기완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박훈이 이미 다 죽어가는 몸이였다.

차기완은 일본경찰서장을 만나 그를 계속 구류하고 고문하는 리유를 물었다. 리유는 간단했다.

《그놈의 관상이 꼭 범인상이거던.》

결국 그는 타고난 얼굴때문에 범인으로 몰렸다. 또 그것만이 아니다. 서장은 일단 구속을 하였으니 아무런 죄명이라도 뒤집어씌워 죄인으로 만들자는것이였다.

그는 이미 문둥병을 앓는탓에 부모친척에게서도 버림받은 신세였다. 그를 강도, 살인자로 만들어도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을것이라고 타산했을것이다. 가뜩이나 못먹고 못사는 가난한 이들중에서도 문둥병환자들은 더더욱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들이였다.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손상되면 우선 마룡산에서 가마니로 울을 치고 간신히 살아가던 문둥이들이 그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썼다. 그들이 밤중에 거리에서 빌어먹다가 맞아죽고 찔려죽거나 굶어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결국 문둥이들의 심중은 나날이 이지러지고 아무런 구제대책도 없는 사회에 대한 불만은 커지기마련이였다.

차기완은 서장에게 뢰물을 주고 박훈을 빼내여 이곳 소록도로 보내였었다.

박훈과 그일행이 나타나자 웅성거리던 환자들은 다소 진정이 된듯 싶었으나 오래간만에 낟알냄새를 맡은 흥분은 이내 가셔지지 않은듯 헤쳐지지 않고 발구옆에서 그냥 서성거렸다.

차기완은 발구에서 내려서며 박훈에게 말했다.

《여기에 있는 세개의 자루에는 찐빵이 있네. 하나씩 골고루 나누어주게나. 그리고 쌀을 좀 가져왔네. 창고에 인계해주게.》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곁에 섰던 세명의 사내들이 발구에 올라섰다. 그들은 줄을 세우고

빵을 꺼내여 하나씩 나눠주었다. 빵을 받아쥔 사람들은 볼이 미여지게 뜯어먹으며 각기 헤여져갔다.

빵을 더 받겠다고 뒤줄에 돌아가 다시 서거나 새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이곳에는 그들대로의 례의와 질서가 있는 모양이였다.

차기완은 박훈의 뒤를 따라갔다. 주위사람들로부터 멀어지자 그는 박훈에게 물었다.

《자네 이곳 사람들은 대체 다 아는가?》

《거의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좀 봐주게.》

차기완은 품속에서 네모나게 접은 편지를 꺼내였다.

박훈은 그것을 펼쳐보았다.

…서준모라는자가 당신의 아들 차종준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있습니다. 난 그 비밀을 알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

주소성명은 없었다.

이내 편지에서 눈길을 뗀 박훈이 흔연히 말했다.

《이건 제가 보냈습니다.》

《자네가?》

《예. 그 편지를 받으면 회장님이 꼭 이곳으로 올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럼 사연을 설명해보게.》

박훈은 느릿느릿 걸으며 말을 이었다.

《44년에 제가 일본경찰들에게 잡혀 계속 심문당한것은 겉으로는 어린애유괴실종사건이였으나 실지로는 그해 5월 봉래산골짜기에서 뭘 했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44년 5월이라면 우리 종준이가 사망한 달이 아닌가?》

《예. 종준군은 봉래산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차기완은 우뚝 멈춰섰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저도 그때 봉래산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나물이며 약초를 캐며 태백산줄기의 봉래산으로 들어갔던 박훈은 날이 어둡자 벼랑밑에 자리를 잡고 잠에

들었다. 가랑잎을 덮고 잠들기는 하였으나 새벽이 되자 오슬오슬 추워져 새우처럼 등을 꼬부리고있는데 산우에서 돌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요란한 총소리가 잇달았다.

《서랏!》 하는 조선말과 왜말이 엇갈려 들리더니 총소리도 발소리도 사라지고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나 인차 그 숨막히는 고요를 깨며 쿵하는 소리가 근처에서 들렸다.

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난 곳으로 조심조심 다가가보니 억대우같은 장정이 피를 콸콸 흘리며 쓰러져있었다.

《벼랑우에서 뛰여내린것같았는데 그만 바위돌에 머리를 짓쪼아 두개골이 깨여져있었습니다. 달빛에 얼굴을 비쳐보니 매달 초열흘이면 마진댁에서 보던 종준군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종준군은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습니다.》

차기완은 침울하게 물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나?》

박훈이 말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없나?》

《이미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기완은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웠다.

잠시 나무에 기대여 서있던 그가 천천히 수건으로 젖은 눈시울을 닦으며 물었다.

《그게 단가?》

박훈이 말을 계속했다.

《종준군이 숨을 거둔 후에 몇사람이 산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불을 켜들고 종준군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불빛에 드러난 그자들의 얼굴을 나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헌데 이번에 이곳 병원에서 그때의 한 녀석을 만난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뻗치다가 주리를 트니 실토했습니다.》

《뭐라던가?》

《직접 들으십시오. 서준모라는 놈인데 문둥병에 걸리니 치료도 할겸 병원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경찰서에서 박아넣은 밀정이였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감금하였습니다.》

24

송수화기로 다나까 야스꼬의 청높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서울로 온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채영학은 공손히 대답했다. 다나까 야스꼬가 그 유령같은 《검은비수》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으쓸했다.

《아직 렬차안에 있을겁니다.》

야스꼬가 물었다.

《철도역에 알려서 그들을 체포하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였습니다.》

채영학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자신도 렬차안에게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꽁지고싶었다. 체포하고 묶어놓고 고문하여 실토받는게 얼마나 손쉬운 방법인가.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쉬운 방법이 랑패를 보게 할 때가 많다. 더우기 해주에서 진행될 선거날까지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에게는 군인의 기질이 있소. 군인의 기질은 뭔가, 잔인성이지.》 하고 재클린은 비꼬았었다.

《첩보원의 우수한 기질은 뭔가. 다름아닌 교활성이요.》라고 말하던 재클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속에서 모기소리처럼 앵앵 돌고있다.

그 불머리가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고 문둥병환자를 대하듯 경멸하던걸 떠올릴수록 분통이 터지지만 그의 말은 옳았다. 첩보전에서는 교활해야만 성공할수 있다.

채영학은 송수화기에 입을 대고 자상히 설명했다.

《차기완령감은 소록도로 갔고 차상준은 남해바다에 뛰여들었습니다. 차령감에게는 감시조를 파견했고 이미 남해바다의 해안선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년들을 일정한 기간 그냥 놔두고 감시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많이 배웠군요.》

야스꼬가 시까스른다.

(이년이 내가 아직도 예전의 제 첩자인줄 아는게지?)

채영학은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꾹 눌러참았다. 현재 야스꼬는 재클린의 신임을 받고있고 또 지금 어떻게 하나 야스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정황이다.

《한정덕이요?》 하는 목소리에 이어 송수화기로 야스꼬가 또다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녀맹원이고 부위원장이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채영학은 다시 불끈하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난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은 알았습니까?》

야스꼬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난 마진을 떠나 멀리 서울에 와있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손금처럼 알고있어요.》

야스꼬가 으시대는듯했다.

채영학은 사정하듯 말했다.

《미안합니다. 예전에 한정덕이 당신의 일을 돕는것같았기에 방심했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채영학은 물었다.

《정말 한정덕이 나를 역리용한것입니까?》

《그건 당신이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야죠. 내가 명백히 말해줄수 있는것은 이전에도 그년이 나를 방조하는척하면서 차종준을 통해 지하조직과 태백산죽창무장대를 도와준거예요. 나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건 또 뭐야?!)

채영학은 속이 파랗게 얼어드는듯싶었다. 설마 하였는데 정말로 한정덕에게 역리용되였다고 생각하니 뒤등에 소름이 돋았다.

채영학은 잠시 머뭇거렸다.

(체포한다?)

채영학은 머리를 저었다.

(한정덕을 붙잡는건 별로 급하지 않아. 기본은 선거명부이다. 만일 한정덕이 의도적으로 서울로 간것이라면… 혹시 이년을 뒤쫓으면… 그래! 선거명부와 닿을수도 있다.)

채영학은 용단을 내렸다.

《제가 곧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감시만 해주었으면 좋겠습

니다. 그러나 철도역에서 그들의 몸과 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혹시 마진의 선거명부가 그들을 통해 빠져나갈지도 모르니까요. 명부만 나지면 체포해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살해도 무방합니다.》

잠시 송수화기로는 전류가 흐르는 소리만 윙윙 울렸다. 이윽하여 야스꼬의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의견이 정 그렇다면 좋아요. 미행을 붙이겠어요. 하지만 일을 그르치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요.》

《알겠습니다.》

야스꼬와의 통화를 마치고 채영학은 마당에서 발동을 건 대기차에 올랐다.

그때 두명의 형사들이 그의 앞으로 뛰여왔다.

《계장님, 계장님.》

그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겨끔내기로 말했다.

《소록도와 련계되였습니다.》

《차령감이 아직 소록도에 있답니다.》

채영학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혹시 자라 보고 놀란 놈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아닐가?)

그러나 속은 웬 일인지 찜찜했다.

(선거날까지는 이제 사흘밖에 안남았다. 그러니 정말 명부라는게 있다면 분명코 마진땅을 떠났을것이다.)

채영학은 형사들에게 소리쳤다.

《곧 출발하라!》

《둘 다 말입니까?》

《그래, 요즘 바다길이 사나운데 령감님을 무사히 모셔와야지?》

채영학이 덧붙여 강조했다.

《그가 소록도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조사하라!》

차를 몰고 경찰서대문을 빠져나온 채영학은 경적을 빵빵 울리며 질주하였다.

한양보험회사는 남대문시장 맞은편에 있었다.

야스꼬는 담배를 피여물고 남대문시장을 건너다보았다. 팔고사는 사람들로 시장안은 악마구리 끓듯하였다. 한정덕일행이 탄 렬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면 아직 시간이 좀 있었다.

(한정덕, 이 괘씸한 년, 네년의 살을 베여먹어도 시원치 않겠다. …)

야스꼬가 후— 하고 내분 담배연기는 창문유리에 부딪치며 뽀얗게 흩어져갔다.

1936년 가을 야스꼬는 한정덕이 한성의 어느 형무소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야스꼬는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 쫓겨나듯이 전근되던 일을 잊지 않고있었다. 그 주모자는 한정덕이였다.

야스꼬는 한정덕의 뺨을 통쾌하게 후려갈길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야스꼬는 곧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한 인간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바싹 조여서 바둥거리게 하는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다.

…모든것은 한정덕이 형무소에서 출옥하던 그날 밤에 시작되였다.

한정덕은 병보석으로 출옥하게 된다는 소식을 너무도 불시에, 지내 늦은 시간에 알았다.

그는 간수가 내주는 자기 옷을 받았다. 수인복을 입을 때 맡겨놓았던건데 이상하게도 옆주머니속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형무소밖에 노란색의 승용차가 있음. 좌우를 보지 말고 곧장 차에 오를것. 동지로부터.》

어스름이 내려앉는 초저녁이였다. 형무소 앞길로는 몇사람의 길손이 지나갔다.

기분나쁘게 삐걱거리는 철문을 나서니 정말로 시동을 끄지 않은 노란색승용차가 대기해있었다. 색갈이 밝아서 뭇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정덕은 총총히 걸어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승용차의 뒤문을 열고 올라탔다.

뒤자리에는 이미 알지 못할 한 사내가 있었다.

한정덕의 뒤를 따라 또 다른 사내가 들어오며 그를 가운데로 몰아넣으며 바싹 당겨앉았다.

한정덕은 가운데좌석에 끼인 꼴이 되였다.

운전사옆좌석에 앉은 사람은 누런색의 헌병대군복을 입고있었다.

량옆의 사내들이 한정덕의 팔을 끼워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오래간만이야, 정덕이.》

헌병모자밑에서 너인의 소리가 흘러나오자 한정덕은 비명을 올리다

싶이 웨쳤다.

《다나까 야스꼬?!》

《잊지 않았군.》

잠시후 한정덕은 어느 건물의 지하실에서 야스꼬와 마주앉았다.

야스꼬가 말했다.

《내가 아니래도 너는 필경 형무소신세를 피하지 못할 팔자인걸. 하지만 어제날의 스승인 내가 어찌 제자를 모른다고 할가. 난 몰인정하게 너를 협박하고싶지 않아. 다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신사협정>을 맺자는거다. 내가 할 일은 너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묵인하는것이고 네가 할 일은 내가 가끔 요구할 때 나를 방조해주는거야. 어때? 생판 모르는 사람들사이에도 상부상조라는게 있다는데 사제간에는 응당한 거래가 아니겠어. 이걸 보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라고 할지도 모르지. 그게 너한테는 일생 형무소의 곰팡내나는 독감방에서 썩는것보다는 아주 리상적이 아닐가!》

예상했던바대로 한정덕은 침묵을 지켰다. 야스꼬는 그의 표정을 살피면서 말을 이었다.

《난 인차 마진으로 간다. 보석기일이 끝나 형무소에 다시 들어가고싶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는게 좋을거야. 마진에서 우리 만나자!》

야스꼬는 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마진으로 떠나왔다. 부하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정덕은 이틀간을 꼬박 그 방에서 모대기더니 동의를 표시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후 야스꼬는 마진에서 한정덕을 만났다. …

야스꼬는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한정덕은 단순한 로조운동의 가담자가 아니라 반일지하조직의 일원이였으며 그 조직에서는 헌병대가 그의 석방을 준비하면서 모략을 꾸미고있다는것을 미리 내탐하고 야스꼬의 요구에 응할데 대한 특별임무를 한정덕에게 주었다고 한다.

야스꼬로서는 그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으나 마진에서의 한정덕의 행동선들을 곰곰히 검토해보니 그 정보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자기가 속아넘어간것이 괘씸하기는 했으나 그사이 한정덕의 몸값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하니 그를 잘 리용하면 큰 고기를 낚을수 있다는

자신심도 없지 않았다. 결국 그래서 첩보전에서는 일시적인 실수나 패배도 용납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야스꼬는 가는 미소를 지었다.

25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길지 않았다.

박훈이 초롱등을 들고 앞섰다. 병동안에 있는 지하실이고보니 여러개의 방을 지나가야만 했다.

지하실의 바닥은 바깥땅보다 훨씬 낮아서 몹시 눅눅하였다. 여윈 해빛이 지하실 웃면에 터놓은 한두개의 바람구멍으로 겨우 새여들어왔다.

이 구멍으로 비쳐오는 빛은 대낮에도 뽀얗게 떠도는 먼지속을 간신히 헤칠만큼 어둑침침하고 몽롱하였으므로 이곳과 같은 지하실의 방들은 다른 곳보다 먼저 해가 지기도 전에 깜깜해지군 하였다.

마지막방에 이르러 썩은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니 코등이 내려앉고 입술이 말려올라간데다가 손발이 오그라진 사나이가 공포에 질린 외눈으로 마주보았다.

차기완과 박훈일행이 들어서자 사나이는 그들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이 모두 문드러진 조막손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차기완은 물었다.

《당신은 나를 아오?》

사나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차기완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물었다.

《당신 이름은 뭐요?》

《서준모입니다.》

《서준모?》

전혀 기억에 없다.

《우리가 언제 만난적이 있던가?》

《없습니다.》

《헌데 어떻게 나를 알지?》

이미 박훈에게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 서준모는 별로 따지지도 않았는데 알고있는 모든것을 스스로 털어놓았다.

《저는 1928년부터 1937년까지 리화녀고보 교무주임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때 다나까 야스꼬라는 헌병대 특고과 장교가 녀교원으로 위장하고 들어왔는데 난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단지 예쁜 처녀교원이 하나 온줄로 알고 가까이한것이 탈이 되여 후날 야스꼬에게 흡수되였고 1937년 이후부터 마진지구에서 활동하게 된 야스꼬를 따라오게 되였습니다. 그때 야스꼬는 차선생의 사진을 내게 보여주면서 일본에 충실한 황국신민이라는 총독부의 평을 받고있지만 자기에게는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면서 주목하라고 하였습니다. 하긴 야스꼬가 아니라도 마진에서도 유명한 유지인 차선생님을 어찌 제가 몰라보겠습니까.》

차기완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첨하는 서준모의 모습이 역스러웠다. 그리고 그에게는 서준모의 사설을 길게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한시간후에는 이 섬을 빠져나가야 한다.)

차기완은 직방 말했다.

《우리 종준이 일을 설명하게.》

서준모는 성급하게 더듬거리며 말을 계속했다.

《예, 예. 44년 봄 야스꼬는 나에게 봉래산중턱에 있는 월정사에 잠복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저 일본형사를 방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뿐이였습니다. 어느날 한 사나이가 불공을 드리겠다고 찾아왔는데 무슨 기미를 챘는지 한밤중에 승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격을 하여 벼랑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천길 낭떠러지로 뛰여내릴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급히 벼랑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나이는 숨이 끊어져있었습니다. 그가 종준군이였습니다.》

《그게 단가?》

《제가 아는건 사실 이게 답니다.》

차기완은 서준모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공포에 질려있는 그 눈은 거짓말을 하는것같지 않았다.

차기완은 생각했다.

(이자는 별로 아는게 없다. 하긴 사냥개에 지나지 않는 이런 하수

인들은 많은것을 알수 없는것이다.)

차기완은 다나까 야스꼬라는 녀인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는 표면상 차기완의 손주들이 공부하던 성호국민학교 훈육주임으로 있었다. 해방후 그는 마치도 거품처럼 사라졌다.

자리에서 일어난 차기완은 문쪽으로 돌아섰다. 그때 서준모가 두팔로 그의 다리를 그러안았다.

《선생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를 밀어버리려고 하자 더 꽉 그러안으며 소리쳤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알고있는 한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기완은 발을 뽑아들며 말했다.

《말하게.》

《목숨을…》

《약속하지.》

서준모는 박훈과 그일행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이 두려운지 선듯 꼭지를 떼려 하지 않았다.

박훈이 눈치를 채고 차기완에게 말했다.

《우린 밖에 나가 기다리겠습니다.》

차기완은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다. 박훈은 눈에 호기심이 가득 실려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등을 떠밀다싶이 하며 밖으로 나갔다.

차기완과 둘만이 남게 되자 서준모는 그제서야 말을 하였다.

《야스꼬는 마진지구에 온 첫날부터 차선생님을 의심하고 감시했습니다. 1943년 봄 야스꼬는 우리들에게 아니, 제가 아니고 <사팔눈>이라는 녀석에게 만날고개에서 한 녀인을 살해하고 호랑이에게 물려간것처럼 위장하라고 하였습니다. <사팔눈>은 그 녀인을 살해한 다음 야스꼬의 손에 죽었습니다. 죽은 그 녀인은 다름아닌 종준군의 전처였습니다.》

차기완은 묵직한 몽둥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것같았다.

…《여보, 친정에 갔던 맏며느리가 만날고개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갔대요.》 하고 마누라가 통곡하며 말했었다.

《산속을 몽땅 뒤져보았으나 찢어진 옷가지와 피묻은 소지품 몇가지밖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고 경찰들이 통보해왔었다.

차기완도 그때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수습한 피묻은 옷가지와 유품들에는 범털이 떨어져있었고 특유의 노린내도 남아있었다. 그래 누구나 맏며느리 오씨는 태백산호랑이가 내려와 물어간것으로 알고있었다.

(지금껏 얼마나 무서운 음모의 올가미가 오래동안 나의 주위에서 맴돌고있은것인가. 그 첫 희생자가 다름아닌 집안의 맏며느리인 오씨였다니.)

차기완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격노하여 서준모에게 따져물었다.

《그년이 왜 그런 몹쓸짓을 했다던가? 그애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서준모는 급히 말을 이었다.

《그럴 리유가 있었던겁니다. 그건…》

서준모를 분노에 찬 눈길로 쏘아보던 차기완은 문으로 돌아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박훈에게 말했다.

《당분간 저자에게 감시를 붙여주게.》

《알았습니다.》

박훈은 차기완의 얼굴빛을 살피며 걱정스러워 물었다.

《괜찮겠습니까?》

차기완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몸을 꼿꼿이 세웠다.

박훈이 말했다.

《선생님, 깨끗한 방과 점심을 준비했는데 기분을 좀 눅잦히고 떠나십시오.》

그러나 차기완은 곧장 정문으로 향하며 박훈에게 당부했다.

《미안하네만 소발구는 자네가 마을에 좀 전해주게. 난 급한 일이 있어 이만 돌아가야겠네.》

잔교에 이르러 배에 오르려는데 파출소의 경찰이 급히 다가와 마진시경찰서에서 두명의 형사가 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으니 기다리라는 련락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차기완은 먼바다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호수처럼 잔잔한데 잔파도가 해빛을 부시며 일렁이고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스러운 낯색을 지었다.

《그거 참 고마운분들이군. 그럼 내 요앞에서 낚시질을 할가 하는데… 그것도 안되겠나?》

《낚시질이야 뭐. 하지만 멀리 나가시면 안됩니다.》

경찰이 다짐을 두고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차기완은 낚시대를 조립하며 배군에게 물었다.

《물건을 받았나?》

《예, 좀전에 웬 사내가 보에 싼 물건을 주면서 선생님에게 꼭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넘겨주게.》

배군은 두손을 옷자락에 썩썩 문지르고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선실안으로 들어갔다가 인차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누런 광목천으로 둘러감은 작은 물건이 들려있었다.

차기완은 그가 내미는 꾸레미를 받아 허리춤에 비끄러매였다. 두루마기를 내리우니 꾸레미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차기완은 말했다.

《키를 돌려 경찰초소가 보이지 않는데까지 섬을 따라 돌아가자구.》

배는 흥떡대며 파도를 타고 흘러갔다. 마침내 경찰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차기완은 급히 말했다.

《한산도방향으로 달리자구.》

차기완은 다급한 심정이였다.

(지금쯤 그애들은 렬차안에 함께 있겠지?)

차기완은 마음이 불안했다.

(그들을 함께 떠나보내는게 아니였어.)

진실이 어쨌든 지금은 한시바삐 한정덕과 민숙이를 갈라놓아야 했다.

차기완은 시계를 보았다.

(너무 일러. 아직 준이는 한산도부근의 무인도에 도착할수가 없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그는 숨을 고르며 곰곰히 따져보았다.

(침착하자. 우연과 순간의 충동이 어쩌면 지금껏 준비한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뒤집어놓을수 있다.)

26

렬차는 승객들을 싣고 두줄기의 레루를 따라 덜컹거리며 달리고있다. 푸른 들너머 먼산이 배웅하듯 따라선다.

한정덕의 곁에 앉았던 두인이는 제 어머니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언니가 시샘나는듯 불현듯 일어나더니 민숙이의 치마폭에 감겨든다.

민숙이는 옆으로 비켜앉으며 정인이와 두인이를 나란히 앉히였다.

한정덕은 그를 마주보며 아쉬운듯 말했다.

《고보때처럼 너와 나란히 앉아가고싶었는데…》

아마도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시절 경주로 수학려행을 가던 때를 추억하였던 모양이였다.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해마다 옛 신라봉건국가의 수도였던 경주에로 수학려행을 조직했었다. 그때 경주에 있는 토함산봉우리에 있는 동해바다를 향해 자리잡은 석굴암을 견학하였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석굴암의 내부 정면에는 보통사람의 두세배는 실히 될만한 장엄한 석가모니석상을 안치하고 그 후면에는 11면관음보살석상과 화려한 벽상조각들이 둘러싸고있었다. 석가모니의 이마에는 큰 사발만한 흠집이 있었고 11면관음보살중의 하나는 머리가 떨어져나갔었다.

해설원은 그것은 원래 커다란 금덩이로 빚은것이였는데 왜놈들이 야밤중에 도적질해갔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석굴암은 천백여년을 내려오지만 안에 이끼가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그 묘리를 알아본다며 일제는 암석천정을 해체했다가 도로 맞추어놓았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석굴암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조각상들에 푸른 이끼가 끼기 시작하였다고 격분을 토로하였었다. 나라를 잃으면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재조차도 지켜낼수 없는것이다.

또다시 외세에 짓밟혀 정인이, 두인이와 같은 어린 자식들이 작은 주먹을 분노로 떨며 부모들을 원망하고 통탄하게 할수는 없다.

한정덕이 문득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니?》

민숙이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안색이 좀 이상해.》

하마트면 속생각을 그대로 터놓을번했다. 그러나 렬차안의 숱한 사람들의 시선을 자각하며 민숙이는 마음을 다잡았다.

《시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느라니 마음이 별로 싱숭생숭하군요.》

《그런 표정이 아니던것같은데…》

한정덕은 민숙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가 아무런 대답도 없자 긴숨을 나직이 내쉬였다.

《너두 참… 예곤이를 안고 가는게 꽤 불편해보여. 정인이와 두인이 둘 다 내게 보내렴.》

민숙이는 애들을 바싹 당겨앉히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민숙이는 곁에 자기의 두 아이가 앉아있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정인이는 얌전히 앉아있었으나 두인이는 자꾸 창문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사부랑거렸다.

《애포단이 좀 무거워보여.》 하고 한정덕이 말했다.

《한여름인데 좀 간편하게 준비할게지.》

민숙이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아침에 예곤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감이 있더군요.》

《감기에 걸린게 아닐가?》

《그런것같지는 않아요. 목안이 약간 부었어요. 그리고 먼길을 가는데 바람이라도 맞으면 더 심해질가봐 좀 두꺼운걸로 준비했어요.》

《차안이 더운데 포단은 벗기렴.》

(그래, 한여름에 두툼한 포단으로 애를 감싸고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별나게 생각할거야.)

민숙이는 포단을 조심스럽게 풀어 무릎우에 접어놓았다. 버스럭소리가 크게 들렸다.

민숙이는 주위를 살폈다. 한정덕은 창밖을 무심히 내다보고있었다.

정인이가 작은 손에 부채를 쥐고 제 엄마와 동생에게 부채질을 하였다. 예곤이의 곱슬곱슬한 머리칼이 땀에 흠뻑 젖어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다.

민숙이는 두 딸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어주며 정인이에게 말했다.

《동생을 창문옆에 앉히렴.》

마음 착한 정인이는 곧 두인이에게 창문옆자리를 내주었다. 자리를 바꿔앉은 두인이는 창밖을 내다보느라고 창문가에 매달렸다.

《조심해라.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말아.》

민숙이는 애들에게 당부했다.

차안에는 승객들이 많았다. 통로에도 사람들이 서있거나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려객들이 주고받는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려왔다.

뒤에 앉은 두 로인이 혀를 끌끌 차며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눈다.

《저 북에서는 농사짓는 백성들이 모두 제땅을 가지고 제 농사를 짓고있단 말이요.》

이 말에 곁의 로인이 되묻는다.

《정말이요? 나도 귀동냥해 듣긴 했소만 너무 꿈같애서…》

《이 사람 귀에 말뚝박았군. 정말 농군들이 땅임자가 되였다는데… 어제날의 머슴군, 가난한 소작인…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제땅에다 버젓하게 제 이름을 쓴 표말들을 박아놓았다오.》

《땅값은 물지 않는다오?》

《땅값은 무슨 땅값이겠소. 토지개혁을 무상분배로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나라에서 땅을 공으로 내여준다 그 말이요. 땅뿐이겠소. 밭갈이할 소도 마련해주고 나라에서 벼종자나 비료까지 다 내여주어 해마다 풍작을 거둔다오.》

《허 참! 복이 쏟아졌네그려.》

《암, 복이 쏟아졌지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참으로 정치를 잘하신다오. …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였을뿐더러 만백성의 가슴속에 기쁨을 안겨주시지요.》

《옛날에는 백두산을 주름잡아 축지법을 쓰신다더니…》

《축지법을 쓰셨지요. 신출귀몰하는 축지법으로 왜놈들을 가랑잎 쓸어내듯하신 장군님께서 만백성들이 다 잘사는 새로운 정치를 펴고계신다오.》

《이 남쪽에도 하루빨리 그런 세상이 와야겠는데…》

북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한지도 벌써 이태가 지났건만 남에서는 모든게 꿈처럼만 여겨져 농민들이 그냥 수군대며 부러워한다. 38도선을

경계로 북과 남에는 너무나도 판판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있었던것이다.

민숙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목소리에는 우리 백성들이 평생을 두고 가슴깊이 간직해두었던 간절한 념원이 실려있구나.)

서울을 향해 달리는 북행렬차의 차칸들은 각양각색의 려객들로 여전히 북적북적 들끓고있었다.

민숙이가 한정덕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데 간이역에서 올라 한정덕의 곁에 앉은 사나이가 문득 끼여들며 물었다.

《마진에서 옵니까?》

《예.》 하고 한정덕은 대답했다.

사나이는 읽던 책을 무릎우에 내려놓고 말했다.

《전 대구의 어느 대학에서 유전학을 강의합니다. 교수이지요. 듣자니 전번 5.10단선때 마진에서 녀학생들이 반대시위를 맹렬하게 벌렸다던데요?》

한정덕은 의아한 표정으로 교수를 쳐다보았다.

민숙이도 마음이 긴장되였다. 앞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사나이의 동태를 은근히 살피였다.

갱핏하고 작은 몸집에 비해 얼굴이 길죽하고 머리가 뒤로 툭 튀여나온 장년의 사나이였다.

5.10단선을 반대하는 각이한 투쟁들이 마진만이 아닌 남조선의 전역에서 벌어졌는데 꼭 마진을 찍어가며 그것도 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묻는것이 이상스러웠다.

교수라는 사나이는 무언의 질문을 깨달았는지 벙긋 웃으며 말했다.

《아,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전달에 대구에서 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선포하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들이 내든 구호가 마진에서 구속된 녀학생들을 모두 석방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제 조카애가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 경찰들에게 쫓기고있지요. 그래서 그때 마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자세히 알고싶군요.》

한정덕은 의미있는 눈길로 민숙이를 마주보았다.

민숙이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저어 낯선 사람의 호기심에 말려들지 말라는 시늉을 했다.

한정덕이 잠시후 말했다.

《마진에서 산다고는 하나 집안에만 있다보니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민숙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한정덕의 다음말은 민숙이를 다시 긴장시켰다.

《하지만 저도 들은 얘기는 있어요.》

한정덕은 곁눈질로 주위를 살펴보고나서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소곤 말했다.

《실은 마진의 모든 학교들에서 일제히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기로 약속이 되여있었대요. 헌데 비밀이 새여나가 모든 학생위원들이 전날에 검거되여 파출소들과 경찰서에 구속되였어요. 녀학생회장이 그날 사촌언니네 집에 머물다나니 요행 구속을 면했는데 경찰들은 남학생회장들을 모두 잡아들였으니 녀학생들로 무슨 큰일을 치랴 하고 방심했지요. 5월 10일 정각 8시 골목길을 벗어나 마진의 중심도로에 올라선 녀학생들이 마진형무소앞을 버젓이 지나면서 <리승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한다!>, <국토량단과 식민화를 가져오는 단독선거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연방 웨치고 삐라를 뿌리면서 삼각상점앞에까지 행진했어요.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거리에 녀학생들이 뿌린 삐라만 하얗게 깔려있었고요. 헌데 그게 다가 아니였지요. 경찰들이 주민들을 내몰아 선거를 시작하려는데 이번에는 3인, 5인조의 녀학생들이 선거장들에 나타나 선거반대시위를 벌렸대요. 경찰들에게 끌려 강제로 선거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딸 같은 소녀들이 경찰들에게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국토량단과 식민화를 가져오는 단독선거 결사반대한다!>라고 구호를 목청껏 웨치는것을 보고는 눈물들이 글썽하여 모두 뿔뿔이 흩어져버렸다더군요.》

한정덕은 끝으로 다시 강조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건 아니고 붙잡혀간 녀학생들의 부모들에게서 들은 소리랍니다.》

민숙이는 조마조마하여 손님의 반응을 살피였다.

그 손님은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조사해본데 의하면 5.10단선을 옳바로 치른 선거장이 별로 없어요. 제주도에서는 선거장들이 불에 타버려 재가루가 되였지요. 그런데도 유엔감시단은 이번 5.10단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였다

고 보고하였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표를 쑤셔넣었는지 어느 선거장에서는 선거인수의 거의 두배가 되는 찬성표가 쏟아져나왔는데도 그들은 아닌보살을 하지요. 정말 악이 덕으로, 부정의가 정의로 변신하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한정덕은 더이상 옆손님의 말에 응대하지 않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먼산을 바라보았다.

민숙이는 남의 말을 옮기는듯하면서 진상을 밝혀주는 한정덕의 솜씨에 내심 감탄했다. 그리고 두인이의 머리를 정겹게 쓸며 생각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른 정치가 실현되는 새세상을 희망하고있어. 그리고 나는 그 세상을 향해 한걸음 먼저 가고있는것이다.)

민숙이의 마음은 임무의 중요성으로 하여 더더욱 무거웠다.

한순간 의논이 맞으면 부처도 앙군다는데 한정덕에게 모든것을 툭 털어놓고 함께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민숙이는 눈길을 들어 한정덕의 얼굴을 슬며시 쳐다보았다. 한정덕은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민숙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차기완이 강조한 말들이 다시 떠올랐던것이다.

《절대로,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한 접선암호를 대기 전에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 설사 네 남편인 차상준이 나타난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된다. 또 내가 네앞에 나선다고 해도 접선암호를 대지 않거나 틀리게 말한다면 나도 의심해야 한다. 그만큼 이 임무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 전체 마진시민들의 통일념원과 투지를 네가 안고간다는것을 명심해라.》

(언니도 자기가 인민대표라는것을 내게 암시조차 안하고있어. 이런 때 내가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아마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지?)

민숙이는 무더운 한여름철에 홀로 추위에 얼고있는 심정이였지만 남편 차상준과 동서인 한정덕 그리고 그들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 곤난과 번민을 스스로 이겨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하에서 악전고투하는 남편과 눈꼴사나운 미군정관리들에게 굽신거리고 이웃들의 곡해를 받으면서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곧은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앞길을 개척해가는 시아버지의 고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민숙이는 눈길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금시 한소나기라도 쏟아지려는듯 침침해지고 해가 서녘으로 지는지 서쪽하늘의 흐릿한 빛도 차츰 진해가고있었다.

27

렬차는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서울역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역사기둥에 몸을 숨긴 야스꼬는 승객들의 모습을 살폈다.

렬차의 승강대에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트렁크를 쥔 젊은이, 두루마기에 갓을 쓴 로인, 아이를 업은 아낙네, 학생복을 입은 소년…

역두의 곳곳에는 경찰들과 사복을 입은 밀정들이 잠복해있었다.

한시간전 서울역가까이에 있는 경찰서로 들어간 야스꼬는 재클린이 준 위임장을 서장에게 보여주었다.

서장은 꼿꼿한 자세로 서서 야스꼬가 요구하는 인원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

3번 려객차에서 화사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정덕이 두 아이의 손목을 잡고 내려서는 모습이 보였다.

양복을 입은 한 남자와 양장을 한 녀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남자가 뭐라 묻는데 아이들은 도리머리를 저으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야스꼬는 그들을 한동안 살피다가 고개를 기웃거렸다.

(채영학은 한정덕과 민숙이가 함께 렬차에 올랐다고 했는데?)

야스꼬가 철도역사안의 경찰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이 한정덕에게로 다가갔다. 그 경찰들은 한정덕의 손짐을 샅샅이 검사하였다.

한참후에 두명의 경찰이 한정덕을 데리고 야스꼬가 있는쪽으로 왔다.

야스꼬는 기둥으로 돌아섰다. 그의 등뒤로 다가온 경찰이 말했다.

《리계심녀사, 한부인을 모셔왔습니다.》

야스꼬는 돌아보지도 않고 경찰들에게 손짓을 하여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렸다.

한정덕은 뜻밖인듯 눈을 커다랗게 흡뜨고 입을 딱 벌렸다.

《정덕이, 오래간만이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도 돼.》

야스꼬는 얕밉게 해쭉 웃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야스꼬는 속심을 감추며 물었다.

《내가 알기에는 숙이도 함께 온것같은데 왜 보이지 않지?》

한정덕이 내쏘았다.

《당신네가 데려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언제?》

《렬차안에서. 안양을 지난 직후에…》

야스꼬는 정말 모르는 일이였다.

(혹시 채영학이 선손을 쓴걸가? 아니, 그는 나에게 정확히 말했다. 한정덕과 민숙이를 놀래우지 말고 짐만 수색한 후 면밀하게 감시만 하는걸로… 그걸 위해 그 역시 서울로 달려오고있지 않는가. 만일 한정덕이 민숙이와 함께 렬차에서 내렸다면 난 정덕이를 따로 불러내지도 않고 미행만 붙였을것이다.)

야스꼬는 따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은거야? 자세히 말해.》

… 렬차는 어느덧 안양을 지나 서울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인차 서울역에 이르겠는데 준비를 해야겠어요.》 하고 말하며 민숙이는 쌔근쌔근 잠든 예곤이를 안아 포단에 감쌌다.

그때 차칸에 긴장한 공기가 돌며 소란해졌다.

앞쪽과 뒤쪽 출입문으로부터 경찰들과 헌병들이 군경협동으로 마주 들어오며 려객들의 신분을 조사하고있었다.

한정덕이 고개를 숙여 보짐에서 통행증과 증명서 따위를 미리 준비하여 드는데 누군가가 벌써 그들의 앞에 섰다.

철도제복을 입은 사나이였다. 그는 한정덕의 증명서를 인차 돌려주었다. 그러나 민숙이의 증명서는 손에 그냥 쥔채로 물었다.

《아주머닌 부산역 7호구에서 렬차에 올랐습니까?》

한정덕이 대신 대답했다.

《우린 삼랑진에서 올랐어요.》

철도제복을 입은 사내가 민숙이에게 말했다.

《아주머니는 나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알아볼게 있습니다.》

한정덕이 막아섰다.

《대체 무슨 일이예요? 왜 그래요?》

《잠간이면 됩니다. 별게 아닙니다.》

《통행증이 잘못되였는가요?》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왜서요?》

《몇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내가 대신 가면 안되겠어요?》

《아주머니가요?》

철도제복을 입은 사내는 딱한 표정을 지으며 하는수 없다는듯 말했다.

《그럼 함께 가시던지요.》

그때 민숙이가 애를 업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짐과 애들도 있는데… 제 혼자 다녀올게요. 그동안 정인이와 두인이를 봐주세요.》

한정덕은 민숙이를 쳐다보았다.

민숙이는 자기의 증명서, 보증서, 통행증을 따로 모아쥐며 배포유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러는새 경찰과 헌병들이 거의 다가왔다.

민숙이는 철도복을 입은 사내의 뒤를 따랐다. 경찰들이 통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있었으나 철도제복을 입은 사내와 함께 가는 민숙이는 군말없이 내보냈다.

《증명서.》

한정덕의 앞에 다가선 경찰이 묻자 한정덕은 민숙이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뗐다. 그가 증명서며 보증서를 내주자 경찰은 깐깐히 살펴보고는 돌려주었다. 다시 눈길을 돌렸을 때는 이미 민숙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정덕은 정인이와 두인이의 손에 간식을 쥐여주며 민숙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경찰들이 단속된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 차칸으로 넘어간 후에도 민숙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별안간 렬차가 급정거를 하며 멈춰섰다.

당반에 올려놓았던 보짐들이 떨어졌고 통로에 섰던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가며 엎어졌다. 아우성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렬차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한정덕이 창밖을 내다보니 철도제복을 입은 한 사내가 벌판을 가로지르며 달아나고 그뒤를 경찰과 군인들이 쫓고있었다.

잠시후 기차는 기적을 울리며 떠났다. 그러나 민숙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정덕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교수에게 정인이와 두인이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차칸으로 넘어갔다.

렬차안을 샅샅이 찾아보고 승무원들에게도 물어보았으나 누구도 민숙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고 그를 데려갔던 사내도 찾을 길이 없었다. …

야스꼬는 건너편 기둥에 서있는 사복경찰에게 눈짓을 했다. 그 경찰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인차 되돌아왔다.

그는 야스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였다.

《삼성산근처에서 로씨성을 가진 검차원이 제동변을 당겨 렬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어 보짐을 진채로 뛰여내려 벌판으로 달아났는데 군인들과 경찰들이 뒤쫓았답니다. 거의 붙잡게 되였을 때 그가 폭탄을 터뜨려 자폭했답니다. 찢어진 보짐속에서 종이쪼박들이 발견되였는데 선거명부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 조사중이므로 정확한건 후에 알려주겠답니다.》

야스꼬는 그 경찰에게 말했다.

《렬차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해요. 녀인의 시체가 있을수 있어요. 애기를 업은채로 승무원에게 단속되는걸 본 사람이 있어요. 안양을 지난 후라고 하니 철길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게 나지면 즉시 나에게 알려주세요.》

야스꼬는 한정덕에게 다가섰다.

한정덕은 급하게 물었다.

《숙이를 대체 어떻게 했어요?》

야스꼬는 야시꼽게 말했다.

《그건 네가 상관할바가 아냐.》

그리고는 역사에서 정인이, 두인이와 함께 있는 양복쟁이와 녀인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들은 누구지?》

《숙이의 오빠와 오레미예요.》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영접까지 나왔을가?》

《숙이는 세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남이섬으로 가던 길이였어요. 난 동서를 서울역까지 바래주라는 시부모님들의 당부를 받고 여기로 왔고요.》

《정말 그럴가?》

야스꼬는 예리한 눈길로 한정덕을 살폈다.

한정덕은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그의 몸과 짐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의심스러운것은 나지지 않았다. 채영학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니 약속대로 지금은 고스란히 놓아주고 감시만 붙여야 한다. 또 한정덕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당분간은 계속 속는체해야 한다.

야스꼬는 천연스레 말했다.

《좋아. 일단 그렇게 믿겠어. 난 네가 녀맹의 부위원장이든 더 높은 요직에 있든 아주 좋은 일로 여기겠어. 단지 이제부터 네가 뭐든지 나에게 솔직하면 되는거야. 알겠지?》

한정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일본이 이미 망한걸 잊은게 아니예요?》

《제국이 망했어도 첩보전은 계속되고 첩보전이 계속되는한 첩보원의 생명은 무한한거야.》

야스꼬는 바투 다가섰다.

《나라고 민족이고 하는것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거야. 제 죽고나서 나라고 민족이고 무슨 상관이래? 한정덕, 영웅이 되고싶어? 잘 들어둬. 네가 살려면 나의 요구를 들어야 해.》

한정덕이 맵짜게 따져물었다.

《숙이를 정말 어떻게 했어요?》

야스꼬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의 그 끈질긴 우정에 탄복을 금할수 없구나. … 나도 참 궁금하다. 그년은 대체 어디에 죽어 너부러져있는건지…》

《그건?!…》

한정덕은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죽다니요?! 누가? 무엇때문에? … 그럴수 없어요. 남에게 해되는

일을 한번도 한적 없는 어진 숙이가 왜 죽는단 말이예요?》

야스꼬는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 시끄럽다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한정덕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죽었다고 단정하다니요? 렬차의 어느 구석이나 혹시 렬차가 정차했을 때…》

야스꼬는 낯을 찡그리며 손을 들어 한정덕의 말을 막았다.

그러나… 하고 야스꼬는 속으로 다시 생각했다.

(그래, 한정덕의 말에 일리는 있어. 민숙이는 어느 구석에 쓰러져 있던지, 갇혀있을수도 있지. 경찰들을 동원해 주변마을들도 뒤져보라고 해야겠어. 민숙이를 찾아내면 혹시 큰 수확을 얻을지도 모르니까.)

야스꼬는 빠른 말씨로 한정덕에게 물었다.

《숙이는 그렇다치고… 넌 이젠 어쩔셈이야?》

한정덕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조카애들을 넘겨주고 숙이를 찾은 다음 마진으로 되돌아가겠어요.》

(거짓말!) 하고 뇌이면서도 야스꼬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채 돌아섰다.

(네년이 나를 찾는 일은 없을테지. 하지만 네년이 그 어디에 숨든 반드시 잡아낼테다. 최후에 웃는자가 진짜 승리자야!)

야스꼬는 뒤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종종걸음을 쳤다.

한정덕은 증오에 찬 눈길로 야스꼬를 노려보았다.

28

높은 파도가 차상준을 공중으로 떠올렸다. 파도마루에 올라선 짧은 순간 그는 만세! 하고 속으로 웨쳤다. 검은 점처럼 보이는 섬의 웃머리를 발견했던것이다.

차상준은 반듯하게 누워 파도에 몸을 맡긴채 거의 반시간동안 떠갔다. 갈매기들이 그의 머리우를 빙빙 선회했다.

알섬 앞바다에서 물에 뛰여든 차상준은 약속된 바위섬까지 헤염쳐갔다. 바위섬의 지정된 장소에는 누런색의 구명조끼와 라침판이 놓여있었다.

차상준은 젖은 옷들을 벗고 허리에 동여맸던 고무주머니마저 바위틈에 감추었다. 그리고는 수영빤쯔에 구명조끼만 입은채로 다시 바다로 뛰여들었다.

그는 라침판으로 방위를 판정하며 파도를 타고 여러 시간을 헤염쳐왔다.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와 그를 높이 들어올렸을 때 차상준은 섬의 륜곽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바다우에서 몸을 세우고 휘파람을 길게 내불었다. 파도의 골에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오를 때 갈매기 한쌍이 머리우를 날고있었다.

불쑥 차상준은 눈굽이 뜨거워났다. 그는 자기가 아이처럼 울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눈물속에서 처와 아이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섬기슭이 더 가까와지자 더 세게 섬쪽으로 끌리웠고 파도는 거의나 직선으로 밀려가고있었다.

섬의 푸른 나무들이 보였다. 그 나무들의 밑둥의 두께가 서로 다르다는것을 알아볼수 있는 정도이니 기슭이 무척 가까와졌다는것을 의미했다.

기슭에 가까이 접근하자 이제는 밀물때 바다물이 들어왔다가 나무밑둥에 남긴 어지러운 흔적까지도 보이였다.

파도가 소란스레 부딪치는 모래톱같은것이 있었다. 파도가 일단 거품이 이는 이 장애물을 넘어간 다음에는 직바로 섬을 타격하였다. 사방에서 물보라가 일었는데 바다는 어지러운 누런색의 감탕빛을 띠고있었다.

수렁판이다! 오싹하는 공포와 전률이 온몸을 얼구었다.

차상준은 손과 발을 재게 놀렸다. 그러나 파도는 그를 닝큼 들어올려 감탕판우에 던져놓았다. 어쩔새없이 그는 허리까지 푹 빠져들어갔다.

섬의 기슭까지는 아직 300메터가량 떨어져있었다.

감탕에서 거품이 꾸륵꾸륵 솟아올랐다. 얇은 껍데기는 해빛에 말라 약간 꾸득꾸득해보였으나 속은 완전히 물렁물렁한 감탕이였다. 여기에 빠져든 사람이 살아날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희미했다.

오른쪽눈에 짠 감탕이 스며들었는지 몹시 쑤셔났다. 차상준은 손을 들어 오른쪽눈까풀을 닦아내고싶었으나 감탕판에 벌려눕힌 팔을 쳐들수가 없었다. 아차 실수하면 감탕속에 영영 잠겨버릴수 있었다. 오른쪽눈

만 아니라 왼쪽눈에도 감탕이 묻어 잘 보이지 않았다.

차상준은 몸을 뒤로 힘껏 젖히였다. 격렬한 몸부림도 소리도 필요없다.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육체는 죽음의 감탕속에 한치한치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있으니 밀물이 들어올 때를 인내성있게 기다려보아야 한다.

해를 보니 16시쯤 되였다. 그러니 바다에 뛰여든 때로부터 12시간이 지났다. 17시경이면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것같았다.

입술이 바싹 말라들었다. 눈물이 솟구쳐올라 쓰리던 오른쪽눈에서 아픔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차상준은 온몸에 감탕이 게발린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뜨겁게 내려쪼이는 해볕에 바싹 타서 피부가 반나마 벗겨졌을것이다.

첫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파도는 차상준이 어쩔새도 없이 머리우를 타고 넘어 멀리 밀려나가 부서지면서 감탕판우에 거품을 들씌웠다.

밀물이 들어온다는 기쁨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오싹 돋아나는 공포를 느꼈다.

(파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감탕은 더 흐물흐물해질것이다!)

아니나다를가 감탕은 더 물렁물렁해졌다. 이대로 그냥 누워있다가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수렁속에 잠겨들고말것이다.

차상준은 감탕에 손을 박으며 몸을 돌리려고 애썼다. 몸을 반대로 돌려 머리가 파도방향으로 향하게 해야만 했다.

두번째 파도가 밀려왔을 때 감탕은 더 물렁물렁해졌다. 감탕에 손을 박았다. 이제는 거의 액체처럼 되여버렸다.

세번째 파도가 지나간 뒤에 차상준은 이 수렁속으로 꼬르륵 잠겨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감탕판에 그 무엇도 남지 않을것이다.

차상준은 락심했다. 이렇게 맥없이 죽게 된다는 절망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민숙이의 동실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랑하는 안해가 묻고있었다.

《당신은 어디 멀리로 가려는가요?》…

이어 박철우를 비롯한 동지들의 얼굴이 잇달아 떠오른다.

언제인가 자기가 박철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전 철우동지의 부인인 김인혜동지를 존경합니다. 그에 비하면 제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의 머리속에는 그저 가정과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박철우는 심중하게 말을 받았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뒤바라지를 하는것만으로도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오.》

그의 말이 옳았다. 자기와 같은 사내를 만나 민숙이가 얼마나 마음속고생을 많이 했는가!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고 경찰들과 깡패들의 발길에 채워 나동그라진 바깥대문만 보아도 자기로 하여 받은 안해의 고통과 천대와 멸시를 그대로 알수 있다. 그런 속에서 어린 자식들을 보호하고 또 경찰들의 추격을 피해다니는 남편을 공대할려니 마음고생이 여간 아닐것이다.

그런 녀인을 더 정답게 품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차상준은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순간에 이르니 지금껏 더 따뜻이 안해를 사랑해주지 못한 후회가 불꼬챙이가 되여 심장을 지지는듯했다.

또다시 처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히 보에 싸인채 쌔근쌔근 잠을 자던 예곤이의 귀여운 얼굴이 못견디게 다시 보고싶었다. 그러고보니 예곤이의 코와 작은 입술은 정말로 제 어머니 민숙이를 닮았다.

차상준은 착잡한 마음을 가다듬었다.

(나약해지지 말자. 나에게는 아직 수행해야 할 임무가 남아있다.)

다시한번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결코 죽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죽을수는 없다.)

차상준은 바싹 긴장하여 세번째 파도를 기다렸다.

차거운 바다물이 온몸을 와락 덮치는 순간 그는 힘껏 두팔을 벌려 저항폭을 넓히였다.

파도가 밀려가고 깨끗하게 씻기운 차상준의 얼굴에 기울어져가는 태양의 따사로운 해빛이 비쳐들었다. 그는 자기의 온몸이 그대로 파도방향으로 돌아서며 비스듬히 누웠다는것을 깨달았다.

차상준은 거친 숨을 헐떡거렸다.

다음 파도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을 때 그는 죽기내기로 발을 힘껏 저었다.

마침내 저주로운 감탕속에 빠졌던 두다리가 쑥 빠져나와 5～6메터

정도 그를 밀고나갔다. 그렇게 파도를 타고 한치 또 한치 기슭을 향해 밀려나가 드디여 물이 충분히 깊어져 다시 몸이 뜰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

차상준은 걸음절반, 헤염절반으로 앞으로 나갔다.

으르렁거리는 파도가 다시 밀려들어 그를 딱딱한 섬바위우에 던져버렸다.

차상준이 기진한 몸을 일궈세웠을 때 주위에는 온통 바다물이였다. 밀물이 들어온것이다. 목이 바싹 말라들었다. 그리고 삶의 희열로 가슴이 터질듯 부풀었다.

끝내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그 섬도 역시 인적이 없는 무인도였다. 암초가 많은 섬인데도 배군들속에서는 《인어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통용되였다. 생김새가 꼭 웅크리고 누운 인어를 닮아서 그렇게 부른다는 말도 있고 한때 인어의 《눈물》이라는 진귀한 진주를 품은 조개들이 많이 잡히던 곳이라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였다.

차상준이 가까스로 섬에 올랐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있었다.

그는 모래불에 반듯하게 누워 숨을 돌렸다. 약속된 시간까지 아직 둬시간은 남은것같다.

박철우는 이렇게 지시했었다.

《인어섬으로 가시오. 거북바위를 찾으시오. 접선자는 발동선을 타고 올것이요.》

반시간가량 뜨거운 모래불에 누워 숨을 돌리고난 차상준은 구명조끼를 벗어들고 수걱수걱 걸어갔다.

거부기가 목을 길게 빼들고 누워있는 모양을 한 거북바위까지는 멀지 않았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다. 수평선에서 흰 목화덩이같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한쌍의 갈매기가 그의 머리우를 스칠듯이 낮게 날아갔다.

무심코 바위로 다가가던 차상준은 눈을 크게 흡떴다. 바위우에 무슨 흔적같은것이 보였다.

바위우에 몸을 기울인 차상준은 동쪽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20이라는 수자를 똑똑히 보았다.

차상준은 급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다.

푸른 하늘을 떠도는 흰구름과 바다물로 내려꽂히는 갈매기, 귀뿌리를 스쳐지나는 바람소리뿐…

그의 눈길이 이번에는 바다끝을 더듬는다. 망망한 수평선만 눈뿌리가 아득하게 바라보였다. 그러니 접선자는 이미 이곳에 왔다가 돌아간것이다.

(분명 약속한 시간까지는 얼마간 남은것같은데… 난 그 시간보다도 두시간이나 먼저 온것같은데…)

접선자는 이곳에서 차상준에게 발동선을 넘겨주기로 되여있었다. 그 발동선을 타고 륙지로 나가기 위해 차상준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던것이다.

그러나 바라보이는것은 망망대해뿐, 그 어디에도 발동선은커녕 떼목조차 보이지 않는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지친 다리를 끌며 걸어갔다.

스무발자국쯤 되는 곳에 독립수가 있었다. 그밑에는 땅을 판 흔적이 있었다.

모래불에 한쪽무릎을 대고 앉은 차상준은 나무꼬챙이를 집어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을 파고 묻은지 얼마 안되여서인지 쉽사리 파헤쳐졌다. 커다란 검은 자루 하나가 나졌다.

차상준은 자루에 든것을 모조리 땅에 쏟았다. 우선 음료수통과 건빵을 거머쥐였다.

그는 물통의 마개를 열고 목과 앞가슴을 철철 적시며 성급하게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건빵을 질근질근 씹으며 자루속에서 나온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잠수안경과 한끝이 구부러져 입에 물기 편리하게 만든 호흡관, 산소통과 《오리발》, 라침판 등 잠수기재들이였다.

차상준은 일순간 락심했다. 그러니 약속이 틀려졌다. 발동선은 오지 못하고 이 잠수기재로 섬을 탈출해야 한다는 암시다. 생사기로에서 방금 벗어난 그는 맥이 진했다.

물건들을 더듬던 눈길이 투명한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다. 고무마개로 막은 병안에 종이말이가 들어있었다.

차상준은 마개를 틀어뽑았다. 유리병을 거꾸로 세워 종이쪽지를 꺼

내여 펼쳐보았다.

《7호지점으로 올것. 준아,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차상준은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

(준이라고?!… 나를 지금껏 준이라고 애명으로 불러준 사람은 죽은 형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뿐이다. 어머니는 요즘 건강이 좋지 못해 문밖출입을 못하신다고 했다. 그러면…)

온몸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듯이 불시에 달아올랐다.

(아버지다! 이곳에서 날 준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런즉 이곳을 다녀간 사람은 다름아닌 그의 아버지 차기완일것이다.

(결국 발동선을 타고 온다는 접선자는 나의 아버지였단 말인가?!)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쳐올라 두볼을 적시였다.

부산에서 징병기피자들을 도운것이 탄로나 밤중에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만주의 한 주소를 대주며 부디 그곳을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그 주소는 그 지역의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책임자의 집이였다. 그들의 보호와 방조를 받으며 차상준은 지금까지 자기가 좌경의식에 들떠 무산자들을 동정하며 계급해방을 부르짖어온것이 한갖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음을 후회속에 깨닫게 되였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의 길을 찾아 반일지하투쟁에 나서게 되였고 조국해방을 떳떳하게 맞이할수 있었다.

해방후 집으로 돌아온 차상준은 기대를 품고 아버지에게 만주에서 지낸 일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런데 차기완은 천만뜻밖인듯 펄쩍 뛰며 말했다.

《위험천만했구나. 언제인가 그 사람의 장사일을 크게 도와준적이 있기에 너를 잠시 거두어줄가 하여 그 주소를 알려준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줄 알았으면 애초에 다른 곳에 보내는걸 그랬다.》

은근히 기대를 품었던것만큼 아연했고 실망했다.

《계속 공산당을 따라다니겠으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차기완이 이렇게 부자간의 정을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단언했을 때는 실망을 넘어 절망의 심정이였다.

경찰호송차를 습격하여 동지들을 구원하고 수배자로 된 후 제손으로 자식을 잡아 경찰서로 끌고가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전해들었을 때는 땅이 꺼지는듯이 망연자실한 심정이였다.

시청의 고문이랍시고 미군정에 협력하고 미군장교들에게 늙은 몸을 굽신거리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하였었다.

차상준은 몇번이고 글쪽지를 곱씹어 읽었다.

《준아,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는 이곳에서 만나게 된 접선자가 아들이라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그러니 자기의 접선상대가 누구라는것을 금방 알게 된 차상준의 마음이 이럴진대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통절했으랴. 아마도 친자식에게도 속을 헤쳐보이지 못한 지난날의 그 쌓인 오해의 설음을 이 한순간에 다 풀자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것이다.

그러나 그 간절함을 뒤로 미루고 발동선도 넘겨주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떠했으랴. 아마도 살을 저며내고 불로 지지는것같았을것이다. 아버지의 그 고통이 그대로 가슴에 마쳐와 차상준은 심장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곡해하고 타매해온 지난날이 너무나도 후회막급하여 숨을 쉴수도 없을만치 괴롭고 또 피로웠다.

차상준은 두주먹을 부르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가 접선을 포기하고 잠수기구만 남겨둔채 급히 떠나지 않으면 안된데는 보다 중요한 일,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겼기때문일것이다.

(7호지점으로 가야 한단 말이지.)

10대의 시절에 해양방위판정경기에 출전한바 있는 차상준은 바다속을 잠수하여 륙지에 있는 접선장소로 간다는것이 헐치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긴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길이였다.

(내 한몸 불태워 나라의 분렬을 막을수만 있다면 목숨인들 아끼고 서슴으랴.)

젊은 가슴은 또다시 뜨겁게 벅차올랐다.

차상준은 파도치는 바다물을 헤치며 얼마간 걸어갔다. 끝도 없는 망망한 대해가 앞을 막아나섰으나 그의 심장은 뜨거운 피로 끓고있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 정의로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가고있다!)

29

숲이 울창한 삼성산기슭에 이른 민숙이는 일단 구석진 수풀속에 주저앉아 숨을 돌리였다. 등에 업은 예곤이가 잠에서 깨였는지 꼼지락거렸다.

민숙이는 서둘러 아이포단의 매듭을 풀고 애기를 품에 안았다. 저고리옷자락을 헤치고 통통히 불어난 젖가슴에 아기의 얼굴을 가져다대였다.

예곤이는 꽃망울같이 붉고 보드라운 입술로 젖꼭지를 꼭 물고는 힘차게 빨아대였다.

민숙이는 풀숲에 앉은채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 바위, 풀 그리고 머리우에서 지저귀는 뭇새들… 인기척은 전혀 느낄수 없었다.

머리우에서 매미 한마리가 기세차게 울어댔다. 꼬리가 빨간 잠자리 한마리가 싸리나무가지끝에 내려와 앉았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다시 훌날아올랐다.

민숙이의 두근거리던 가슴은 다소 진정이 되였다. 그가 기차에서 내려 여기 산기슭에 당도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민숙이에게는 모든것이 한찰나에 벌어진것같이 여겨졌다.

…철도제복을 입은 사내를 따라 민숙이가 복도에 나왔을 때 승강대우에는 운두가 없는 납작한 모자를 눌러쓰고 격자무늬샤쯔를 입은 건장한 사내가 벽에 기댄채로 서있었다.

사내는 그에게로 다가가 뭐라고 속삭이고는 옆차칸으로 들어갔다.

격자무늬샤쯔는 얼굴을 반쯤 가리웠던 모자창을 올리며 민숙이를 쳐다보았다.

민숙이는 깜짝 놀랐다.

《황병두, 네가?》

순간 뒤로 몇발자국 물러섰다. 만나지 말아야 할 녀석을 만났다는 생각, 빨리 돌아서라는 신호가 번개처럼 머리속을 스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것같았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민숙이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난 너와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
황병두는 직방 말했다.
《서울에 사는 선우광선생이 인사를 전합니다.》
한순간 민숙이는 얼떨떨해졌다. 그것은 비상접선을 청하는 신호였다.
민숙이는 멍히 황병두를 바라보았다.
황병두가 답답한듯 다시 말했다.
《선우광선생의 부인이 편치않다고 합니다.》
원래 선우광선생의 인사를 전하면 민숙이가 부인의 안부를 묻게 되여있었다. 하도 민숙이가 당황해하니 황병두가 접선을 서두르고있는것이였다.
민숙이는 여전히 긴가민가하며 물었다.
《선우광선생의 부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던데 무사한가요?》
《다행히도 콩팥염으로 진단되였습니다.》
《돌은 없었나요?》
《왼쪽에서 한개, 오른쪽에서 세개가 발견되였습니다.》
민숙이는 눈물이 찔끔 내돋았다.
《어쩌면…》
민숙이는 속으로 자책했다.
(그러면 그럴테지. 병두가 어떤 청년이라고…)
그런 병두를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멸시해온 자신이 부끄러웠다.
황병두가 민숙이의 마음을 눙쳐주며 물었다.
《형수님, 놀라셨지요?》
《이 렬차엔 언제 올랐는가요?》
《마진에서부터 계속 형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걸 난 전혀 몰랐군요.》
민숙이는 새삼스레 황병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얼굴이 몹시 축갔군요.》
《괜찮습니다.》
이어 황병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형수님, 긴급정황입니다. 서울역에서 경찰들이 형수님을 붙잡겠다

고 대기하고있다고 합니다.》

황병두는 승강대옆의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방인듯싶은데 지금은 비여있었다.

황병두는 민숙이의 귀에 대고 간단명료하게 행동방향을 가르쳐주고나서 곱씹어 당부했다.

《곧 기차가 멎을겁니다. 반드시 오른쪽승강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적들의 시선을 끌면…》

그가 말을 채 마치지 못하였는데 별안간 기차가 급정거를 하였다.

민숙이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것을 마침 황병두가 붙잡으며 대신 벽에 부딪쳤다.

차안에서는 당반의 짐들이 떨어지는지 와당탕하는 소리, 승객들의 비명소리, 아우성소리가 련이어 들렸다.

황병두는 외마디로 비명을 나직이 올렸다.

《아니, 로동무가 어쩌자구…》

렬차복도에서는 벌써 퉁탕거리는 구두발소리가 콩볶듯이 들리더니 여러 사람이 밖으로 뛰여내리는지 자갈이 와르륵와르륵 밀리는 소리도 들렸다.

문옆에 바싹 다가간 황병두는 귀를 기울였다. 어지간히 당황한 표정이였다.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잠시후 복도가 조용해졌다.

황병두가 문을 열며 민숙이에게 말했다.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승강대로 나가며 민숙이는 열려진 객실문틈으로 승객들이 왼쪽창문에 어깨성을 쌓고 빼곡이 몰켜서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왼쪽승강대로 다가가 밖을 살펴보았다.

등에 누런 보짐을 둘러멘 웬 사내가 벌판으로 내달리고있었다. 그 뒤로 군인들과 경찰들이 총을 쏘며 뒤쫓고있었다.

승객들은 왼쪽창문에 포도송이처럼 몰켜서서 밖을 바라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애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가?!)

민숙이는 사람들이 붐비는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았으나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애들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눈길은 여전히 허둥대며 아이들을 찾았다.

《형수님, 빨리요!》

황병두가 재촉한다.

민숙이는 뒤를 연신 돌아보며 황급히 오른쪽승강대로 내려갔다. 마음은 자꾸 차안으로 향했지만 그의 걸음은 어느결에 자갈들을 밟으며 뚝을 내려섰고 잡관목속에 엎드려 몸을 숨겼다.

다행히 등에 업은 예곤이는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쌔근쌔근 굳잠에 들어있었다.

(정덕언니, 제발 애들을 부탁해요. 그애들에게 다른 일이 없어야겠는데…)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 이미 각오를 했지만 이런 정황이 생기리라고는 타산하지 못했었다. 지금껏 한번도 품에서 떼여보지 못한 어린 자식들과 부지불식간에 헤여졌다. 정인이는 그렇다쳐도 두인이는 이제 세살도 채 되지 못한 철부지다. 제 앞건사도 못하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지 말았을걸 하는 후회가 따랐다.

민숙이가 잡관목뒤로 몸을 숨기는 모습을 지켜보던 황병두는 곧 자리를 떴다.

원래 계획은 기차가 선 다음 황병두가 군경들의 이목을 유인하기로 되여있었다. 헌데 그와 동행하였던 동지가 황병두를 대신하여 먼저 뛰여내린것이다.

황병두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제발 무사했으면…)

그는 승무원칸을 재빨리 살펴보고 돌아섰다.

그때 기관차가 짧은 기적을 울리고는 레루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열려진 승강대로 다가서는데 한 승무원이 차칸에서 나오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오!》

승무원은 승강대앞을 막아서며 황병두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어쩔수없이 다음차칸으로 들어가며 황병두는 뒤쪽을 돌아보았다.

민숙이가 몸을 숨긴 잡관목은 점처럼 멀어지고있었다. …

민숙이는 배불리 젖을 먹고난 아기를 세워안아 트림을 하게 한 후

에 다시 등에 업었다.

나무우에서 매미들이 귀따갑게 울어댔다.

민숙이는 산우로 난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원래 민숙이는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 역전거리에서 접선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정황으로 접선시간까지 역전거리에 도착할수 없게 되였다. 1차접선을 포기하고 다음 접선장소로 가야 했다.

민숙이는 관악산의 골짜기를 따라 서울로 들어갈 결심을 다졌다. 그는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때 관악산에 왔던 기억을 되살리며 맑은 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계곡을 톺아올랐다.

날은 어느새 어둡기 시작하였다.

관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고 숲이 울창하여 예로부터 근기 5악의 하나로 꼽히였다. 기묘한 바위들과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폭포와 샘이 곳곳에 있었다. 산의 모습이 마치 바람에 일렁거리며 타오르는 불꽃같이 보인다고 하여 일명 불산이라고도 하였다. 봄이면 철쭉꽃이 곱게 피여나고 늦가을이면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고 하여 경기금강 또는 소금강으로도 불리우는 아름다운 곳이였다.

낮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밤이면 어둠속에 길을 잃기 십상이다. 산길을 헤매이다가 자칫하면 마른 폭포터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

민숙이는 무성한 참나무숲너머로 기우는 해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해가 지기 전에 서울로 들어가는 무너미고개를 넘을것같지 못하였다.

민숙이는 사찰이나 암자를 찾아가 하루밤 묵어볼가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기포단을 바로 매며 결심을 바꾸었다. 어쩌면 인적이 드문 암자에도 경찰들의 감시가 있을지 모르는것이다.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돼.)

아기포단속에 감춘 문서들이 만져졌다.

민숙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목숨을 바치였는가를 잘 안다. 남북총선거를 위한 만정분구의 선전사업을 맡았던 이웃의 마진사진관 안주인은 대낮에 희생되였다. 경찰들이 재판도 없이 마당에 끌어내여 어린 자식의 눈앞에서 무참히 사살하였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밤길을 걷다가는 길을 잃을수도 있었다. 생명보다도 문서의 안전을 지켜내는것이

더욱 중요했다.

민숙이는 안침하고 마른 곳을 찾아내여 락엽을 두텁게 깔았다. 불을 피워 어둠과 뭇짐승을 쫓고싶었으나 도리여 산사람들의 시선을 끌수도 있기에 불조차 피울수 없었다.

산중에서 밤을 지샌다는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산골짜기의 저녁해는 짧았다. 석양노을이 빨갛게 골짜기를 물들이더니 인차 칠흑같은 어둠이 덮쳤다. 파아란 등을 켜든 반디벌레가 날고 밤새들이 궁상맞게 울어댔다.

어디선가 간사한 여우의 울음소리, 승냥이의 울부짖음도 들려왔다. 구새먹은 통나무를 울리는것같은 부엉이의 울음소리도 무서웠다.

민숙이는 바스락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하여 예곤이를 꼭 품어안았다. 아직은 한여름이라고 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기온이 내려가니 여름옷을 입은 민숙이는 몸이 떨렸다. 추위보다도 공포와 긴장으로 더더욱 떨렸다.

차안에 남겨두고 온 정인이와 두인이도 다시 걱정되였다. 기차가 급정거를 할 때 다치지는 않았는지…

(괜찮을거야.) 하고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지금쯤 서울역에서 내렸을테니 오빠내외와도 만났을것이다. 한정덕이 어머니이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것이다.

그와 함께 기차를 타고 온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자매같은 한정덕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

민숙이는 불쑥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보, 정인이 아버지…)

차상준은 민숙이에게 자기를 볼수는 없어도 항상 그의 곁에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마진에 있을 때의 일이다. 지금 민숙이는 마진에서 천리나 떨어진 외진 산중에 홀로 남았다.

그는 외롭고 겁이 났다. 무엇인가 알수 없는 커다란 그림자가 사위를 둘러싸고 숨막히도록 조여드는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끼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이밤이 이다지도 두렵지는 않을것이다.

(여보.) 하고 민숙이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부디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불쑥 1946년 마가을 차상준이 자기에게 쪽지편지를 주며 떠나보낼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때 차상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보, 어렵고 힘든 길이요. 그러나 난 당신이 꼭 해내리라고 믿소.》

그 눈빛은 어쩌면 엊그제 서재에서 바래우던 시아버지 차기완의 눈빛과 똑같았다.

《며늘애야, 목숨을 바쳐야 하는 길이다. 하지만 넌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황병두도 그런 눈길로 민숙이를 바래웠다.

《나는 형수님을 믿습니다.》

그 눈빛들이 불길이 되여 민숙이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민숙이는 예곤이를 꼭 껴안으며 맹세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명부를 반드시 지켜낼것이다.)

30

한낮의 서울거리는 분주하고 복잡하였다. 땡볕에 아스팔트는 따거운 불판처럼 확확 달아오르고 느끼한 기름내가 뿌연 먼지와 함께 피로한 시민들의 페부를 답답하게 한다.

경적을 울리며 미군찝차들이 달리고 웃동을 벗은 인력거군들이 새털부채를 한들거리는 살찐 마담이며 피둥피둥한 간상배들을 싣고 땀을 철철 흘리며 달리고있다.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돈을 뽑아내야 살수 있는 도시인지라 젊은이고 늙은이고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눈알을 뱅글뱅글 돌리며 이웃을 속이고 남의 주머니를 옭아내기 위해 무사분주히 돌아친다. 신문팔이들은 구멍난 모자를 쓴채로 네거리를 좁다하게 쏘다니고 고사리같은 손을 내민 거지애들이 돈개나 있어보이는 양복쟁이와 아가씨들의 꽁무니를 행여나 하여 졸졸 따른다.

(서울에만 오면 구역질이 나거던.)

박철우는 형형색색의 상품광고를 다닥다닥 붙여놓은 전주대밑에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거의 된것같았다.

맞은편다방으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나오고있다. 문옆에는 구두닦이소년이 앉아있을뿐 별다른 이상한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

박철우는 약간의 목운동을 하며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는 다방을 향해 수걱수걱 걸음을 뗐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비넥타이를 맨 젊은이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박철우의 손가방과 모자를 상냥하게 받아들었다.

박철우는 예리한 눈길로 다방안을 살폈다. 한낮이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빈 탁도 많았다.

약속된 창문옆의 세번째 탁에는 이미 한 녀인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중년초기의 녀인으로 짐작되였다. 그의 앞에는 신문이 펼쳐져있었다.

그는 천천히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녀인은 올려다보지도 않고 심드렁하니 대꾸했다.

《그러세요.》

접대원이 다가왔다.

《차를 가져다주시오.》

박철우는 손에 감아쥐였던 신문을 탁우에 놓았다. 접대원이 주문한 차를 인차 가져왔다.

박철우는 차잔을 입가로 기울이며 주위를 살폈다.

(건너편의 한 사내가 이쪽을 보고있어. 빈 탁도 많은데 초면인듯한 사나이와 녀인이 마주앉아 차를 마신다고 이상해하는 눈치야. 어쩌면 날 호색한으로 보는 평범한 신사일지도 몰라.)

박철우는 녀인에게 물었다.

《오늘호 <동아일보>인가요?》

녀인이 대답했다.

《아니예요. 3일전 <문화일보>예요.》

《그럼 런던에서 진행된 아마츄어권투경기소식이 실렸겠군요.》

《뉴욕에서 진행된 프로롱구소식이 실렸어요.》

할 말을 다했다는듯 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을 때는 모르겠더니 일어서니 키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박철우는 차를 마저 마시며 건너편의 사내를 다시 보았다. 녀인이 자리를 뜨니 흥미가 사라진듯 시들한 표정이였다. 그 표정이 박철우의 긴장한 마음을 다소 안정시켜주었다.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접대원이 모자와 가방을 넘겨주며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하고 판에 박힌 인사를 했다.

박철우는 그 녀인이 밖에서 기다릴거라고 생각했다. 헌데 녀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고는 천천히 걸음을 뗐다. 어디로 갈지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다방앞에서 어슬렁거리면 뭇사람들의 의혹의 눈길을 끌수 있었다. 그래서 발길이 닿는대로 걷고있었다.

(접선이 실패하였는가? 무슨 리유로? 어째서일가?)

곰곰히 머리속으로 다방안에서의 정황을 되새겨보았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젊은 사나이의 눈길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문일가?)

그래도 이상했다. 접선암호는 제대로 교환했다. 그런데 돌연 녀인은 사라졌다.

(혹시 내가 어떤자에게 꼬리를 밟혔는가?)

십분 그랬을수 있다. 하다면 심중해야 한다.

박철우는 굽인돌이로 돌아섰다. 꼬리를 떼버리고 다음장소로 가야했던것이다. 일정은 무척 바쁘다. 한사람을 만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되여있었다.

21시에는 서울역앞의 약국에서 한정덕이 기다릴것이다. 물론 한정덕은 서울에서 만나게 될 대상이 박철우라는것을 모를것이다.

박철우는 서울에서 한정덕과 만난 다음 부부로 위장하여 행동하기로 되여있었다. 이것을 한정덕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 녀자는 마진의 유일한 녀성대표였다. 자기의 안해를 대신하여 한정덕은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있는것이였다. 그래서 박철우는 그의 신변안전에 특별히 관심했다.

박철우가 건늠길로 내려서려는데 누군가가 그의 팔에 매달리듯 잡

으며 탄성을 올렸다.

《아이, 선생님이시군요!》

박철우는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다. 다방에서 만났던 그 녀인이였다. 길손들이 곁을 지나가며 힐끗힐끗 곁눈질한다.

녀인은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고 묘하게 속삭였다.

《아는체를 좀 하죠.》

박철우는 곧 대꾸했다.

《아, 이게 누군가?!》

《계심이예요. 리계심.》

《그래, 리부인. 참 오래간만이군요. 남편은 잘 계십니까?》

《그럼요. 그이는 요즘 모피장사를 하느라고 바쁘답니다.》

녀인은 박철우의 귀에 대고 다시 속삭였다.

《공원으로 갑시다.》

공원안의 딱딱한 긴 의자에 나란히 앉은 녀인은 직방 물었다.

《선거명부를 가져오셨는가요?》

박철우는 고개를 저었다.

《명부는 여기로 올게 아니요. 난 서울의 <지도부>에서 왜 그 명부를 요구하는지 리유를 알수가 없소.》

녀인은 락심하여 종알거렸다.

《나도 모릅니다. 난 상급이 시키는대로 할뿐이예요. 아마 명부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느라고 그러겠지요.》

《그건 그들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부인의 생각인가요?》

《좋을대로 생각하세요.》

《그들이 또 뭘 지시했는가요?》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하더군요.》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난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마진에서는 김인혜라는 한 대표가 희생되여 다른 동무를 선출하다보니 선거사업이 지체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은 선거명부와 함께 24일 밤까지 무사히 해주에 도착하게 될거라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동안은 제가 길안내를 할가요?》

《아니, 사양하겠습니다.》

《혹 길을 잃거나 군경들의 검속에 걸려들기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요.》

박철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후날 상급의 지시를 묵살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진시인민들의 통일념원이 깃든 귀중한 선거명부를 함부로 넘겨줄수는 없다. 원래 선거명부는 대표들과 함께 해주로 가야 한다. 대표들이 해주에 도착하여 대표등록을 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줘서는 안되며 보겠다고 함부로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이미 단단히 강조가 있었던것이다.

박철우는 두그루의 백양나무사이를 지나며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녀인은 여전히 공원의자에 한자세로 앉아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아예 박철우쪽을 보지조차 않는것같았다.

박철우는 다소 마음을 놓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녀인이 앉아있는 의자옆으로 검은 그림자가 비꼈다. 녀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쌀쌀하게 지시했다.

《저자를 따라가! 눈치채지 않게!》

31

창파를 가르며 순찰정이 다가오고있었다.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갑판에 서있던 차기완은 한순간 자기가 항을 잘못 고르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생겼다. 인천항같이 크고 복잡한 항구보다 어쩌면 바다가의 조용하고 후미진 곳에 배를 대는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꼬장꼬장한 시골경찰들에게 단속되면 더욱 시끄럽고 아까운 시간을 랑비할수도 있었다. 그래서 차기완은 크고 복잡하고 드나드는 선박도 많은 이곳 인천항을 택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다. 설사 마진시경찰서에서 나를 의심하였다고 하여도 이곳까지 추적해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모른다. 경적필패라고 경찰들을 얕잡아보다가 크게 랑패를 볼지도 모른다. 불의의 정황에 대비해야 한다.

차기완은 안주머니에서 작은 암풀을 꺼내들었다. 유리로 된 투명한 암풀속에서 맑은 액체가 찰랑거렸다. 10여년전에 차기완이 어느한 암거

래상인에게서 몰래 구입한것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독립운동에 나선다는것은 사지판을 넘는 길이였다. 그 어떤 재부로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리고 애써 일떠세운 집안을 산산이 쪼각낼수도 있었다. 이미 독립전에 목숨바칠 각오를 하고 나섰던 차기완은 그 암풀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여겼었다. 그는 그것을 오래동안 간수하고있었다. …

차기완은 암풀을 조심스럽게 입안의 오른쪽끝으로 밀어넣었다.

이 암풀은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 아마도 이 암풀을 깨려면 억센 힘이나 뾰족한 이발보다도 죽음을 맞받아나가는 굳센 의지가 필요할것이다.

이미 목숨바칠 각오를 다지고나니 더이상 두려운게 없다는 평온이 잦아들었다.

차기완은 갑판으로 올라오는 경찰들에게 손을 태연스레 내밀었다.

앞선 경찰이 엉겁결에 그의 손을 맞잡고는 실책을 범했다는듯 얼굴을 찡그렸다.

《통행증을 봅시다.》

차기완은 침착하게 증명서와 통행증을 내밀었다.

경찰들은 그의 증명서며 통행증을 깐깐히 검열하고나서 물었다.

《통행증에는 남해의 소록도로 가는걸로 되여있는데 여기 인천에는 웬 일입니까?》

차기완이 대답했다.

《물론 소록도에 갔었지요. 헌데 거기로 한사람이 기별을 보내왔습디다. 빨리 만났으면 한다고요.》

《그럼 다시 통행증을 해가지고 왔어야지요.》

《글쎄요. 그 친구라면 통행증을 못가져와도 례외로 될줄 알았지요.》

《그가 대체 누굽니까?》

《이곳 세관장이라던지…》

《세관장?!》

세관장이라는 말에 대뜸 경찰들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차기완이 세관장의 이름까지 대자 경찰들은 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렸다.

이곳 세관장은 마진사람이였다. 한때 그는 총독부소속의 해양관리로

일한바 있었다. 미군이 강점한 후 그가 차기완을 찾아와 약차한 돈을 부탁하였다. 그는 차기완이 빌려준 돈으로 미군정에 뢰물을 찔러주고 년로한 몸이였지만 실무자라는 감투를 쓰고 이곳 세관장으로 될수 있었다.

차기완의 타산은 맞아떨어졌다. 경찰들은 대낮에 번거로운 인천항으로 보란듯이 들어오는 선박의 주인에게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리고 마진시장의 교문이라는 위엄있는 증명서도 은을 냈다.

《우리 사람을 하나 붙여드릴테니 세관소까지 동행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꼭 문건들을 구비해서 입항해야 합니다.》

《고맙소. 후날 마진시에 오면 나를 찾소. 내 후히 대접해드리리다.》

차기완이 사례하자 경찰들은 빙그레 웃기까지 했다.

《예, 그러지요. 좋은 려행을 하십시오.》

차기완은 이제 몇시간후이면 이곳이 발칵 뒤집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빠른 속도로 그를 추적해올것이다. 그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차기완이 경찰과 함께 세관소건물로 들어서는데 경찰들에게서 이미 련락을 받은듯 늙은 세관장이 두팔을 벌리고 마중나왔다.

《아, 이게 누군가.》

차기완은 그를 끌어안았다.

그가 말했다.

《자네가 인천항으로 들어온다는 기별을 받고…》

《잠간만.》 하고 차기완은 그의 말을 자르며 경찰을 돌아보았다.

《수고했네. 나랑 점심을 같이할 생각은 없나?》

그들의 인사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경찰은 당황하여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 빨리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쉽네만 할수 없군. 그러나 후날 다시 만났을 때는 사양하지 말게나.》

《감사합니다.》

세관장은 서둘러 돌아가는 경찰의 뒤모습을 보며 끊겼던 말을 이었다.

《자네가 인천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었네. 미리 연통이라도 하고 올게지. 그럼 내 마중나가지 않았으리. …》

차기완은 침착하게 말을 받았다.

《실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였었는데 자네가 보고싶더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못본지도 한 이태쯤 되였지?》

《그쯤 되지.》

세관장은 차기완을 안내하며 말했다.

《요즘 이곳 사람들은 무척 바쁘다네.》

《항으로 들어서면서 보니 확장공사를 무척 크게 벌려놓았더군.》

《미군어른들이 벌려놓았지.》

《큰 장사를 하려는게군.》

《쯧쯧, 자네 머리속은 온통 장사뿐인게군.》

《이 세상에 장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네. 정치라는것도 리치를 알고 보면 팔고사는것에 불과하네. 륜리학자들은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가르지만 난 적자, 흑자로 가른다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지.》

《자네 리속머리에 손들었네.》

《지금 속물적사고라고 욕하는건가?》

《아닐세. 이전에도 자네에게 큰 덕을 보았는데 내 오늘 한상 차리지.》

《미안하네만 사양하려네. 난 급히 볼일이 있으니까. 시간은 곧 황금이거던.》

잠시 말을 끊었던 차기완이 불쑥 생각난듯 부탁했다.

《참, 서류가방을 하나 빌려주게나.》

《빌리기나새나. 아예 가지라구.》

세관장은 서기가 들고나온 밤색의 멋진 가죽가방을 넘겨주며 말했다.

차기완은 품속에서 소록도에서 넘겨받은 문서들을 조심스레 꺼내였다. 세관장은 차기완이 그 문서들을 가방안으로 소중히 집어넣자 호기심이 나는지 물었다.

《그건 뭔가?》

차기완이 대꾸했다.

《별거 아니네. 거래장부들이지.》

《꽤 귀한 물건같은데?》

《장사치에게 거래문건이상 귀한게 또 있을라구.》

세관장은 그 입심에는 어쩔수 없다는듯 손사래를 치며 껄껄 웃었다.

세관소를 빠져나온 차기완은 곧장 철도역으로 향했다.

제 3 장

덫

32

무서운 여름밤은 그래도 짧았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민숙이는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며 사위를 가늠할수 있게 되자 길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새벽선기가 돌기 시작하는 늦여름인지라 밤새 아기포단이 눅눅해졌다.

(한지에서 밤을 새였는데 혹시 예곤이가 탈을 만나지 않았을가?)

민숙이는 은근히 걱정하며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대보았다. 다행히 열감은 없다. 예곤이는 눈을 감고 고르로운 숨소리를 냈다. 둘쳐업는데도 굳잠에서 깨나지 않았다.

(해가 떠오르면 대기는 곧 더워질거야.)

이른새벽부터 짝을 찾는 산비둘기 한마리가 어느 골짜기에서인가 열심히 울고있다. 풀벌레가 찌르륵거리는 소리, 매미들이 매암매암 우는 소리가 귀따갑게 들렸다.

맑은 물이 도란도란 흘러내리는 개울을 따라 우둘투둘한 바위들이 검누렇게 드러난 고개가 올려다보였다.

민숙이는 가쁜숨을 헐떡거리며 급히 고개길을 톺아올랐다. 무너미고개를 무사히 넘어 서울시내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있었다.

서울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마진에 비해 인가가 몇십배가 넘는 곳이여서인지 거리에 나온 사람도 무척 많았다.

경찰들의 단속을 가능한껏 피해야 하는 민숙이에게는 호젓한 곳보다는 사람멀미가 날것같은 혼잡한 거리가 더 편했다.

민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접선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애들은 오빠네 집으로 갔을것

이다.)

오빠네 집쪽으로 몇걸음 옮기려던 민숙이는 곧 멈춰섰다.

황병두는 역전에 민숙이를 잡으려고 경찰들이 나타날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경찰들이 왜 자기를 붙들려 하는지는 알수 없다. 무슨 기미를 챘던지 아니면 어떤 단서를 쥐였거나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했을수도 있다. 그런데 역전에서 헛물을 켠 경찰들이 자기를 마중나왔을 오빠내외를 고스란히 놔주지는 않았을것이다.

물론 오빠내외는 민숙이가 친정집으로 나들이온다는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경찰서로 끌려갔었다 해도 몇가지 조사나 받고 인차 풀려나왔을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오빠네 집으로 곧장 가는것은 좋은 발상이 못된다. 어쩌면 그곳에는 골목골목마다 밀정들이 숨어 시시각각으로 감시를 하고있을수 있다. 이런 대낮에 뻐젓이 오빠네 집으로 찾아가는것은 호박쓰고 돼지굴로 들어가는 어리석은짓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후회는 언제나 늦다.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수 없는 일생의 후회로 남을지도 모른다.

민숙이는 애들을 만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차기완이 준 임무를 수행한 다음 오빠네 집으로 갈 결심을 내렸다. 등뒤에서 예곤이가 잠에서 깨여난듯 칭얼거렸다.

등에 업은 아이를 추어올리며 민숙이는 앞으로의 일을 따져보았다. 경찰들이 이미 자기를 찾기 시작했다면 모든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남편이 언제인가 나에게 말했었지. 나는 애들밖에 모른다고… 녀성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 무엇에 비길수 없이 귀중한 보배다. 헌데 앞으로 나의 귀중한 보배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옹노로, 유혹으로 될수도 있다. 명부를 전할 때까지 나는 방심할 권리가 없다. 어떤 유혹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명부를 위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숭고한 령혼들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있다.)

민숙이는 좌우를 돌아보았다. 길건너 전차정류소옆에 우체국이 있었다.

차기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거리의 한 주소를 알려주었다. 서울에서 머무를 곳을 찾게 되는 경우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서판서댁을 찾아가라고 하였었다.

차기완이 대준 번호로 전화를 거니 마침 그 집주인이 받았다. 그의 반기는 소리를 들으며 민숙이는 마음을 조금 놓았다.

우체국에서 나온 민숙이는 곧장 전당포를 찾아갔다.

전당포주인은 얼룩지고 구겨진 치마저고리를 입고 갓난애를 업은채로 들어서는 민숙이에게 시답지 않게 물었다.

《무엇을 저당잡히려오?》

민숙이는 왼손무명지에서 결혼반지를 뽑았다. 이미 결심을 단단히 하였지만 반지를 내미는 손은 바르르 떨렸다.

그 반지는 차상준이 직접 끼워준이래 한번도 뽑은적이 없는 소중한 것이였다. 값도 비싼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변치 않을 사랑의 증표라는것이다.

민숙이는 결혼반지를 살피는 전당포주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몹시도 불쾌했다. 그 리기적이고 타산적인 시선은 마치도 민숙이와 차상준의 사랑의 무게를 가늠해보며 자기에게 돌아올 리득을 세고있는것같았다.

(이겨내야 해. 이미 각오하지 않았는가!)

민숙이는 이렇게 속다짐하며 태연하게 전당포주인을 응시했다.

마침내 전당포주인이 값을 불렀다. 어처구니없는 가격이였다. 그러나 시끄러운 흥정으로 귀중한 시간을 랑비할수가 없었다.

민숙이는 마지못해 수긍하면서도 경고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반드시 찾으러 오겠어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거나 딴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른아침부터 웬 떡이냐 하고 급히 홍보석반지를 서랍안에 감추려던 전당포주인은 불에 덴듯이 놀랐다. 파산몰락하여 새벽부터 빚쟁이의 단련을 받는 어리숙한 녀인인줄 알았는데 말속에 뼈가 있고 위엄이 서렸다.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든 전당포주인은 고개를 공손히 끄덕거렸다. 그리고는 문밖으로 나가는 녀인의 뒤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입이 헤벌쭉해졌다.

민숙이는 전당포주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새옷과 예곤이의 기저귀며 간단한 아기용품들을 샀다. 마진에서 넉넉하게 준비하여 떠난 아기용품들은 모두 렬차에 실려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떠났다는 부자집 며느리가 얼룩진 옷에 마른 기저귀 한장 없이 나타난다면 분명코 의심을 살것이다.

상점의 벽거울에 비쳐보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은 민숙이는 전차를 타고 종로구로 향했다.

서판서라는 명칭은 아마 조선봉건왕조시대의 어느 선조가 가지고있던 벼슬인듯싶은데 명륜동의 주민들속에서는 그렇게 통용되는것같았다.

종로구에서 내린 민숙이의 눈앞에 문득 푸른 숲에 하얀 바위들이 수려하게 바라보이는 북악산이 나타났다.

솔숲이 우거진 산중에 자리잡은 푸른 정각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취운정이구나.)

민숙이는 오래도록 취운정을 바라보다가 북악산으로 걸음을 뗐다. …

다시 북악산을 내려 명륜동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한낮이 다되였다.

민숙이는 그곳 주민으로 여겨지는 녀인에게 물었다.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물읍시다. 여기 서판서댁이 어딘가요?》

그 녀인은 뒤쪽으로 몸을 돌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서판서댁은 거리 한가운데 있는 그리 크지 않은 2층집이였다.

청기와를 씌운 대문앞에 다가간 민숙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왼손으로 누르며 문을 두드렸다.

대문안에서 타박타박 잔걸음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삐걱 열렸다. 열댓살 나보이는 어린 처녀애가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다. 차림새로 보아 아마도 이 집의 심부름군인 모양이다.

《얘야, 여기가 서판서댁이냐?》

처녀애는 고개를 까딱거렸다.

《주인님 계시냐?》

《예.》

《마진에서 사는 차씨댁 둘째며느리가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알려주렴.》

처녀애는 대문안으로 사라졌다.

민숙이는 주위를 두루 살피였다. 지팽이를 짚은 늙은 할머니가 마른기침을 깊으며 마주오고있었다. 오른쪽골목길은 아마도 주택들로 막히고 왼쪽길만이 거리로 향한것같았다.

처녀애는 인차 되돌아나왔다. 그애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들어오시래요.》

민숙이는 예곤이를 추겨업으며 대문안으로 들어갔다.

뜨락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다. 봉선화며 접시꽃, 백일홍, 붉은장미 등이 곱게 피여있었다. 알락달락한 색조화로 화단을 장식한것만 보아도 이 집주인들의 아기자기한 가정살림의 일면이 엿보였다.

민숙이는 집안으로 들어서며 처녀애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분이예요.》

《이름이 곱구나.》

처녀애는 덧이를 살짝 내보이며 귀엽게 웃었다. 그애는 민숙이를 2층으로 안내하였다.

나무계단을 밟으며 오를 때 쐐기가 빠졌는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숙이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높뛰였다.

분이가 안내한 곳은 서재였다. 천정에 닿도록 높고 큰 책장이 있었는데 그안에는 두툼한 도서들이 꽉 차있는것같았다.

책상에 앉아있던 40대중년의 사나이가 일어서며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마주 걸어왔다.

《신문사에 보낼 급한 원고를 마무리하느라 마중나가지 못했습니다. 한양일보사 편집장 서칠수라고 합니다.》

책상우에는 두툼한 원고들이 무지로 쌓여있었다.

민숙이는 그가 대문앞까지 마주나오며 생색을 보였다면 오히려 경계했을지도 모른다. 빗지 않아 흐트러진 머리며 잉크가 배인 그의 손이 긴장했던 마음을 약간 안정시켜주는듯했다.

민숙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시아버님이 서울에 도착하면 꼭 들려보라고 하기에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에 오실수 있다는 전화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예?!》

민숙이는 놀라며 물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서칠수가 말했다.

《나흘전이였습니다.》

혹시 렬차에서 겪은 일을 알고 전화를 하였는가 하여 은근히 기대하였던 민숙이는 다소 실망했다.

서칠수는 원고를 모으며 말을 계속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는 길에 서울을 거치게 되는데 시간이 나면 들려보라고 했다더군요. 며느리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던데요. 하긴 조선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는 장모 사위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며느리라고… 뭐, 려관이나 호텔을 찾을게 있습니까. 이곳에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편하게 묵으십시오. 방은 이미 마련해놓았습니다. 해빛도 잘 들고 거리 반대켠에 있어서 조용하고…》

등뒤에서 치마자락이 마루에 쓸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마침이요.》 하며 서칠수는 비단저고리를 입은 녀인을 민숙이에게 소개했다.

《제 처 손설송입니다. 여보, 인사드리오. 예전에 내가 이야기한 마진 차회장댁 며느리요. 그리고 동쪽방을 비워놓았으니 그곳으로 좀 안내해주오.》

안주인은 이미 민숙이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듯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다. 귀염성스러운 갸름한 얼굴에 눈빛이 맑은게 마음씨가 무척 무던해보였다.

그때 등에 업은 예곤이가 사람들의 말소리에 깨여나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민숙이는 당황하여 아기를 두드려주며 둥개둥개 추어주었다.

서칠수는 민숙이에게 다가와 아기의 볼을 다독이며 말했다.

《그녀석, 참 잘났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요.》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난 급히 신문사로 나가봐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지요.》

손설송이 직접 안내한 방은 아담하고 아늑했다. 외지에서 온 문인들이 자주 들던 방이였는지 구석에 밀어놓은 앉은뱅이책상우에는 펜과 붓, 먹과 벼루 등의 문방구가 놓여있었다.

손설송이 말했다.

《피곤하시겠어요. 인차 점심을 차리겠으니 그후에 좀 쉬세요.》

그제서야 민숙이는 자기가 엊저녁부터 굶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너

무 긴장하던 나머지 배고픔마저 잊었었는데 점심소리를 하니 위가 경련하듯 꿈틀거리고 허기증에 머리가 핑 돌았다.

손설송이 나간 후 민숙이는 급히 예곤이를 눕혔다. 아닐세라 기저귀가 화락하니 젖었다. 서둘러 마른 기저귀로 교체하는데 문기척이 났다.

안주인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예전에 우리 맏딸이 쓰던건데 필요할지 몰라 가져왔어요.》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바구니안에는 한번도 쓴것같지 않은 깨끗한 기저귀며 아기적삼, 말큰한 꼭지가 달린 애기젖병까지 들어있었다. 그들 내외의 다심한 인정미가 느껴졌다.

《감사해요. 그러지 않아도 아기용품들을 너무 간단히 가지고 떠나모자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어요.》

손설송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분이에게 목욕물을 덥혀놓으라고 일렀어요. 좀 있다가 내려오세요.》

그제서야 민숙이는 바구니 한쪽에 놓인 레스가 달린 엷은 실내복도 일별했다. 한마디 부탁한것도 없는데 스스로 짐작하고 위해주는 그 성의가 정말 고마왔다.

그래도 민숙이는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을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비록 이곳이 안전하다고 소개하였지만 과연 마진과 천리나 떨어진 이곳에서 어제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예상할수가 없었다.

민숙이는 창문앞으로 다가섰다. 창문은 덧창까지 든든하게 닫겨있어 출구는 방문밖에 없다. 비상시 몸을 숨길 곳이라고는 침구와 옷을 넣는 벽장뿐이다.

(과연 이곳이 안전할가?)

민숙이는 기회를 보아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만약의 경우 내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현재 선거명부의 위치는 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지 않는가!)

모든 경우를 타산해보아야 한다. 그는 뜻하지 않게 렬차에서 내려섰다. 지금은 무사히 서울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서판서댁의 주소를 알려준것은 불가피한 경우 머물 곳을 마련해준것이다. 이제 접선에서 실패하고 이곳으로 되돌아올수도 없

게 되는 경우에도 선거명부를 감춘 장소를 어떻게 알려줄수 있겠는지 방도를 생각해내야 한다.

한동안 골똘히 생각을 모으던 민숙이는 마침내 수첩만한 크기의 종이를 한장 펼쳤다.

종이 웃쪽에는 뾰족지붕의 정각을 그리고 그밑에 큰북과 세개의 바위를 그렸다. 가운데바위아래에 한송이의 국화를 새겨놓았다.

민숙이는 놓친것이 없는지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그림으로 설명할수밖에 없었다.

정각, 북, 세개의 바위, 국화… 바위는 《메부리악》이라는 한자를 의미했고 세개 바위는 수자 3이니 그림을 우리 글로 풀이하면 북악산으로 전해질수 있다. 정각은 취운정을 가리킨다. 국화는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도 되니 즉 북악산 취운정아래 바위밑에 선거명부가 감춰져있다는 뜻으로 전해지기를 바랄뿐이다. 너무나 주관적인 궁여지책으로 여겨졌으나 별다른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은 민숙이를 재촉하며 한초한초 흐르고있다.

민숙이는 그 그림쪽지를 아기포단속에 감추고 바늘로 촘촘히 기웠다.

차기완은 민숙이가 명부를 아기포단속에 감추고 길을 떠난 사실을 이미 안다. 그리고 일이 생기면 서판서댁에 머물라고 권고한것도 그였다. 하기에 만일의 경우 민숙이가 경찰들에게 붙잡힌다고 해도 그는 이곳에서 그림쪽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민숙이는 아기포단으로 예곤이를 꽁꽁 감싸주고 정성스레 다독이고나서 방을 나섰다. 아래층의 전실로 내려온 그는 안주인에게 말했다.

《잠시 다녀올데가 있는데 그동안 애를 맡길수 있을가요?》

《예.》

안주인은 쾌히 대답하며 덧붙였다.

《점심식사가 곧 준비되니 인차 돌아오세요.》

《미안해요. 아무래도 점심때까지 돌아올것같지 못하군요.》

《그럼 점심식사는…》

《밖에서 먹겠습니다.》

《늦어지는가보군요.》

《아마 저녁무렵에나 돌아올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웠다. 그가 웃을 때는 오른쪽볼에 귀여운 볼우물이 살짝 패였다.

그때 선잠에 들었던 예곤이가 꿈을 꾸다 놀랐는지 앙— 하고 울어댔다.

민숙이는 가슴이 철렁하여 계단을 향해 몇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섰다.

《정말 바빠서 그러는데…》

민숙이는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 말을 채 맺지도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주인이 그의 심중을 리해하고 덧붙였다.

《애는 내가 돌볼테니 어서 일을 보고 오세요.》

그리고는 급히 계단을 밟으며 올라갔다.

민숙이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문을 나섰다.

(예곤아, 엄마는 인차 돌아온다. 제발 몇시간만 참아다오.)

33

무더운 한여름이라 담을 따라 뻗어오른 담쟁이덩굴도 여간 무성하지 않았다. 그 덩굴속에 몸을 숨긴 황병두는 숨을 죽인채 앞을 살폈다.

골목길에는 두 사내가 있었다. 머리를 바싹 올려깎은 상고머리가 대문앞에 바투 다가서서 안의 동정을 엿보고있었다. 누런 반팔샤쯔를 입은 사내는 건달처럼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휘파람을 불면서 좌우를 둘러보았다.

이미 예견하였던대로 민숙이의 오빠인 민영협의 집은 감시를 받고 있었다.

황병두는 초조하여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른아침부터 관악산어구에서 민숙이를 기다렸었다.

삼성산근처에서 내렸으니 관악산을 거쳐 서울로 들어올것은 분명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산을 내렸는지 날이 밝을 때까지 관악산어구를 헤매였으나 황병두는 민숙이를 찾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는 만일 민숙이가 이전에 관악산에 왔던적이 있다면 다른 지름길로 서울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혹시나 하여 황병두는 한정덕과 민숙이의 두 딸이 머물고있는 민영협의 집을 찾아왔던것이다.

한낮의 태양은 머리우에서 뜨거운 열풍을 확확 내뿜고있었다.

황병두는 속이 상했다. 그때 민숙이와 함께 렬차에서 내렸어도 일이 이렇게 번져지지는 않았을것이다. 차안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본다는것이 만회할수 없는 후회로 되였다.

대문가에 붙어섰던 녀석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반팔샤쯔의 팔을 끼고 걸으며 수군덕거리는 흉내를 냈다.

대문이 삐궁 열리더니 한정덕과 민영협이 나란히 나오고있었다. 문앞에서 그들은 서로 보며 마주섰다.

《역장과 파출소장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민영협이 말하였다.

《아무래도 시댁에 알려서 아버님의 방조를 청해야 할것같습니다.》 하고 한정덕이 대꾸하였다.

덩굴속에 온몸을 감춘채 황병두는 생각했다.

(역시 형수님은 이곳에도 오지 않은 모양이구나.)

민숙이가 딸들이 머무르는 오빠네 집을 찾아오지 않은 경우는 두가지로 꼽을수 있다. 하나는 이미 이곳에 감시가 붙었다는것을 미리 눈치채고 다른 곳에 거처를 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다치거나 길을 잃어 아직까지도 관악산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이다.

황병두는 그 첫번째 경우이기를, 민숙이가 부디 무사하기를 내심 바랐다. 그가 다시 머리를 조금 내밀고 밖을 보니 민영협과 한정덕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갈라져 가고있었다.

문틈으로 안을 살피였던 상고머리가 민영협의 뒤를 쫓고 누런 반팔샤쯔를 입은자는 한정덕을 따르고있었다. 헌데 민영협도 한정덕도 자기들에게 미행이 붙은줄은 전혀 모르는것같았다.

황병두는 다시 주위를 살피고나서 반팔샤쯔의 뒤를 몰래 쫓았다.

(미행이 붙었다는걸 어떻게 알려준담.)

황병두는 속이 탔다. 한정덕은 여전히 아무런 눈치도 못챈것같았다.

그 녀자는 우체국에 들어가 장거리전화를 하고있다. 시어머니에게

민숙이에게서 혹시 무슨 소식이 없었는가를 묻는 한정덕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다. 이어 한정덕은 민숙이의 행방을 찾아보자니 며칠간 서울에 머무르게 될것같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우체국을 나선 한정덕은 서울로 들어오는 산길에서 민숙이를 찾을 심산인지 관악산방향으로 가고있었다. 그런데 거동이 좀 이상했다.

때로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길을 묻기도 하고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되돌아나올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반팔샤쯔는 몸을 숨기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황병두 역시 재빨리 몸을 사려야 했다.

그는 생각했다.

(다행히 미행이 있다는걸 눈치챈 모양이구나.)

나중에 한정덕은 길 한복판에 있는 큰 상점으로 들어갔다. 《만영백화점》이라고 쓴 커다란 현판이 문우에 걸려있었다. 문앞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게 붉은색으로 《대폭인하》라고 쓴 광고판을 내걸었다.

황병두는 반팔샤쯔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상점은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매대가 퍼그나 길게 늘어져있었다. 상품을 인하한탓인지 손님들로 꽤 붐비였다. 대개 치마를 두른 녀인들이였다.

남자손님은 불과 몇 안되는데다 그들은 담배매대나 공구매대같은 곳에 모여있을뿐이였다.

한정덕은 비단필을 늘여놓은 천매대를 지나 화장품매대로 가고있었다. 그는 늘씬한편이여서 먼발치에서도 알아볼수 있었다.

담배매대로 다가선 반팔샤쯔는 담배곽들을 여러개 들고 고르는 흉내를 내고있었다. 아마 한정덕을 따라 화장품매대앞에까지 갔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것같았던 모양이다.

《손님, 포장하랍니까?》 하고 판매원이 묻고있었다.

그때 화장품매대끝에서 한정덕이 사라졌다. 반팔샤쯔가 급히 사람들을 헤치며 화장품매대로 갔다.

황병두는 그뒤를 따랐다.

화장품매대에 이어 옷매대가 있고 그 다음은 주방도구들을 진렬한 부엌세간매대로 이어졌다. 헌데 그끝에 놀랍게도 작은 나들문이 있었다.

황병두가 나들문을 미니 쉽게 열렸다. 그 문은 뒤골목으로 나있

었다.

황병두가 인차 따라나오는것을 감때사납게 흡떠보고난 반팔샤쯔는 손달구지에 앉아 마라초를 피우는 늙은이에게 소리쳐 물었다.

《령감, 방금 이곳으로 웬 녀인이 나갔지?》

로인은 주름이 깊숙이 패인 청동빛얼굴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무도 나간 녀인이 없수다.》

《거짓말말아!》

황병두는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그 골목길은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

황병두가 그들의 대화에 끼여들었다.

《아버님, 이 길이 큰길로 통했습니까?》

《아니요. 장으로 가우다.》

《난 또 큰길로 가는줄 알았군.》

황병두는 반팔샤쯔가 들으라고 크게 두덜거리며 문쪽으로 돌아섰다. 등뒤에서 반팔샤쯔는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따져묻고있다.

《정말 이곳으로 나간 녀인이 없어?》

로인도 짜증을 냈다.

《못보았다니까.》

《이 령감태기, 경찰서 철창맛을 봐야 정신들겠어? 똑바로 말해! 금방 이곳으로 나간 녀인을 네가 숨겼지?》

황병두는 반팔샤쯔를 그냥 놔두고 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를 띄여본 판매원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곳으로 드나들면 안됩니다.》

그는 나들문에 쇠를 채웠다.

황병두는 다시 사람들을 살펴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한정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정덕이 미행을 떼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솜씨가 보통 아닌데.) 하고 감탄하면서도 혹시나 하여 상점문어구에서 한참이나 서성거리였으나 한정덕의 모습은 끝내 찾을수 없었다.

웃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본 황병두는 황망히 전차를 타고 서울시내를 빠져나왔다.

서울역앞에서의 1차접선에서 실패한 민숙이는 북한산의 옛성터에서 2차접선을 하게 되여있었고 황병두는 그를 비밀리에 보좌할 임무를 받

았었다.

그런데 미행을 당하는 한정덕을 제잡담 도우려다가 그 접선시간보다 퍽 늦었다.

(제발 형수님에게 다른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고 속으로 빌며 황병두는 북한산기슭의 오솔길로 급히 올라갔다.

만일 이곳에도 민숙이가 오지 못하면 황병두는 관악산의 골짜기를 모두 훑어서라도 반드시 그의 행처를 찾아야만 했다.

급히 걷던 황병두는 앞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나무뒤로 몸을 숨겼다.

민숙이가 산길을 맥없이 내려오고있었다. 놀랍게도 그뒤로 박철우의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반색을 하며 한걸음 나서려던 황병두의 얼굴은 그만 굳어졌다.

박철우와 민숙이의 뒤로 낯선 사내와 녀인이 권총을 꼬나들고 위협하며 따라오고있었던것이다.

다시 수풀속에 몸을 깊숙이 숨긴 황병두는 권총을 뽑아 격발기를 당겼다.

(저들이 내앞을 지나갈 때 사내녀석의 뒤통수를 까고 녀인을 제압할수 있을것이다.)

될수록 총성을 울리지 말아야 한다.

저자들은 황병두가 숨어있는줄을 전혀 짐작하지도 못할테니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헌데 뜻밖에도 일행은 몇걸음앞에서 옆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에는 허줄한 목조건물이 있었는데 그안에서 네명의 사내가 또 나왔다. 대체 얼마만한 머리수가 더 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황병두는 하는수없이 총을 내리웠다.

(침착하자. 기회를 보다가 단숨에 제압해야 한다.)

황병두는 풀숲에 엎드린채 긴장한 눈초리로 앞을 살피였다.

(대체 어떤 놈들일가? 경찰들이라면 왜 곧장 마을로 내려가지 않는걸가? 과연 형수님과 철우동지가 로출되였단 말인가?)

34

…아늑한 오솔길이였다.

민숙이는 수북이 깔린 누런 솔잎들과 삭정이들을 밟으며 북한산을 오르고있었다.

북악산이 서울시내에 있는 야산이라면 북한산은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에 있는 800여메터의 높은 산이다. 북한산은 봉건왕조시기의 산성과 사찰을 비롯하여 수려한 자연미와 오랜 력사를 가진 고적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유명한 곳이였다.

민숙이는 책보에 싼 납죽한 물건을 꼭 쥐고 옛성터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갔다. 길을 가다가는 잠시 멈춰서서 풍치를 살피고 명주수건을 꺼내여 땀도 닦았다.

이따금 땀방울에 씻긴 화장자리를 고치려는듯이 작은 분첩과 손거울을 들고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슬쩍 뒤쪽을 비쳐보았다.

쪽빛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이고 사지가 나른하도록 화창한 날씨였다. 수림속에서 커다란 솔방울같은 한쌍의 청서가 긴 꼬리를 쳐들고 호드득호드득 뛰여다녔다. 짝을 잃은듯 한마리의 산비둘기가 슬피 울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숙이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삭정이가 발에 밟히며 딱딱 소리를 내여도 심장이 화들짝 높뛰였다.

약속된 장소가 가까와올수록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다.

민숙이는 살금살금 성벽사이로 난 작은 문어구로 다가갔다.

(누군가가 있다.)

민숙이는 신선한 숲속공기와 류별나는 진한 니코틴냄새를 맡았다. 마디풀이 돋아난 포석우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이윽고 중절모를 눌러쓰고 바위우에 앉은 사나이의 뒤모습이 보였다.

(접선자일가?)

아직은 알수가 없다. 아무 상관도 없는 등산객일수도 있다.

민숙이는 주위를 다시 살펴보았다.

흙먼지가 오른 성벽에 구붓하게 휜 장송이 큰 그림자를 그렸다.

고요한 산속으로 바람이 지나며 나무들이 솨하고 설레인다.

성벽우에서 바싹 마른 깃털 하나가 바람에 날아올랐다가 한들한들 떨어져내렸다.

민숙이는 가슴을 조이며 사나이에게로 접근했다.

《미안하지만 길을 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민숙이는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사나이가 뒤로 돌아보았다. 무도수안경을 끼고있었는데 안경안의 눈동자가 커졌다.

민숙이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아니, 선생님이?!》

박철우도 민숙이를 알아보고는 얼떠름한 표정이였다.

《아주머니가 여길 어떻게?》

반색을 하던 민숙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차기완의 경고가 머리속을 번개처럼 스쳤다. 그는 만일 남편 차상준이라도, 아니 시아버지인 자기가 접선장소에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암호를 교환해야만 접선에 응하라고 하였었다.

(침착하자, 한순간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

민숙이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사색을 방해했는가보군요.》

《괜찮습니다.》

박철우는 담배불을 끄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불쑥 산속에 나타난 그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민숙이는 심장이 쿵쿵 높뛰였다.

《전 도봉구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실수 없겠습니까?》

박철우는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부인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온 길로 되돌아 내려가시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십시오. 두갈래의 길이 나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도봉구 4번지이고 왼쪽으로 가면 3번지입니다.》

《전 7번지로 가야 합니다.》

박철우는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안경알을 닦았다. 해빛에 안경알을 비쳐보다가는 다시 입김을 호 불며 깐깐히 닦고있었다.

민숙이는 책보에 싼 물건을 앞에 모아쥐고 그를 마주보았다.

잠시후 박철우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부인은 친정이 있는 남이섬으로 가는줄로 알았는데요?》

4,3,7이라는 첫 암호는 맞는다. 그러나 북한산에서 접선하려면 3중 암호를 맞추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민숙이는 강원도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친정으로 가던 길이였습니다. 이곳에 오니 부모님들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래 도봉구에 들려 일을 보고는 곧장 남이섬으로 가렵니다.》

《남이섬에 남이장군의 묘가 있다지요?》

박철우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남이장군을 생각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그의 한시입니다. <남아이십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라고 하였던가요?》

《첫운을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라고 떼지요.》

민숙이는 불쑥 한걸음 물러서며 무릎을 굽혔다.

그는 발밑에서 작은 돌을 주었다. 그리고 허리를 펴며 말했다.

《발밑에 이런게 떨어져있습니다.》

민숙이의 손바닥에는 금방 주어든 돌대신에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쓰이던 《상평통보》라는 엽전이 놓여있었다. 그나마도 절반 짜개진것이였다.

엽전을 받아든 박철우의 얼굴에 그제야 미소가 실렸다.

《수건을 꺼낼 때 떨구었나 봅니다.》

박철우는 왼손바닥을 펼치고 그우에 자기에게 있던 다른 엽전쪼각과 짝을 맞추어놓았다.

《선생님!》

민숙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시울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다. 결국 접선자는 다름아닌 박철우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명부를 그냥 가져오는건데…) 하고 민숙이는 후회했다.

위험천만한 길을 왔는데 결국 빈손인걸 알면 그가 노할것같았다.

박철우는 탄복하여 말했다.

《차회장님이 믿음직한 동지를 보낸다고 하기에 누군가 했더니… 정인이 어머니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숙이는 부끄러웠다. 그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버님이 전하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였습니다.》

《헌데…》

민숙이는 주눅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렬차를 타고오면서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믿음직한 곳에 감춰두고 왔습니다.》

《그래요?!…》

박철우는 의아하여 민숙이의 손에 들린 책보에 싼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민숙이는 고개를 저어 아니라는 시늉을 하였다.

박철우는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표정이였으나 인차 민숙이의 기운을 북돋아주려는듯 칭찬을 했다.

《신중하게 잘 처신하셨습니다.》

민숙이가 물었다.

《어떻게 넘겨드리면 좋을지?…》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박철우는 걸걸한 어조로 시원시원하게 말하였으나 민숙이는 응할수가 없었다. 자기가 맡았던 임무를 이렇게 중도반단할수는 없었다.

민숙이는 말했다.

《그 장소는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꼭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박철우는 만류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자식들에게 가보십시오.》

박철우의 말은 민숙이의 가장 예민한 곳을 정통으로 찔렀다.

한순간 민숙이의 마음도 흔들렸다.

철부지 두 애는 오빠네 집에, 갓난애는 남의 집에 뿔뿔이 맡겨두고있다. 이제라도 박철우에게 모두 떠맡기고 무거운 짐을 훌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였다.

(무슨 죄될 생각을…) 하고 민숙이는 인차 자신을 무섭게 질책하며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바로잡았다.

(위험하기는 박선생이나 나나 다 같지 않은가. 오히려 박선생은 더 위험하다. 그는 수배명단에 오른 대상이다. 비록 마진은 아니라고 해도 이곳에는 경찰들과 밀정들이 더 씨글씨글하다. 그리고 취운정아래에서 바위를 찾아헤매는 낯선 사내의 모습은 더 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헌데도 내가 맡았던 임무를 무책임하게 중도에서 떠넘겨버리려고 하다니… 만일 이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난 평생을 두고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것이다.)

《선생님.》 하고 민숙이는 강경하게 말했다.

《절 다시한번 믿어주십시오.》

박철우는 놀라며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머니를 못믿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민숙이의 표정에서 맡은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굳은 결심을 읽은듯 어조를 바꾸었다.

《고맙습니다. … 그럼 20시반경에 서울역주차장으로 인력거를 타고 오실수 있겠습니까?》

《꼭 가겠습니다.》

박철우는 믿음이 가득 실린 시선으로 민숙이를 쳐다보다가 시계를 보고나서 말했다.

《제가 먼저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천천히 뒤따라 내려오십시오.》

박철우는 제 먼저 걸음을 뗐다.

비탈면을 따라 골짜기로 뻗은 오솔길은 무성한 참나무숲의 한가운데로 뻗어있었다.

박철우는 절벽아래로 난 오솔길을 따라걸으며 생각했다.

(얼마나 결곡한 녀인인가! 남편은 대표들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 위험한 바다길에 올랐는데 그 안해마저 동지를 위해 위험천만한 길을 자진하여 떠날 결심을 하였다. 정말 쉽지 않은 가정이다. 이런 녀성, 이런 동지들은 모두 금수레에 태워 떠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시적감흥에 사로잡혀 탄복하던 나머지 박철우는 그만 앞을 주의깊게 살피는것을 잊었다.

커다란 참나무그늘에 덮인 숲속의 오솔길에서 박철우는 하마트면 뒤걸음치는 웬 녀인과 부딪칠번하였다.

녀인도 무척 놀랬는지 악 소리를 치며 물러섰다가는 무작정 박철우

의 소매에 매달린다.

《아이 선생님.》

뜻밖에도 공원에서 헤여졌던 리계심이라는 체소한 녀인이였다.

녀인은 마치 오랜 지기를 만난것처럼 반기였으나 박철우는 호들갑을 떠는 그 모습이 왜서인지 지겨웠다.

《예까지 무슨 일입니까?》

박철우는 얼굴을 찡그렸다.

녀인은 빠른 말씨로 대답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에게 전하라는 지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걸 전달하지 못해 얼마나 속이 탔게요.》

(그럼 지금껏 나를 따라온것인가? 내가 대체 무슨 실수를?)

박철우는 속을 바싹 조였다.

《무슨 지시입니까?》

《그 지시가 뭐냐 하면…》

갑자기 녀인은 말을 끊었다. 그의 표정이 돌연 싸늘해졌다. 독기가 어린 눈길은 박철우의 어깨너머를 쏘아보고있었다.

박철우는 얼결에 뒤를 돌아보았다.

민숙이가 눈을 크게 뜨고 굳어져있었다. 그는 박철우와 그 녀인을 번갈아 보더니 뒤로 물러났다.

민숙이의 입술사이로 비명같은 소리가 새나왔다.

《다나까 야스꼬?!》

박철우가 다시 녀인에게로 눈길을 돌렸을 때는 이미 녀인의 작은 손에 들린 소형권총이 그의 가슴을 곧바로 겨누었다.

《꼼짝말앗!》

그때 숲에서 와슬렁거리며 한 사나이가 곰처럼 뛰여나왔다. 그 사나이는 민숙이의 등을 쿡 찌르며 역시 권총을 겨누었다.

(적이다!)

박철우는 자기가 큰 실책을 범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후회는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

35

한강변에 위치한 그곳은 사람들이 드물게 다니는 후미진 곳이였다. 그곳에는 밑둥이 거멓게 썩어가는 구새먹은 버드나무가 한그루 있었고 그아래에 긴의자가 놓여있었다.

의자는 등받이를 서로 마주대여 앞뒤로 앉을수 있는, 의자를 고정한 틀에 푸른 이끼가 가득 돋은 아주 오래된 나무의자였다.

언제 도색을 하였던지 겉이 터갈라지고 퇴색한 낡은 의자에 앉은 재클린은 고색이 짙은 호박물주리를 물고 해볕이 잔물결에 부서지는 한강의 한복판을 점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등뒤의 의자에 누군가 앉는 기척과 함께 헛기침소리가 한번 들리더니 인차 인사말이 따랐다.

《안녕하십니까, 재클린각하.》

재클린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채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오? <검은비수>!》

재클린은 말했다.

《아주 정확하구만.》

사나이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옷깃을 세운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있었다.

서쪽으로 약간 기운 한낮의 태양은 길고 호리호리한 사나이의 그림자를 동쪽으로 납죽하게 그려놓았다.

사나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엄수가 생명담보이지요.》

재클린은 시무룩이 미소했다.

(애젊은 목소리! 처음 저 소리를 들었을 때 어른흉내를 내는 청소년인줄로 착각하였었지.)

이제는 재클린도 그에 대하여 아주 상세히 알고있다. 그런데도 그는 재클린앞에 나설 때도 반드시 여러 모습으로 품들여 변장을 하군 했다. 자기를 위장하는데서 사소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단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욱 신임하게 되는것인지 모른다.

재클린은 물었다.

《그곳의 일은 잘돼가오?》

사나이는 말했다.

《뭐 신통하게 자랑할만한것은 없습니다. 그럭저럭 진척중입니다.》

《좋지 않구만.》

재클린은 덤덤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문제의 렬차가 안양을 지났을 때 급제동을 걸고 한 검차원이 뛰여내렸소. 그는 군경들이 거의 사로잡을 림박에 자폭을 하였고 그의 몸에서는 파편에 찢겨진 문서 비슷한것이 나졌소. 파출소에서 마진시 선거명부같다기에 가져다가 검사해보았는데 가짜라는것이 인차 판명되였소.》

사나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춘채 묵묵히 듣고있었다.

재클린은 말을 계속했다.

《야스꼬는 그래도 실적을 좀 올렸소. 북한산아래에서 이전 마진시 인민위원장이였던 박철우라는자를 생포하였소. 원래는 박철우를 미행만 하려고 했는데 북한산기슭에서 행처를 잃었다더군. 어리석게도 그를 찾아헤매다가 갑자기 맞다들렸다는거요. 헌데 뜻밖에도 그곳에 야스꼬의 옛 신분을 아는 또 한명의 인물이 나타난것이요. 야스꼬의 리화녀고보 교원시절의 제자였던 민숙이라는 녀성인데 야스꼬의 말로는 아마도 박철우와 접선을 한 모양이라고 하더군.》

재클린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렬차가 멎어섰던 지역인 삼성산, 관악산일대를 샅샅이 수색하지 않은것이 실책이였던것같소. 로씨성을 가진 검차원이 뛰여내리기에 그가 달리는 렬차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차를 세운것으로 알았을뿐 그 렬차에서 민숙이라는 녀인이 사라진것을 주목하지 못했소. 야스꼬도 민숙이라는 녀성을 너무 어리숙하게 보던 나머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더군. 그가 북한산에 나타난 뒤에야 야스꼬는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고 박철우와 함께 민숙이도 체포하였다는거요.》

재클린의 뒤에 앉은 사람은 마치 벙어리인듯 아무런 말도 없었다.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것같았다.

(나 혼자 강에 대고 말하는것같군.) 하고 재클린은 생각했다.

《야스꼬는 박철우와 민숙이를 산아래 창고에 가두고 몸수색을 하

였소. 녀인의 보짐에서 문서 비슷한것이 나와 처음에는 쾌재를 올렸다더군. 헌데 역시 그 문서도 마진시선거명부는 아니라는게 판명되였소. 숱한 인물들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있는데 따져보니 그 무슨 현금거래장부같았다고 하오.》

재클린은 허거프게 웃었다.

《민숙이뿐 아니라 박철우의 몸에서도 문서같은것이 나왔는데 역시 선거명부는 아니였다오. 이건 대체 뭔가? 마치 기지있는 농군이나 아낙네와 숨박곡질하는 기분이요. 봄철 씨붙임때면 이곳 논판마다에서 풍겨오는 거름냄새같은게 나거던.》

여태껏 침묵하던 사나이가 비로소 한마디 하였다.

《그건 아직 선거명부가 38도선을 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재클린은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오. 분명 명부는 우리 손가까이에 있는것 같소.》

잠시 말을 끊었던 재클린이 나직이 이었다.

《이건 좀 놀라운 소식이요. 마진에서 시장고문을 맡고있는 차기완이라는 인물이 사라졌소.》

사나이는 차츰 흥미를 느끼는듯했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소록도에 구제물자를 넘겨준 다음 마진으로 돌아오지 않았소.》

《혹시 그가 명부를 가지고 곧장 해주로 간건 아닐가요?》

《아니요. 그가 명부를 가지고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직 38도선을 넘지는 못했소.》

《그의 행처를 찾았습니까?》

《차기완은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더군. 그곳 세관장이 그의 입항을 도왔다오. 그가 렬차에 오른것까지 확인했소. 그러니 아마 지금쯤 서울에 들어왔을거요.》

재클린은 말을 계속했다.

《차기완이 타고온 배의 선원들을 조사했소. 그들은 차기완이 소록도를 떠나기 전에 어떤 문건을 받아 허리에 감추는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소. 세관장은 그가 품에서 서류뭉테기를 꺼내여 가방에 넣는것을

목격했소. 그가 뭔가고 물으니 차기완은 거래장부라고 대답했다고 하오. 어쩌면 마진시선거명부가 소록도에 감추어져있은것은 아닌지, 차기완이 그 명부를 운반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십분 그럴수 있습니다. 선거명부는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니 이목을 분산시키고 나중에 그가 가지고 떠날수 있습니다.》

《헌데 말이요. 리해할수 없는것은 차기완이 정말 명부를 가지고있다면 곧장 배를 타고 공해로 나가 해주로 입항하는게 쉬울텐데 어째서 여기 서울로 오는가 하는것이요.》

《흥미있군요.》

《나도 흥미가 있소. 38도선을 넘기 전에 대표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일가?》

《가짜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오.》

《…》

《명백한것은 차기완에게 서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것이요. …각오를 하는것도 좋겠소.》

《전 항상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그건 좋은것이고, 또 한가지 알려줄게 있소. 채영학이 이미 서울에 와있소. 필요하면 그의 도움을 받소.》

재클린은 종이쪽지를 어깨너머로 넘겨주었다.

《그가 숙박하고있는 려관과 호실번호요.》

사나이는 쪽지를 받아쥐자 온다간다 인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클린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채 강조했다.

《이번 작전에서 꼭 성공하리라고 믿소.》

려관방에 돌아온 채영학은 심부름군애가 전해준 편지를 받았다. 봉투의 뒤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그려져있었다.

채영학은 겉봉을 뜯었다. 속지와 함께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들이 떨어졌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씌여있었다.

《한정덕은 17시경에 은평구 네거리에 나타난다. 놀래우지 말고 은밀히 뒤따를것. <검은비수>》

(재클린은 야스꼬가 《검은비수》라고 했겠다. 그런즉 내가 서울에

온걸 알고 이제부터는 한정덕에 대한 미행을 넘겨받으라는건가?!)

시계를 보니 아직 반시간정도 남아있었다.

채영학은 급히 려관을 나섰다.

36

북한산의 골짜기가 트기 시작하는데로부터 얼마 안되는 곳에 조그마하면서도 길다란 목조건물이 외따로 서있었다. 이전에 일본헌병대의 예비물자보관장소로 쓰이던 곳인데 해방후 3년동안 내버려두다보니 퍼런 잡풀이 듬성듬성 돋아나있고 반나마 삭아버린 묵은 새초지붕에는 마른 새똥들이 허옇게 널려있다. 창고는 창고원이 쓰던 작은 방과 물자를 보관하는 큰방으로 갈라져있었다. 그곳에서 스무발자국 떨어진 곳에는 반나마 허물어진 보초소도 있었다. 창고안은 창문을 닫아놓아 대낮인데도 어둑시그레하였다.

민숙이를 작은 방으로 따로 불러낸 야스꼬는 창문을 열수도 있을텐데도 의도적으로 등불을 켰다. 그는 다듬지 않은 투박한 판자를 둘러댄 나무상자를 뒤집어놓고 거기에 민숙이를 앉히고는 그옆에 등불을 매달았다.

대체로 인간은 어둠속에서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등불이 민숙이의 얼굴을 곧추 비치고있으니 야스꼬는 어둠속에서도 상대방의 표정변화를 세밀히 관찰할수 있었다.

민숙이는 팔과 손목을 묶어놓은 포승이 거북스러운듯 몸을 비비적거리다가 야스꼬가 포승을 풀어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알았는지 이내 단념했다.

야스꼬의 눈길이 민숙이의 얼굴에 머물러있었다. 민숙이는 몹시 언짢은 기색이였다. 대체로 뜻밖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속된 사람들은 흔히 항의를 하며 저런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야스꼬는 민숙이의 저 얼굴빛은 진속을 감추기 위해 위장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첫 질문을 하였다.

《여기 북한산에는 왜 왔지?》

민숙이는 아니꼽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걸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가요?》

이것은 야스꼬가 예상했던 대답중의 하나였다.

야스꼬는 민숙이가 역증을 내는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따졌다.

《마진시선거명부는 어디에 있지?》

민숙이는 터무니없다는듯 되물었다.

《왕청같이 그건 또 뭐예요?》

이것 역시 야스꼬가 예견했던 대답이였다. 이전 같으면 이렇듯 한가하게 마주앉아 회유나 하고있지 않았을것이다. 주리를 틀고 매질을 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안겨주면서 민숙이의 혀를 뽑고 속내를 발가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야스꼬의 처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우선 해방된 조선에서 신분을 감추고 숨어지내는 일본인인데다 불의의 정황으로 박철우와 민숙이를 체포할수밖에 없었다는 련락을 재클린에게 보냈으나 어떻게 처리하라는지 아직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것이였다.

야스꼬는 측은하게 민숙이를 보며 말했다.

《좋아. 일단 선거명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자. 그럼 설명해봐. 여기 북한산에 왜 왔으며 박철우와는 왜 만났는지?》

민숙이는 여전한 태도로 쏘아붙였다.

《내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예요?》

민숙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뻗쳐대면 공연히 시간만 랑비하게 된다. 야스꼬는 로회한 예심원인양 우정 말투를 바꾸었다.

《민숙이, 이전에 사제간이였던 옛정을 봐서 그만하면 점잖게 대해주는거야. 경고하건대 나의 인내성을 시험하지 말아.》

야스꼬는 민숙이의 감정변화를 살피였다. 등불이 너울거리며 그의 얼굴을 바로 비쳤다.

거친 숨을 내쉬며 흥분했던 민숙이는 뜻밖에도 야스꼬가 말투를 사뭇 친절하게 바꾸자 그 속내를 떠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있다.

야스꼬는 그의 태도가 곧 변할것이라고 타산했다.

아니나다를가 민숙이는 좀 잦아든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일본이 망한지도 오랜 지금 쥐새끼처럼 낡은 창고에 숨어

서 대체 뭘 하는거예요?》

여전히 야스꼬를 자극하려는 기도가 다분했다.

야스꼬는 속이 언짢았으나 겉에 드러내지 않았다.

《옳게 물었어. 대일본제국은 이젠 없으니까. 그런데 난 대낮에 버젓이 부자집며느리인 당신을 체포할 권리가 있어. 왜냐하면 이곳에서 난 미군정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들의 치안사업을 돕고있으니까.》

《미군정이요?》

민숙이는 얼떨떨하여 되묻는다.

야스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렀다. 민숙이가 계속 심문자격따위를 론하면서 늘어지면 공연히 시간만 랑비하게 된다.

《좋아.》 하고 야스꼬는 서두를 뗐다.

《내가 아는바를 먼저 말하지. 넌 21일 이른아침에 집을 떠나 마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려고 했어. 헌데 마진역은 철도조합이 파업을 하는통에 렬차가 들어올수 없었어. 그래서 마진시경찰서 사찰계장 채영학을 꼬드겨 삼랑진까지 그의 차를 타고 왔고 거기서 렬차에 올랐지. 그 렬차가 안양을 지났을 때 넌 알지 못할 철도승무원에게 단속되였고 그다음 행적을 감추었어. 헌데 하루가 지난 오늘 어찌하여 북한산에 나타났지? 그리고 수배자인 박철우는 왜 만났는가?》

야스꼬는 민숙이의 표정을 살폈다. 불빛속에서 민숙이는 눈시울을 내리깔고있다.

드디여 민숙이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당신은 정말 미군정사람인가요?》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난 당신이 죄없는 사람을 감금한데 대하여 항의해요.》

《항의를 쾌히 받아주겠어. 정말로 너에게 죄가 없다는것이 증명된다면 말이야.》

《난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오빠네 집에서 기다리고있거든요.》

《참, 그걸 깜박 잊었군. 그럼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렬차에서 자취를 감춘 사실부터 이야기할가?》

야스꼬는 자기가 민숙이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제때에 대응한다고 자부했다.

민숙이는 마침내 말꼭지를 뗐다.

《승무원은 나를 어떤 밀수군으로 잘못 알았더군요. 해명하고 차칸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렬차가 급정거를 하였어요. 무심히 승강대옆을 지나던 난 어쩔새없이 벽체에 부딪치며 정신을 그만 잃었어요. 깨여나보니 철길옆에 누워있더군요. 렬차는 이미 저 멀리로 떠나가고있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정신을 잃은 나를 발견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 철길옆에 내려눕힌것인지 아니면 나자신이 정신을 잃고 승강대로 굴러떨어진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미 떠난 렬차를 치마입은 아낙네로서는 따라갈수가 없었어요.》

《잘 리해되지 않는 설명이지만 십분 그럴수 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서울로 들어왔지?》

《마침 관악산으로 들어가는 어구였어요. 녀고보시절에 다녀간적이 있는지라 무너미고개를 넘어왔어요.》

《그럼 여기 북한산에는 왜 왔어?》

민숙이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야스꼬는 민숙이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또 어떤 핑게를 대는지 보자.)

민숙이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마지못해 물었다.

《날 체포하면서 빼앗은 물품이 있지요?》

《책보에 싼것? 무슨 장부같던데?》

민숙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북한산으로 오기 전에 어느 장거리에 들려 간단히 점심을 에웠다. 그때 낡은 책과 파지를 판매하는 장사군에게서 그 장부를 사고 또 깨끗한 책보도 하나 골랐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것이였다.

민숙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장사거래장부예요.》

《무슨 장사?》

《우리 시집은 거래폭이 넓어요. 이곳 서울도 례외로 되지는 않아요.》

《그건 정확한 답이 못돼.》

《좋아요. 대신 당신이 비밀을 지켜준다고 담보를 해야 해요.》

《비밀을 지켜주지.》

민숙이는 야스꼬를 꽤 믿을만한지 중떠보듯 힐끔 쳐다보고는 한숨을 내그었다.

《난 시집 몰래 고리대금업에 손을 댔어요.》

《고리대?!》

《예. 서울에 두사람의 명의로 업자를 내세우고 실상은 마진에서 돈을 보내주었어요. 장부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돈을 빌렸거나 이전에 갚은 사람들에 대한 자료예요.》

《대금업자가 누구지?》

《그것도 말해야 하는가요?》

《네 말이 사실이라는걸 증명하려면…》

《그들에게 따져보자고요?》

《그럴수도 있지.》

《참, 어처구니없네. 이 세상에 어느 대금업자가 사실 난 빈털터리 거렁뱅이외다 하고 속을 까보인단 말이예요.》

《그건 네가 알바 아니야.》

민숙이는 서울에 있는 두명의 고리대금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댔다. 그들은 이전에 마진의 시집과 거래를 한바 있었다. 그러나 실지 야스꼬가 계속 따지고들면 들통이 나기마련이다. 어떻게 하나 야스꼬의 의심을 눅잦히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야스꼬가 또 물었다.

《북한산이 대금업과 무슨 련관이 있지?》

《업자가 두명인 관계로 그들은 내가 보낸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받은 거래정형을 이 장부에 적어넣게 되여있어요. 장부는 북한산 성돌밑에 감춰져있었구요.》

《허튼소리.》

야스꼬는 랭소했다.

《장부라는거야 시내의 어느 집안이나 창고에 두는게 더 나을텐데 부디 산속에 감출게 뭐지. 그시그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용을 정리할래도 그편이 훨씬 나을텐데.》

민숙이는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기본장부예요. 대금업자들에게는 림시장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달을 기한으로 사용한 후에 모든 내용을 이 장부에 옮기고 폐기하기로 되여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기본장부가 무슨 보물이라고 산중에 감춘단 말

이야?》

《그 장부의 위치는 분기에 한번씩 옮기게 되여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감추며 새 장소로 옮길 때 그곳에서 거액의 현금을 찾아가기도 해요. 대금업자들은 그 장소를 몰라요. 이곳에서 나를 대신하는 대리인만이 알고있지요. 그는 또 그대로 수자만 옮겨 표기할뿐 대금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야스꼬는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빤히 쳐다보았다.

민숙이는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젠 내가 마진에서 서울로 나왔으니 대리인의 수고를 덜게 된거예요. 내가 친정집으로 간다는걸 그가 알기 전에 급히 장부를 찾아가지고 오다가 재수가 없게도 당신과 마주친거예요.》

야스꼬가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재차 따져물었다.

《박철우는 왜 만났어?》

《만나다니요?》

민숙이는 펄쩍 뛰는 시늉을 했다.

《난 산아래로 내려오다가 웬 사내와 함께 있는 당신을 보고 놀랬을뿐이예요.》

《거짓말, 박철우와 이미 아는 사이였는데?》

《그야 알지요. 마진사람이고 더구나 내 남편과 각별한 사이인걸요.》

《그렇다?!》

민숙이의 대꾸는 거침이 없었다. 등불이 비낀 표정도 이제는 다 털어놓았다는듯 당당하였다.

야스꼬는 돌연 싸늘한 태도로 변했다.

《그럴듯하게 둘러치는데!》

야스꼬는 비린청을 높였다.

《날 얼뜬한 바보로 알고 업어넘겨보자는거야? 네가 마진에서 핵심녀맹원으로 활약한걸 이미 알고있다!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 총살하겠어!》

민숙이도 맞받아 소리쳤다.

《무슨 증거로 사람을 몰아붙여요?!》

《이미 실토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오래전에 가맹을 포기한 사실도 말했겠군요!》

민숙이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채영학은 민숙이가 너맹에 가맹하려다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었었다.

그러나 야스꼬는 비밀리에 너맹원으로 사업한것처럼 몰아붙이면 민숙이가 위축될것으로 예상했었다. 헌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맞대꾸를 하니 야스꼬의 타산이 빗나갔다.

때를 놓치지 않고 민숙이가 역습했다.

《그 과거사가 문제예요? 그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취급을 하는가 말이예요. 대낮에 묶어놓고 모욕하고… 이래도 당신들이 무사할것같애요?》

야스꼬는 어리벙벙하여 민숙이를 쳐다보았다. 민숙이의 눈동자에 불이 달린것같았다.

민숙이는 속이 든든했다. 증거없이 단정된것은 증거없이 부정할수 있는 법이다.

그는 발딱 일어섰다.

《난 항의해요. 더이상 죄가 없으니 풀어주세요.》

야스꼬는 중얼거리며 구차한 핑계를 찾았다.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민숙이가 더욱 소리를 높였다.

《곧 날도 어두워지겠는데 언제 그들까지 알아본단 말이예요?! 난 오빠네 집에 당분간 머물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오면 될게 아니예요!》

야스꼬는 들은둥마는둥 막대기로 창턱을 두드렸다. 창고문이 열리더니 두명의 사내가 들어왔다.

민숙이의 힘으로는 무가내로 밀어내는 두 사내를 당해낼수 없었다. 그는 야멸차게 야스꼬를 쏘아보며 사내들에게 끌려나갔다.

야스꼬는 불쾌한 심정으로 문밖으로 사라지는 민숙이의 뒤모습을 노려보았다.

(숙맥같던 애가 저렇게 변하다니. 하긴 세월이 흘렀으니까.)

야스꼬는 민숙이의 말이 사실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의심에 불과했다. 대금업에 대한 민숙이의 실토가 거짓

이라는것을 애써 증명한다고 해도 민숙이가 박철우의 접선자였다고 몰아붙이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했다.

야스꼬는 가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다독거리며 사색에 잠겼다.

(민숙이와 박철우를 한방에 가둬놓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자.)

민숙이를 창고의 다른 칸으로 밀어넣은 두명의 사내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창고안은 어두워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서있느라니 삭은 이영과 벽을 둘러막은 판자틈새로 아슴푸레 스며드는 해빛에 희미하게나마 사위를 분간할수 있었다.

구석에 앉은 박철우가 민숙이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나직이 불렀다.

《아주머니!》

민숙이는 소리가 나는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철우가 말했다.

《여기로 오십시오.》

민숙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좀 떨어져 앉았다.

박철우가 물었다.

《어찌되였습니까?》

민숙이가 대답했다.

《인차 풀려나갈것같습니다.》

박철우는 민숙이에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랐다. 한번의 실수가 만회할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박철우가 동지들에게 자주 강조하던 말이였다. 그런 실책을 다름아닌 그가 한것이다.

박철우는 우정 소리내여 말했다.

《미안합니다. 괜히 산속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아주머니까지 된욕을 봅니다.》

박철우는 민숙이를 따로 가두지 않고 한방에 넣은것은 자기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일것이라고 짐작했다.

(창고안이 어스크레하니 밖에서 엿보는 놈이 있다고 해도 세부적인 몸동작까지 감시하기는 어려울것이다.) 하고 생각한 박철우는 민숙이쪽으로 등을 돌려대며 뒤로 묶이운 손의 오른쪽지시손가락을 세워 손짓했다.

민숙이는 인차 그 뜻을 짐작하고 큰소리로 대꾸하며 돌아앉았다.

《선생님탓이 아닙니다. 신수나쁜 사람은 랭수를 마셔도 이발에 끼운다지 않습니까.》

박철우는 자기 손가락끝에 민숙이의 말큰한 손바닥이 닿자 남몰래 그우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나가면 곧장 개성 선죽교를 찾아갈것. 선죽교옆의 기와집들중에서 푸른 기와를 씌운 집대문에 <최두민>이라는 명찰이 붙어있으면 그안으로 들어갈것. 패쪽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면 들어가서는 안됨. 그렇게 되면 자남려관으로 가서 <최두민>이라는 사람을 찾을것.》

박철우는 접선암호를 알려주었다.

37

은평구의 골목길에서 야스꼬는 격자무늬샤쯔에 회색양복바지를 입은 바싹 강마른 사나이를 만났다.

재클린이 직접 보낸 련락원이라고 소개하는 그 사나이는 처음 보는 사내였다.

얼굴의 오른쪽볼편에 칼자리같은 흉터가 있어 보기에도 흉물스러웠으나 그가 뱉아놓은 말은 그런대로 마음에 들었다.

《재클린각하는 일을 아주 잘 처리하였다고 치하하였소. 특히 파출소의 경찰들을 호출하지 않은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이요. 재클린각하가 보낸 사람들이 곧 올거요. 각하께서 직접 심문하겠다오.》

사내가 한마디한마디 곱씹을 때마다 입내가 역하게 풍겼다.

야스꼬는 말했다.

《우정 박철우와 민숙이를 한데 가두고 지켜본데 의하면 박철우가 민숙이에게 뭔가 알려준것같아요. 내 소견에는 박철우만 호송하고 민숙이는 풀어주어 감시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거예요. 재클린각하의 결론을 기다리겠어요.》

《각하께 전달하겠소.》

련락원과 헤여진 야스꼬는 거뜬한 심정이였다. 사실 서울《지도부》에 침투한 후 상급의 명의로 요구하면 마진시선거명부를 쉽사리 얻을것

이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하지만 무슨 낌새를 눈치챘는지 선거명부는 손에 잡히지 않고 어쩔수없이 박철우와 민숙이를 체포하였으나 그들에게서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야스꼬는 재클린에게 된추궁을 받을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박철우를 체포한데 이어 그의 접선자가 민숙이라는것을 알아낸것은 예상외의 큰 실적이라고 확신하는 그였다.

민숙이는 마치 우연인듯이 꾸며대고있지만 야스꼬는 그가 틀림없는 접선자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알수가 없다. 민숙이가 분명 선거명부를 운반하여 전해준것이라 예상했는데 그의 몸에서는 왕청같은 장부만 나졌다. 혹시 어떤 암호로 씌여진게 아닌가 하여 꼼꼼히 따져보았지만 괜히 시간만 허비했다. 어쩌면 숲속 덤불속에 물건을 감출수도 있기에 부하들을 시켜 민숙이와 박철우가 내려온 길을 따라가며 수색하게 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었다.

여하튼 박철우와 민숙이가 서로 만났던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꼭같은 마진사람들이 동일한 그 시간에 북한산에서 어슬렁거릴수 있는가.

야스꼬는 스스로 일본군의 헌병장교가 되였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때부터 첩보계에 종사하고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로일전쟁전야에 몽골인으로 위장하고 뻬쩨르부르그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괴뢰만주국수립에 한몫하였다. 야스꼬는 조선에서 미군정을 돕는것이 일본제국의 부활의 시작이라는것을 믿었다. 그리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을 자기의 천직으로 여겼다.

북한산의 오솔길로 접어들던 야스꼬는 문득 한정덕이 속에 걸렸다. 미행자는 그를 서울번화가의 어느 백화점에서 놓쳤다고 했다. 그러고보니 한정덕은 이만저만 로회하지 않는것같았다.

(그년이 혹시 박철우와 민숙이를 미끼로 던져놓고 제 볼장을 보는건 아닐가?)

야스꼬는 감시인원을 증강하여 한정덕의 행처부터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면 한정덕에 대한 수배령도 내리고 서울시안의 모든 경찰들을 동원해야 한다.

야스꼬는 급히 창고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그는 자기가 찾으

려는 한정덕이 지금 자기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오고있는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산골짜기의 어둠은 들이나 시내보다 빨리 찾아든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면서 골짜기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풀덤불속에 몸을 숨기고 박철우네가 갇힌 창고를 지켜보는 황병두는 초조하였다. 두령인듯한 녀인이 어디론가 가고 남은것은 창고를 지키는 두명의 사내와 그리고 어디엔가 잠복하고있을것이라고 짐작되는 또 세명의 사나이가 있었다.

황병두는 될수록이면 한두놈씩 따돌려 처리할 계획이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박철우와 민숙이를 구원해야만 했다. 그러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좋을것이다.

(제발 그때까지 다른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

황병두가 근심하는것은 그전에 그들을 경찰서로 호송하거나 아니면 이곳으로 병력이 증원해오는것이다.

피빛으로 빨갛게 물드는 언덕길로 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황병두는 풀덤불속에 움츠리며 녀인을 주시했다. 동행자는 없는듯했다. 키가 작아보이는 그 녀인은 사라졌던 두령인듯한 녀성이였다.

녀인이 푸른 밤송이들이 무성한 밤나무밑을 지날 때 황병두는 그 녀인의 뒤를 몰래 따르는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다.

황병두는 눈을 쪼프리며 주시했다. 치마를 입은것으로 보아 역시 녀성으로 짐작되였다.

녀인이 창고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를 따르던 녀성도 황병두의 맞은편 수풀속에 몸을 감추었다. 그 녀인이 고개를 내밀고 창고쪽을 바라보았다.

황병두는 너무 놀라 하마트면 소리를 낼번했다. 백화점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한정덕이였던것이다.

그런데 그의 뒤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밤나무뒤에 몸을 감춘 그 미행자의 얼굴마저 가려본 황병두는 입을 딱 벌렸다. 마진시경찰서 사찰계장 채영학이였던것이다.

두령인듯한 녀인이 한정덕이 뒤를 따르는것을 모르는것처럼 한정덕은 자기에게 꼬리가 달린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것같았다. 일은 대단히 묘하게 꼬이고있다.

황병두는 한정덕과 채영학을 한시야에 두고 면밀히 감시했다.

녀인이 문앞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몇마디 말하고는 곧장 창고안으로 들어갔다.

창고앞에 두명의 사내가 남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던 세명은 길섶을 뒤지며 산우로 올라갔다. 숲속에 숨겨진 무엇인가를 찾는듯싶은데 틈을 노리는 황병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혹시 모른다. 이제 경비성원들이 증강되여올수도 있는것이다. 그전에 민숙이와 박철우를 구출해야 한다.

황병두는 맞은편에 숨은 한정덕과 채영학이 자기를 알아볼수 없게 더욱 몸을 움츠렸다.

그때 창고 한 귀퉁이에서 감때사납게 생긴 한 사나이가 걸어나왔다. 그자는 창고문을 지키는 두 사내에게 다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그중의 한 사내가 그자를 따라가고 남은 녀석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슬그머니 몸을 사렸다. 창고앞이 텅 비였다.

(무슨 일이지?)

황병두는 영문을 알수 없었으나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다.

(함정이다!)

황병두는 긴장하여 입안의 침이 바싹 말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정덕이 경비원이 자리를 뜬 기회를 리용하려는지 창고앞으로 바싹 접근하고있다. 그뒤로는 채영학이 족제비처럼 따르고있다.

아무래도 적들이 한정덕이 뒤따르는것을 이미 눈치채고 창고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해 꾀를 꾸민듯싶은데 한정덕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것같았다. 게다가 채영학이 한정덕을 바싹 따르고있으니 건너편에 잠복한 황병두로서는 그에게 알려줄 도리가 없었다.

황병두는 한정덕과 채영학의 일거일동을 안타까이 지켜보았다.

(아무래도 채영학을 먼저 처리해야겠군.)

고요한 숲속에 몸을 감추고 온몸이 눈과 귀가 되여 감시하는자에게로 소리없이 접근하여 제낀다는것은 보통의 모험이 아닌것이다.

창고안은 캄캄했다.

야스꼬는 성냥을 북 그었다. 삽시에 어둠을 밀어내며 사위가 밝아졌다.

야스꼬는 나무벽에 매달아놓은 작은 등잔에 불을 달며 시까슬렀다.

《서로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는가요?》

두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야스꼬가 돌아서자 민숙이가 물었다.

《난 가도 되겠지요?》

야스꼬는 얄궂게 웃었다.

박철우는 야스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듯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하는듯한 자세였다.

민숙이는 재차 말했다.

《당신네가 요구한다면 오빠네 집에서 며칠 묵겠다니까요.》

야스꼬는 얄밉게 고개를 저었다.

민숙이는 증을 냈다.

《내게서 바라는게 대체 뭐예요?》

야스꼬는 단마디로 내뱉았다.

《선거명부!》

민숙이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선거명부, 선거명부! 난 그런건 듣느니 처음이예요. 내겐 장사장부밖에는 없어요. 어서 내 장부나 돌려주세요. 그리고 날 내보내줘요.》

야스꼬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널 쉽게 놓아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말아.》

야스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쯤 재클린이 내 의견에 대한 답을 주었을거다. 미끼가 있어야 고기를 낚는 법이지. 민숙이, 저년을 풀어놓고 따라가보면 더 큰 리득을 볼수도 있어. 하지만 서뿔리 행동하지는 말자.)

야스꼬는 민숙이의 말이 그럴듯하게 사리를 맞추었다는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는 륙감을 중시했다. 야스꼬는 민숙이의 말과 행동에서 당당함과 함께 범상치 않은것을 느꼈다. 예전에 야스꼬가 빨갱이들을 심문할 때 고개를 꿋꿋이 쳐들고 맞서는 그자들에게서 느끼던 그런 기운이 민숙이에게서도 감촉되였던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빨간 속통을 발가놓을것이다.)

야스꼬는 속으로 여간 벼르지 않았다.

민숙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난 당신이 나를 불법감금한데 대하여 고소하겠어요.》

《그건 좋을대로.》

야스꼬는 할끔거리며 말했다.

《좋아, 죄가 없다니까 언젠가는 널 내보내주지. 그저 우리의 손님으로 이곳에 25일 저녁까지만 잠자코 있어. 기껏해야 2박3일이야. 그 다음은 네가 가고싶은 곳으로 가도 돼.》

야스꼬는 민숙이의 표정을 슬쩍 살폈다.

민숙이는 애써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지간히 당황해하는것같았다.

야스꼬는 쾌재를 올렸다.

(내 짐작이 맞았어. 저년은 초조해하고있다. 그러나 난 아무것도 모르는척해야지.)

야스꼬는 유혹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전에 애들에게 돌아가고싶으면 말해. 선거명부는 어디에 있지?》

민숙이는 발끈했다.

《당신의 그 강다짐에 진저리가 나는군요.》

박철우는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뒤로 묶인 손목을 움씰거려보았다. 이제는 다른 출로가 없다. 야밤에 판자로 둘러막은 뒤벽을 물어뜯어서라도 민숙이를 탈출시켜야 했다. 그런데 박철우를 묶은 놈은 해병으로 복무했는지 아니면 선원출신인지 알수 없으나 오라만은 닻줄을 묶듯이 단단히 옭아매놓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옴짝할수가 없었다.

박철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야스꼬가 야멸차게 소리쳤다.

《잠자코 가만있어!》

야스꼬는 숨소리를 쌕쌕 내며 신경질적으로 웨쳤다.

《사지가 멀쩡한게 한스러워? 그냥 고개를 두리번거리면 네놈의 팔다리를 분질러놓고 눈깔을 파놓을테다.》

등잔불이 금시 꺼질듯이 가물거렸다.

야스꼬는 눈을 쪼프리고 등불을 지켜보다가 심지를 돋구었다. 그래도 불이 사그라드는것같은지 등잔을 흔들어보았다. 아마 기름이 말라가는 모양이다.

야스꼬는 문밖에 대고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들려오는 대답이 전혀 없었다.

《이녀석들은 대체 뭘하는거야?》 하고 증을 내며 창고밖으로 나가면서 야스꼬는 얼핏 생각했다.

(재클린에게서 련락이 온건가?)

박철우는 다시 주위를 살폈다. 행여나 오라를 푸는데 도움이 될 어떤 물건이 없을가 하고 기대를 품었으나 역시 마른나무꼬챙이 하나 찾지 못했다.

그때 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등을 안쪽으로 돌려댄 녀인이 뒤걸음으로 들어왔다. 야스꼬보다는 키가 훨씬 컸다.

그 녀인이 돌아섰을 때 박철우와 민숙이는 다같이 놀랐다. 다름아닌 한정덕이였던것이다.

그는 곧 입가에 손을 가져가며 조용하라는 신호를 하고는 문옆에 바싹 붙어섰다. 그의 오른손에는 어디서 주어들었는지 모를 날이 시퍼렇게 선 식칼이 들려있었다.

박철우와 민숙이는 속을 조였다.

민숙이는 생각했다.

(대체 어쩌자는걸가?!)

그는 우선 한정덕이 식칼로 자기들을 묶은 포승을 잘라주었으면 하였다. 그러면 박철우는 이곳에서 빠질 방도를 찾아낼수 있었다. 그러나 한정덕은 문옆에 부동의 자세로 바싹 붙어 움직일줄 몰랐다.

하긴 야스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 포승끈을 자르기도 전에 야스꼬가 들어설수 있다. 하다면 우선 등불을 불어끈 다음 어둠속에서 포승을 잘라주면 되련만 한정덕은 문뒤에서 떨어질줄 모른다. 아마도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수 있다.

민숙이는 등불부터 끄라고 조언하고싶었으나 목소리는 목안에 잠겨 나오지 않는다. 혹 문밖에 있는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쓸어들어올수도 있는것이다.

민숙이의 등골로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야스꼬는 인차 돌아왔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흐뭇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그의 손에는 석유같은것이 담긴 검은 병이 들려있었다.

또다시 등불이 바람에 꺼질듯이 흔들렸다.

민숙이와 박철우는 간을 조이며 야스꼬를 지켜보았다. 손발이 묶인 채로 옴짝할수 없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이제 야스꼬가 문안으로 들어서면 한정덕이 그의 등에 칼을 대고 위협할것이다. 년이 한정덕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겠는지는 알수가 없었다. 같은 녀인인것을 얕잡아보고 반항하면 밖의 사내녀석들이 달려오고 그러면 한정덕도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된다. 그러면 일은 더더욱 꼬이게 될것이다.

야스꼬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들어왔다.

민숙이는 한정덕이 야스꼬의 등뒤로 재빨리 다가붙는것을 보았다.

별안간 야스꼬는 목에 큰 가시가 걸린듯이 두손으로 감싸쥐였다. 그의 작은 손등우로 빨간 피가 배여나오더니 이내 주르르 굴러떨어졌다.

야스꼬는 흡사 눈망울이 툭 튀여나올듯이 크게 흡떴다. 빨대로 무엇인가를 빨아들일 때와 같은 거친 헐떡임소리를 내며 갑자기 무릎을 푹 꺾으며 꿇어앉았다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쓰러졌다. 그리고는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서 움쩍거리다가 곧 잠잠해졌다.

예상외로 한정덕은 침착했다. 그는 다른자들이 창고안으로 쉽게 들어올수 없게 빗장을 지르고서야 박철우와 민숙이에게로 급히 다가왔다.

그는 피묻은 식칼로 오라를 자르기 시작했다. 굵은 오라를 쉽게 끊을수 없어 톱질을 하듯했으나 마침내 끊어낼수 있었다.

《철우동지!》 하고 한정덕이 나직이 불렀다.

박철우는 눈앞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듯 눈을 슴벅거리며 한정덕을 쳐다보았다.

한정덕은 이번에는 민숙이의 오라를 풀며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빠른 말씨로 설명했다.

《실은 네거리의 공중전화소근처에서 야스꼬를 발견했어요. 왜년이 해방된 서울거리를 제세상처럼 나다니는게 이상스러워 따라왔는데 창고안에 철우동지와 동서가 갇혀있을줄이야…》

오라를 풀어던지던 한정덕은 그제서야 식칼에 묻은 피를 발견하고 낯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미 굳어져가는 야스꼬의 시신을 일별하며 칼을 떨구었다.

《내가…》

그는 저도 모르게 뒤걸음치다가 창고벽에 쿵하고 부딪쳤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민숙이는 급히 일어나 금시라도 넘어질것같이 휘청거리는 한정덕의 몸을 부축했다.

긴장이 풀린 한정덕의 눈동자는 공포로 희번득거리는것같았다.

민숙이는 그의 등을 쓸며 속삭였다.

《진정해요, 형님. 진정하라니까요.》

그리고 그의 놀란 마음을 위안하며 말했다.

《야스꼬는 죽어마땅한 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나요. 정말 대단해요.》

박철우는 아무말없이 한정덕이 떨군 칼을 주어들었다. 그는 문가로 소리없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밖에는 몇명의 사내가 더 있을것이다.

박철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정덕은 민숙이에게 의지하고 얼친듯이 간신히 서있었다. 좀전에 야스꼬를 한칼에 쓰러눕힌 녀인이라는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박철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연약한 두명의 녀인을 모두 무사히 구출해야 하였다. 그는 두 녀인에게 자기의 뒤를 따르라는 손짓을 하고는 살그머니 빗장을 벗겼다.

밖은 이미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만치 칠흑같은 어둠에 잠겼다. 문가까이에서는 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좋은 징조였다.

박철우는 등불을 후 하고 불어끄고는 밖으로 한걸음 내디디였다.

한편 채영학은 한정덕이 창고안으로 사라지자 재빨리 창고가까이로 접근했다.

이윽고 창고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마진에서 찾던 박철우가 나타났다. 그뒤를 민숙이와 한정덕이 슬금슬금 따르고있다. 그들까지의 거리는 겨우 몇보밖에 안되였다.

(이런! 승냥이, 여우, 토끼를 한웅노에 잡게 되였군그래.)

채영학은 쾌재를 올렸다.

(야스꼬는 대체 어떻게 된거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으나 인차

무시했다. 한정덕이 창고안으로 사라진 후 인차 야스꼬가 따라들어갔었다. 그다음 다투는 소리는커녕 바스락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채영학은 야스꼬가 창고안에 묶여있든지 죽었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제 저자들을 한꺼번에 잡으면 야스꼬의 공적을 고스란히 가로채게 된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 세명을 단번에 사로잡을수 있을가?) 하고 욕심내며 채영학은 다음행동을 따져보았다.

우선 박철우를 제압해야 한다. 그를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힐 결심이였다.

(한두놈 데려올걸 그랬어.)

좀전까지 야스꼬의 부하들로 짐작되는 녀석들이 어슬렁거렸는데 보이지 않는다.

(필요할 때 대가리도 내밀지 않다니… 멍텅구리들만 한무리 모아놓은게군.)

채영학은 속으로 게두덜대며 박철우의 등을 지그시 겨누었다.

박철우가 부상당하면 두 녀인이 불덴 노루마냥 어쩔줄 몰라 허둥댈것이다. 그렇다고 박철우를 버리고 달아나지는 않을것이다. 또 달아난다 해도 치마입은 녀인들이니 쉽게 붙잡을수 있다. 그리고 총소리를 들은 야스꼬의 부하들도 달려나와 도울것이다.

땅! 하는 야무진 총성이 어둠이 깃든 골짜기를 울렸다.

박철우를 겨누던 채영학은 제 먼저 어깨를 부여쥐고 펄쩍 뛰여오르는가싶더니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총소리에 놀란 박철우와 녀인들은 황황히 수림속으로 뛰여들어갔다.

황병두는 창고쪽을 살폈다.

총성을 들은 사내들이 여기저기에서 연방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겁에 질렸는지 숲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불을 켜들고 창고안을 들여다보고는 놀라 웅성거리다가 길쪽으로 우르르 밀려가는것이였다.

황병두는 잠시 사위를 살폈다. 채영학은 죽어너부러졌는지 잠잠하다.

황병두는 화약내나는 총구를 올려들고 박철우네가 뛰여들어간 수림속으로 향했다.

38

습한 밤바람이 분다. 숲이 선잠에서 깨여난듯 와슬렁거린다. 인기척에 놀란 밤새들이 후두둑후두둑 날개를 치며 날아올랐다.

민숙이는 당황했다.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박철우의 뒤를 따라왔지만 발을 헛디디여 넘어질 때 한정덕을 부축하고 앞서 걷던 그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민숙이는 어둠속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왼쪽에서 와슬렁거리며 풀숲을 헤치는 소리, 삭정이가 꺾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밤꿩이 홰를 치며 날아올랐지만 박철우일행인지 추격자들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적아를 구분하지 못한채 무작정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는것은 위험한 모험이다.

민숙이는 어둠속에 허옇게 보이는 자작나무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가쁜숨을 돌렸다.

지금은 자기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산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도무지 방위를 판정할수가 없다. 달빛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허나 달이 떠오르려면 좀더 기다려야 한다.

(이곳에 그냥 앉아있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누구도 날 찾지 못할 거야.)

박철우와 옛성터에서 헤여질 때는 저녁에 서울역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날고뛴다고 해도 그 시간을 지켜낼 수가 없다. 새벽녘까지 이 산속을 벗어나겠는지도 가늠할수 없다.

민숙이는 거친 숨결을 고르며 자문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박선생을 찾지 못하면 난 개성으로 가야 하는가!)

지금은 한치앞도 예상할수 없다. 이제 산을 내리다가는 이미 총소리를 듣고 출동하였을 경찰들에게 체포될수도 있다. 만일 그가 붙잡힌다면 선거명부를 전달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의 경우를 타산하여 예곤이의 아기포단속에 략도를 넣기는 하였으나 민숙이가 구속된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고 또 북악산바위밑에서 명부를 찾기

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제 날이 밝으면 24일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박철우에게 명부를 숨긴 장소를 알려줄걸 그랬다. 그라도 그 장소를 알고있다면 이다지도 속을 조이지는 않을것이다.

민숙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별이 초롱초롱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대로 맥놓고 주저앉을수는 없어.)

캄캄한 어둠속에 삼라만상이 모두 잠든 이 시각에도 피같은 시간은 사정없이 흐르고있다. 만일 민숙이가 선거명부를 제때에 전달하지 못한다면 마진시의 대표들은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 중임을 맡고도 이렇게 두려움에 주저앉아있다가 일을 그르친다면 이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행위이고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으로 된다.

민숙이는 주변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이고 앉아있었다.

곁에서 와슬렁대던 인기척은 이미 사라졌다. 주위가 고요해지니 풀숲에서는 뭇벌레들이 또다시 찌륵거리고 반디벌레가 파란 등을 켜들고 날아올랐다.

어둠속에서 숲속을 망탕 헤매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정없이 한곳에 머물러있을수도 없었다.

민숙이는 여하튼 어디로든 이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창고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위험은 적어질것이다. 야스꼬가 죽고 총소리도 났으니 산기슭인 이곳으로 경찰들이 오고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창고주변부터 샅샅이 수색할것이다.

민숙이는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섰다. 그때 그의 앞으로 시커먼 것이 불쑥 다가섰다.

민숙이는 소스라쳐 놀라 펄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은 밖으로 새나오지 못했다. 두툼한 손이 순식간에 그의 입을 덮었던것이다.

구부정하니 허리를 굽힌 사나이가 그의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다.

《형수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 병두입니다.》

어둠속에서 황병두의 길쑴한 얼굴을 간신히 알아보았다.

민숙이는 놀란 가슴이 후두둑후두둑 높뛰였으나 이루 형언할수 없을만큼 기뻤다. 그는 놓치면 또다시 잃을듯이 황병두의 소매를 꽉 거머쥐였다.

황병두가 말했다.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숙이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말을 더듬었다.

《병두… 숲속에… 박철우선생과 형님이…》

황병두는 민숙이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황병두의 뒤를 쫓아 수풀을 헤치고나가자 박철우와 한정덕이 그들에게로 마주 왔다. 아마도 황병두가 그들을 먼저 찾았던 모양이다.

민숙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박철우가 그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아주머니, 다친데는 없습니까?》

그제서야 민숙이는 오른쪽무릎이 몹시 저리였다. 하지만 그는 어둠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예, 전 괜찮습니다.》

《다리를 저는것같은데요?》

《좀전에 넘어졌댔습니다. 좀 있으면 괜찮아질겁니다.》

《걸을수 있겠습니까?》

《예.》

박철우는 옆의 생나무가지를 꺾어 내밀었다.

민숙이는 그 나무가지를 받아 지팽이삼아 의지했다.

황병두가 박철우에게 말했다.

《숲속에는 아직 적들이 있습니다. 또 산아래도 이미 경찰들이 깔렸을겁니다. 이대로 산을 내려가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민숙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 떠올랐는지 동쪽하늘가에서 둥그스름한 달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좀전에 나약한 자신의 심리를 엿보며 불안해하던 별들도 이제는 안도의 미소를 보내는것같았다.

민숙이는 박철우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로적봉에 소운사라는 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운사?!》

박철우는 그 뜻을 전혀 모르는것같았다.

황병두가 대신 물었다.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민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황병두가 말했다.

《그럼 제가 길안내를 하겠습니다.》

민숙이는 북한산에서의 접선에서 일이 생기면 로적봉에 있는 소운사로 가기로 되여있었다. 아마 황병두도 꼭같은 지시를 받았던 모양이다. 이 어두운 밤에 그래도 황병두가 소운사로 가는 길을 안다니 다행이였다.

박철우는 결론조로 말했다.

《좋소. 그럼 황동무가 앞에 서고 내가 맨뒤에 서겠소. 모두 소운사로 가기요.》

황병두는 별자리를 보고 방위를 판정하며 숲속을 헤쳐나갔다. 해방전 여러해동안 마룡산에서 숨어살아온 황병두여서인지 어두운 밤이였지만 숲속길에 무척 밝았다.

달빛속에 흰 줄기처럼 보이는 오솔길을 찾아낸 황병두는 그 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북한산은 일명 삼각산이라고 불렀다. 삼각산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백운대, 만수봉, 인수봉의 세 봉우리가 솟아있으므로 삼각산이라고 부른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북한산에는 백운대, 만수봉, 인수봉과 맞먹는 등장대, 남장대, 비봉과 같은 여러 봉우리들도 있었다. 산이 높은만치 골도 깊고 계곡도 많았다.

차기완은 골짜기를 가로지른 줄다리를 지나 소운사로 들어서는 황병두, 민숙이, 한정덕, 박철우 네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것이 현실로 된것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오면서 그리고 소운사를 찾아오면서 차기완은 최악의 경우들을 여러가지로 예상해보았다.

그 최악의 경우중 하나는 바로 소운사의 좁은 대문을 열고 서로 각기 행동하여야 할 네사람이 나란히 들어오는것이였다.

헌데 지금 바로 그 네사람이 한덩어리가 되여 그의 앞으로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골안을 드디여 벗어났다는 안

도의 기색이 어려있었다.

차기완은 저도 모르게 입안의 혀를 조심스럽게 뻗쳐 오른쪽이몸을 더듬었다. 딱딱한 암풀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는 앞으로 이 독약이 담긴 암풀을 쓰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차기완은 마당으로 내려서서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를 먼저 발견한 한정덕이 《아버님이?!》 하며 놀랐다.

민숙이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박철우도 차기완과의 상봉이 뜻밖인듯 눈이 휘둥그래졌다.

(차회장은 인어섬에서 차상준을 배에 태워보낸 후 마진으로 돌아가게 되여있지 않았는가?)

박철우는 차기완이 내미는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물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차기완은 아무 대답없이 그의 손등을 다독였다.

《상준동무는…》 하고 박철우가 고집스럽게 물으려고 하자 차기완은 서둘러 그의 말을 막았다.

《일이 그렇게 되였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해낼겁니다. 난 그애를 믿습니다.》

민숙이는 놀란 기색으로 박철우와 시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수그렸다. 그들은 분명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려던것같았다.

혹시 이 외진 사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지 않을가 하는 기대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들이 서로 말을 아끼는것으로 보아 남편은 몹시 중요한 일을 맡고있는것같았다. 때에 맞지 않게 사사로운 감정에 설레이는 자기의 속마음을 그들이 엿본것만 같아 일순 부끄러웠다.

황병두만은 소운사에서 차기완이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것이 놀랍지 않은듯 태연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선생님, 모두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수고했소.》

차기완은 네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고생들 하셨소. 무척 시장하고 힘들었겠는데 우선 방으로 들어가 요기부터 합시다.》

39

사원의 뜰안에는 한가운데로 흰 돌을 깐 통로가 나있고 그 량옆으로 느티나무와 보리수, 향나무가 있었다. 사찰의 붉은 기둥들과 천정뿐 아니라 처마며 두공까지 장식한 단청무늬들은 초롱의 밝은 빛을 받아 아롱거렸다.

차기완은 민숙이일행을 옆길로 인도하여 미리 비워놓은 방으로 갔다.

방에서 모두들 늦은 저녁밥을 먹고 상을 물리고났을 때 차기완이 한정덕에게 물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한정덕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서울시내의 거리에서 다나까 야스꼬를 보았고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뒤를 쫓았습니다. 북한산기슭에 있는 어느 낡은 목조건물안으로 들어가기에 갈라진 벽틈새로 들여다보니 박동지와 동서가 묶여있더군요. 그래서 야스꼬를 처리하고 박동지와 동서를 구출하게 되였습니다.》

《정말 큰일이 있었구나. 네가 결단성있게 잘 행동했다.》

차기완은 한정덕을 크게 치하하고나서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다나까 야스꼬는 누구냐?》

한정덕은 잠시 아무 대답없이 잠자코 있었다.

황병두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여겼는지 밖을 살피겠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민숙이도 따라 일어서는것을 차기완이 눈짓으로 도로 앉혔다.

방문이 닫기자 바람에 흔들리던 초불이 다시 꼿꼿하게 일어섰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깃들었다.

한정덕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다나까 야스꼬는 이전 일본헌병대 장교입니다.》

《헌병대?!》

차기완은 무척 놀라는 기색이였다. 민숙이도 눈을 크게 떴다.

(야스꼬가 일본헌병대 장교였다고?!… 헌데 형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있은듯이 말하고있지 않는가!)

박철우는 심중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한정덕은 차기완과 박철우를 일순 번갈아 보더니 눈시울을 내려깔고 입을 꼭 다물었다.

차기완이 그의 내심을 짐작하고 허허 웃었다.

《넌 아직 내가 미덥지 못한 모양이구나.》

박철우는 인차 말뜻을 깨닫고 한정덕에게 알려주었다.

《한동무, 동무의 시아버님은 이번 선거를 책임진 마진시선거위원회 위원이시오.》

《아버님이 말입니까?》

한정덕은 천만뜻밖인듯 크게 놀랐다.

차기완은 빙그레 미소했다.

《그동안 넌 사업을 아주 잘했다.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더구나.》

한정덕은 얼굴을 살짝 붉히였다.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괜찮다. 오히려 사사로운 감정으로 비밀을 루설하지 않으려는 너의 의지가 더 마음에 든다.》

이윽고 한정덕은 격한 어조로 말꼭지를 뗐다.

《다나까 야스꼬는 저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악독한 원쑤입니다.》

한정덕은 차기완과 박철우를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터놓고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1936년 봄이였습니다. 방직공장로조사건으로 투옥되였던 나는 감방에서 김모영이라는 녀성과 사귀였습니다. 그는 별치않은 사건으로 잡혀왔지만 실상은 반일지하조직의 지도성원이였습니다. 감옥에서 나는 그를 따라 독립운동에 나서기로 맹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나는 통방신호를 통해 그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몇달이 지나 이상한 통방신호를 받았는데 다나까 야스꼬라는 헌병대 장교가 나를 가석방시켜 방조자로 흡수하려고 하니 그의 요구에 응하는척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병보석으로 나가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헌병대 장교를 만나보니 리화녀고보시절의 교원이였던 그 다나까 야스꼬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한정덕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야스꼬는 나에게 마진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김모영동지는 마진으로 가면 다른 조직성원을 만나게 될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사

람은 다름아닌… 그이였습니다.》

차기완은 넌지시 물었다.

《종준이 말이냐?》

《예.》

한정덕은 말을 이었다.

《야스꼬가 나에게 지시를 주고 일거일동을 지켜보는 조건에서 그이와 활동하자니 그럴듯한 연막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야스꼬의 의심을 사지 않자니 야스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직하도록 은밀히 유도해야 했습니다. 마침 차씨집안에 의심을 품고있던 야스꼬는 제잡담 숙이와의 친분관계를 리용하여 그 가문에 접근하라는 지령을 주었고 나는 마지못해 응하는척하면서 그이의 사업을 방조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의 본처인 오씨가 야스꼬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정덕은 차종준과 함께 오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야스꼬의 모략이였음을 알게 되였다고 설명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나와 위장결혼을 하며 그이는 천백배로 원쑤를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일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태백산에 조직된 항일죽창대와 련계를 맺은것도 아마 그무렵일겁니다. 그이는 독립의연금을 전하기 위해 봉래산으로 갔다가 왜놈들에게 희생되였습니다. 난 이 사건에도 야스꼬가 관여되여있다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년이 해방이 되자마자 어느새 종적을 감추어 아쉬워했는데… 끝끝내 전 원쑤를 갚은셈입니다.》

한정덕은 전후사연들을 다 털어놓은듯 마침내 이야기를 마치였다.

민숙이에게는 너무나도 뜻밖의 이야기였다. 그는 이제 일이 어떻게 번져질지 몰라 속이 조마조마했다.

반쯤 눈을 내리감고 한정덕의 말들을 되새기며 음미해보던 차기완이 다시 물었다.

《네 보기엔 야스꼬가 왜 하필 너를 방조자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느냐?》

한정덕은 대답했다.

《아마 그년은 저의 지난 시기 투쟁경력을 중시하면서 그것이면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일운동가들에게 접근하여 신임을 얻을것

이라고 보았던것같습니다.》

《마진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은 우리 종준이뿐이겠지?》

《예. 전 오직 그이하고만 련계를 가졌습니다. 그이는 마진에서 나의 진실을 알고있는 유일한 사람이였습니다. 그이는 저를 동지로… 안해로… 뜨겁게…》

한정덕은 흑 하고 흐느끼였다.

민숙이는 급기야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그는 시아버지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뙤창으로 누런 달이 보였다.

(지금 어디에선가 남편도 저 달을 보고있겠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며 가슴이 알알하게 쓰렸다. 남편 차상준이 밤길을 걸으며 저 달을 보고있을지 모른다. 만리창파에 시달리며 어느 무인도에서 쓸쓸히 저 달을 보고있을수도 있다. 어쩌면 경찰들의 추격을 받고있을수도 있다. 혹시… 하고 더더욱 불길한 생각이 갈마들어 민숙이는 서둘러 머리를 흔들었다.

차기완은 심중히 물었다.

《종준이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 너에 대해 증명할 사람은…》

《한명 있습니다.》 하고 한정덕이 불쑥 차기완의 말을 잘랐다.

《그게 누구요?》

이번에는 박철우가 성급히 물었다.

한정덕은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김모영동지입니다.》

《김모영?! 1936년에 감옥에서 만났다던?》

《예.》

《그가 아직 살아있소?》

《예.》

《어디에 가면 찾을수 있소?》

《아마도…》 하고 한정덕은 신심이 없이 말했다.

《아마도 그는 지금 해주에 가있을겁니다.》

《해주?!》

차기완이 따져물었다.

《그도 인민대표라는거냐?》

한정덕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아마 그럴겁니다. 며칠전에 산하조직의 대표들을 인솔하고 해주로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봐라.》

《서울에 온 저는 렬차에서 잃어버린 동서의 행처를 빨리 찾아야 겠기에 서울조직선의 도움을 받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 김모영동지와 련계를 취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이미 해주로 떠난 뒤였습니다.》

차기완이 물었다.

《그래서 정오가 지나도록 장안거리를 헤매였느냐?》

《예.》

차기완은 이미 황병두로부터 한정덕이 서울의 골목들을 누빈 사실과 미행을 솜씨있게 떼여버린 일에 대해 들었던것이다.

한정덕은 말을 계속했다.

《대신 전 김모영동지를 찾다가 어떤자가 뒤따른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자를 백화점으로 유인하여 따돌린 다음 대체 왜 나를 미행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자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헌데 뜻밖에도 그자는 야스꼬와 만나는것이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 그이의 복수를 하려고 야스꼬를 쫓아가게 된것이였습니다.》

박철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벌어진 일들이 아귀가 맞아떨어지는것이였다.

박철우는 차기완에게 눈길을 주었다. 차기완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마주보고있었다.

이윽고 차기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긴장하였겠는데 속을 풀고 좀 쉬거라. 박선생은 나와 잠간 소풍을 하시지 않겠소?》

박철우가 동의하자 두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한정덕은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눈으로 민숙이를 말끄러미 쳐다보다가 불쑥 물었다.

《그러니 너도 인민대표니?》

그 말에 민숙이는 주눅이 들었다.

《내가 무슨… 아니예요. 나 같은 아낙네가 어떻게 대표가 될수 있겠나요.》

《그럼 넌 정말 남이섬으로 가는거였니?》

《예. 남이섬으로 가던 길에…》

《가던 길에?!…》

《아버님이 심부름을 시켰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 이젠 정인이와 두인이를 데리고 남이섬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애들이 걱정된다. 영협오빠에게 맡겨놓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린애들이 아니니.》

민숙이는 한숨을 호 내쉬였다.

한정덕은 문득 놀라며 물었다.

《너 예곤이는 어떻게 했니? 분명 렬차에서 승무원을 따라갈 때까지만 해도 업고있었는데…》

《알만한 집에 맡겨놓았어요.》

《그랬구나. 정말 애들이 걱정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성에게 있어서 중요한건 애들밖에 없어. 난 친자식조차 없으니… 참 내 인생이라는게 내 보기에도 초라하고 불쌍한게…》

한정덕은 남이섬으로 가게 되는 민숙이가 부러운듯 애들을 찾아가지고 친정으로 가면 되겠다는 말을 두번이나 곱씹었다.

그 말에 민숙이는 불쑥 창고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떠올랐다.

《글쎄요. 어쩌면…》

《왜? 또 무슨 일이 있니?》

민숙이는 하마트면 《개성을 다녀와야 할것같기도 하고…》 하고 뇌일번하였다. 하지만 시아버님과 박철우를 만났으니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

한정덕이 다시 물었다.

《정말 무슨 일이니?》

민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민숙이를 빤히 보던 한정덕은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민숙이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니, 믿어요. 난 이제 정말 애들을 다 데리고 남이섬으로 갈거예요.》

민숙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이 담겨있는 놋그릇을 그에게 내밀었다. 한정덕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나서 놋그릇의 물을 벌컥벌컥 소리내여 들이켰다.

40

무성한 풀대가 어지러이 뒤엉킨 풀숲에 엎어졌던 채영학은 누군가가 흔들어서야 의식을 차렸다. 어깨가 쑤셨다.

어느새 웃동을 벗겨내고 흰 붕대를 감아놓았다. 붕대에는 벌건 피물이 배여있었다.

《정신을 차렸소?》

얼굴이 검은 사내가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자의 오른쪽볼편에 칼자리같은 흉터가 있었다.

채영학은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물었다.

《대체 어찌된 일이요?》

사나이는 대답했다.

《당신은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소. 이미 지혈을 시켰고 구급처치를 하였소.》

관통상을 당했다니 애써 총알을 빼내느라고 살을 헤집지 않아도 될것이다. 그래도 의사를 찾아가 연독에 썩어가는 살을 베여내고 봉합을 한 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여름철에 총상이 감염되면서 패혈증이 오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나 사나이는 채영학에게 달갑지 않게 말했다.

《그자들은 지금 로적봉의 소운사로 가고있소.》

채영학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자들이란 박철우와 민숙이, 한정덕을 의미할것이다. 그런데 날쏜자는 누구지? 혹시…)

채영학은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내 보짐 내놓으라는 심보로 흉터가 있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사나이는 채영학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제 말을 계속했다.

《그자들을 놀래우지 말고 뒤쫓으라는 지령이요.》

채영학은 투덜댔다.

《누가 그런 말같지도 않은 지령을 주는거요?》

《<검은비수>!》

채영학은 코웃음을 쳤다.

《야스꼬말이요?》

《야스꼬라니?!》

사나이는 되묻고나서 자르듯 말했다.

《야스꼬는 죽었소. 창고안에서…》

채영학은 어리벙벙해졌다.

《죽다니? 그럼 박철우네를 뒤쫓으라는 지령은 누가?!》

《<검은비수>라지 않소!》

《그럼 야스꼬는?!》

채영학이 무엇을 따져묻는지 몰라 눈을 껌벅거리던 사내는 마침내 리해가 되는지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뭔가 삭갈렸구만.》

채영학은 확인조로 다시 물었다.

《결국 야스꼬는 <검은비수>가 아니였구려?》

《이보오, 지나친 호기심은 명을 단축하는 법이요.》

채영학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재클린, 이 노린내나는 양키놈, 결국 날 얼려넘겼단 말이지.)

아마 재클린은 채영학이 수사망을 통해 《검은비수》의 행적을 찾고 있으니 그를 보호하려고 야스꼬를 내세웠던 모양이다. 그러니 재클린의 말을 고스란히 믿은 채영학만이 멍텅구리가 되여버린 꼴이다.

사나이는 계속했다.

《<검은비수>는 우리에게 소운사주변에 매복하라고 지시했소. 오래 걸리지는 않을거요, 친구.》

사나이는 채영학의 등을 무람없이 툭 쳤다.

채영학은 저도 모르게 이마살을 찌프렸다. 상처자리가 쿡 쑤셔났던 것이다.

(자식, 이 사찰계장을 무슨 하졸로 아는게지.)

괘씸했으나 지금은 그걸 따질 겨를이 없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눈앞이 아뜩해지고 별찌가 사방 날아다녔다. 피를 많이 흘린 모양이였다.

(박철우, 한정덕, 민숙이… 내 네넌놈들의 모가지를 비틀고야말테다. 그리고 어떤 자식인지 나를 쏜 놈팽이의 가슴팍에는 한탄창을 다

풀테다.)

사나이가 부축하려는듯 손을 내밀었으나 채영학은 그 팔을 사납게 후려 물리쳤다.

41

검푸른 하늘중천에는 여전히 누런 달이 걸려있었다.

차기완은 박철우에게 돌아섰다.

《한정덕이 마진시대표로 임명된게 김인혜동무의 희생과 관련되여 있겠지요?》

박철우는 그 말뜻을 음미해보며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차기완이 물었다.

《김인혜동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없었는가요?》

《마룡산에 사는 숯지기로인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로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지요.》

《그 사실을 또 누가 알고있었는가요?》

《저밖에 몰랐습니다.》

《만일 김인혜동무가 희생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가 대표가 되여 북으로 가고있었겠지요?》

《예.》

《녀맹위원장이 죽었으니 부위원장인 한정덕이 대표로 가게 되였겠군요?》

《…》

박철우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모두 제 실책입니다. 제가 한동무를 정인이 어머니와 함께 보내자는 제의를 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동무는 그간 일을 열심히, 아주 책임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건 저 하나의 평가가 아니였습니다.》

박철우는 덧붙여 말했다.

《좀전에 소록도에서 서준모라는자가 회장님에게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나는 심장이 덜컥 멎는줄 알았습니다. 한동무가 야스꼬와 그런 관

계를 가지고있었다는걸 알고 회장님이 여기로 허위단심 달려온 심정이 충분히 리해가 됩니다. …문제는 한동무의 말을 믿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건데… 그런데 한동무는 우리가 따져묻기도 전에 스스로 모든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서준모가 소록도에 갇혀있는줄은 전혀 모를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명과 서준모의 자백이 일치한걸 보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한동무에게는 사람들의 의심을 자아낼수 있는 행동도 적지 않은데 최근에도 채영학을 가까이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기도 하고 역정보를 넘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건 저의 지시에 따른것이지요. 말하자면 좀 긴데…》

박철우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을 이었다.

《이전에 상준동무가 경찰호송차를 습격하여 저와 동지들을 빼돌린데 대해서는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도경찰국으로 호송한다는 사실은 한동무가 제일먼저 차동무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영학은 간특하게도 한동무에게 호송시간을 알려주면서도 그 로정은 허투로 대주고는 그곳에 함정을 파놓았던 모양입니다. 두가지를 노렸겠지요. 우선 한동무에 대해 정확히 료해하려는것이였고 만일 한동무가 정보를 보낸다면 그곳에 나타난 습격조성원들을 깡그리 사로잡자는 타산이였던것같습니다. 그런데 차동무는 조직선을 통해 진짜 호송로정을 알게 되였고 그곳에 매복하였다가 우리를 빼낼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난 한동무가 채영학의 검토에서 통과된걸로 믿고 그에게 더 은밀히 접근하게 하였던것입니다. 만일 내가 보증하지 않는다면 한동무는 후날 이 일들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겁니다. 김모영이라는 녀인이 한동무의 과거를 보증할수 있다니 이번에 해주에 도착하면 제일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차기완이 박철우에게 물었다.

《혹시 김모영이라는 녀성에 대해 아는게 아닙니까?》

박철우가 말했다.

《만나본적은 없고… 일제의 <사상범예방구금령>에 의해 청주형무소에 갇혀있을 때 장안에서 활약하던 녀성독립운동가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차기완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니 김모영이라는 녀성이 존재한것은 사실이군요. …결국 해주에 가야만 모든 사실을 확인할수 있겠구만.》

차기완은 어둠이 짙은 수림속을 건너다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요즘 난 이런 생각이 자주 들군 합니다. 제 눈에 보인다고 하여 전부 사실로 믿다가는 큰일을 그르칠수 있다고 말입니다.》

토방밑에서 귀뚜라미가 울고있었다.

차기완은 한숨을 내쉬였다.

《왜서인지 자꾸 불안한 느낌이요. 꼭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것만 같군요.》

박철우가 응대했다.

《저도 마치 살얼음판우를 걷는것같습니다.》

이때 방문이 열리더니 민숙이가 밖으로 나왔다. 한정덕이 홀로 남은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흘러나왔다.

차기완은 민숙이에게 물었다.

《문서는 북악산 취운정아래에 감추었다고 했느냐?》

민숙이가 대답했다.

《예. 불의의 정황으로 도중에 렬차에서 내린 후 관악산계곡을 따라 서울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서판서댁으로 가기에 앞서 북악산의 취운정아래에 있는 바위밑에 문서를 감추고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또 만약의 경우를 타산하여 예곤이를 업고 온 포단속에 그림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애들은 어찌되였느냐?》

《정인이와 두인이는 영협오빠네 집에 머물러있는걸로 압니다. 예곤이는 서판서댁에 맡겼습니다.》

민숙이는 예곤이에 대해 말할 때 불쑥 목이 꽉 메는것같았다. 난생처음 어미품에서 떨어져 밤을 보내는 예곤이가 제대로 잠을 자는지 걱정스러웠다.

차기완은 자식과 떨어진 어머니의 심정을 위안하며 살뜰하게 말했다.

《서선생내외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분들이다. 아마 그들은 예곤이를 제 친자식처럼 잘 돌봐줄게다. 그러니 마음을 놓거라.》

그때 황병두가 급히 다가왔다.

《적정입니다.》

《뭐요?!》

박철우가 자리를 차며 일어섰다.

황병두는 차기완과 박철우에게 보고했다.

《검은 옷을 입은 이상한 놈들이 소운사의 길목을 에워싸고있습니다.》

한동안 다시 생각에 잠겼던 차기완은 박철우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아무래도 박선생이 먼저 떠나야 할가 봅니다.》

《예, 그러지요.》

박철우는 선선히 대답하고 곧 떠날수 있도록 구두끈을 조였다.

차기완은 민숙이에게 돌아섰다.

《정인이 에미는 박선생이 북악산에서 물건을 쉽게 찾을수 있게 다시한번 장소를 가리켜주거라.》

민숙이는 박철우에게 명부를 숨긴 위치를 다시 알려주고났으나 왜서인지 속이 편안치 않았다. 그래서 차기완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박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차기완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넌 소임을 다 하였다. 지금 애들이 기다리고있지 않느냐. 정인이, 두인이, 예곤이를 데리고 빨리 친정으로 가거라.》

민숙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숨긴 곳이니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맡은 일을 끝까지 제손으로 마무리짓게 해주십시오.》

박철우가 끼여들었다.

《정인이 어머니, 북악산의 지형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어서 애들에게로 가십시오.》

민숙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였습니까. 김인혜언니도… 그리고 지금 정인이 아버지의 행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란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피와 목숨을 바치며 지켜낸 그 귀중한것을 이렇게 마지막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다면 전 평생 량심의 가책을 받게 될겁니다.》

《이건 결코 포기하거나 저버리는것이 아니다.》

차기완은 잘라말했다.

《아버님…》

민숙이가 다시 말을 보태려 하였으나 차기완은 손을 쳐들어 그의 말을 밀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잠시후 차기완이 뜻밖에도 민숙이의 두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었다.

《정인이 에미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고맙구나. 사실 그곳엔 박선생보다 네가 가는것이 덜 위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심해라. 이 일은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걸.》

차기완은 말을 계속했다.

《물론 너도 이제는 경찰들의 표적이 되였다는걸 명심하고 매사에 부디 몸조심해라. 서뿔리 목숨을 버릴 생각은 아예 말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네 말처럼 이미 떠나간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생각하거라. 그러면 죽음의 나락에서도 힘이 솟을게다.》

차기완은 박철우와 민숙이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박선생과 정인이 에미가 제각기 그곳을 찾아가면 좋을것같군요. 먼저 선거명부를 찾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약속된 표식물을 남긴 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을 향해 떠나도록 합시다. 벌써 24일 새벽이구만. 우리에게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차기완은 민숙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간절하게 당부했다.

《박선생이 알려준 개성의 접선장소를 명확히 기억하거라. 만일 네가 먼저 명부를 찾는다면 더이상 박선생을 기다리지 말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명부를 개성에 정확히, 안전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 명부에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희망하는 우리 마진시민들의 절절한 념원이 깃들어있다는것을 꼭 명심해라.》

《아버님, 알겠습니다.》

차기완은 황병두를 급히 불렀다.

《황동무는 박선생일행을 데리고 소운사를 빠져나가시오. 이곳 주지가 비밀굴로 안내할거요. 세사람은 소운사를 벗어나면 각기 흩어지시오. 황동무는 서판사댁에서 예곤이를 찾아 정인이와 두인이가 있는 그 애들의 외삼촌댁으로 가시오. 주의하오. 그곳에는 아직 감시자들이 남아있을수도 있으니까.》

차기완은 황병두에게 바투 다가가 귀속말로 몇가지 지시를 주었다.

황병두가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차기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대로 해야 하오.》라고 강조하였다.

차기완은 민숙이를 돌아보았다.

《오빠네 식구들과 애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겠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는 마음놓아도 될게다.》

《알았습니다, 아버님.》

민숙이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래, 너도 매사에 주의해라.》

박철우는 차기완에게 물었다.

《한정덕동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기완은 뒤를 언듯 돌아보고나서 말했다.

《그애는 내가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우리도 인차 자리를 뜰터이니 최종집합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차기완은 박철우와 뜨겁게 포옹했다. 다음순간 그는 민숙이를 쳐다보다가 그를 꼭 품어주며 속삭였다.

《위험한 길이다. 하지만… 우리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예, 아버님.》

민숙이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와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차기완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자, 그럼 이젠 떠나시오.》

소운사는 산중턱에 있는 낭떠러지아래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래서 소운사뒤쪽은 온통 벼랑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그 벼랑에 잡관목으로 가리워진 작은 동굴과 뒤길이 숨겨져있었다. 비상통로였는데 이곳 주지와 몇몇 사람밖에는 모르는 길이였다.

주지의 뒤를 쫓아 세사람이 긴 비밀통로를 벗어나 등성이에 나섰을 때는 이미 로적봉과 잇닿아있는 다른 봉우리에 건너와있었다.

동녘하늘이 희미하게 빛나고있었다. 날이 밝기 시작한것이였다.

민숙이, 박철우, 황병두 세사람은 서로 굳게 손을 맞잡고나서 제가끔 흩어졌다.

제 4 장

삶과 죽음

42

박철우는 드디여 수림을 벗어나 산기슭에 나섰다.

날은 이미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새벽안개가 땅바닥을 핥으며 산으로 기여오른다.

석비레가 드러난 산비탈아래로 누런 조이삭이 설레이는 자드락밭들이 이어졌다. 게딱지같은 오막살이들이 띄염띄염 널려있는 후미진 곳이였다.

어느 집에서인가 수탉이 홰를 치자 삽살개가 컹컹 짖어댄다. 개중에는 살림이 좀 괜찮은 집들도 있는지 돼지가 새벽부터 먹이를 달라고 꽥꽥 소리를 질러댄다. 하늘을 향해 삐뚤서하니 올리솟은 굴뚝으로는 가난의 한숨같은 가느다란 연기가 실오리처럼 피여오른다.

박철우는 이제 초가집들사이를 지나 도로에 나서면 택시든 아무 차든 잡아탈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가 기울어진 싸리대울바자옆으로 난 새길로 발을 재게 놀리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누군가가 《손님!》 하고 불러세웠다.

박철우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검은 경찰복을 입은 뚱뚱한 사내가 다가오고있었다.

《증명서를 봅시다.》

박철우는 태연하게 증명서를 꺼내주었다. 그의 눈길은 사뭇 미소까지 머금고 경찰을 바라보고있었다.

경찰은 마흔댓살정도 나보였다. 아마도 이곳에서 밤을 새운듯 눈이 충혈지고 볼에는 빳빳한 수염이 돋아 거밋했다.

경찰은 증명서를 펼쳐보며 혀를 찼다.

《이런, 흥국상회 전무이시군. 헌데 이른새벽부터 이 외진 곳엔 웬

일이지요?》

박철우는 대답했다.

《엊저녁에 불공을 드리려고 절을 찾아왔소. 바쁜 일이 생겨 급히 산을 내렸는데 그만 길을 헛갈렸구만.》

《그럴수 있지요.》 하면서도 증명서를 되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증명서를 접어 자기 손바닥을 툭툭 두드리며 권유했다.

《저와 함께 파출소로 가야겠습니다.》

《왜요?》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난 좀 바쁜데…》

《잠간이면 됩니다. 엊저녁 북한산에서 살인사건이 한건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서 그 주변을 뒤졌는데 낡은 창고에서 신원미상의 녀인의 시체가 나졌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파출소에 가서 신원을 확인한 후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신분을 봐서인지 경찰은 사뭇 조심스레 대했다.

박철우는 눈을 찌프렸다. 파출소에 가면 어떤 시끄러운 일이 기다리는지 알수가 없다. 또 제발로 파출소까지 간다는것은 범의 굴로 들어가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박철우는 주변을 두루 살피였다. 다행히도 경찰은 단독근무를 서고 있은듯 혼자였다.

박철우는 지갑을 꺼내들었다.

《이보오. 내 정말 바빠서 그러는데…》

박철우가 돈을 꺼내쥐는데 경찰은 두손을 내밀어 막는 시늉을 하였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잠간이면 됩니다.》

(고집불통이군.)

박철우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흡떴다.

《아니, 당신뒤에… 저게 웬 사람이요?》

경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틀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박철우는 두손을 모아 경찰의 뒤통수를 힘껏 후려갈겼다. 경찰은 정신을 잃고 통나무처럼 쿵 하고 넘어졌다.

이른아침인지라 마을사람들이 아직 대문밖으로 나오지 않아 주변은

고요했다. 새벽이면 의례히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긷는 녀인들의 모습도 다행히 보이지 않았다.

박철우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뛰여갔다. 그는 젖빛안개가 감도는 수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는 이 마을을 에돌아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북악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300여메터높이의 산이다. 흰 바위들이 드러난것이 멀리서 하얗게 보인다고 하여 일명 백악산이라고도 불리웠다. 산중턱아래에는 사철푸른 소나무들이 우거지고 남쪽골짜기로는 한강의 지류인 청계천이 흘렀다. 릉선에는 서울의 옛 성곽이 있으며 남동쪽기슭에는 공원이 있었다.

미아동을 벗어나 동소문로를 따라 공원에 이른 민숙이는 아침운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곁을 지나 취운정을 향해 올랐다.

하얀 바위틈에서 퐁퐁 솟아난 맑은 샘물이 조약돌을 핥으며 돌돌 흐르고있었다. 이곳은 흰사슴이 노닐던 곳이라고 하여 일명 백록동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취운정 북쪽에서 삼각표식을 해놓은 바위를 찾아낸 민숙이는 주위를 두루 살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바위아래의 틈새로 손을 오무려넣었다. 딱딱한 물건이 손끝에 잡혔다.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두근거렸다.

민숙이는 잠시 주위를 다시 둘러보고나서 손을 쑥 뽑았다. 그리고 손에 쥔 물건을 치마폭에 얼른 감쳤다.

(박선생이 아직 오지 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속을 스쳤다.

민숙이는 걸음이 빠른 그가 한발 먼저 와서 명부를 찾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헌데 명부가 아직 남아있는것으로 보아 그는 이곳까지 오지 못했다.

(장소를 헛갈린것은 아닐가?)

아니, 그럴수 없다. 민숙이는 몇번이고 곱씹어 장소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해.)

민숙이는 이곳에서 다문 몇분간만이라도 그를 기다리고싶었다.

그러나 시아버지 차기완은 명부를 찾으면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고 신신당부했다.

민숙이는 명부를 소중히 품어안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고 민숙이는 굳은 결심을 다시한번 다졌다.

이른아침부터 취운정아래에 녀인이 오래도록 앉아있으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민숙이는 바위우에 횡십자표식을 해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좀 웃쪽에 여러개의 의자들이 비여있는것을 발견했다. 나무그늘밑에서 한담을 나눌수 있게 꾸려놓은 휴식터였다.

한순간 민숙이는 그곳에 잠시 앉아 다리쉼을 하며 박철우를 기다리고싶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떴다.

민숙이는 애타는 눈동자로 아래쪽으로 뻗은 길을 더듬었다. 몇사람이 운동복을 입고 올라오고있었으나 그토록 기다리는 박철우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곳을 뜨면 서울에서는 더이상 박철우를 만날 기회가 없다.

민숙이는 아직 젖먹이에 불과한 예곤이의 포동포동한 얼굴이 눈에 밟혔다.

저 아래쪽거리에서 예곤이가 곤히 잠들어있을 서판서댁이 가물가물 보인다. 벌써 스무시간동안이나 그 어린것을 품에서 떼놓았다. 헌데 이제 그는 예곤이가 있는 곳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예곤아, 곧 엄마가 찾아가마. 그때까지 제발 기다려다오. 병두, 아이들을 부탁해요.)

민숙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서울역으로 돌렸다.

역사안의 매표구앞으로 려행자들의 줄이 뱀꼬리처럼 길게 늘어섰다.

맨뒤쪽에 선 민숙이는 려행자들을 살폈다. 혹시나했으나 역시 박철우의 낯익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매표구앞으로 다가간 민숙이는 돈을 들이밀며 말했다.

《개성까지 한장 주세요.》

반달모양의 매표구안에서 하얀 손이 얼핏 나타나 돈을 움켜쥐더니 누런 차표를 남기고 사라진다. 손톱에 연분홍물을 올린 가느다랗고 매

출한 손가락이 매표구안으로 얼른 사라지는 모양을 멍히 내려다보던 민숙이는 뒤사람에게 등이 떠밀려서야 그 자리를 떴다.

원래 그 기차편은 서울에서 평안북도 의주까지 가는 긴 로선이였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다시 갈아타면 삼천리강산을 동서남북으로 꿰지를수 있었다. 그러나 38도선이 바야흐로 조국땅을 가르는 원한의 분계선으로 고착되면서 이 렬차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안고 개성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차표를 받아쥐고 커다란 아치형통로아래에 이른 민숙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오른쪽출입구에는 곤봉을 손에 쥔 두명의 경찰이 서성거리고있었다.

민숙이는 홀에 세워놓은 커다란 시계를 보았다. 개성으로 가는 기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한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민숙이는 기다림칸으로 들어가 될수록 으슥한 곳에 자리잡고 앉았다.

그는 혹시 박철우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하여 문을 드나드는 려객들을 지켜보았다. 박철우도 개성으로 가기 위해 꼭 이 렬차편을 리용할것같은 예감이 들었다.

구내방송으로 개성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은 개찰구로 나가라는 안내방송이 울릴 때까지도 박철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숙이는 한숨을 호— 하고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려객들이 저마끔 좁은 개찰구로 몰려들었다. 개성행렬차가 하루 연착되였다고 하니 승객들이 많았다.

오래도록 지루하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개찰이 시작되자 앞으로 욱밀려나갔다. 개찰구주변에 모여든 려객들은 승벽내기로 밀내기를 하였다. 철도직원들과 경찰들은 질서를 유지하느라고 호각을 불고 소리를 쳤다.

민숙이는 갓난애기를 업은 한 녀인이 한손에는 보따리를, 다른 손에는 두인이 나이또래의 작은 사내애의 손목을 쥐고 려객들에게 밀려 휘청거리는것을 보았다. 그 녀인의 곁으로 다가간 민숙이는 작은 사내애를 닁큼 안아들었다.

《내가 앞설테니 따라오세요.》 하고 민숙이는 녀인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녀인은 진정으로 고마워했다.

체소한 사내애를 안아드는 순간 민숙이는 또다시 예곤이의 귀여운 얼굴이 떠올라 멍든 가슴을 울려놓은듯이 알알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예곤이가 남아있는 서울을 뒤에 두고 개성행 렬차를 향해 움직이고있었다.

43

동남쪽에서 눅눅한 바람이 불었다. 거대한 검은구름 한덩어리가 하늘을 덮으며 밀려오더니 사위가 훤히 밝은데도 대줄기같은 소나기를 좍좍 쏟아붓는다.

차기완은 배부른 붉은색기둥옆에 기대여서서 불시에 물이 범람하며 흙탕물이 콩튀듯 튕겨오르는 앞마당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의 곁으로 한정덕이 다가왔다.

《아버님, 아침진지가 준비되였습니다.》

깊은 사색에 잠긴듯 차기완은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듯 줄다리가 건너간 입구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비도 참… 저 건너편에는 해빛이 쨍쨍 밝은데 이곳에서는 소나기가 좌락좌락 쏟아지는구나.》

한정덕은 잠자코 서있었다.

그에게로 돌아선 차기완은 사뭇 정답게 말했다.

《너도 같이 먹자꾸나.》

한정덕이 대답했다.

《전… 따로 먹겠습니다.》

차기완은 그냥 한자리에 서서 먼산을 바라보고있었다.

한정덕은 물었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십니까?》

차기완은 대답이 없었다. 한정덕은 다시 재촉했다.

《아버님, 아침진지가 식습니다.》

《그래, 먹어야지.》

차기완은 별이 재글거리는 먼산을 다시 흘낏 쳐다보고나서 돌아섰다.

한정덕은 말했다.

《미안합니다. 이전에 다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차기완은 너그럽게 일렀다.

《괜찮다. …난 널 탓하지 않아.》

아침식사를 마친 후 차기완은 주지를 만나겠다며 승방을 나섰다.

홀로 남은 한정덕은 두무릎을 치마로 감싸고 오도카니 앉았다.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속은 바질바질 끓고있었다. 귀중한 한초한초가 기약없이 흐르고있다.

지난밤 자정이 퍽 지나서야 방으로 들어온 차기완은 한정덕에게 마음을 진정하고 눈을 좀 붙이라고 권하였다.

자리에 누웠으나 한정덕은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두세시간쯤 지나서 그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벽체에 기대여 눈을 감고있던 차기완이 물었었다.

《며늘애야, 어디 가려느냐?》

한정덕은 활기가 없이 대답했다.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을 좀 쐬이렵니다.》

《새벽공기가 차겠으니 인차 들어오너라.》

밖에는 싸리비자루를 든 스님들이 허름한 승복을 입고 마당을 쓸고있었다. 그들은 한정덕이 마당에 내려서자 두손을 모아쥐며 먼저 인사를 하였다.

《나무아미타불. 밤새 편히 주무시였습니까?》

대문에는 아직 빗장이 든든히 질러있었다.

뜰안을 거닐며 엿보았으나 민숙이도 박철우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도 어디선가 쉬고있을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인차 도리머리를 저었다.

우선 녀인인 민숙이가 휴식을 한다면 마땅히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은 벌써 24일 새벽이다. 래일 저녁이면 해주에서는 총선거를 마무리짓게 된다. 그런데도 아직 서울을 채 벗어나지 못한채 셈평좋게 잠을 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한정덕이 급히 승방으로 돌아왔다.

차기완은 태연하게 코를 드렁드렁 골고있었다.

한정덕은 차마 시아버지를 깨울수가 없어 속만 바질바질 끓었다.

그가 보기에는 결코 시아버지가 궂잠에 든것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면팔방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경계하며 일거일동을 곤질기게 주시하는 것만 같았다. …

종소리가 들렸다. 스님들에게 불경을 외우라고 알리는 종일수도 있었다.

한정덕은 곰곰히 생각을 더듬었다.

(민숙이와 박철우 그리고 황병두라는 안내자는 이미 이 절에서 떠난것이 분명하다. 하다면 나는…)

한정덕은 아직 북한산에 머물러있다.

《아버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차기완이 식사를 끝내였을 때 한정덕이 물었다.

차기완은 실무적으로 말했다.

《우린 의정부를 지나 포천으로 가야 한다.》

그는 담너머를 얼핏 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네가 나를 좀 도와다오. 정오까지 기다리는 손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떠나자꾸나.》

《박철우동지가 제게 준 지시는…》

《나도 다 알고있다. 걱정말아. 모든게 예정대로 진척되고있단다.》

그러나 한정덕은 그 말을 믿고 한정없이 기다리기만 할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은 초조해났다.

(24일 밤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주에 도착하여 대표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했었다. 그래야 25일에 진행되는 총선거에 참가할수 있다고… 오래동안 준비한 모든것이 오늘 결판나게 될것이다.)

한정덕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활짝 열린 뙤창으로 해빛이 스며든다.

언제 소나기가 내렸던가싶게 활짝 개인 하늘에서 태양은 능청스레 빛나고있었다.

한정덕은 혹시나하여 차기완이 들고다니던 밤색가죽가방을 찾아보았다.

주지를 만나러 가면서도 차기완은 그 가방을 들고 간 모양인지 보

이지 않는다. 무슨 보물이라도 들어있는지 그는 그 가방을 곁에서 떨궈놓지 않았다.

한정덕은 주먹을 부르쥐였다.

(이제는 주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각이다.)

한정덕은 주지를 찾아갔다. 주지의 방은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향로를 가운데 놓고 주지와 한담을 나누던 차기완은 한정덕에게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한정덕이 대답했다.

《아버님, 잠시 여쭐게 있습니다.》

차기완은 두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주지에게 말했다.

《때가 된 모양입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찾아뵙지요.》

주지는 문밖까지 따라나오며 당부했다.

《시주님, 안색이 좋지 못합니다. 건강에 부디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란간을 따라 돌며 차기완은 한정덕에게 다시 물었다.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

한정덕이 말했다.

《웬 스님이 아버님께 전하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웬 스님이? 누구라더냐?》

《그저 아버님께 전하면 안다고 했습니다. 무슨 서신같기도 하던데…》

《편지라…》

고개를 기웃거리던 차기완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정덕은 그가 들고있는 가방을 주시하다가 소매에서 봉투를 꺼내여 내밀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전 밖에 나가있겠습니다.》

차기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봉투를 뒤집었다. 앞에도 뒤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차기완은 머리를 들었다. 그의 시야에는 방을 나서며 문을 꼭 닫는 한정덕의 모습이 비꼈다.

방에 홀로 남은 차기완은 무심히 봉투를 뜯었다.

봉투속에서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들이 주르르 쏟아졌다.

(대체 이건 뭔가?) 하고 놀라는 순간 차기완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차기완은 어쩔새없이 휘청거리다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맥없이 쓰러졌다.

…풀숲에 위장한채로 엎드려 소운사의 대문을 열심히 살피던 채영학은 누군가가 뒤에서 등을 툭 건드리는 서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정덕이였다.

《네넌이?!》

채영학은 벌떡 일어나며 총구를 그의 불룩한 가슴에 들이댔다.

그러나 한정덕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따위 장난감은 걷어넣어.》

한정덕은 채영학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장 재클린각하에게 련락해. 소운사를 장악하였음. 차기완을 체포하였음. 주지의 말이 박철우와 민숙이, 황병두는 꼭두새벽에 산을 내렸다고 함. 그들의 행처를 알수 없음.》

채영학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넌 대체 누구냐?》

한정덕은 싸늘하게 웃었다.

《내가 <검은비수>다.》

잠시후에 한정덕은 소운사 대문을 활짝 열며 들어갔다.

44

렬차는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역홈으로 들어섰다. 차창밖으로 《개성》이라고 쓴 붉은 표말뚝이 언듯 지나갔다. 기차가 채 멎어서지도 않았는데 승객들은 짐을 꾸지느라고 서둘렀다.

민숙이는 품안에 손을 살며시 넣었다. 딱딱한 선거명부가 손끝에 만져졌다.

이제 철도역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한다. 이곳 역사에는 분명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은 경찰과 밀정들이 밀집되여있을것이다. 더구나 개성은

38도선이 가로질러간 분계연선지역이여서 미군헌병들의 감시도 여간만 아닐것이다.

서울에서부터 함께 온 녀인이 무릎에 앉혔던 어린아기를 등에 업었다.

민숙이는 포단으로 아기와 녀인을 포근히 감싸주었다. 녀인은 감사의 눈미소를 지었다.

민숙이는 녀인의 세살잡이아들을 닝큼 안아들며 말했다.

《앞서세요. 개찰구까지 함께 가자요.》

《정말 미안해요. 오는 동안 신세만 졌는데…》

《려행길에서 서로 도우며 가는거야 인지상정이지요.》

고려의 옛 도읍인 개성은 비교적 번성하는 상업도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도 약삭바른 왜놈장사치들이 밀려와 상업도시인 개성에 발을 붙이려고 거리마다 상점들을 꾸려놓았으나 개성사람들은 같은 동포들의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사면 샀지 그옆의 현란한 왜놈상점에는 발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성상인들은 혹시 누군가가 왜놈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반드시 기억해두었다가 그에게는 물건을 다시 팔아주지도 않았고 돈도 꾸어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함께 들어있던 《계》에서도 쫓아내여 고립시켰다. 그리하여 일본장사치들은 남대문근처에 왜인들을 대상하는 잡화점과 옷상점, 생선가게따위를 남겨놓고는 종시 개성에 발을 붙이지 못한채 도망을 쳤다는 완고한 도시이기도 하였다.

개찰구쪽에는 출장, 나들이, 려행, 장사 등을 목적으로 온 형형색색의 손님들로 붐비였다. 철도경찰들이 증명서뿐 아니라 등짐, 보짐, 손짐들을 일일이 헤쳐보며 몸수색까지 깐깐히 하고있어 좁은 출입구로는 손님들이 빠질념을 못했다. 려객들은 자꾸만 꾸역꾸역 모여들고 밀집되여 서로 당기고 밀어대고 소리치며 아우성이였다.

《언니.》 하고 아기를 업은 녀인이 민숙이에게 속삭였다.

《개찰구쪽으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세요.》

녀인은 민숙이를 직원출입구쪽으로 이끌며 설명했다.

《제 남편이 여기 역사에서 일한답니다.》

녀인의 말속에는 숫저운 부끄러움과 함께 남편에 대한 긍지가 배여있었다.

민숙이는 기대를 품고 녀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남편은 철도제복차림으로 출입구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안해가 나타나자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어린아기의 야들야들한 볼에 입을 맞추고는 민숙이가 들고있는 보따리를 받아쥐였다. 그리고는 누구인가고 묻는 눈길로 안해를 보았다.

녀인은 나직이 남편에게 귀띔했다.

《서울역에서부터 나를 도와준 고마운분이예요.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인삼을 구하러 왔대요.》

사나이는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숙이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직원출입구로 나가야 하니 누가 물으면 친척이라고 하십시오.》

직원출입구에도 역시 두명의 경찰이 량옆에 서있었다.

남편이라는 사내가 보짐을 쥐고 안해와 함께 그들에게로 다가가자 경찰들이 아는체를 하였다.

《아, 아주머니가 지금 오는게구만.》

《더운 날 다녀오느라 고생많았겠소.》

사내가 어린 자식의 손목을 쥔 민숙이를 가리키며 경찰들에게 소개했다.

《처가집 누이요. 처가 짐도 있고 아기도 있으니 나들이겸 따라왔구만.》

경찰들은 리해가 된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리고는 덕스럽게 생긴 동실한 얼굴에 아무런 손짐도 없는 민숙이를 별로 의심하지 않고 내보냈다.

사내가 경찰들을 향해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근무가 끝나면 우리 집에 들리라구요. 처가 술과 고기안주를 준비하겠답니다.》

역사를 나와 큰길에 들어선 녀인이 민숙이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집에 들렸다가요. 그러지 않아도 기차를 타고오면서 신세만 졌는데…》

민숙이는 살짝 웃었다.

《괜찮아요. 일부터 먼저 보고 저녁쯤에 시간이 나면 들리지요.》

《꼭 오셔야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내도 집주소를 대주며 당부했다.

민숙이는 큰숨이 나갔다. 생소한 역전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가슴을 조였는데 예상외로 무난히 거리까지 나올수 있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힘겨운 려행을 하는 한 녀인을 돕자고 한 소행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줄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

그들내외가 서로 속삭이며 가는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돌연 옛 시구절이 떠올랐다.

읍호개성 하폐문
산명송악 기무신
…

(읍의 이름은 개성인데
어찌 문을 닫느냐
산의 이름이 송악인데
왜 땔나무가 없느냐
…)

조선봉건왕조시대의 풍류시인 김삿갓이 개성에 들려 남긴 풍자시였다. 그가 개성에 와서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며 하루밤 쉬여가기를 청하니까 주인이 나와 《나무가 없어서 불을 때지 못해요.》 하고 말하고는 열었던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고 한다. 경계심이 강하고 조심스러워 남에게 좀해서 속을 주지 않으며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상업도시 주민들의 성격을 반영한 시라 하여 머리속에 남아있은 모양이다. 인정도 품앗이라는데 개성주민들도 사람나름이다. 그들속에도 고약한 사람이 혹간 있겠지만 그건 일부이고 대개 정이 무른 동방례의지국의 품성이야 어디 가랴.

(내가 참 한가하구나.) 하고 민숙이는 자책했다.

(서울에 자식들을 떨궈두고… 난 여기 개성에 나들이를 온게 아니야.)

다정한 부부와 목가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마음의 탕개가 늦추어진것같다. 아직 거리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있을지 모른

다. 더우기 이제는 그 어떤 방조자도 없다. 모든것을 혼자 판단하고 결심하고 처리해야 했다.

민숙이는 바싹 속을 조이며 뒤를 몇번 살피고나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살구나무들이 많이 서있는 역전공원을 지나며 한 로인에게 물었다.

《아버님, 여기 선죽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인이 거리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길을 따라 쭉 가느라면 남대문이 나질거우다.》

모시적삼을 입은 그 로인은 상인같아 보였다. 그는 별로 꼬치꼬치 묻지도 않고 선선히 방향을 알려주었다.

《그 남대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느라면 선죽교가 보일거우다.》

《고맙습니다.》

민숙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곧 자리를 떴다.

대낮이건만 개성의 거리는 이를데없이 스산하고 살풍경했다. 이따금 미군용차들이 질주하는가 하면 팔에 완장을 두른 헌병들과 경찰들이 대통로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선죽교는 이름난 력사유적이여서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었다. 원래 선지서원이 있는 곳의 다리라 하여 선지교라고 불리웠는데 고려말기에 봉건관료이며 유학자인 정몽주가 임금에 대한 충의를 지키다가 리성계일파에 의해 피살된 곳으로 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정몽주가 피살된 후 그가 죽은 자리에 참대가 돋아났다고 하여 다리이름도 선죽교로 고쳐 불렀다. 그후 정몽주의 후손이 개성류수로 있으면서 선죽교우에 돌란간을 돌려 사람들이 건너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옆에 새로 돌다리를 놓았다고 했다. 선죽교옆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어느 명필이 쓴 《선죽교》라는 비석과 정몽주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성인비, 록사비, 표충비 등이 있었다.

민숙이는 선죽교부근에 있는 푸른 기와를 씌운 집을 인차 찾았다. 대문앞으로 다가서던 그는 가슴이 섬찍하여 획 돌아섰다. 빠른 걸음으로 그 근처를 지나 골목으로 꺾어돌았다. 키높은 담장에 가리워 그늘진 그곳에는 마침 지나다니는 행인이 없었다.

민숙이는 가슴에 두손을 모두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여

나올듯이 쿵당거리며 요동쳤다.

민숙이는 급기야 마른기침을 터뜨렸다.

박철우는 민숙이에게 간곡히 당부했었다.

《대문에 <최두민>이라는 명찰이 붙어있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일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대문에는 《석봉 강씨의 집》이라는 뜻의 한자명패가 매달려있었다. 석봉이라는 이름은 그 집주인의 자나 호인듯싶었다.

민숙이는 이마에 촘촘히 내밴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숨결을 가다듬었다. 잠시후 그는 보통걸음으로 선죽교옆을 지났다. 만일 선죽교부근의 접선에서 실패하면 자남려관을 찾아가라고 했다.

자남려관은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대신 대도로 한복판에 있었다.

려관이 사람들의 눈이 잘 미치지 않는 으슥하고 안침진 곳일거라고 지레짐작하였던 민숙이는 사뭇 당황스러웠다.

전번처럼 어느 구석진 곳에 명부를 감추고 접선장소로 가고싶었지만 이곳 개성은 생소한 곳이라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도 긴박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 헌병, 경찰들이 씨글거리고 거리를 나다니는 행인들도 많으니 누가 밀정이고 끄나불인지도 알수없다.

《아주머닌 어디서 사오?》라는 물음이 금시라도 등을 때릴가봐 무척 조마조마했다.

민숙이는 자남려관을 그냥 지나가다가 돌아섰다. 이렇게 려관앞에서 무료하게 서성거려도 경찰이나 밀정들의 주의를 끌기 십상이다. 아니나다를가 저쪽 건너편 전주대아래에서 웬 사내가 자기쪽으로 다가오려는것같았다.

민숙이는 속을 조이며 려관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남성이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반겨맞았다. 직업적인 미소가 그의 얼굴에 비껴있었다.

민숙이는 나직하게 말했다.

《사람을 찾습니다.》

《미안하지만 손님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최두민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려관에 숙박한 손님입니까?》

민숙이는 말문이 막혔다. 박철우는 최두민이라는 이름 석자만 대주었을뿐 그가 손님인지 주인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접수구의 사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있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왔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 최두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만…》

사내가 말을 중도에서 끊었을 때 민숙이는 속이 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급히 이곳을 떠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쳤다. 헌데 이곳에서마저 접선이 실패하면 어쩐단 말인가. 이미 해는 서쪽으로 기울려고 한다.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사내가 귀속말처럼 나직이 말을 이었다.

《혹시 주인님께서 알고계실지도 모르니 주인님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접수구옆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문이 있었다. 사내는 그 문을 열고 제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길다란 복도에는 여러개의 문이 있었다.

사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가다가 왼쪽의 방문을 열며 먼저 들어가라는 시늉을 했다.

민숙이는 기대를 품고 안으로 들어섰다.

려관주인은 흰 수염을 기른 로인이였다. 그는 책상우에 놓인 장부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고있다가 방안에 들어서는 민숙이를 쳐다보았다.

안내해온 사내가 말했다.

《주인님, 이 녀인이 최두민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로인은 고개를 끄덕여 사내를 내보내고나서 물었다.

《최두민이라는 손님은 12호실을 예약한 손님이 아니던가요? 17시경에 도착한다고 했던것같은데…》

접선할 때 수자로 묻는 경우 그 합이 꼭같도록 대답하기로 약속되여있었다.

민숙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9호실을 예약한 손님이 늦어서 20시경에야 올것같다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로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민숙이의 곁을 지나며 혼자말처럼 속삭였다.

《따라오게.》

복도 한끝에 이른 로인은 어느한 방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이곳에서 좀 쉬라구. 한시간후에 떠나야 하네.》

민숙이는 금시 주저앉을것만 같았다.

(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정신육체적으로 몹시 지치고 피로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로인의 말대로 좀 쉬는것이 옳을것같았다.

방안으로 들어서던 민숙이는 그안에 사내가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 사내가 문소리에 돌아서는 순간 민숙이는 숨이 멎는것같이 놀랐다. 그리고 순식간에 전신의 힘이 땅속으로 쑥 잦아버린듯 온몸이 나른해졌다.

민숙이가 쓰러질듯이 비칠거리자 사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부축했다.

민숙이의 작은 입술로 외마디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차상준도 놀라 부르짖었다.

《여보,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저도 모르게 민숙이의 두볼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남편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차상준은 안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등뒤에 서있던 로인은 전후사연을 알지 못하여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차상준은 어줍게 웃어보였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로인의 감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구만. 녀인의 몸으로 예까지 홀로 오느라고 고생인들 오죽했겠나.》

차상준은 민숙이를 뜨겁게 포옹한채 안으로 이끌었다.

45

10평방이 채 될가말가한 네모난 방은 이전에 려관에서 원자재들을 건사하는 창고로 쓰던 곳이였다. 상자며 당반들을 전부 내가고 텅 비워놓은 뒤골방인지라 아무런 비품도 없어 썰렁했다. 바닥에는 커다란 모란꽃을 중심에 새겨놓은 누런 돗자리를 깔아놓았다.

차상준은 둥근 방석을 내밀며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깔고앉소. 바닥이 차오.》

민숙이는 차상준에게 두손을 맡긴채 그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반년만에 다시 만난 그리운 모습이였다. 그새 두볼의 살이 패이고 눈확이 꺼져들어간게 그가 겪은 고생이 여간 아닌듯싶었다. 눈귀에도 굵은 주름이 잡혔다. 이제 겨우 30대중반기에 들어선 남편이였지만 무척 걸늙어보인다.

민숙이는 가슴이 몹시 아팠다. 그래도 민숙이를 쳐다보는 남편의 까풀진 두눈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예지와 따뜻한 정이 흐르고있었다.

차상준이 싱글거리며 말했다.

《당신을 여기서 만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소.》

그 순간 민숙이는 시아버지 차기완이 상대방이 접선암호에 응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고 곱씹어 강조하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민숙이는 뜬금없이 대답했다.

《서울역에서 10시경에 렬차에 올랐는데 얼마나 느린지 14시경에야 개성에 도착했어요.》

차상준은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슴벅거렸다.

민숙이는 다시 말했다.

《애들을 데리고 남이섬으로 가던 길이였어요.》

차상준은 그가 남이섬 친정집으로 떠난줄은 마진에서부터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가 아닌가.

차상준은 물었다.

《애들은 남이섬에 있소?》

민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서울 오빠네 집에 맡겨놓았어요.》

민숙이는 한숨을 호 내쉬였다. 결국 차상준은 민숙이와 만나기로 되여있는 접선자가 아닌 모양이였다.

(이제 한시간후에 떠나야 한다고 했지.)

민숙이는 로인이 한 말을 되새기며 저도 모르게 하품을 하였다. 긴장이 풀리니 눈까풀이 추를 매단것처럼 자꾸만 내려감긴다.

차상준은 더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는 민숙이의 어깨를 살며시 끄당기며 말했다.

《피곤하지? 내게 기대여 잠시라도 눈을 붙이오.》

민숙이는 차상준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오래간만에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으니 형언할수 없을만큼 안온하고 행복한 느낌이였다.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남편의 손길은 비단결마냥 부드럽다.

민숙이는 눈을 꼭 감았다.

해빛이 금빛으로 부서지는 푸른 물결, 검은 나루배… 정인이, 두인이가 누런 조이삭이 설레이는 밭 한가운데로 달려간다. 푸른 잎새 설레이는 밤나무우에서 한쌍의 까치가 울고 백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립문을 열고 달려나온다.

(끝끝내 남이섬에 도착했구나.) 하고 민숙이가 생각하던 찰나에 누군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민숙이는 눈을 번쩍 떴다.

차상준이 애틋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있었다.

로인이 다가앉으며 말했다.

《단잠을 깨워 미안하네. 하지만 이젠 떠날 때가 되였네.》

(겨우 1~2분정도 깜박 졸았던것같은데 벌써 한시간이 흘렀단 말인가!)

민숙이는 바로 앉으며 습관처럼 손을 품에 넣었다. 명부는 그대로 있었다.

로인은 증명서를 내밀었다. 그러다가 증명서를 받아쥐는 민숙이의 손을 자세히 내려다보며 물었다.

《왼손무명지에 반지를 끼고있었던것같은데?》

아마도 반지자리가 희끄무레하니 나있는것을 발견한 모양이였다.

민숙이는 얼굴이 숯불을 들쓴듯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죄스러운 심정으로 차상준을 보며 말하였다.

《여보, 미안해요. 서울에서 일이 생겨 결혼반지를 전당포에 맡길수밖에 없었어요. 돌아가던 길에 꼭 찾겠어요.》

차상준은 말없이 민숙이의 왼손을 꼭 쥐였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민숙이는 자기를 쳐다보는 남편의 절절한 눈빛에서 그가 한마디도 묻지 않지만 서울에서 겪은 고생을 모두 헤아리며 못내 가슴아파한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 사랑, 그 정에 목이 꽉 메여오르고 눈굽이 달아올랐다.

민숙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였다.

로인이 주머니에서 낯선 반지를 꺼내여 차상준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대신 끼워주게.》

차상준은 기계적으로 그 반지를 받아들었다.

민숙이는 영문을 몰라 손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차상준이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민숙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낯선 반지를 밀어넣었다.

로인은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마종화를 아오?》

민숙이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적이 없었다. 차상준도 마찬가지였다.

로인은 말을 계속했다.

《마종화는 개성의 대부호요. 이곳 경찰서장은 그의 조카요. 이제부터 당신들은 부산에서 마종화할아버지를 찾아오는 그의 손녀와 손녀사위요. 당신들은 송악산중턱에 있는 그의 별장으로 가오. 물론 나는 마종화에게서 송악산별장을 사흘간 빌려놓았소.》

마종화라는 로인의 손녀, 손녀사위로 위장하고 가야 하는만큼 갓 시집간 녀인의 손가락에 결혼반지가 없다면 의심을 살수 있었던것이다.

로인은 차상준과 민숙이에게 옷을 내주며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그가 준 옷에는 화려한 레스에 인조보석이 달려있었다.

민숙이와 차상준은 로인의 길안내를 받으며 자남려관의 뒤길로 빠져나왔다.

해는 아직 중천에 있었다.

민숙이와 차상준은 로인과 함께 자남산기슭으로 흘러내리는 지파리

천을 따라 올라갔다.

민숙이는 대낮에 보석이 달린 사치한 옷을 입고 밖을 나서니 행인들의 눈길을 너무 끄는것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는 차상준에게 소곤거리며 물었다.

《여보, 괜찮을가요?》

차상준은 민숙이의 손을 굳세게 잡아주었다.

《마종화라는 로인이 이 지구의 일대 갑부라는데 그의 손녀, 손녀사위가 남들과 꼭같은 옷을 입어서야 되겠소?! 마음놓소.》

울타리를 높이 쌓은 회색건물이 나타나자 로인은 말했다.

《형무소라네. 이제 성균관을 지나 비둘기성재를 넘으면 송악산어구에 들어서네.》

언덕길을 오르며 로인은 차상준과 민숙이에게 말을 계속했다.

《송악산기슭에는 별장건물이 여럿된다네. 래봉장이라고 부르는 곳은 온갖 새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더군. 어떤가? 이름만 들어도 풍치가 여간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게 알리지 않은가. 그곳에서 어릴적에 마장놀이를 즐기던 할아버지를 따라 새구경을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네.》

사뭇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길안내를 하는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차상준이 민숙이에게 슬그머니 귀띔했다.

《여보, 당신 걸음이 지내 빠르오.》

민숙이는 걸음을 늦추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니 걸음이 자꾸만 빨라진다.

령우에서 사람들을 단속하는 두명의 순경과 맞다들렸다. 그자들은 대뜸 곤봉을 쳐들어 길을 막으며 따지고들었다.

《어딜 가는 사람들이요?》

로인이 한발 나섰다.

《마종화령감님의 별장으로 가우다. 이분들은 령감님의 손녀, 손녀사위되는분들이요.》

마종화라는 말에 눈살이 꼿꼿했던 그자들의 얼굴이 한결 풀렸다.

《진작 그렇다고 말을 할게지. 어서 가시오.》

《령감님에게 안부인사나 전해주시우.》

로인은 그들의 곁을 지나서도 계속 설명했다.

《우리가 방금 올라온 지대는 왜정때에 <동본정>이라고 했던 동부거리네. 성균관과 목청전 등 력사유적이 많은 곳이라 하여 흔히 <귀족촌>이라고 불렀네. 역전쪽의 서부거리는 <서본정>이라고 했는데 좀 개화된 사람들이 산다고 하여 <활량촌>이라고 불렀다네. 자남동, 만월동, 고려동 등이 있는 북부거리는 큰 기와집들이 빼곡이 들어앉은 골안이라고 하여 <부자촌>이라고 하였다네.》

순경들은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며 저들끼리 수군덕거렸다.

송악산기슭에 이르자 로인은 이마에 송골송골 내밴 땀을 손등으로 씻으며 씩 웃어보였다.

《송악산은 마치 머리를 풀어헤친 녀인이 반듯이 누워있는것같이 생겼다오.》

송악산은 이름그대로 푸른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졌다. 박새들이 인기척에 놀라 포르릉 날아올랐다. 어디선가 딱따구리가 나무통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민숙이는 시원한 소나무그늘아래에 들어서며 로인에게 물었다.

《그럼 저 송악산사이로 철조망이 가로질러갔겠구만요.》

로인은 고개를 저었다.

《혹간 경비막이 있으면 거기가 38도선인가부다 하지. 똑똑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네.》

《그래도 경계선을 표시한 표말같은것은 있을게 아니예요?》

《있겠지. 나무말뚝을 박아놨다는 말은 들었네만 나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서…》

차상준은 어금이를 꽉 깨물었다. 그의 눈에서는 사나운 분노의 불빛이 벙긋거렸다.

민숙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분기가 치밀어 작은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그런 허재비같은 선이 이내 몸같은 나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국을 두동강내였다.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의 고귀한 피가 흐르게 하고 귀중한 목숨들을 앗아갔는가!

로인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고는 수림속을 가리켰다.

《이젠 다 왔네.》

우거진 소나무림속에 아담한 2층돌집이 보였다.

돌집으로 바투 다가가는데 숲속에서 《섯!》 하는 웨침이 들려왔다. 이어 풀과 나무잎 등으로 위장한 청년이 뛰여왔다.

《당신들은 누구요?》

로인이 나서며 뭐라고 속삭이자 청년은 차상준과 민숙이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하였다. 별장을 지나 조금 올라가니 수림 한가운데 훤한 공지가 있었다.

그들이 공지에 들어섰을 때 수수한 로동복을 입은 박철우가 두손을 활짝 펴며 마주 왔다.

《차동무, 정말 수고했소.》

차상준은 그를 와락 포옹하였다.

민숙이는 또다시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박철우는 민숙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박철우는 북한산을 내려오다가 경찰과 맞다들린 이야기며 취운정아래 흰 바위를 찾아갔다가 민숙이가 남겨놓은 자리를 보고 돌아선 이야기 등을 하며 거듭 치하했다.

《이번에 정인이 어머니가 정말 큰일을 하였습니다.》

민숙이는 박철우가 너무 추어주니 송구스러운 심정이였다.

차상준은 비로소 민숙이가 개성으로 오기까지의 경위를 알고는 대견하고 흐뭇한 시선을 안해에게서 뗄줄 몰랐다.

그때 풀숲을 헤치며 보초를 서던 청년이 다가왔다.

《선생님, 황병두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수림속에서 키가 큰 황병두가 청년의 뒤로 나타났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표정이 몹시 침울해보였다.

(병두는 예곤이를 찾아간다고 했었지?!)

민숙이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황병두에게 급히 다가가 커다란 손을 안타깝게 부여쥐며 물었다.

《설마… 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니예요?》

황병두는 힘겹게 말했다.

《영협형님내외와 정인이, 두인이, 예곤이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정말 다행이예요.》

민숙이는 한순간 마음을 놓았다.

박철우가 다가서며 근심스럽게 물었다.

《황동무, 어디 다친게 아니요?》

갑자기 황병두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위원장동지,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

《차회장님이…》

차상준은 그의 어깨를 와락 틀어쥐여 제앞으로 돌려세우며 따져물었다.

《병두,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였단 말인가?》

황병두의 눈에서는 피눈물같은것이 고였다가 뚝 떨어졌다.

46

차기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온몸은 이미 굵은 포승으로 꽁꽁 묶이운 상태였다.

(일두 맹랑하게 되였군.)

차기완은 얼굴을 찡그렸다. 팔을 움쩍거렸더니 포승이 몸을 더 조였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미리 각오를 하고 바싹 경계하고있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붙잡히리라고는 타산하지 못했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되는것은 자기가 봉투를 개봉하였을 때 그안에서 마른 사꾸라꽃과 이파리가 떨어지던 괴이한 현상뿐이였다.

《대동아전쟁말기에 관동군이 극비밀리에 개발한 마취제였어요.》

차기완은 마루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말소리가 울려오는 문쪽을 올려다보았다.

한정덕이 두개의 나무의자를 들고 서있었다. 그는 왼손에 든 의자를 문옆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을 계속했다.

《마른 사꾸라꽃잎에는 분말상태의 강한 마취제가 묻어있었어요. 일단 봉투가 개봉되면 반경 1메터안의 인체의 중추신경계통을 마비시켜 정신을 잠시 잃게 한답니다. 부작용은 전혀 없으니 마음놓아도 된답니다.》

한정덕은 차기완의 곁에 다른 의자를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차기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정덕은 그를 부축여 의자에 앉히더니 말했다.

《나도 체면상 시아버님으로 모시던분을 너무 괴롭힐 마음은 없어요. 만일 당신이 우유부단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의자에는 당신대신 내가 묶인채로 앉아 심문받고있었을거예요. … 당신들이 해주에서 찾으려는 김모영이라는 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1945년 봄에 우리의 손에 살해되였으니까요. 다들 내 림기응변에 속는줄 알았는데 당신만은 속지 않고 소록도에서부터 나를 추적해왔더군요.》

차기완은 마른 입을 다시며 물었다.

《넌 대체 누구냐?》

한정덕은 물고뿌를 그의 입가에 가져다대며 말했다.

《목이 탈거예요. 그 약이 부작용은 없는데 깨여나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차기완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린 한정덕은 말을 이었다.

《당신의 가방을 검사했어요. 소록도병원환자들의 그 무슨 병력카드 같은것만 가득하더군요. 물론 선거명부가 없으리라고는 짐작하였으나 눈으로 확인을 하고보니 정말 맹랑하군요.》

한정덕은 차기완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마진시의 선거명부는 어디에 있어요?》

차기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한정덕은 한숨을 내쉬며 위협했다.

《좋아요. 아마 나와는 말하기 싫을거예요. 곧 미국신사 한분이 옵니다. 그 사람과도 이렇게 신사적인 대화를 나눌수 있겠는지는 알수 없군요.》

한정덕이 밖으로 나갈듯이 돌아섰다.

차기완은 그의 등에 대고 불쑥 물었다.

《종준이도… 네가 그를 해쳤느냐?》

한정덕은 한동안 말없이 한자리에 서있었다. 그는 차기완을 돌아보지도 않은채 씁쓸하게 대답했다.

《종준씨의 련락지점을 알려준건 나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그렇게 빨리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종준씨는 너무 고집이 셌어요. 그러니 나도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것뿐이예요. 난 지금도 단란한 한가족이였던 사람들이 죽는것이 그리 유쾌하진 않군요.》

한정덕은 차기완에게 바투 다가서며 회유했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시죠. 그렇지 않다간 귀여운 손자손녀들이랑 온 가족을 모두 해칠수도 있으니까요.》

차기완은 두눈을 질끈 감은채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윽하여 해빛을 등지고 채영학이 비지땀을 철철 흘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기완을 흘낏 쳐다보고는 문쪽으로 돌아서서 허리를 굽신거리였다.

뒤이어 불머리의 미국인이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기완을 발견하자 두손바닥을 우로 쳐들며 탄성을 올렸다.

《오, 마진시 시장고문 차기완씨. 우린 드디여 이렇게 만났군.》

채영학은 한정덕이 이미전에 문옆에 가져다놓았던 의자를 눈치있게 차기완의 앞에 옮겨놓았다.

거쿨진 미국인은 그 의자에 성큼 앉아 노란 눈으로 차기완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몸이 불편할테지만 잠간만 참소. 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한 일이니까.》

재클린은 두손바닥을 비비며 사기가 나서 말했다.

《우린 오래도록 숨박곡질을 했소. 이제는 서로가 솔직해야 할 때가 된것같구만. 내 소개를 하지. 난 하우스만기관의 불머리 재클린이라고 하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당신이 아는바와 같이 마진시경찰서 사찰계장 채영학, 우리의 대화가 끝나면 당신을 아주 안전하게 마진시까지 모셔갈거요. 그리고 이 아릿다운 녀인은 당신의 며느리 한정덕. 그리고 대호는 당신네가 궁금해하는 <검은비수>, 바로 그 사람이요. 가끔 손색없는 남복을 하고 나타나는 <사꾸라>망의 <검은비수>란 말이요.

지금은 우리 기관의 비밀첩자요.》

재클린은 한정덕을 돌아보았다.

《아직 소개를 안했겠지? 더이상 감출 리유도 없소. 시아버님이 무척 궁금할텐데 우선 그 의문을 풀어드리오. 우린 시간이 없소. 그러니 미사려구는 빼고 아주 간단히 소개하오.》

재클린의 재촉을 받은 한정덕은 말꼭지를 뗐다.

《나는 다나까 야스꼬의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그의 비밀상급이였어요. 그는 나의 진짜정체를 몰랐기에 나의 극비지령을 집행해야 했구요. 나는 야스꼬를 알기 훨씬 전부터 <흑룡회>의 비밀성원으로 복무했어요. 나의 할아버지는 리주회라고 1895년 8월(음력) 명성황후시해사건당시 일본사무라이들을 경복궁으로 안내한 이전 군부협판이예요. 나의 할아버지는…》

차기완은 지금까지 잘 모르고있던 친일매국노 리주회의 경력을 그의 손녀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1884년 갑신정변을 계기로 일본으로 도피한 리주회는 《개화》와 《애국》이라는 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친일주구로 돌변했다. 일제는 그를 조선군부에 깊숙이 심어놓기 위해 밀선에 태워 부산항으로 들여보낸 후 봉건왕조의 대신들에게 천거하거나 압력을 가했으며 마침내 군부협판의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칠칠야밤에 일본자객들이 궁궐에 란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할수 있었던것도 리주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것이다. 그후 조선봉건정부는 을미사변에 가담한 매국역적 리주회를 재판하고 사형하였다.

한정덕은 말을 이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전부 일본에 건너가 살았어요. 아버지와 나는 <흑룡회>의 빈틈없는 보살핌을 받았지요. 나의 소녀시절에 서울로 옮겨온 우리 가족은 변성명을 하고 <흑룡회>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나는 <흑룡회>의 지시대로 리화녀고보에서 동맹휴학을 조직하고 로조운동의 핵심인물로 되였고 반일지하조직에 침투하기 위해 김모영이 갇혀있는 형무소로 들어갔어요. 물론 다나까 야스꼬는 이것을 알수 없었어요. 그년이 나를 방조자로 선택했을 때 앞으로 시끄러운 일이 생길것같아 처리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달리했어요. 야스꼬가 내 정체를 전혀 모르는 형편에서 배후에서 잘 조종하면 그 어리석은 년을 요긴하게 써먹을수 있겠다싶더

군요. 나의 타산은 비교적 옳았어요. 나는 내가 직접 나서기 힘들거나 불리해질 때마다 그년을 나의 위장방패로 내세워 조금 덕을 보았으니까요. …》

한정덕은 가슴을 내밀고 곁의 채영학을 손가락질하며 들먹거렸다.

《난 여기에 서있는 이런자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이자는 자기의 구질구질한 목숨이나 연명해보자고 미국어른들에게 굽신거리지만 난 자기의 명예와 리념을 위해 미국과 손을 잡은거예요. 당신들이 자기의 신념을 지켜 싸우는것처럼 나도…》

《허허허…》

차기완은 갑자기 크게 웃어댔다. 한정덕은 눈살을 찌프리며 말을 끊었다.

재클린은 차기완의 심리변화가 흥미있는듯 얼굴을 바투 대였다.

차기완은 허거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오, 미국신사나으리. 아무래도 내 너무 오래 살은것같소.》

재클린은 달래는듯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괜찮소. 아직도 많이많이 살게 될거요.》

차기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내 오래 살았소. 그러다나니 별 해괴한 말을 다 듣는구려. 사대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고도 그 무슨 리념을 들먹거리니… 너 같은 수치도 모르는 매국노를 며느리로 여겨온 지난 5년간의 내 인생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갑자기 차기완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지고 주름진 목에는 퍼런 피줄이 금시 터질듯이 부풀어올랐다.

재클린은 한정덕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손짓하며 다른 손을 차기완의 어깨에 얹었다.

《진정하시오. 지금형편에서 지나친 흥분은 당신의 건강에 대단히 해롭소.》

재클린은 의자를 당겨앉으며 위로하듯 말했다.

《당신의 애국심에 탄복하오. 하지만 당신은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고 나는 내 조국에 복무하오. 그러니 우린 서로 말이 통할것같은데…》

재클린은 버릇처럼 손을 비비며 친절한 어조로 말을 바꾸었다.

《나는 마진시의 선거명부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찾아내라는 지

령을 이 녀인 즉 <검은비수>에게 주었소. <검은비수>는 녀맹위원장을 처리하고 북으로 파견되는 대표로 선거받는데 성공했소. 그러면 자연히 선거명부를 넘겨받을줄 알았지. 헌데 당신네는 뜻밖에도 대표와 명부를 분리하는 기묘한 수를 썼소. 결국 명부를 찾아 우린 여기까지 쫓아오게 되였소. 만일 우리가 애초에 세운 계획대로만 되였다면 <검은비수>는 정상통로를 따라 최종집합장소까지 갔을것이고 그곳에서 명부와 함께 다른 대표들을 모두 체포했을거요. 헌데 야스꼬가 명부를 찾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표들을 절대로 놀래우지 말라는 내 지시를 거역하고 박철우를 체포했던거요. 결국 야스꼬를 죽여야만 했소.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불쑥 나타나 우리의 일을 아예 망쳐놓으려 했소. 그래서 당신을 결박할수밖에 없게 된거요. 하지만 싸움끝에 정이 든다고 우린 친구가 될수 있소.》

재클린은 크게 웃었다.

《자, 난 이렇게 솔직히 다 털어놓았소. 이젠 당신 차례요. 난 무척 궁금한게 많소. 당신은 대체 누구인지? 혹시 로씨야정보기관이 로일전쟁전야부터 박아놓은 거물은 아니요? 어쨌든 그건 차차 이야기를 통해 밝히기로 합시다. 지금 급한것은 선거명부요. 물론 당신은 그걸 가지고있지 않소. 그러나 당신은 그 선거명부가 어느 통로를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있는가, 최종적으로 어느곳에 도착하여 어떻게 38도선을 넘게 되는가를 알고있다고 보오. 지금 나에게는 그것만 털어놓으면 충분하오. 자 대답해보오.》

차기완은 분개하여 한마디 하였다.

《비렬하오.》

재클린은 뜻밖이라는듯 두손을 쩍 벌렸다.

《비렬하다?! 피차일반이 아닌가. 이 세상 어디에 비렬하지 않은 첩보전이 있소? 그래도 우리야 당신네보다 낫지. 우린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인입되였소. 헌데 당신네는 뭐요? 철부지나 다름없는 거지소년들, 애기업은 아낙네까지 가림없이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당신의 며느리 민숙이, 분명 선거명부를 가지고있는듯한 그 녀인은 당신때문에 무척 불행해질거요. 이제 우리 손에 잡히면 죽던가 반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할테니까. 헌데 그 녀인의 자식들은 어쩔셈이요? 그 녀인은 오직 당신의 며느리라는 한가지 리유로 이 불행한 길에 나서지 않았는가. 헌데도

당신네는 비렬하지가 않소?》

차기완은 문쪽을 바라보았다. 좀전에 비쳐들던 해빛마저 슴배들지 않는다. 아마도 또다시 먹장구름이 태양을 가린탓인 모양이다.

그 순간 차기완은 민숙이를 생각했다. 17살 어린 처녀를 자기의 아들 차상준을 위해 남이섬에서 천리나마 떨어진 남해안으로 데려와 무척 고생을 많이 시켰다.

민숙이, 옛 의병대장의 조카이다. 그에 비하면 앞의 이년은 얼마나 너절한가!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사대매국노의 후손이고 지금도 사대를 밥줄로 저 하나의 더러운 목숨을 연명하려고 발악하는 더러운 년! 애국자들이 애국의 넋으로 대를 이을 때 사대매국노들은 대를 이어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것이 생사의 일각을 다투는 때에 차기완이 찾은 피의 교훈이였다.

차기완은 두눈을 질끈 감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숙이야, 내 며늘애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통일된 조국땅에서 여직껏 못준 시아버지의 사랑과 정을 가득 안겨주려고 했다만… 일이 이렇게 맹랑하게 될줄이야… 내 아들 준아, 부디 이 아비의 정까지 합쳐 안해를 뜨겁게 사랑해주렴. 숙이는 참 좋은 녀인이란다.)

이윽고 차기완은 재클린을 침착하게 마주보며 준절하게 말했다.

《이젠 왜 당신네가 비렬한가를 말해줄수 있소. 다른것은 말할것 없이 당신자신의 주위만 둘러보오. 이전날 자기들의 원쑤였던 친일파, 우리 민족을 배반한 더러운 반역자들을 주구로 채용했소. 당신들을 해방자로 잘못 알았던 이 나라의 량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침을 뱉고있소. 왜 그런가. 당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만큼 비렬하기때문이요.》

《흥미있군. 시간이 없지만 계속해보오.》

《당신들은 사대매국노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조작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려고 꾀하고있소.》

《유감이요. 미국의 선의를 그리도 오해했다니 말이요.》

《천만에. 당신들이 한줌도 안되는 사대매국노들을 내세워 <단독정부>가 마치 조선의 합법적인 <정부>인듯이 조작해낸 조건에서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는것은 그 누

구에게도 양보할수 없는 우리의 자주적권리요. 당신들이 아무리 총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통일독립국가를 간절히 념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열망을 짓밟아버릴수는 없을것이요.》

《그만!》

재클린은 차기완의 말을 더이상 들어줄수 없었는지 두팔을 쩍 벌려보였다.

《아마 후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거요. 그때 당신의 정치강의를 심중히 받기로 하겠소. 하지만 지금은 한가지만 말해주오. 마진시선거명부가 어디에 있소?》

차기완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재클린은 채영학에게 손짓하였다. 그러자 채영학은 주머니에서 은빛색의 금속곽을 꺼내였다. 그리고는 그안에서 누런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뽑아 넘겨주었다.

재클린은 주사기를 곧추 세워들었다. 뾰족하고 예리한 주사바늘은 사람을 죽이는 독침마냥 섬찍하였다. 그의 노란 눈동자에서는 좀전의 신사연한 눈빛은 사라지고 잔인한 살기가 번뜩거렸다.

《이제 당신은 내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게 되오. 이 약은 미군의 최신발명품이요. 열에 아홉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는 명약이지. 난 당신이 이 약이 반응하지 않는 그 하나라고 생각지는 않소.》

차기완은 얼핏 주사기에 눈길을 주었다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재클린이 다시 손짓하자 주사기를 넘겨받은 한정덕이 차기완의 곁에 바투 다가서서 왼손의 소매자락을 걷어올렸다.

주사기안의 누런 액체가 서서히 차기완의 몸안으로 들어갔다.

한정덕이 주사기를 뽑아드는것과 동시에 차기완의 머리가 별안간 옆으로 푹 기울어졌다.

깜짝 놀란 한정덕이 급히 차기완의 눈까풀을 뒤집어보고 목줄의 동맥에 손가락을 대였다. 그리고는 한걸음 물러서며 겁에 질려 내뱉았다.

《각하, 죽었습니다.》

《뭐요? 무슨 왕청같은 소리인가?》

재클린은 차기완의 어깨를 흔들어보다가 채영학을 쏘아보았다.

채영학은 뒤걸음치며 겁에 질려 소리쳤다.

《전… 전…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각하가 준 약을 그대로 주사기

에 재웠습니다. 전… 정말… 아무짓도 안했습니다.》

재클린은 다시 차기완의 얼굴에 바투 다가갔다. 이어 그의 입을 열어 냄새를 맡고나서 실망하여 말했다.

《청산카리군. 이자는 독약을 먹었소.》

재클린은 차기완의 시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자는 대체 어떤자인가?)

하지만 그는 차기완에 대해 아는것이 전혀 없었다.

재클린의 시선은 채영학을 다시 노려보았다. 분김에 채영학의 멱을 따고싶었다.

(여기 정말로 비렬한 놈이 하나 있다. 채영학, 나의 형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나의 발을 핥으며 돌아가는 너절한 놈. 내 언제인가는 꼭 내 손으로 네놈을 죽일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한정덕뿐 아니라 채영학의 너절한 손도 필요했다.

그때 밖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자가 급히 들어와 재클린의 귀에 대고 쏙닥거렸다.

《그렇군.》 하고 재클린은 단마디로 내뱉고나서 한정덕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내 이곳으로 올 때 민숙이의 오빠라는자네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여 민숙이의 자식들을 모두 인질로 붙잡아 이곳으로 끌고오라는 지시를 주었소. 그런데 이미 선손을 썼더군. 집은 텅 비여있었다는 거요.》

재클린은 부글거리는 자기의 화증을 간신히 눅잦히며 한정덕과 채영학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이젠 어쨌으면 좋겠소?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채영학은 목을 움츠린채 여전히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했다.

한정덕이 한발 다가섰다.

《그들은 개성으로 갈것입니다.》

《개성? 확실하오?》

《박철우는 나에게 23일 21시에 서울역앞 약국에서 접선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내가 서울역의 기차시간을 알아본데 의하면 반시간후에 북쪽으로 가는 객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군.》

재클린은 잠시 골을 굴리다가 결론삼아 명령했다.

《당신들은 곧 개성으로 떠나시오.》

그러나 그는 곧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한숨을 내쉬였다.

《늦었군. 이제는 그 렬차가 거의 현지에 도착하였을거요. 철도경찰들을 동원하기에도 너무 늦었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린 이 늙은이에게 롱락당한셈이요. 이자는 이미 자기의 목숨을 걸고 손자병법에 있는 고육계를 쓴것같소. 우리가 함정을 파놓은 소운사로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 민숙이와 박철우, 황병두가 서울에서 감쪽같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게 한것이요. 시간을 잃은만큼 우리에게는 기회가 적어졌소. 그러나 그건 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제아무리 위기를 느꼈다고 해도 이제 와서 최종집합장소를 바꿀 여유는 없을것이요. 그러니 분명 개성이요. 그곳에서 38도선을 넘으려 할거요. 38도선경계의 경찰, 군대들을 몽땅 출동시키시오.》

차기완의 시신을 내버려둔채로 그들은 황급히 방을 나섰다. …

그자들이 소운사를 떠난 후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한 사나이가 소리없이 차기완의 시신앞에 다가왔다. 황병두였다.

《선생님.》

황병두는 차기완의 시신앞에 꿇어앉았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말했다.

《선생님, 이 황병두… 선생님의 지시를 집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발… 늦었습니다.》

꼭두새벽에 황병두를 떠나보내며 차기완은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지시했었다.

《애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소운사로 돌아오면 절대로 대문으로 들어와서는 안되오. 그리고 내가 안전신호를 보낼 때까지 소운사안에 감쪽같이 잠복하시오. 어떤 경우에도 정면에 나서면 안되겠소. 내게 일이 생겨도 말이요. 내가 안전신호를 보낼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방안대로 행동하시오.》

황병두가 도착하였을 때 소운사는 쥐죽은듯 괴괴했다.

불길한 예감을 감촉한 황병두는 몸을 숨기고 차기완이 묵었던 승방으로 조심히 접근했다.

그때 대문쪽에서 구두발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렸다. 불머리의 미국인

을 앞세우고 이미 여러명이 들어서고있었다. …

황병두는 떨리는 손으로 차기완을 묶은 포승을 풀었다. 차기완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렇듯 급작스레 자결의 길을 택할줄을 그도 미처 몰랐었다.

소운사의 주지와 중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차기완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웠다.

황병두는 시신을 그들에게 맡기고 차기완이 남긴 마지막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원을 나섰다. …

47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며 살별 하나가 뚝 떨어졌다.

민숙이는 황병두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소운사 뒤길에서 차기완과 헤여진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때늦은 후회가 가슴을 찢었다. 그때 한정덕을 시아버지와 함께 남겨두고 온것이 잘못이였다.

한정덕, 그가 그런 피묻은 악녀였단 말인가!

《앞에 있는 천명의 적보다 뒤에 숨은 한명의 원쑤가 더 무섭구나.》

박철우는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

소운사에서 한정덕을 의심하는 차기완에게 박철우는 해주에 가면 모든것이 밝혀진다고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던가.

안해 김인혜도 그에게 말했었다.

《차회장댁 맏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일솜씨도 야무지고 도덕도 밝아요. 정말 나무랄데 없는 녀성이라니까요. 같은 녀성인 나도 어떤 때는 탄복하게 되는걸요.》라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속아살았다. 자기처럼 믿고 친동생처럼 사랑하던 녀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마지막숨을 몰아쉴 때 안해는 그 얼마나 통분했을가.

《원통하구나.》

차상준이 아름드리소나무줄기를 주먹으로 쳤다. 손가락들이 찢어져 피가 흘렀으나 그보다도 가슴이 찢기는것처럼 아팠다.

그의 심장속에는 무인도에서 찾은 쪽지글이 아직도 생생히 보관되여있었다.

《준아,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부푸는 희망을 안고 수십리 바다밑을 헤염쳐 예까지 왔다. 그런데 천만뜻밖의 부고가 그를 기다릴줄 어이 알았으랴. 그것도 지금껏 한가족으로 의지하여 살아오던 년의 손에 잘못되였다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가.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묵묵히 보살피고 남모르게 지켜준 그 다심하고도 사려깊은 사랑에 엇드레질해온 지난날을 더이상 되돌릴수 없고 아버지의 림종마저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의 안타까움에 심장이 그대로 터져버릴것만 같았다.

어두운 밤하늘엔 달도 솟지 않았다.

차상준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별스레 우중충한 수림속을 슬픔에 잠겨 바라보며 황병두에게 물었다.

《병두,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떤분이신가?》

자식으로서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전혀 모르는것이 부끄러웠다. 그만큼 아버지는 자기를 못마땅해하고 불신하였기에 황병두, 박철우 지어 자기의 안해까지도 아는것을 자기 혼자만이 모르는것 같았다.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아버지도 조국광복회 성원이지요?》 하고 차상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었다.

만주에 갔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집주소의 주인이 조국광복회 성원이였기에 지레짐작하여 물은것이였는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밖이였었다.

《해방이 되니까 네 아비도 반일투사가 되였으면 하느냐? 독립투쟁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신념과 투지가 강한 애국자들이 하는게다.》

다음말은 더욱 실망스러웠다.

《위험할번했구나. 장사일로 몇번 도운적이 있기에 소개해주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줄 알았으면 다른 곳으로 보내는걸 그랬다.》

차상준은 반일투쟁에 피와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조국해방을 안아온 고결한 넋들이 모욕받는것같아 속이 떨렸다.

그후 그는 사상과 리념이 다른 아버지와는 갈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인차 분가하여나갔다. 그때 아버지의 언행에 의혹을 품고 좀더 주시

하고 속을 터놓았더라면 이리도 후회되지는 않을것이다.

황병두는 주저하며 말했다.

《형님, 저도 회장님에 대해 다는 모릅니다. 전 1943년 마룡산의 산전막에서 차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차회장님은 식량과 세자루의 총을 묻은 곳을 알려주면서 머지않아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국해방대전이 시작되게 되니 마진시를 우리 힘으로 해방할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차회장님이 보통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방후 전 자진하여 차회장님의 련락원이 되였습니다. 그분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나면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하였다는 긍지가 느껴지군 하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형님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일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차상준은 박철우를 돌아보았다.

박철우는 그의 손을 으스러지게 꽉 부여쥐며 말했다.

《차동무, 정말 미안하오. 나도 그동안 차회장의 부탁이 있어 동무에게 모든것을 말해줄수 없었소.》

박철우는 말을 이었다.

《마진에 사는 애국자들치고 알게모르게 차회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거요. 차회장은 퍽 오래전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애국자들을 비밀리에 후원하였소. 정말이지 나도 그러하지만 차회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반일투사들이 부지기수였소. 이번에 마진시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위원회가 조직될 때 차회장은 비밀위원으로 선거되였소. 차회장의 조직적수완이 너무도 치밀하고 철저하여 위원들 모두가 탄복하군 했소. 선거명부와 대표들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차회장이 직접 제안하였소. 선거위원회에서는 차회장의 의견을 토의하고 선거명부의 비밀운반을 그에게 위임하였던것이요. 결국 차회장은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선거명부를 지켜냈소. 차회장은 우리들에게 참된 애국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소.》

민숙이는 황병두와 박철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몹시 안타까왔다. 자기 시아버지 차기완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것같아서였다.

박철우도 황병두도 차상준도 누구보다 시아버지의 곁에서 정을 나누며 같이 투쟁해온 친구이고 동지였으며 혈육이였다. 그런데 피를 나

눈 친혈육인 남편 차상준은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였는지 전혀 모르고있었다.

시아버지의 련락원이였다는 황병두도, 시아버지와 함께 오래동안 투쟁해왔다는 박철우도 시아버지 차기완이 어떤 사람인지 다는 모른다.

더더욱 가슴이 미여지는것은 민숙이자신도 그들에게 시아버지에 대해 설명할만큼 상세한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였다.

뭔가 터놓고싶지만 말할수 없는 안타까움, 시아버지의 고결한 애국심의 뿌리를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는 그 애타는 절규가 민숙이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졌다.

그의 귀전에는 시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생히 떠올랐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이다. 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의 주인은 바로 조선인민이며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조선의 로동자, 농민과 같은 근로대중이 해방된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단다. 우린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대로 누구나 근로하는 사람들이라면 잘살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세워야 한다.》…

《여보!》 하고 민숙이는 절절한 목소리로 웨쳤다.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든 애국투사였어요.》

민숙이는 눈물이 가랑가랑하여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자신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숲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민숙이는 흐느꼈다. 박철우도 황병두도 원통한 심정으로 서있었다.

차상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너무나도 아버지에 대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슴이 더욱더 찢어지는것만 같습니다.》

그 엄하면서도 정답고도 귀중한 한 인간을 잃은 슬픔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래도록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황병두가 박철우의 소매를 잡아끌며 속삭였다.

《차회장님이 만일 자기에게 일이 생기면 위원장동지에게 꼭 전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철우는 가슴을 쳤다.

《결국 차회장은 이 모든것을 예견하고있었소. 그래서 우리를 떠나보낼 때 이미 희생을 각오하였던거요.》

박철우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였다. 이윽하여 그는 민숙이를 따로 불렀다.

민숙이는 박철우의 뒤를 따라갔다.

별장의 앞마당에서 세사람이 기다리고있었다.

박철우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혈로를 헤치고 선거명부를 안전하게 가져온 민숙이녀성을 소개합니다.》

그는 민숙이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마진시 인민대표들이요. 서로 인사들을 나누시오.》

대표들은 민숙이를 둘러싸고 서로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중에서 운두낮은 중절모를 쓴 중년의 사나이는 민숙이에게 낯이 익은 얼굴이였다. 술공장을 경영하는 기업가였는데 시집에 자주 오군 하였다. 그는 마진의 상공인대표라고 하였다.

박철우는 목이 꽉 잠겨 말하였다.

《대표동지들, 마진시인민들을 대표하여 민숙이녀성이 선거명부를 나누어주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선거명부를 넘겨주며 민숙이는 간신히 울음을 눌러참았다.

이 순간을 위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량심적이며 귀중한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던것이다.

대표들에게 명부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한개의 명부가 민숙이의 손에 남았다.

민숙이는 박철우를 돌아보았다.

박철우는 다시 선언하듯 말하였다.

《마진시인민대표회의 긴급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진시의 인민대표들은 마진시녀성들을 대표하여 민숙이녀성이 해주에서 진행되는 대표회의에 마지막명부를 전달할것을 위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인의 결심을 존중할것입니다.》

박철우는 민숙이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차회장의 생의 마지막부탁이였습니다.》

민숙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추연한 별빛아래 박철우의 두볼로 흐르는 두줄기의 눈물이 번뜩이였다.

박철우는 준절한 어조로 말하였다.

《대표 여러분, 차회장은 선거명부를 무사히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 전 이 자리를 빌어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고귀한 넋들을 추모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고개를 숙인 사나이들의 흐느낌소리가 울리였다.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이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제 또 얼마나 많은 피를 바쳐야 하는가.

48

한정덕과 채영학이 개성에 도착하여 송악산과 그중 가까운 경찰지서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지서안팎에는 비상대기지령을 받은 경찰들이 모여있었다.

지서장을 직접 찾아들어간 채영학은 큰소리로 말했다.

《전원무장을 하고 마당에 집합하시오.》

팔을 하얀 붕대로 감아 가슴우에 부착하고있는 꺼부정하고 불쌍한 모습이였지만 하우스만기관의 신임장을 가지고있는 채영학의 위풍은 자못 당당했다.

그는 불빛이 환히 내려비치는 마당에 정렬한 경찰들의 앞을 오락가락하며 소리쳤다.

《마진에서 올라온 대표라는자들이 오늘 밤 개성을 통해 38도선을 넘게 된다. 미헌병대와 지역주둔 <국방군>은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합세하여 이곳 송악산일대를 수색하게 된다. 수상한자들, 비록 낮이 익더라도 야밤중에 송악산근처에서 얼씬거리는자들은 여하불문하고 모두 체포해야 한다. 알겠는가?》

한정덕은 채영학이 기합을 넣고있을 때 품속에서 박철우와 민숙이, 차상준 등의 사진들을 꺼내여 선두에 선 경찰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는 사진을 보고 옆으로 넘겨주는 경찰들의 표정을 살폈다. 이들만 붙잡으면 마진의 대표들을 체포하는것은 그리 어려운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정덕은 그 대표라는자들이 송악산을 넘어 해주로 갈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박철우는 한정덕에게 임무를 줄 때 38도선을 넘기 전에 최종집합장소에 대표들이 모이게 된다고 하였다. 만일 네댓명의 대표들이 개성에 모인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덜 미치는 외진 골목집이나 창고같은 곳일것이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네댓명이 모였다가 함께 움직이면 꼭 표가 나게 된다. 하다면 대도로 한복판이나 마을어구는 아닐것이다. 38도선 경계선부근의 산골짜기나 음침한 공지가 알맞춤하다. 송악산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갖춘 곳이다.

세번째 줄 중간에 있던 순경이 사진을 보며 옆의 애젊은 순경과 뭐라고 수군거리는것이 눈에 띄였다.

한정덕은 앞에 선 경찰들을 헤가르고 그들앞으로 다가가 엄하게 물었다.

《이자들을 알아요?》

한 순경이 주저하며 말했다.

《좀전에 비둘기성재에서 만난것같은데… 여기 사진속에서 작은 계집애를 안고있는 젊은 남자와 녀인이 어딘가 좀 비슷합니다.》

그들은 사진에서 차상준과 민숙이를 가리켰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한정덕은 다우쳐물었다.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겨끔내기로 말했다.

《그들은 마종화령감님의 손녀, 손녀사위라고 했습니다. 옷을 얼마나 위풍있고 사치하게 입었는지 눈이 막 부셨는걸요.》

《그들은 마종화령감님의 별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채영학이 따져물었다.

《마종화령감의 별장이 송악산에 있는가?》

《예. 래봉장별장촌을 지나 송악산중턱에 있습니다.》

채영학은 흥분하여 팔을 내젓다가 관통상자리가 쑤셔 낯을 찡그렸

다. 그는 꽥 하고 소리쳤다.

《목표 마종화령감네 별장, 급보롯!》

채영학은 대오를 이끌고 저벅거리며 뛰여나갔다.

《당신들은 날 따라오세요.》 하고 한정덕은 두명의 순경에게 지시했다.

그는 지서장에게 다가가 송악산지형도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지서장은 군용지도를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산발은 동쪽과 남쪽으로 뻗어있고 북동쪽과 남동쪽 비탈면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었다.

한정덕이 물었다.

《마종화령감네 별장은 어느곳에 있는가요?》

지서장이 지도의 한복판을 꾹 짚었다. 별장의 남쪽비탈면은 물매가 급하고 북쪽비탈면은 느린편이니 남쪽에서 공격하기에 불리하고 북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유리했다. 그리고 38도선과 아주 가까운 곳이였다.

(정말 묘한 곳에 자리를 잡았구나.)

한정덕은 지도를 꼼꼼히 살폈다. 남쪽으로는 무연한 개성분지가 형성되여 푸른 소나무숲이 울창했고 북쪽은 참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들이 우거졌다.

지형을 눈에 충분히 익힌 한정덕은 권총을 뽑아들며 두명의 순경에게 말했다.

《내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요. 아마 큰 공로를 세우게 될거예요.》

한정덕은 그들을 데리고 어둠속으로 내달렸다.

49

우중충한 수림우로 떠오른 달은 나무가지들에 가리워져 마치 구멍이 숭숭 뚫어진 창가림처럼 보이다가 마침내 검푸른 하늘중천에 은백색의 자태를 드러낸다. 둥실하던 모양이 퍼그나 줄어들어 이삼일후이면 온전한 그믐반달이 될것이다.

아늑한 달빛이 교교히 내리비치는 공지 한구석에 민숙이는 차상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있었다.

반디벌레가 날아다녔다. 어디선가 리별의 시각을 재촉하며 소쩍새가 울고있었다.

차상준은 민숙이와 결혼한지도 어느덧 10년세월이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고 하지만 결혼초시기에는 류학으로, 그후에는 일본경찰의 추적을 피해 만주로 피신하였고 해방후에는 지하투쟁을 하다보니 정말 다정하게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숙이는 단 한번도 그의 마음속에서 떨어져있은적이 없었다. 그는 차상준의 사랑하는 안해였고 그의 피줄을 이은 자식들의 현숙한 어머니였으며 오늘날에는 차상준을 보호하고 떠밀어주는 믿음직한 동지가 되였다.

민숙이는 차상준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당신을 남겨두고 38도선을 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우리가 함께 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차상준은 안해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저 원한의 38도선을 깡그리 걷어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백두산으로, 한나산으로 훨훨 날아다니며 유람하기요.》

차상준은 대표들을 무사히 떠나보내기 위해 방차대의 성원으로 남게 된다. 별장경비를 맡았던 개성의 애국청년들도 몇사람은 대표들을 38도선까지 안내하고 다른 청년들은 방차대의 임무를 맡고있었다.

차상준은 하얀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보, 애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니 걱정하지 마오.》

《애들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야 해요.》

《당신은 곧 돌아오게 되오.》

민숙이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를 개성으로 떠나보내면서 시아버님이 하시던 당부가 생각나는군요. 아버님은 분렬이냐, 통일이냐를 가르는 준엄한 시각이다, 겨레와 나라의 운명,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로소 가리지 말고 민족의 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버님이 나에게 남긴 유언이 되였어요.》

차상준은 준절한 어조로 격려하였다.

《민족분렬의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 우리가 어찌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이 엄숙한 시기에 겨레의 통일을 위해 한몸바치지 않는다면 후대들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것이요.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유롭고 통일된 민주조선을 세우기 위한 실천적투쟁에 나서야 하오. …》

차상준은 민숙이의 두손을 따뜻이 모아쥐였다.

《오늘따라 새삼스레 당신을 처음 만나던 때가 생각나누만.》

《정말이예요?》

민숙이는 차상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말했다.

《난 그때 무슨 말을 했던지 하나도 기억나는게 없어요. 지금껏 당신에게 물어보고싶었는데 부끄럽더군요. 그때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지요?》

《꼭 그런건 아니요. 당신은 그때 나에게 물었지. 사람은 왜 사는가고?》

민숙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자기가 꼭 그렇게 물었던지는 정말이지 기억되지 않는다. 헌데 그 물음을 먼저 던진것은 한정덕이다. 그가 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를 떠나면서 남긴 물음이였다. 그런 한정덕이 애국의 가면을 두르고 매국과 반역의 길을 걷는 매국노인줄 어이 알았던가.

민숙이의 슬픈 속내를 알리 없는 차상준은 격동되여 말을 이었다.

《누구나 한시대에 태여나 력사의 흐름속에서 살며 생을 마치게 되오. 인간의 삶을 마진앞바다의 하얀 모래불에 비유해보기요. 세찬 파도가 번번하게 쓸어버린것같은 모래불에도 때로 사람들의 발자취가 드러나게 되오. 아마도 우리의 후대들은 그 발자취를 더듬으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오. 사람은 왜 사는걸가 하고 말이요. 인간은 소나무나 보리수처럼 수백년을 살수는 없소. 무한대한 우주의 기원에 비하면 번개같이 지나는 한찰나에 지나지 않는것이 사람의 인생이요. 생이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것, 그래서 더없이 귀중한것이지. 그 고귀한 생을 값있고 떳떳하게 살려면 인생의 선택이 중요한것이요. 인생의 선택을 잘해야 하지만 그 옳바른 선택 못지 않게 옳바르게 사는것이 중요하오. 그냥 포식하며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과 미래를 위해, 자기 조국과 겨레를 위해 무엇인가 떳떳한 일을 해야 보람찬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는거요. 그렇게 산 생은 그 시대를 함께 산 사

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며 후대들에게 전해지게 되지. 떳떳하게 산 사람들의 생은 바로 모래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이요. 그 마음속에 새긴 글은 쉽게 지워지지 않소. 후세에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후대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 넋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사는것이 아니겠소.》

남편을 바라보는 민숙이의 고운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있었다.

차상준은 민숙이의 손을 모아쥐며 힘주어 말했다.

《시대는 언제나 선각자를 부르며 그 부름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오. 당신은 우리들의 한결같은 통일의지를 안고 대회장으로 가고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오.》

민숙이는 눈물이 글썽하여 머리를 저었다.

《전 그런 요란한 인물이 못돼요. 전 그저 소박하게 살고싶어요. 당신의 안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평범하게 살고싶을뿐이예요.》

차상준은 사랑하는 안해를 다시 뜨겁게 포옹하였다.

《여보!》

《정인이 아버지!》…

대표들과 민숙이는 황병두와 개성청년들의 안내를 받으며 수림속을 헤쳐나갔다.

골짜기는 울창한 어둠에 잠겨있다. 억새며 엉겅퀴, 골무꽃들이 한벌 덮인 숲속길은 마치도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담요처럼 밟힌다.

그들이 별장을 떠난지 얼마 안되였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총성과 폭음이 울렸다.

민숙이는 가슴이 철렁하여 방금 온 길을 돌아보았다. 어둠속에서 불기둥이 한번 치솟고는 총성이 뜨직하게 울리고있다.

황병두가 곁에서 재촉했다.

《이러고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린 한시바삐 38도선을 넘어야 합니다.》

민숙이는 어둠속을 내디디며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여보, 정인이 아버지, 제발… 제발 무사해주세요.)

50

채영학은 별장주변을 은밀히 포위하고 포위환을 좁히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둠속에서 별안간 기습을 받았다. 풀무지인줄 알았던것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그만 기겁하여 졸도까지 할번했다.

한치앞도 가려보기 어려운 속에서 풀과 나무잎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뛰여나오며 앞의 경찰을 들이받고 옆의 경찰을 발로 걷어찼다. 악악 떡따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과 괴한들이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는데 마치도 한밤중에 벌어진 패싸움을 방불케 했다.

채영학이 권총을 꺼내들어 앞의 청년을 겨누었다. 그때 머리우의 나무에서 시커먼것이 뚝 떨어지더니 권총을 든 그의 손을 걷어찼다.

권총을 놓쳐버린 채영학은 눈을 흡떴다. 눈앞에는 차상준이 서있었다.

채영학은 단도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차상준에게 다시 걷어채워 골짜기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다. 부상당한 상처자리가 헤집힌듯 몹시 쑤셨다.

채영학은 입에 한가득 문 버적거리는 흙덩이를 뱉으며 증오의 이를 갈았다.

(차상준, 이 괘씸한 놈. 남해 한가운데 빠뜨려놓았는데 천리밖에 다시 나타나 내앞을 가로막아?! 내 기어이 네놈의 살을 저며 씹어먹고야말테다.)

…한편 한정덕은 두 순경을 앞세우고 숲속을 헤쳐갔다.

이미 지도에서 확정한 그곳은 천년전 고려시기에 존재하였다고 하는 옛성터의 성문자리였다. 그 한복판으로 38도선이 지나갔다.

한정덕이 그곳에 이르러 잠시 숨을 돌리는데 아니나다를가 남동쪽의 풀숲이 와슬렁거리더니 사람들이 다가오고있었다.

한정덕은 커다란 바위뒤에 몸을 숨기며 앞을 노려보았다. 한개 분대가량 돼보이는 사람들이 오고있다.

예상밖이였다. 박철우를 비롯한 몇명의 대표들과 길안내자뿐일것이라고 타산하고 앞질러온것인데 열명도 훨씬 넘는 청년들이 박철우네를 방

패마냥 빙 둘러싸고 다가온다.

그래도 안심이 되는것은 그들의 손에 쥐여진것이 고작 몽둥이뿐인것이다.

한정덕에게는 만탄창이 된 권총과 예비탄창 두개가 있다. 그리고 미덥지는 못하지만 두명의 순경이 있다.

한정덕은 지그시 박철우를 겨누었다. 그런데 선두에 선 두 청년이 박철우의 앞을 가리웠다.

(박철우와 그앞의 사내를 한꺼번에 쏴눕혀야 해.) 하고 생각하며 숨을 고르었다.

검은구름에 가리웠던 차거운 달이 밤하늘에 다시 나타났다. 사위가 훤하게 드러났다.

왜서인지 민숙이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 앞을 내다보았다. 한순간 그는 달빛에 거무스레 드러난 커다란 바위틈새로 비죽이 돋아난것같은 유령같이 하얀 얼굴을 발견했다.

한정덕이였다.

민숙이는 외마디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발을 힘껏 내짚었다.

그찰나 벌어진 일은 누구도 뭐라 결론하기 힘들다. 세방의 총성이 련이어 울렸다.

박철우를 가리우고있던 두명의 청년이 삼대넘어지듯 쓰러졌다. 그러나 세번째 총성이 울렸어도 박철우는 눈을 크게 뜨고 꼿꼿이 서있었다.

그의 앞에서는 언제 나타났는지 민숙이가 머리를 우로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그의 총총하던 눈동자는 점차 빛을 잃고 흐릿해지더니 온몸이 맥없이 스르르 주저앉았다.

대표들은 크게 놀랐다. 후날 그들은 민숙이가 박철우를 구원하기 위해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다면 민숙이는 그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투사였단 말인가? 혹시 한정덕을 제일먼저 발견한 그가 박철우에게 알려주려고 뛰여가다가 총에 맞은것은 아닐가?

그것은 누구도 알수가 없다. 모든것이 번개가 번쩍이는것과 같은 한 찰나에 벌어졌던것이다. 그 섬광같은 순간에 론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의식이 그대로 순발력으로 이어진 순간이기에 본인자신도 그때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전혀 기억할수가 없을것이다. 결론적인것은 총에 맞고 쓰러진것은 박철우가 아니라 민숙이였

다는것이다.

돌변적인 정황은 왜정시기부터 로련한 첩자로, 직업적인 살인업자로 길들여진 한정덕조차 얼떠름하게 하였다. 박철우가 아니라 민숙이가 등에 총탄을 맞고 쓰러질 때 그는 정신이 일순간 혼미해졌다.

한정덕은 여직껏 민숙이를 사회주의사상에 공감하였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며느리로서, 안해로서의 도덕관념에 눌리워 어쩌면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북행길에 오른 순진하고 가엾은 녀인으로 치부했다. 그렇게 숙맥같다고 여겨온 녀인이 위기일발의 순간 자기의 귀중한 목숨까지 바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것을 보자 한정덕은 제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리뻥뻥해진것이다.

그것이 한정덕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실수였다. 몸을 드러낸채 멍해있던 그 몇초동안에 황병두가 쏜 총알이 그의 가슴을 꿰뚫은것이다.

한정덕은 바위를 꽉 그러안았으나 끝끝내 넘어지고말았다. 그가 너부러지자 놀란 두명의 순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에 덴 노루새끼처럼 흩어졌다.

정신을 가까스로 차린 한정덕은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총알은 폐장을 꿰지른것같았다. 출혈이 심했다.

그는 누군가가 상처자리에 헝겊을 틀어막고 차겁게 식어가는 자기의 손을 꼭 잡아주었으면 하였다. 하여 손을 힘껏 뻗쳐보았으나 하늘을 향해 눕혀진 손바닥은 그 자리에서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뿌옇게 흐려가는 달빛속에 마치 꿈속처럼 소리없이 38도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박철우는 두팔을 축 늘어뜨리고 고개마저 아래로 떨군 민숙이를 업은채 앞장서서 가고있다.

대표들도, 그들을 호위하는 개성의 애국청년들도 이제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총성에 놀래여 잠시 침묵에 잠겼던 숲속에서 풀벌레들이 다시 승이 나서 울어대고있다.

한정덕은 차거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힘껏 소리쳤다.

《살려줘요. 제발… 살려주세요. …》

그러나 그 목소리조차 가르랑거리는 피가래에 걸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한정덕은 숨을 헐떡거리며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어쩌면 함께 왔던 순경들이 구원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한가닥의 기대를 품고있었다.

하지만 고대하는 구원의 손길대신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칠흑같은 어둠이 그의 온몸을 압박했다.

한정덕은 살고싶어 몸부림쳤으나 염라대왕은 사대매국노의 더러운 넋을 단단히 거머쥔채 캄캄한 지옥으로 끌어갔다.

51

9월이다.

옛사람들이 일러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가을, 산과 들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다. 담너머에서는 선들선들 불어오는 바람결에 어느덧 수염이 바싹 마른 강냉이들이 구수한 낟알냄새를 풍기고 누런 잎새를 술렁거리며 제나름대로 풍년가를 연주한다.

이제는 아침마다 선선한 기운이 도는것이 무더운 여름은 물러가고 풍요한 가을이 완연하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한 정원수의 시원한 그늘밑 의자에 앉은 민숙이는 파란 하늘가에 떠있는 흰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보름만에 처음으로 병실밖으로 나왔다.

그의 낯색은 여전히 창백하고 두다리는 맥이 없어 휘청거렸으나 그래도 이제는 지팽이없이 정원을 거닐수 있었다.

박철우의 등에 업혀 38도선을 넘어 북의 인민경비대초소에 도착한 민숙이는 군의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군용짚차를 타고 해주시인민병원으로 후송되였다. 이곳에서 구급수술을 받았다. 집도한 의사는 총알이 1센치메터만 아래에 박혔어도 녀인의 생명을 구할수 없었을것이라고 하였다.

민숙이는 40여시간만에야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때 민숙이는 간신히 눈을 떴다. 아니, 무엇을 보았다기보다 먼저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의사선생님, 환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젊은 간호원이 뛰여가며 환희에 넘쳐 소리치고있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가 빠른 걸음으로 침대로 다가와 작은 손전지에 불을 켜고 자기의 눈가까이로 가져갔을 때 민숙이는 전지불빛에 눈이 부셔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다가 피뜩 정신이 든 민숙이는 가까스로 물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6일입니다. 어제 진행된 대의원총선거는 아주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원은 진정제를 주사했고 민숙이는 다시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다.

민숙이가 입원한 해주시인민병원 2층 가운데방은 동쪽에서 솟는 해빛이 제일먼저 비쳐드는 곳이였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황홀한 금빛해살과 함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이 병실에 가득히 놓이군 했다.

의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숙이와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주에 온 남조선의 인민대표들은 끊임없이 민숙이를 찾아왔고 면회를 못해도 향기로운 꽃묶음과 꽃송이들을 호실에 들여보냈다.

장미며 국화, 코스모스, 백일홍… 따뜻한 해살과 함께 풍겨오는 향긋한 꽃향기는 민숙이에게 삶의 희열을 느끼게 했다.

어느날 병원측에서는 박철우와 낯선 한 로인의 병문안을 승인했다.

박철우가 침상으로 다가왔을 때 민숙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물었다.

《혹시 정인이 아버지 소식은 모릅니까?》

《차동무는…》 하고 박철우는 힘겹게 말을 더듬었다.

《차동무는 그만…》

민숙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희생되였는가요?》

《아니, 아닙니다. … 체포되였습니다.》

그날 차상준과 개성의 애국청년들은 채영학을 비롯한 경찰들의 첫 추격을 과감히 물리친 후 속히 철수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민대표들이 무사히 38도선을 넘도록 시간을 더 끌었으며 38도선경계근무와 수색에 동원되였던 《국방군》까지 분산시켜 자기들에게로 유인했던

것이다.

민숙이는 피로웠다. 통일을 위해 장한 일을 하고도 감옥으로 끌려가야 하는 원통함에 심장이 터질듯이 고통스러웠다.

의사와 간호원이 들어와 박철우에게 중환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진정제를 주사했다.

박철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곧 평양으로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민숙이에게 말했다.

《정인이 어머니, 차회장님을 잘 아는분을 모셔왔습니다.》

머리가 허연 로인이 민숙이의 손을 따뜻이 잡았다. 박철우가 얼른 침대곁으로 의자를 가져다가 로인을 앉혔다.

《임자가 차회장의 둘째며느리구만. 우린 처음 만나지만 난 오래전부터 자네에 대해 알고있었네.》

로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내 이름은 옥서근일세. 들어본적이 있나?》

민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로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랬을테지. 난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한번 들으면 헛갈리지 않지. 자네 시아버지 차기완이 가족들에게 내 이름을 말했을리가 없지. …30년전까지 난 마진에서 살다가 그후 대구에서 지냈소. 지금껏 난 자네 시아버지와 손잡고 일해왔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차회장에 대해 잘 알지.》

로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17년 여름 조국땅의 한끝 남해에도 눈부신 서광이 비쳐왔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조선국민회 경상도 구역장이 마진에 온것이였다. 차기완과 옥서근을 비롯한 마진의 유지들과 민족주의운동의 선각자들은 교회의 어느 목사의 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날 마진시에는 조선국민회 지부가 결성되였으며 차기완과 옥서근은 조선국민회 회원이 되였다. …

로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때 구역장이 하는 말이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반일조직에 결속하고 반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

량으로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항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닦아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는게 아니겠소. 그러시면서 실업계에 종사하고있는 회원들은 조선사람들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벌려 금융계를 장악하고 동포기업가들을 도와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산민중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한편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을 잘 결합하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는것이였소. 그이의 가르치심은 그야말로 암흑속의 광명과 같았소. 그후 자네 시아버지 차기완은 그 뜻을 받들어 마진민의소 회장이라는 지위를 리용하여 반일투쟁을 적극 벌렸지.

그후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였을 때 받은 악독한 고문의 후과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신 후 차회장은 그이의 <지원>의 사상을 더 깊이 새기며 조선독립의 길을 꿋꿋이 이어갔소.》

세찬 충격이 민숙이의 가물가물 흐려가던 의식을 되찾아주는듯싶었다.

로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1930년대중엽 남해지구에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이 내려왔소. 그의 지도하에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이 결성되였을 때 차회장은 선참으로 조직성원이 되였소. 그때 그는 일제의 가혹한 폭압으로부터 남해지구의 반일지하조직과 독립운동력량을 보호할데 대한 임무를 받았소. 차회장은 임무의 특수성으로부터 자기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에 붙여야만 하였소. 친우, 친지들은 두말할것없고 집안식구들도 전혀 간파할수 없도록 철저히 위장하였지. 그토록 모든 일에 철저하였기에 그는 일제의 마수로부터 숱한 애국자들을 구출해내고 마진시와 여러 지역의 반일애국력량을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소.》

로인은 민숙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을 이었다.

《1946년 가을이였던것같소. 서울에서 나를 만난 차회장은 여느때없이 흥분하여 자기 둘째며느리를 조직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 그는 자기 며느리가 겉보기에는 얌전하고 어리숙해보여도 아주 총명하고 의지가 강하며 판단력이 정확하다고 자랑하더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었지.

<난 요즘에 와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자기 대에 이룩하지 못하면 자식대에, 손자대에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시던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의 철리를 더더욱 절감하게 되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이야말로 대를 이어가야 할 성업이 아니겠나.>라고 말이요. 참, 아까운 사람을 잃었소. 그는 조국과 겨레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한 순결한 애국자였지. 그는 참된 인간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생을 마쳐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똑똑히 새겨주었네.》…

병원가까이의 어디엔가 설치된 확성기에서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나온다.

력사적인 공화국창건이 선포된 때로부터 매일 매 순간 민숙이의 가슴을 후덥게 하며 심장이 타오르게 하는 영광에 찬 노래였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민숙이의 시선은 먼 남쪽하늘에 머물렀다. 그쪽에서 흰구름 한덩이가 다가오고있다.

어째서인지 민숙이에게는 그 구름이 시아버지 차기완의 모습처럼 안겨들었다. 아마 시아버지의 넋이 저 애국가의 선률을 듣고있다면 흐뭇하게 웃고계실것이다.

저 흰구름아래 부모님들이 계시는 남이섬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그 외진 섬에도 이 노래소리가 전해지고있을것이다.

지금은 비록 령어의 몸이 되였지만 남편 차상준도 이 노래선률을 새겨안으며 교형리들과 꿋꿋이 맞서고있을것이다.

《여보, 당신의 말이 옳았어요.》 하고 민숙이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떳떳하게 산 사람들의 생은 모래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속에 새겨지는것이였어요. 그들의 넋은 후손만대에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죽어도 잃지 않는 영원한 삶을 이어가지요. 자기 조국과 더불어… 자

기 민족과 더불어…》

애국가의 장엄한 선률이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더더욱 우렁차게 하늘땅을 뒤흔든다.

…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력사기록

주체37(1948)년 8월 25일 남북조선 전 지역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총선거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진행된 북조선에서는 유권자총수의 99.97%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인민대표선거에 유권자의 77.52%가 참가하였으며 선출된 대표들이 해주에서 인민대표자대회를 소집하고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사이에 전체 조선인민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호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력사적인 회의에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통일적 중앙정부가 조직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되였다.

장편소설 남해의 오솔길

저 자 현명수
편 집 정성남 편 성 리경순
장 정 김영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9월 27일
발 행 주체111(2022)년 9월 30일

ㄱ－1549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2022, DPR Korea
ISBN 978－9946－31－162－3

ISBN 978-9946-31-162-3